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6 권

제 1 장 새로운 바람(風)과 구름(雲)

주아는 파사 사람의 약을 발랐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었다. 여전히 열이 내리지 않고 헛소리를 했다. 며칠 동안 거친 바닷바람에 시달린 그녀는 오한까지 겹쳤다. 장무기는 자연히 초조해졌다. 사흘째 되는 날,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작은 섬이 보이자 장무기는 즉시 그곳으로 배를 몰도록 분부했다.

육지에 오르자 일행은 다소 마음이 놓였다. 섬의 둘레는 몇 리에 불과했다. 장무기는 주지약에게 주아와 조민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한 후 약초를 찾아나섰다.

그러나 섬에 자생하고 있는 화초는 중원과 판이하게 틀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장무기는 그 중에서 약초가 될 만한 것을 캐느라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서야 몇 가지 약초를 구해 돌로 찧어 주아에게 복용시켰다.

여섯 사람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요기를 채웠다. 교교한 달빛이 뿌려지는 가운데 바람결에 은은한 꽃향기가 실려오니, 갑갑하기만 한 선창과는 달리 별천지에 온 기분이었다. 주아도 한결 정신이 맑아졌다.

"아우 오빠, 오늘 밤은 배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지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바램이었다. 섬에는 사나운 짐승도 없으므로 각자 마음놓고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장무기는 잠에서 깨어나 첫걸음을 옮기자마자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다리가 솜처럼 풀려 후들후들 떨렸다. 여지껏 없었던 증상이었다. 그는 내심 놀라며 눈을 비벼 시야를 넓혀보니, 파사선이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 이렇게 되

자, 그는 더욱 놀라며 해변으로 달려갔다. 역시 배는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는 소리 높여 외쳤다.

"의부님! 별고 없습니까?"

사손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장무기는 황급히 사손이 있던 곳으로 뛰어가 보니 의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것을 확인하자 일단은 안심이 되었다.

조민, 주지약, 주아 세 사람은 어젯밤 멀리 떨어진 바윗돌 위에다 잠자리를 정했다. 장무기가 그곳에 달려가 보니 주지약과 주아만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잠들어 있고, 조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가 더욱 놀란 것은 주아의 얼굴을 자세히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리한 칼날로 그은 십여 줄기의 상흔이 역력히 나 있었다. 장무기가 황급히 맥을 짚어보니 다행하게도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다.

다시 주지약을 살피니, 그녀는 귀에 상처가 나 있고 고운 머리카락이 절반 가량이나 잘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주지약은 얼굴에 미소를 띄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해당화처럼 아름다왔다. 장무기는 내심 아뿔싸를 토하며 황급히 그녀를 깨웠다.

"주 낭자! 주 낭자! 어서 일어나시오!"

그러나 주지약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주지약은 비로소 길게 하품을 하며 깨어나는 듯했으나, 다시 고개가 꺾이며 새근새근 잠을 잤다.

장무기는 그녀들이 미약에 중독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어젯밤 이런 해괴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 온몸이 나른하여 전혀 힘을 쓸 수 없으니 역시 중독된 게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장무기는 주지약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다시 사손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의부님! 의부님!"

사손은 그제서야 깨어나며 어리둥절해 했다.

"아침 일찍부터 웬 수선이냐?"

"큰일났습니다. 우린 함정에 빠졌습니다."

장무기는 파사선이 떠나 버리고, 주아와 주지약이 부상을 입은 일을 대충 얘기해 주었다. 사손은 대뜸 조민에 대해 물었다.

"조 낭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장무기는 울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키며 운공을 시도해 보았지만, 사지가 구름위에 두둥실 떠 있는 듯 힘을 전혀 쓸 수 없었다. 순간 그의 입에서 절로 놀란 외침이 뱉어졌다.

"의부님! 우린 십향연근산의 독을 당한 겁니다!"

육대문파의 고수들이 십향연근산에 의해 만안사에 갇힌 일을, 장무기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사손이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도저히 힘을 쓸 수 없었다. 그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물었다.

"그 도룡도와 의천검은 있느냐?"

장무기가 비로소 살펴보니 보검과 보도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조민마저 자기를 배신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장무기는 치를 떨었으나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는 주아의 상세가 염려되어 다시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주지약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공력이 자기나 의부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늦게 깨어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곧 옷자락

을 찢어 주아의 얼굴에 묻어 있는 핏자국을 닦아 주었다. 그녀 얼굴에 거미줄처럼 그려진 상흔은 모두 실처럼 가늘어, 의천검에 의한 것임이 분명했다.

주아는 자삼용왕 금화파파에게 상처를 입은 후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 그로 인해 체내의 천주독액(千蛛毒液)도 피에 섞여 많이 씻겨진 탓으로, 얼굴이 팅팅 붓는 부종기가 거의 가라앉았다. 요 며칠 동안 그녀는 어릴 적의 예쁘장하던 용모를 되찾았는데, 지금 수십 줄기의 검상이 그어지자 다시 추하고 징그러운 모습으로 변했다.

장무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리고 끝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이를 부드득 갈았다.

'조민! 다시는 내 손에 걸려들지 말아라. 다시 너를 용서한다면 난 맹세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장무기는 길게 숨을 들이켜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지혈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구해 와 입으로 질퍽하게 씹어 주아의 얼굴에 붙여 주었다. 그리고 다시 주지약의 찢어진 귓부리부위와 머리카락이 잘라져 두피가 보이는 부분에 발라 주었다.

주지약은 그제서야 하품을 하며 눈을 떴다. 그녀는 장무기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을 문득 깨닫자, 얼굴이 붉어지며 얼른 그의 손을 밀어냈다.

"왜..... 왜 이러세요!"

한 마디를 내뱉자마자 귀에 통증을 느껴 손으로 만져보더니, 그만 짤막한 비명을 질렀다.

"앗! 어떻게 된 거죠?"

그녀는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힘없이 장무기의 품에 쓰러졌다.

장무기는 그녀를 부축하며 위로해 주었다.

"주 낭자, 두려워할 것 없소."

주지약은 주아의 가공스러운 얼굴을 보자 반사적으로 자신의 얼

굴을 만져 보았다.

"이게..... 나도 저 모양이 되었나요?"

"아니오! 낭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이오."

"그..... 파사국의 악도들이 한 짓인가요? 난 어째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며 울적하게 말했다.

"아마..... 조 낭자가 한 짓인 것 같소. 어젯밤 우리가 먹은 음식에다 독을 풀어넣은 모양이오."

주지약은 잠시 멍해져 있다가 상처난 귀를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장무기는 그녀를 달랬다.

"낭자,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오. 귓부리의 상처는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감쪽같을 것이오."

주지약은 입을 삐쭉거리며 쏘아부쳤다.

"머리카락이라뇨? 머리카락도 없잖아요!"

장무기는 당황해졌으나 얼른 마른침을 삼키며 말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것이오. 그러니 너무 심려 마시오."

주지약이 갑자기 토라졌다.

"내가 왜 머리카락으로 귀의 상처를 가려야 하죠?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당신은 그 계집을 감싸고 돌 생각인가요?"

장무기는 엉뚱하게 무안을 당하자 얼른 변명을 했다.

"난 절대 그녀를 감싸주는 게 아니오. 이렇게 악랄한 수법으로 주아의 얼굴을 난도질했으니, 잔 절대.....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주아의 추하게 변한 얼굴을 보자, 그는 다시 건잡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일단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공을 시도해 보았다. 생각했던 대로 중독 현상이 깊었다.

십향연근산에 중독되면 주민의 독특한 해약을 복용하지 않는 한

독을 제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구양신공을 운용해 독을 몰아내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는 곧 내력을 운용하여 사지백해에 산재돼 있는 독소를 천천히 단전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체외로 배출시켰다. 운공을 한 지 반 시진이 지나자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 장무기는 비로소 다소나마 마음이 놓였다.

그것은 구양신공이 체내에 운집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구양신공을 사손, 주지약에게 나눠 줄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일단 자신의 독을 완전히 제거한 연후에 그들을 도와야만 했다.

체내의 독을 밀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이레가 지났는데 장무기는 체내의 독소를 삼 분의 일 가량 배출했을 뿐이었다. 다행하게도 이 독소는 힘을 쓸 수 없게 할 뿐 몸에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주지약은 매일 짜증을 냈지만, 차츰 체념을 하고 낮에는 사손과 함께 물고기도 잡고 잡일을 도맡아했다. 밤에는 멀리 떨어진 동굴 속에서 혼자 잠을 잤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장무기를 피하려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내심 죄책감을 느꼈다. 조민이 꾸민 흉계지만 모두 자기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생각됐다. 조민은 분명 몽고의 군주로서 명교와는 같은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앙숙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는 그녀에 대해 전혀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으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 부끄럽기만 했다.

사손과 주지약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장무기는 마음이 괴로왔다. 우연히 주지약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죄인이 된 느낌이었다. 주지약의 눈빛은 무언중에 자기를 비웃고 있는 게 분명했다.

----- 당신은 조민의 미색에 현혹되더니, 결국 이런 큰 화를 당

하게 된 거예요! -----

그럴수록 조민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이 눈덩어리처럼 불어 났다.

한편, 주아의 상세는 차츰 더 심해졌다. 이 섬은 남해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모든 화초가 호청우가 의경에 수록한 것들과 달랐다. 그러니 장무기의 의술이 뛰어나다 한들 약초를 구할 수 없으니 소용없는 헛것이었다.

게다가 섬에 자생하는 나무는 한결같이 앉은뱅이처럼 왜소해 그 쓸모가 고작 불을 때는데 국한됐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뗏목을 만들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중원행을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장무기가 차라리 의술을 몰랐다면, 이렇게 안타까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칼로 도리는 듯 마음이 아팠다. 이날 밤도 그는 오열을 퇴치하는 약초를 씹어 주아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러나 주아는 이제 그것마저 삼킬 수 없는 만큼 상세가 악화되었다. 장무기는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쏟아졌다. 그의 눈물이 양볼을 타고 주아의 얼굴에 떨어지자 주아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얼룩져 있었다.

"아우 오빠, 슬퍼할 것 없어요. 난 저승으로 가서 그 야무지고 명이 짧았던 장무기를 찾겠어요. 그를 만나 아우 오빠의 예기를 들려 주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위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요."

장무기는 목이 메었다. 과연 그녀에게 자신이 바로 장무기라고 밝혀야 할지 망설여졌다. 주아는 그의 손을 쥐었다.

"아우 오빠, 난 오빠의 청혼을 여지껏 승락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나를 미워하진 않겠죠? 사실 오빠가 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나처럼 못 생기고 성질도 고약한 계집을 정말 아내로 맞아들이려 하겠어요?"

장무기는 눈물을 삼키며 힘주어 말했다.

"아니야! 내 진심이었다. 너같이 진실하고 정이 많은 낭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게 내 소원이었어. 상처가 완쾌되는대로 혼례를 올리고 싶은데 괜찮겠지?"

주아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내둘렀다.

"아우 오빠, 내가 일부러 혼례를 피하는 게 아네요. 난 이미 그 쌀쌀맞은 장무기에게 마음을 송두리채 주었기 때문에..... 오빠, 웬지 무서워요. 저승으로 가서 정말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납게 대할까요?"

장무기는 그녀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맑고, 양볼에 불그스름하니 홍조가 띄어지는 것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회광반조(廻光返照). 촛불도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광채를 발한다는데, 주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장무기는 머리가 띵해지며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몰랐다. 주아가 그의 손을 잡고 다시 물어오자 비로소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영원히 너를 잘 대해 줄 거야. 너를 금지옥엽처럼 소중히 생각할 거야."

"오빠가 나에게 해준 절반 만큼 잘 대해 줄까요?"

"장무기는 하늘에 맹세코 성심성의껏 너를 보살펴 줄 거야. 내가 여지껏 네게 해준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주아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더니, 입가에 다시 미소가 피어 올랐다.

"그..... 그러면 안심이예요."

장무기의 손을 잡았던 손을 천천히 풀며 주아는 눈을 감았다. 끝내 호흡이 멎은 것이다.

장무기는 그녀의 시신을 왈칵 끌어안았다. 억제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주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장무기라는 사실을 모른 채 눈을 감은 것이다. 근래 며칠 동안 그녀는 줄곧 혼

수상태에 있었으므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임종을 앞두고 맑은 정신이 돌아왔으나 역시 애기할 새가 없었다. 하기야 지금에 와서 그 사실을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그로 인해 장무기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조민이 그녀의 얼굴에 새로운 상처를 만들지 않았다면, 목숨까지 잃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민이 우리를 이 외딴 섬에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다면 벌써 중원에 닿았을 것이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살렸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장무기의 눈에서 원독의 불길이 뿜어졌다.

"조민! 이 사갈보다 악랄한 계집, 언젠가 내 손에 걸리면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그의 한맺힌 절규가 끝나는 순간, 등 뒤에서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막상 그녀의 꽃같은 얼굴을 보면 마음이 달라질걸요?"

몸을 돌려보니 주지약이 경멸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장무기는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웠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

"난 사촌누이의 시신 앞에서 다시 맹세컨데, 그 요녀를 죽이지 않으면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으리다."

주지약은 냉소를 날렸다.

"과연 그 말을 실천에 옮길 배짱이 있는지 두고 보면 알겠군요."

그녀는 앞으로 성큼 걸어와 주아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사손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역시 상심해 했다.

장무기는 언덕배기 양지바른 곳에 얕은 구덩이를 파서 그녀의 시신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혈흔이 낭자한 그녀의 얼굴을 보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관도 없으니 흙과 돌이 얼굴에 닿으면 얼마나 아파할까?'

장무기는 나뭇 가지를 꺾어 구덩이에 즐비하게 가로걸치고 나서 그 위에다 돌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주아는 비록숨이 끊어졌지만, 장무기는 자꾸만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돌무덤을 쌓고 나서 장무기는 나무줄기를 잘라 껍질을 벗긴 후, 주아의 비수로 몇 글자 새겼다.

----- 망처주아은리지묘(忘妻蛛兒殷離之墓) -----

그는 스스로 주아(은리)의 남편으로 자처했다. 그것만이 주아를 위한 마지막 애정이라 생각했다. 묘비까지 세우고 나서 장무기는 엎드려 곡을 했다. 주지약이 옆에서 그를 위로했다.

"당신은 은 낭자에게 인의(仁義)를 다했어요. 그녀는 저승에서나마 편히 눈을 감을 거예요. 앞으로 조민을 죽여 그녀를 위해 복수해 주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주지약의 눈동자에 웬지 모르게 불안한 빛이 깔려 있었다.

장무기는 체내의 독을 제거하는 일에 열중했다. 다시 십여 일이 지났다.

섬의 기후가 무더워 야생하는 과일이 많았다. 그 덕분에 식생활은 무난히 해결되었다. 주아가 죽은 후로부터 주지약은 장무기를 비교적 부드럽게 대해 주었다.

장무기는 구양신공으로 사손 체내의 독을 제거해 준 후에 마땅히 주지약을 도와야만 했다. 그러나 독을 제거하자면, 한 손은 상대방 허리 뒤쪽에 붙여야 하며, 한 손은 배꼽 아랫 부위에 붙여야만 했다. 장무기로선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문제로 인해 장무기는 며칠을 두고 고심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밤, 사손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 왔다.

"무기야, 우리가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물러야 될 것 같느냐?"

장무기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글쎄요. 하루 속히 이 근방을 지나는 배를 만나 중원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간 한 달 남짓이 지났지만, 배를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물론 운이 좋으면 내일이라도 배를 만날 수 있겠지만, 수십 년간 배를 구경 못할지도 모른다."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섬은 바다 한 가운데 떠 있어 해선(海船)의 항로에서 크게 벗어났으니, 우리가 살아 생전 과연 중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해약을 구하는 일도 자연히 포기해야 마땅하겠구나. 십향연근산의 독소가 체내에 남아 있으면, 사지가 나른해지는 증세 외에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 모르겠구나?"

장무기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시일을 오래 끌지 않으면 별다른 해가 없겠지만, 모든 독소는 뼈를 삭이는 작용을 하므로 오랜시간이 경과되면 오장육부에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손은 여지껏 늘어놓았던 서론을 정리하듯 본론을 꺼냈다.

"그러니, 하루속히 주 낭자의 독을 제거해 줘야 할 게 아니냐? 주 낭자는 너와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었으며, 네가 현명패천장의 한독으로 고생할 때 은혜를 베푼 바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녀와 같이 온순하고 덕을 지닌 요조숙녀도 흔치 않을 것이다. 혹시 그녀의 용모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장무기는 당치도 않다는 듯이 얼른 고개를 내둘렀다.

'아닙니다. 주 낭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녀만치 빼어난 용

모를 지닌 낭자도 드물 겁니다."

사손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일만큼은 내가 독선을 부리겠다. 그러니 여러 생각말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라. 그러면 독을 제거하는 일도 자연히 해결될 거 아니겠느냐?"

주지약은 줄곧 옆에 있었다. 그녀는 사손의 단도직입적인 말을 듣자,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횡하니 돌아서 달아나려 했다.

사손이 적시에 그녀의 앞을 가로 막았다. 그는 너털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당사자가 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하나? 오늘 이 중매장이가 기필코 일을 성사시켜야겠네."

주지약은 입을 삐쭉거리며 곱게 눈을 흘겼다.

"사 어르신네, 정말 주책이시군요. 우린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원으로 돌아가는 게 급선무인데,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해요?!"

사손은 다시 껄껄 웃었다.

"남녀가 화합하는 것은 신성한 인륜대사이거늘, 어째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는 거지? 무기야, 너의 부모님도 무인도에서 혼례를 올렸다. 그들이 세속적인 예법을 간과하지 않았다면, 네 녀석이 세상에 태어났을 리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오늘의 혼사는 이 의부가 직접 주선한 것이 아니냐? 혹시 주 낭자가 눈에 차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냐? 아니면 주 낭자 체내의 독을 제거해 주기 싫어서 그러느냐?"

주지약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다시 달아나려 했으나 사손이 소매를 붙잡았다.

"당장 이 자리를 피한다 해도, 우린 내일이면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음..... 이제보니 이 봉사 늙은이를 시아버님으로 모시기 싫은 모양이군?"

주지약은 당황해졌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 어른신네는 당세의 호걸로서....."

사손은 다짐을 받듯 물었다.

"그렇다면 승락하는 거지?"

주지약은 도리질을 하며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아니에요."

사손은 일부러 성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내 양아들이 낭자의 신랑감으로 부족하다는 뜻인가?"

주지약은 아랫 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장공자는 무공이 탁월하고 사람됨이 인의로와 전혀 나무랄데 없는 인물이에요. 단지... 단지....."

사손이 다그쳤다.

'단지 뭐란 말인가?"

주지약은 힐끗 장무기를 쳐다보고 나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그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조민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손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조민 그 교활한 계집으로 인해 우리가 이런 고생을 겪고 있는데, 설마 무기가 아직도 그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을 리가 있겠나? 무기야, 네가 직접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솔직히 털어놔 봐라."

장무기는 갈등이 일었다. 조민의 달콤한 미소와 매혹적인 눈망울, 그리고 자신이 손에 쥐었던 그녀의 예쁜 맨발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선혈로 낭자한 주아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위에 크게 확대되어 자신을 짓눌러오자, 얼른 단호하게 말을 내뱉었다.

"조민은 나의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기필코 그녀를 죽여 누이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주 낭자, 똑똑히 들었는가? 이래도 그 몹쓸 계집이 마음에 걸리나?"
주지약은 다시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가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설령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아 독을 제거하지 않겠어요."
사손은 즉시 명령투로 말했다.
"무기야, 어서 맹세를 해라!"
장무기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낭랑한 음성으로 힘주어 말했다.
"요녀 조민은 몽고 오랑캐 황실의 앞잡이로서, 우리 한인을 괴롭혀 왔으며 많은 무림 협사를 상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의부님의 보도를 훔쳐갔고 사촌누이의 목숨마저 앗아갔으니, 나 장무기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원한을 잊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시엔 천벌을 받아 횡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지약은 그제서야 생긋이 웃었다.
"설마 그녀를 보는 순간 지금의 맹세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사손은 그녀의 확답을 받은 거나 다를 바 없다고 간주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특히 우리 강호인들은 자질구레한 세속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 오늘 당장 혼례를 올리도록 하게. 그래야지만 하루 속히 십향연근산의 독을 제거할 수 있을 걸세."
장무기는 정색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아닙니다. 의부님, 주 낭자, 우선 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아는 그 동안 저에게 깊은 정을 쏟아왔습니다. 우린 어릴 적부터

이미 상대방을 영원한 반려자로 생각해 왔습니다. 비록 혼례를 올리지 않았지만, 명분상 부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그녀의 시신이 미처 식기도 전에 내 어찌 다른 낭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혼례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손은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입을 열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군. 그럼 너의 생각으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

장무기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의 생각 같아선, 우리가 요행히 중원으로 돌아가 조민을 죽이고 도룡도를 되찾은 연후에 다시 주 낭자와 혼례를 올리면 보다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손은 빙긋이 웃었다.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십 년이 넘도록 중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장무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삼 년 후에도 우리가 이 섬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면, 의부님께서 저희들의 혼례를 주선해 주십시오."

사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주지약에게 물었다.

"주 낭자의 의견은 어떤가?"

주지약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의지할 곳이 없는 외톨인데, 스스로 무슨 주장을 내세우겠어요? 모든 것을 어르신네의 분부에 따를 뿐이에요."

사손은 흐뭇해 하며 껄껄 웃었다.

"좋아, 좋아! 우리 세 사람이 이 자리에서 아예 약속을 하지. 자, 이제부터 나제들은 남남이 아니니 공연한 일로 쑥스러워할 것 없다. 무기야, 어서 내 며느리의 독을 제거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더니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려는 듯 성큼성큼 뒷산으로 걸어갔다.

단둘이 남게 되자 장무기가 잠깐 침묵을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지약, 내 고충을 이해해 주겠소?"

주지약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내가 못 생겼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미루는 게 아닌가요? 만약 내가 조 낭자였더라면, 오늘 밤에 이미....."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장무기는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난 한때나마 네 명의 미녀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할 망상을 갖고 있었다. 사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그 악마같은 요녀였으니..... 미색에 눈이 어두워 선악을 구분 못한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구나.'

주지약은 고개를 돌려 그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자, 조용히 떠나가려 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나꿔잡았다. 주지약은 공력이 회복되지 않아 그가 잡아 끄는 바람에 비틀거리며 그만 그의 품안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몸부림쳤으나 소용이 없자, 눈을 곱게 흘기며 쏘아부쳤다.

"이젠 노골적으로 나한테 경박한 행동을 하시는군요!"

그녀의 토라진 모습은 요염해 보이기까지 했다. 장무기는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뜨거운 감정이 용솟음쳐 올라, 그녀의 가냘픈 몸을 끌어안고 나직이 말했다.

"지약, 우리가 어릴 적에 한수(漢水)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오늘 같은 결과를 낳을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광명정에서 내 목숨을 구해 줄 당시만 해도 그저 감사를 느꼈을 뿐 감히 다른 망상을 갖지 못했었소."

주지약은 다소곳이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날 난 당신에게 일검을 찔렀는데, 그 일로 인해 나한테 원한을 품지 않았나요?"

장무기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당시 나의 급소를 피해 검이 날아왔을 때, 나에게 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챘소."

주지약은 흥! 하고 코웃음을 날렸지만,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때 아예 급소를 노리는 건데, 앞으로 무궁한 세월을 당신에게 시달릴 생각을 하니, 당시 자비를 베푼 것이 후회스러워지는군요."

장무기는 두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바싹 끌어안았다.

"앞으로 난 모든 걸 바쳐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는데, 누가 누구의 시달림을 받겠소?"

주지약은 깨를 뒤로 젖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당신은 나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죽이진 않겠죠?"

장무기는 지척에 있는 그녀의 얼굴에서 은은한 난초의 향기가 풍겨오는 것 같아, 그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다.

"당신같이 온순하고 현숙한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저지를 리가 있겠소?"

주지약은 섬섬옥수로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소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 나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 버릇없이 자랐기 때문에 언제 잘못을 저지르게 될지 불안이 앞서요."

"설령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난 좋게 타이르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오."

"그러한 마음이 언제까지 변함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나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당신이 꼭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무기는 그녀의 고운 이마에 다시 입맞춤을 했다.
"그것은 공연한 생각이오. 내 어찌 그런 야만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겠소?"
주지약은 이상하리 만치 이 문제에 집착했다.
"그럼 사내 대장부로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서편 하늘에 모습을 드러낸 반달을 가리켰다.
"하늘의 달님이 우리 두 사람의 증인이 되어 줄 거예요."
장무기는 여전히 그녀를 품안에 안고 달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 말이 맞소. 저 달이 나의 진심을 증명할 것이오. 지약, 난 여지껏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만을 당했으며 숱한 고생을 겪었소. 나에게 한때나마 행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빙화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한 것이 고작일 것이오. 그렇게 믿었던 조민마저도 나를 철저하게 우롱했으니....."
주지약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두 팔로 그의 듬직한 가슴을 끌어 안았다.
"앞으로 내가 당신 가슴에 행복을 채워드리겠어요."
장무기는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주지약을 사랑해 주고 싶었다.
"지약, 당신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반려자요. 당신은 줄곧 나에게 베풀어 주기만 했소.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난 행복의 의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을 나에게 주신 하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뿐이오."
주지약은 고개를 내둘렀다.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나쁜 여자에요. 어쩌면 당신은 나로 인해 불행을 맛보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영롱한 이슬이 맺혔다.

장무기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의 몸을 포근히 감싸주었다.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 교교했다. 장무기의 귓전에 파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주지약의 가슴이 뛰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자신의 가슴이 뛰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하나가되어 한참 동안 달빛에 젖어 있었다.

다음날 장무기는 조용한 동굴 속에서 구양신공을 운공해 주지약을 위하여 독을 제거하는 일을 착수했다. 비록 옷을 입은 상태지만 장무기의 손길이 처음 몸에 닿는 순간, 주지약은 가늘게 떨었다.

장무기 역시 처음엔 가슴이 두근거렸다. 특히 배꼽 아랫부위는 여인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금단의 성역이 아닌가! 장무기는 손바닥을 통하여 그녀의 뜨거운 피와 뜨거운 숨결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곧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운공에만 전념했다.

주지약의 중독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것은 십향연근산을 풀어놓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은 탓이라 생각됐다.

이날부터 주지약은 장무기에게 몸을 맡겼고, 장무기는 그녀를 위해 열심히 독을 제거해 주었다.

그런데 이레째 되는 날이었다. 주지약의 체내에서 갑자기 한 갈래의 이상한 기운이 뻗어나왔다. 그것은 장무기의 구양진기와 상충되는 음한지기(陰寒之氣)였다. 주지약은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구양진기를 체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부에게 달려가 까닭을 물었다. 사손은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나도 확실한 원인을 모르겠구나. 아마 아미파의 역대 장문인이 모두 여자이므로, 그들이 연마한 내력이 너무 음유

(陰柔)한 쪽에 치우쳤던 탓일 것이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행하게도 주지약의 내력은 그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무기는 구양신공을 최고 경지로 끌어올려 그녀 체내에 유전되고 있는 음한지기를 억지로나마 누를 수가 있었다. 그러자니 사손을 도와 독을 제거해 주었을 때보다 훨씬 어려웠다.
 장무기는 그녀 체내에 잠재해 있는 음유한 힘이 비록 아직은 약하지만, 차후에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절로 탄복해 마지 않았다.
 "지약, 존사인 멸절사태는 역시 불가일세(不可一世)한 기인이오. 그가 지약에게 전수해 준 내공이 고심막측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 지금 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열심히 내력을 쌓아나간다면, 장차 나의 구양신공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게 분명하오."
 주지약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나를 놀리시는 거겠죠. 아미파의 무학이 어떻게 장교주의 구양신공과 건곤이위신공에 비교가 되겠어요?"
 장무기는 진지했다.
 "지약은 아직 무공 초식 면에서는 배운 게 많지 않지만, 내공의 기초를 아주 견실하게 다져놓았소. 나의 태사부님의 말을 빌리면, 똑같은 무학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자질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소. 내가 보기에 지약의 무학은 나중에 필시 영사이신 멸절사태를 능가할 것이오."
 주지약은 눈을 곱게 흘겼다.
 "일부러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솔직히 말해 난 무공이 유별나게 고강한 것을 원치도 않아요. 다만 스승님의 근처만 따라갈 수 있어도 만족할 거예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구양

신공이나 건곤이위신공을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설령 한, 두 수라 할지라도 나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장무기는 생각에 잠기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주지약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장난기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이 우둔한 주지약이 장교주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나 보죠?"
장무기는 고개를 내둘렀다.
"그게 아니라 지약의 내공이 내가 쌓은 내공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 지금에 와서 다시 나의 무공을 배우게 된다면 그보다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오."
"가르쳐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곧이 그런 구실을 갖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무학이라면 배울 수 없는 게 고작일 텐데,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장무기는 정색을 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오. 나의 구양신공은 순수한 양강(陽剛)의 내공으로서 지약이 연마한 아미파의 순수한 음유지공(陰柔之功)과는 서로 상반되므로, 나의 태사부님 같은 무학의 가재라면 그 두 가지 상반된 무공을 동시에 연마하여 수화상제(水火相濟) 강유상조(剛柔相助)의 경지를 이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화입마(朱火入魔)되어 목숨을 잃거나 폐인이 되기 십상이오. 그 대신 지약이 내공을 상당한 경지로 끌어올리는 날 건곤이위신공의 심법을 전수해 줄 수는 있소."
주지약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장난삼아 해본 얘기에요. 앞으로 난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텐데 당신의 무공과 나의 무공이 무슨 구별이 있겠어요? 난 본디 게으르기 때문에, 설령 구양신공을 연마하라고 강요한다 해도 꽁무니를 뺄 거예요."
장무기는 그녀의 말에 가슴 뿌듯한 행복감을 느꼈다.
행복한 나날을 빨리 지나가기 마련이다. 장무기 일행이 무인도

에 발을 내딛은지도 어느덧 몇 달이 지났다. 주지약은 자신의 내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다. 그 동안 장무기는 꾸준히 그녀의 독을 제거해 주는 일을 도왔지만, 그 이상의 선을 넘지는 않았다.

이날 섬 동쪽에 복사꽃이 유난히 아름답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장무기는 복사꽃 가지를 한아름 꺾어 주아의 무덤을 찾았다. 그가 무덤 앞에 세워놓았던 나무 줄기로 된 묘비가 이상하게도 한쪽에 쓰러져 있었다. 장무기는 짐승들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다시 똑바로 세워놓았다. 살아 생전 편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저승으로 가버린 주아를 생각하니 새삼 가슴이 아팠다.

그가 울적한 심정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바다 쪽에서 갈매기 떼가 요란하게 날개짓을 하며 울어 대는 것이 들려와 고개를 돌려보니, 뜻밖에도 배 한 척이 바람을 타고 미끄러져 오는 게 아닌가! 장무기는 뛸 듯이 기뻐하며 얼른 소리 높여 외쳤다.

"의부님! 지약! 배가 오고 있습니다! 배가 와요!"

사손과 주지약은 즉시 그의 곁으로 달려왔다. 주지약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웬 배가 이런 외딴섬을 향해 오고 있죠?"

장무기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바가 아니었다.

"글쎄..... 혹시 해적선이 아닐지.....?"

얼마 후 범선이 섬 가까이서 닻을 내렸다. 그러자 한 척의 작은 배가 범선에서 떨어져 나와 물살을 헤치며 미끄러져 왔다.

작은 배를 몰고 온 사람들은 모두 몽고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선뜩 뇌리에 와닿는 바가 있었다.

'조민이 뒤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시 섬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그는 곁눈질로 주지약의 표정을 살펴보니, 그녀는 눈살을 찌푸린 채 큰 근심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육지로 올라온 다섯 명의 병사 중에서 수군군관(水軍軍官)인 듯한 자가 장무기에게 공손히 몸을 숙이며 물었다.
"혹시 장무기 장공자가 아니십니까!"
장무기는 부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소만 귀하는 누군지.....?"
상대방은 장무기를 확인하자 몹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소인의 이름은 발속대(拔速台)라 합니다. 이렇게 공자를 찾아내게 된 것은 실로 행운입니다. 소인은 분부를 받들어 장공자와 사대협을 중원으로 모셔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는 주지약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었다.
"이곳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그런데 누구의 분부에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인지.....?"
발속대는 지체없이 대답했다.
"소인은 복건성(福建城)의 달화적노(達花赤魯) 수군 제독의 수하인데, 대도(大都)에 계신 발이도사(勃爾都思) 장군의 명을 받아 출해하게 된 겁니다. 발이도사 장군께선 모두 여덟 척의 해선을 바다로 내보내 장공자와 사대협을 찾아 모서오라고 명하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중에서 소인이 공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 무슨 장군께서 상을 내건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몽고 장군들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조민의 분부에 따라 명령을 내린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귀하의 상사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오라고 했는지 알고 있소이까?"
발속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발이도사 장군께서는 장공자가 아주 귀하신 분이며 당세에 첫손 꼽는 영웅 호걸이라면서, 만약 장공자를 찾게 된다면 소인더러 정중히 모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외에 무엇때문에 장공자

를 중원으로 모셔오시라고 했는지는 소인의 직책이 미천하여 자세한 지시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지약이 이들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었다.

"혹시 소민군주(紹敏郡主)의 뜻이 아닌가요?"

발속대는 멍해졌다.

"소민군주라뇨? 소인은 워낙 복이 없는 놈이라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주지약은 냉랭하게 말했다.

"복이 없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발속대는 멋적은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소민군주는 우리 몽고의 제일 미인입니다. 아니, 천하에서 그분보다 더 아름다운 미인은 없을 겁니다. 문무를 겸비했을 뿐 아니라 여양왕의 금지옥엽입니다. 소인처럼 박복한 자가 어찌 군주의 그림자조차 뵈올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주지약은 흥! 하고 냉소를 날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무기가 사손에게 고개를 돌렸다.

"의부님, 그럼 배에 오르도록 하시죠."

사손은 턱을 한 차례 끄덕였다.

"우선 동굴로 가서 봇짐을 챙겨야 하니, 이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라."

발속대가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소인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손은 담담하게 웃으며 사양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네. 우리가 가서 간단하게 챙겨 갖고 오겠네."

그는 장무기와 주지약의 손을 잡고 산 뒤로 들어갔다.

"조민이 갑자기 배를 보내온 것은 필시 다른 음모가 있기 때문

이야. 너희들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냐?"

장무기가 대답했다.

"의부님, 조..... 조민이 범선에 있을까요?"

사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요녀가 배에 있다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 어쨌든 배에 오르더라도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 원칙만 고수한다면 다시는 어처구니 없이 당하진 않을 것이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모아두었던 음식을 배로 갖고 갑시다. 식수도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손은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 조민은 배에 없을 것이다. 그 계집은 파사 사람들이 한 짓을 그대로 재현할 속셈으로, 우리를 배로 유인한 연후에 바다 한가운데서 몽고의 군선(軍船)을 시켜 우리의 배에 발포케 하여 침몰시키려고 할 게 뻔하다."

장무기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가..... 그렇기도 악랄하단 말입니까? 우리를 그냥 이곳에 내버려두면 영원히 중원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구태여 악랄한 살수까지..... 우리가 대관절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군요."

사손은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네가 만안사에 갇혀 있던 육대문파의 고수들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그 요녀가 원한을 품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명교의 교주가 별안간 실종되었으니 모든 교도들이 백방으로 찾아나설 것이며, 언젠가는 이곳 외딴섬까지 찾아 올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를 죽여 후환을 없애려는 심산임에 분명하다."

장무기는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발포하면, 발속대와 몽고 병사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사손은 껄껄 웃더니, 곧 장탄식을 했다.

"무기야,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적을 위해 몇몇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따위의 일쯤은 서슴치 않는다. 너처럼 매사에 인의를 앞세운다면, 애당초 몽고인이 우리의 강산을 차지하고 도처에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 자고로 만천하에 명성을 날린 영웅들은 무엇보다도 결단력이 뛰어났단다. 그들은 매사에 망설임이 없었지. 관병의 목숨 따위는 고사하고, 필요하다면 심지어 자신의 부모와 자식의 목숨까지도 제물로 바칠 것이다."

장무기는 그의 말에 잠시 아연해 있다가 시무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부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는 몽고인이 매우 잔인하다는 것을 일찌기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하에 대해서는 성심껏 보살펴 주리라 생각했는데, 사손의 말을 듣고 나니 그 비정함에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다. 자기가 이번에 중원으로 돌아가면 무림의 군호들을 이끌고 몽고 오랑캐를 중원에서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겠지만, 만약 자기더러 천하를 다스리라 한다면 도저히 자신감이 없었다.

주지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의부님,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사손이 그녀에게 반문했다.

"며늘애야, 너에게 혹시 무슨 묘책이 없느냐?"

주지약이 소극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배에 오르는 것을 거절하면 어떨까요? 그 몽고 군관에게 우린 이곳이 더 좋으니, 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손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가 배에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물론 그들과 싸워 모조리 죽여 버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요녀가 다시 수십 척의 군선을 보내올 수도 있잖겠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기가 중원으로 돌아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데 있다. 이곳에 남아 늙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느냐?"

주지약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

"역시 의부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들은 의부님의 분부에 따르겠어요."

사손은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여차여차하는 게 어떻겠느냐?"

장무기와 주지약은 그가 제시한 방법을 듣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장무기는 곧 주아의 무덤을 찾아가 눈물을 뿌리며 이별을 고했다. 이어 그들은 범선에 올랐다. 주지약은 섬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많은 목각인형을 만들었는데, 한 보따리 짊어지고 배에 올랐다.

장무기는 모든 선창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조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병졸과 수부(水夫)들은 모두 무공을 지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특별히 경계할 만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닻을 올리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가자 장무기가 갑자기 발속대의 맥문을 나꿔잡아 다른 손으로 그의 칼을 뽑아 목을 겨냥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어서 부하들에게 배를 동쪽으로 돌리라고 하시오!"

발속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장공자, 소...소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여러 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허튼 수작을 부리

면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을 각오하시오!"

"네! 네!"

발속대는 황급히 대답하며 수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어...어서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려라!"

수부들은 순순히 그의 명령에 따라 뱃머리를 돌렸다. 장무기가 다시 위엄있는 음성으로 다그쳤다.

"너희들이 나를 헤치려는 흉계를 이미 간파했으니, 모든 것을 순순히 털어놓아라! 만약 거짓이 있을 시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말을 끝내기 무섭게 오른손으로 선창을 내리치자, 나무조각이 흩날리는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다.

주위에 있는 몽고 병졸들은 모두 대경실색했다. 발속대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공자, 굽어 살펴주십시오. 소인은 단지 상사의 명에 따라 공자를 중원으로 모셔가려는 것뿐이며, 절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소인은 이번 일로 공을 세워 상사로부터 상을 받을 욕심 외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무기는 그의 진지한 언동에서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돼 손목을 풀어 주고, 뱃머리 쪽으로 걸어가 좌우 양손에 제각기 육중한 닻을 집어 들었다.

"자,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그의 외침이 뱉어지자마자 두 개의 닻을 허공으로 던졌다. 주위에 있는 몽고 병졸들은 일제히 놀란 외침을 발했다. 백여 근이 넘는 닻이 떨어지는 순간, 장무기는 건곤이위신공을 전개해 쌍장을 교차시켜 떨쳐내자 닻이 다시 허공으로 높이 치솟아 올랐다. 이렇게 세 번을 거듭한 후 가뿐하게 닻을 받아 뱃머리에 내려놓았다.

몽고인은 무(武)로 천하를 장악했듯이 용무지사(勇武之士)를 가

장 숭배했다. 그들은 장무기의 가공할 무공을 보자 일제히 갑판에 엎드려 승복을 표하며 감히 엉뚱한 생각을 가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범선은 계속 해가 뜨는 동쪽으로 향했다. 사흘 동안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맞닿은 망망대해뿐이었다. 사손의 추측대로라면 조민이 배치해 놓은 군선은 필시 복건성과 절강성에 포진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망망대해에서는 군선과 맞닥뜨릴 염려가 없었다.

닷새째 되는 날, 장무기는 비로소 뱃머리를 북쪽으로 꺾도록 명령했다.

북쪽으로 방향을 택해 쉬지 않고 스무 날을 항진했다. 조민이 제아무리 심계가 깊다 해도,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 중원 땅에 닿으리라곤 생각지 못할 것이다.

그 동안 장무기 등은 섬에서 갖고 온 양식을 먹거나 바다에서 신선한 물고기를 잡아 요기를 채웠다. 배에 비축돼 있는 음식에는 일체 입을 대지 않았다.

이날 정오 무렵 멀리 육지가 보였다. 몽고 병정들은 오랜 항해 끝에 육지로 돌아오자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해가 서산 마루로 기울쯤에 범선은 연안에 닿았다. 이 일대는 수심이 깊어 큰 배를 직접 육지 가까이 몰고 갈 수 있었다.

"무기야, 네가 우선 육지에 올라가 살펴보고 오너라."

사손이 시키는 대로 장무기는 육지로 몸을 날렸다.

그는 신법을 전개해 조심스럽게 바닷가 주변을 살폈다. 주위는 온통 울울창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땅에 쌓였던 눈이 녹은 탓인지 질퍽했다. 멀리 나갈수록 숲은 태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장정 몇 사람이 팔을 벌려 맞잡아야지만 안을 수 있는 아름드리 고송(古松)이 하늘을 가린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높은 나무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생각대로 온통 끝없는 송림이었다. 사람의 그림자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자, 장무기는 다시 범선으로 돌아갔다.

한데 그가 범선이 정박돼 있는 해변에 가까이 이르렀을때, 난데없이 처절한 비명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장무기는 흠칫 놀랐다. 비명소리는 바로 범선 안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단정의 진기를 맹렬히 끌어올려 한 줄기 바람으로 화해 범선 위로 덮쳐갔다.

범선 갑판과 뱃머리 곳곳에는 시체가 널부러져 있었다. 발속대를 비롯해 모두 몽고 관졸들의 시체였다.

사손과 주지약은 멀쩡하게 한쪽에 서 있었으며,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가 경악하며 물었다.

"의부님, 괜찮습니까? 그런데 배를 기습한 적은 어디로 갔죠?"

사손이 퉁명스럽게 그의 말을 받았다.

"적은 무슨 적이냐? 적을 발견했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 몽고인들을 죽인.....!"

"우리 두 사람이 죽인 것이다."

장무기는 더욱 의아해 했다.

"그럼 이 몽고 병졸들이 육지에 닿자마자 엉뚱한 행동을 취했단 말입니까?"

사손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들이 감히 무슨 행동을 취하겠느냐? 내가 그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 저승으로 보낸 것이다. 이들이 죽으므로 해서 조민은 우리가 중원으로 들어온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암암리에 행동하기가 한결 편리할 것이다."

장무기는 입이 딱 벌어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손은 다시 담담하게 말했다.

"내 수단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느냐? 오랑캐의 관졸은 우리

의 적이다. 우리가 굳이 보살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는 없다."

장무기는 웬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발속대 등은 비록 적이었지만 모두 고분고분하여, 구태여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손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힘주어 말했다.

"양소비군자(量小非君子) 무독불장부(無毒不丈夫)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담량이 작으면 군자가 아니고, 독하지 않으면 장부가 아니라 했다.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조민이 우리에게 악랄한 행동을 취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앙갚음을 해야 한다."

장무기는 계속 침묵만 지킬 수 없었다.

"의부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발속대 등의 시체를 보자 콧등이 시큰해지며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사손이 일방적으로 제의했다.

"배에다 불을 질러야겠다. 지약아, 놈들의 시체를 뒤져 금은을 찾아내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 칼을 세 자루 추려 내도록 해라."

두 사람은 곧 배에 불을 질렀다. 선체가 제법 컸으므로 삼경반야가 돼서야 불이 꺼지며 배와 시체가 모두 잿더미로 화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육안으로는 그들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장무기는 의부님의 철두철미한 일처리에 새삼 느끼는 바가 있었다. 역시 강호에서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 생각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배울 점이 많았다.

세 사람은 가까운 숲속에서 새우잠을 자고 나서, 날이 밝자마자 숲을 뚫고 남쪽으로 향했다. 이틀째 되는 날, 그들은 비로소 대여섯 명의 심마니들을 만나 물어보니 이곳이 요동(遼東) 땅이며 장백산(長白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심마니들과 헤어지자 주지약이 사손에게 물었다.
"의부님, 저들도 죽여서 입을 봉해야 하나요?"
이 말에 장무기가 펄쩍 뛰었다.
"그게 무슨 망언이오?! 저 심마니들은 우리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잖소? 앞으로 우리와 맞닥뜨리는 사람을 모조리 죽일 심산이란 말이오?"
주지약은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장무기가 이같이 신랄하게 자기를 꾸짖기는 처음이었다.
사손이 주지약의 어색한 입장을 모면시켜 주려는 듯 얼른 나섰다.
"나도 솔직히 말해 그들을 죽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교주가 많은 살상을 원치 않으니 우린 속히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원래의 모습을 감추어야겠다."
세 사람은 곧 걸음을 재촉하였다. 이들은 이틀 후에야 겨우 숲을 벗어날 수 있었다. 다시 하루 정도 걷자 비로소 농가가 나타났다. 장무기는 여러 집을 들러 은자를 두둑히 주고 헌 옷을 구할 수가 있었다.
주지약은 항상 몸단장을 깨끗히 해 왔기 때문에, 땀냄새에 저린 촌부(村婦)의 옷으로 갈아입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아야만 했다.
사손은 다시 두 사람에게 얼굴에 덕지덕지 흙칠을 하고 봉두난발을 하도록 명했다. 가까이 있는 수면에 자신의 얼굴을 비쳐본 장무기는,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둔갑한 자신의 모습에 아연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 정도면 설령 조민과 마주친다 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장무기 일행은 계속 남쪽으로 향하여 만리장성 안으로 접어들어, 이날 어느 큰 고을에 당도했다.
시장기를 느낀 세 사람은 우선 눈에 띄는 큰 주루를 찾아 들었

다. 장무기는 대뜸 석 냥 가량 되는 은자를 주루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선불을 할 테니, 음식을 먹고 나서 나머지를 거슬러 가겠소."
그는 자신의 남루한 차림새를 감안해 거렁뱅이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식대를 지불한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루의 주인장인 듯한 배불뚝이 중년인이 공손하게 일어나 그에게 은자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닌가!
"나으리들이 모처럼 저희 집을 찾아주셨는데, 대접도 변변찮게 해드리면서 어찌 은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서 거두어 주십시오."
장무기는 의아해 했다. 그는 자리에 앉은 후 나직이 주지약에게 물었다.
"이곳의 주인장이 왜 우리의 은자를 받지 않는지 모르겠소. 혹시 우리의 신분을 알아차린 게 아닌지 모르겠구료?"
주지약은 자신과 장무기, 그리고 사손의 모습을 새삼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느 모로 보나 영락없는 거렁뱅이였다. 사손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주인장의 말투를 들어보니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조심해야겠다."
이때였다. 층계를 밟는 발자국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칠, 팔 명이 기세당당하게 주루 이층으로 올라왔다. 공교롭게도 그들 역시 거렁뱅이 차림이었다. 그들은 마치 첩집 안방으로 들어온 듯 거드름을 피우며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점원이 굽실거리며 위장된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쨌든 그들을 고관대작 모시듯 깍듯이 대했다.
장무기는 자연히 이 거렁뱅이들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게 되었다. 순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예사 거렁뱅이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등에 다섯 개의 포대를 둘러멘 자가 있는가

하면, 여섯 개의 포대를 둘러멘 사람도 있었다. 알고보니 모두 개방에서 상당한 직위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장무기가 주문한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다시 대여섯 명의 개방 제자가 나타나더니, 잇따라 또 삼삼오오 짝을 지어 올라왔다. 삽시간에 삼십여 명의 개방 제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그들 중에 세 사람은 포대를 일곱 개나 갖고 있는 칠대제자(七袋弟子)였다.
장무기는 또 한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 개방 제자들은 오늘 이 주루에서 모임을 갖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루의 배불뚝이 주인장은 자기네들도 개방 제자인 줄 오인한 것이다. 장무기는 나직이 사손에게 말했다.
"우린 적당히 기회를 봐서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때 점원이 요리를 갖고 왔다. 튀긴 닭고기와 쇠고기 볶음을 커다란 접시에 푸짐하게 담아 가지고 왔다. 게다가 백주 다섯 병을 곁들여 갖고 왔다. 사손은 오랫 동안 포식할 기회가 없었던 차에 구수한 향기가 후각을 자극하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일단 먹고 볼 심산으로 대뜸 닭고기를 집었다.
"얘야, 조선땅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다.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지 않느냐? 일단 먹고 보자, 우리가 얌전하게 음식만 먹겠다는데 설마 생트집을 잡겠느냐?"
그는 게걸스럽게 닭고기를 씹더니, 백주를 사발에다 따루어 냉수 마시듯이 벌컥벌컥 목구멍에다 쏟아 넣었다.
"카! 술맛이 꿀맛이군. 이게 얼마만인가? 벌써 이십 년이 흘렀군. 젠장 청상과부가 이십 년을 수절한들 이보다 눈물겹진 않을 것이다. 다시는 술맛을 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는 내심 감개무량했다. 한 사발의 백주(白酒)를 말끔히 비우고 나서 손등으로 입을 쓱 훔치더니, 홀연 표정이 굳어지며 나직

하게 말했다.

"조심해라. 이번에 나타난 두 사람은 보통내기가 아니다."

장무기도 층계를 밟는 가벼운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과연 대단한 인물임에 분명했다. 두 사람이 새로 모습을 드러내자 주루에 앉아 있던 개방 제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사손의 손짓에 따라 장무기 등 세 사람도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데 세 사람만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다면, 선뜻 눈에 띄었을 것이다.

새로 나타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턱 밑에 수염을 길게 길렀고 차림새만 남루할 뿐, 의젓한 선비의 풍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텁석부리인데다가 매우 험상궂게 생겼다. 언뜻보아 마치 절을 지키는 사대신왕(四大神王) 중의 하나처럼 생겼다.

두 사람의 나이는 모두 오십 줄 안팎으로 등에 제각기 아홉 개의 포대를 메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홉 개의 포대는 손바닥 만한 것을 실로 꿰매 엮은 것으로, 실용적인 게 아니라 단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에 불과했다.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개방은 오래 전부터 강호에서 제일 큰 방파로 알려져 왔다. 태사부님의 말에 의하면, 왕년에 개방 방주였던 홍칠공(洪七公)은 무공이 출중하고 협의심이 강해 무림 흑백양도의 존경을 받았다고 했다. 그 뒤를 이어 황방주, 야율방주도 역시 걸출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개방의 명성이 많이 쇠퇴한 것 같다. 현임 방주인 사화룡(史火龍)은 좀처럼 강호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없다. 저 두 사람이 아홉 개의 포대를 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주를 제외하고 가장 신분이 높은 인물임에 분명하다. 그날 영사도에서 개방 사람들도 의

부님의 도룡도를 빼앗으려 했는데 저들 두 사람도 연관되었을까?'
 상대가 상대이니만치 장무기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룡도와 의천검은 이미 조민에게 넘어갔지만, 그의 품 속에 아직 여섯 개의 성화령(聖火令)이 남아 있었다. 조민은 미처 그의 품 속까지 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무기는 본능적으로 품을 더듬어 여섯 개의 성화령을 확인했다.
 개방의 구대 장로(九袋長老) 두 사람이 중앙의 자리에 앉자, 개방 제자들은 다시 착석하여 먹고 마시며 부지런히 손과 입을 놀렸다.
 장무기와 사손은 구대장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실망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만 열중할 뿐, 진지한 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구대장로중 두 장로가 식사를 마치고 아랫층으로 내려가자, 개방 제자들도 꽁무니를 따라 떠나갔다.
 남은 것은 알맹이가 멀쩡한 세 거렁뱅이인 장무기 일행이었다. 사손은 귀만 갖고도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나직이 말했다.
 "무기야, 네가 보기엔 어떠냐?"
 장무기는 생각을 굴리고 있던 바를 얘기했다.
 "개방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진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엔 오늘 밤 다른 장소에 모여 중요한 회의를 가질 게 분명합니다."
 사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이 맞을 것이다. 개방은 여지껏 본교와 적대시해 왔다. 광명정을 불태운 일에도 그들이 한 다리 끼었을 뿐 아니라, 도룡도를 탈취해 가는 일에도 참여했다. 그들이 본교를 겨냥해 또 무슨 흉계를 꾸밀지도 모르니, 우리로선 그들의 동태를 낱낱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세 사람은 아랫층으로 내려가 식대를 계산하지 배불뚝이는 심히 당황해 하며 한사코 거절을 했다. 장무기는 내심 와닿는 바가 있었다.

'주루의 주인이 겁을 집어 먹고 음식값을 받으려 하지 않으려는 것만 보아도, 개방 제자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지 능히 짐작이 가는군.'

세 사람은 주루를 나와 작은 객점을 찾아들었다. 개방 제자들은 방규에 따라 절대 객점에 투숙하지 않기 때문에 객점에서 그들과 맞닥뜨릴 염려는 없었다. 사손은 역시 경험이 풍부한 강호인답게 모든 일을 주도했다.

"무기야, 지금부터 개방의 동태를 살펴야겠는데, 알다시피 난 앞을 볼 수 없으니 행동하는데 불편하고 지약은 무공이 높지 않아 역시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니, 네가 혼자서 수고를 해줘야겠다."

장무기는 이의가 없었다.

"네, 저 혼자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객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데 개방 제자라곤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반 시진도 안 되는 사이에 개방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틀림없이 멀리 가진 않았을 텐데.....'

그는 무턱대고 미친 개처럼 쏘다닐 순 없었다. 문득 한가지 꾀가 떠올라 가까운 잡화점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진열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눈을 부라렸다.

"이봐! 주인장! 우리 형제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혹시 보지 못했나?"

점포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거칠은 모습을 보자 흉신(凶神)을 만나 듯 움츠려들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배

짱이 좋아보이는 한 사람이 웃음을 자아내며 북쪽을 가리켰다.

"모두들 저 북쪽으로 갔습니다. 어르신네께선 차라도 한 잔 마시겠습니까?"

장무기는 냉랭하게 소리쳤다.

"필요없어! 차는 무슨 빌어먹을 차야!"

그는 즉시 점포를 나서 성큼성큼 북쪽을 향해 걸아가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고을을 벗어나 얼마 동안 걸어가자 길 옆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부터 한 줄기의 그림자가 번뜩이더니, 개방 제자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냐!"

순간 장무기는 절묘한신법을 구사해서, 연기처럼 그 개방 제자의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 잡초가 무성한 길 옆 숲속으로 몸을 감춘 것이다. 개방 제자는 멍해지며 자신의 눈을 비비적 거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니..... 내가 잘못 봤나? 분명히 누가 다가오는 것 같았는데.....?"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통수를 긁적거렸다.

장무기는 연도에 개방 제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숲길을 택해 계속 북쪽으로 향했다. 일단 경각심을 높이자 개방 제자들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그의 길잡이가 돼 주었다. 얼마 동안 달리자 그는 어느 절간 앞에 당도할 수 있었다. 절문 위에 큼지막한 현판이 걸려 있었다.

----- 미륵불묘(彌勒佛廟) -----

겉만 보아도 규모가 상당히 큰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이번 개방 집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

약 개방 제자 행세를 하며 얼렁뚱땅 끼어들다가는 발각되기 심상이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 살펴 좌측 담장 안에 한 그루의 고송(古松)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는 것을 보았다. 고송 주위에는 다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가지를 드리우고 있어, 일단 고송 위로 오르면 은신하기 안성마춤이라 생각됐다. 그곳에선 뜨락 한가운데 자리잡은 대웅보전(大雄寶殿)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장무기는 재빨리 좌측으로 돌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돌맹이 하나를 집어 담장 우측에 던지더니, 곧이어 고송 위로 몸을 솟구쳤다. 그의 신법은 한 줄기 연기와 같았다. 소나무 위로 오르니 과연 예측했던 대로 대웅보전이 한눈에 들어왔다. 다행하게도 그가 소나무 위에 은신한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대전(大殿) 앞에는 개방 제자들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들의 수는 삼백 명 가량 되는 것 같았다. 이들은 모두 대전을 향해 앉아 있었으므로, 뒤쪽에서 장무기가 신법을 전해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대전 안에는 다섯 개의 방석이 놓여 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방석에 앉을 사람이 아직 당도하지 않은 모양이다. 대전 앞에 삼백여 명이 운집해 있었으나 조용했다. 얼마 전 주루에서 왁자지껄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음..... 개방은 비록 근래에 와서 쇠퇴했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은 과연 무시할 수가 없구나. 기틀이 잡혀 있는 방파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군.'

대전 뒤쪽 한복판에 미륵불이 모셔져 있는데, 불룩한 배를 노출한 채 헤벌쭉 웃는 모습이 매우 자상한 느낌을 주었다. 장무기가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데, 대전 옆쪽에서 낭랑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장발용두(掌鉢龍頭)께서 당도하셨습니다!"

이 외침을 신호로 하여 개방 제자들은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장무기가 주루에서 보았던 선비처럼 생긴 구대장로가 손에 깨진 사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나와 우측에 섰다. 낭랑한 외침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장봉용두(掌捧龍頭)께서 당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덥석부리 구대장로가 손에 철봉을 높이 받쳐 든 채 모습을 나타내 좌측에 섰다.

"집법장로(執法長老)께서 오셨습니다!"

외침소리에 따라 몸집이 왜소한 늙은 거렁뱅이가 낡은 죽편(竹片)을 쥐고, 마치 구름을 밟듯 사뿐한 걸음으로 걸어나왔다.

'이 사람의 경공술을 대단하군. 위복왕에 비해 약간 뒤떨어질 뿐이다.'

낭랑한 호명에 이어 네 번째 인물이 등장했다. 흰 수염에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로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나 외모로 보아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를 전공장로(傳功長老), 즉 무공 전수를 맡은 장로라 칭하는 것으로 미루어, 개방에서 독보적인 존재임을 짐작케 했다.

네 명의 개방 핵심 인물이 좌우로 나열하더니, 일제히 몸을 숙이며 입을 모았다.

"방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장무기는 다소 긴장되었다. 개방의 방주가 사화룡이며 외호가 금은장(金銀掌)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무림에서 그의 진면목을 본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가 대관절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자못 궁금했다.

대전 앞에 모인 개방 제자들도 일제히 몸을 숙이자, 잠시 후 병풍 뒤에서 육중한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육 척이 넘는 장신에다가 어깨가 딱 벌어졌으며, 안색이 불그스름한 게 마치 고관대작 같은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다. 그가 대전

한복판에 팔짱을 끼고 우뚝 서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방주께 인사를 올립니다!"
개방 방주 사화룡은 손을 가볍게 휘두르며 우렁찬 음성으로 말했다.
"인사는 무슨 얼어죽을 놈의 인사냐? 그 동안 모두 밥 잘먹고 똥 잘 쌌느냐?"
사화룡이 가운데 방석에 앉자 모두들 비로소 제자리에 앉았다. 사화룡은 대뜸 장발용두에게 고개를 돌렸다.
"옹(翁)형제, 우선 금모사왕과 도룡도에 관한 일을 모든 형제들에게 말해 주시오."
장무기는 <금모사왕과 도룡도>라는 말을 듣자 긴장되어 귀를 세웠다.
장발용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선 방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형제 여러분들이 마교와 본방은 육십 년 동안 싸움을 지속해 오면서 깊은 원한이 쌓였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앞으로 놈들과 맞서 싸우려면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악할 필요가 있소. 최근 마교는 장무기라는 새로운 교주를 내세웠소. 광명정을 협공한 일에 참여한 본방의 형제들은 그 자를 직접 대면했는데, 아직 젖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애송이라 하오. 그런 철부지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소이까? 우리 사방주님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바윗돌에 붙은 파리똥에 불과하오이다!"
개방 제자들은 우뢰같은 함성을 지르며 그의말에 호응을 했다. 사화룡 역시 어깨에 힘을 주며 우쭐대는 모습이었다.
장발용두의 말이 계속 되었다.
"그런데 마교가 새로운 교주를 내세운 후로부터 사분오열 되었던 내분이 종식되고 서로 힘을 모으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소.

우린 그 점을 가볍게 보아 넘겨선 아니 될 것이오. 특히 일 년 전부터 마교의 마두들이 도처에서 떼를 지어 원군(元軍)과 맞서 싸워 연승을 거두며 사기가 충천돼 있소. 사천성(四川省) 일대에선 한산동(韓山童)과 주원장(朱元璋), 호남성(湖南省)과 호북성 일대에선 서수휘(徐壽輝) 등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소. 만약 그들이 소 뒷걸음질에 쥐 잡듯이 얼토당토 않게 몽고놈들을 몰아내고 천하를 거머쥐게 된다면, 본방의 십여 만 형제들은 그들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오!"

즉시 곳곳에서 성난 외침이 터져나왔다.

"놈들을 미리 때려 잡아야 합니다!"

"절대 그들이 천하를 얻게 해선 안 됩니다!"

"몽고놈들을 쫓아내야겠지만, 마교에게 그 공을 빼앗길 순 없습니다!"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내가 중원을 떠난 지 몇 달 동안 형제들이 많은 업적을 쌓았군. 개방은 오래전부터 본교와 적대시해 왔으니, 본교의 세력이 확장돼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겠지. 그러나 본교는 그들과 묵은 원한을 청산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개방은 인원수가 많은데다가 걸출한 인재도 적지 않아 몽고 오랑캐를 몰아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들과 손을 잡지.....?'

장발용두는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다시 입을 열었다.

"방주님께선 줄곧 연화산장(連花山莊)에서 조용히 지내오셨지만, 이번에 큰일을 임하게 되어 부득이 직접 강호출도를 결심하게 되었소. 하늘의 도움을 얻어 본방이 팔대장로(八袋長老) 진우량이 무당 제자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자가 마교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갖고 있다 하니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소."

여기까지 말한 그는 음성을 높여 외쳤다.
"진장로!"
즉시 뒤쪽에서 대답소리가 들리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나왔다. 그 중 한 사람은 서른 살 가량의 깐깐하게 생긴 인물로서, 바로 영사도에서 사손이 목숨을 살려 주었던 진우량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십 대 후반의 준수하게 생긴 인물로서 다름아닌 송원교의 아들 송청서였다.
장무기는 의아해 했다.
'송사형이 어째서 개방 사람과 어울리게 되었을까?'
그러나 곧 이해가 갔다.
'무당파와 개방은 모두 협의도를 걸어온 방파이니, 쌍방이 친분을 맺은 것은 당연지사겠지.'
진우량과 송청서는 우선 사화룡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나서 전공, 집법 두 잘오와 장발, 장봉 두 용두에게 공수의 예를 취하고는, 다시 대전 앞에 예를 표했다. 장발용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형제 여러분들, 이분 송청서 송소협은 무당파 송원교 송대협의 아드님으로서, 장차 무당파의 장문직을 계승할 가장 유력한 인물이외다. 그 마교의 교주인 장무기는 그의 사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교의 내부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소. 몇 달 전 마교의 대마두인 금모사왕 사손이 동해 영사도에 나타났다고 전해 준 장본인도 바로 이 송소협이오."
이때, 집법장로가 불쑥 나섰다.
"금모사왕 사손의 행방은 줄곧 무림의 극비로 되어 있었는데, 송소협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세한 것을 듣고 싶소이다."
사실 장무기도 이 점에 대해 줄곧 의문을 느끼고 있었다.
'자삼용왕은 무열 부녀로 인해 의부님의 소재를 알게 되어 영사

도로 달려갔지만, 극비리에 행동을 취했는데 송사형이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개방에게 알려준 것일까?'

장무기는 이 의문을 여러번 사손에게 물었지만, 사손 역시 정확한 해답을 해주지 못했다. 장무기는 자연히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데 송청서 대신 진우량이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해에 금화파파가 있는데, 워낙 항해술이 뛰어나 집념을 갖고 사손의 행방을 쫓다가 결국 북해 끝에 위치한 어느 황도(荒島)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금화파파는 사손을 영사도로 데려왔는데 마침 영사도에 두 부녀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열과 무청영이라 하며 바로 대리(大理) 남제(南帝) 일파의 진인들입니다. 그들은 금화파파가 중원으로 떠난 새에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쳐 와 산동성(山東省) 부근에서 위험에 처한 것을 송소협이 구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얘기 끝에 송소협이 금모사왕의 행방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집법장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 그랬었군."

장무기도 비로소 궁금증이 풀렸다. 진우량의 말이 이어졌다.

"본인은 송소협과 생사지교를 맺은 사이로서 서로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후 즉시 계(季), 정(鄭), 두 팔대장로와 같이 다섯 명의 칠대제자들을 이끌고 영사도로 달려가 사손을 사로잡고 도룡도를 빼앗아 방주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때마침 마교에서도 많은 고수들이 영사도에 나타났습니다. 우린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으나 중과부적인지라 계장노와 칠대제자 네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사도에서 있었던 전황에 대해서는 정장로께서 직접 방주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불구가 된 정장로가 사람들 틈에서 일어나, 영사도에서 벌어진

명교와 개방의 싸움에 관해 보고했다. 그는 개방이 무더기로 사손을 협공한 것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명교가 인해전술로 나오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선전분투에도 불구하고 패했다고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게다가 진우량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 너무나 의연한 자세로 나오는 통에, 사손이 그의 정기(正氣)에 탄복하여 감히 살수를 전개하지 못했다고 침을 튀겨가며 추켜세웠다.

대전 안팎에 모인 개방 제자들은, 그의 열변에 모두 격양되어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전공장로 역시 감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진형제는 지용(智勇)을 겸비했는데, 그렇게 의롭기도 하니 실로 고개가 숙여지는군."

진우량은 그에게 정중히 몸을 숙였다.

"저는 방주님과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본방의 대의(大義)를 위해서라면 불바다에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장로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개방 제자들은 그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겸허한 것을 보자 더욱 탄복해 마지 않았다.

한편, 장무기는 나무 위에서 그의 말을 들을수록 울화가 치밀었다. 실로 뻔뻔스럽고 비겁한 소인배라 생각되었다. 분명히 친구를 팔아 목숨을 유지한 것이거늘, 이제 와서 의로움을 앞세워 친구를 구한 것으로 변조됐으니 이보다 더 치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는 워낙 빈틈없이 일을 해치웠기 때문에 정장로마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실로 간웅(奸雄) 중에 대간웅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장무기는 문득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 시무룩해졌다.

'당시 의부님과 나도 저 자에게 감쪽같이 속았다. 그러나 조민

낭자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지..... 그녀는 역시 누구보다도 영특해. 그녀가 우리의 적이 아니었더라면.....'

집법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랭하게 소리쳤다.

"본방의 많은 형제들이 또 마교에게 희생되었으니, 이 피맺힌 원한을 어찌 갚지 않을 수가 있겠소!"

개방 제자들은 앞을 다투어 고함을 질렀다.

"계장로를 위해 복수합시다!"

"광명정을 잿더미로 만들어 마교를 뿌리째 없앱시다!"

"장무기를 죽여라! 사손을 죽여라!"

"본방이 있는 곳에 마교가 존재할 수 없다! 닥치는 대로 죽여 없애자!"

"방주님! 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모아 마교로 처들아 갑시다!"

집법장로가 사화룡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방주님, 형제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 주십시오. 현명하신 분부가 있길 바랍니다."

사화룡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말이야..... 본방의 중대사이니 음..... 음..... 칠대제자 이하는 우선 절 밖으로 물러가 있으라고 하시오. 우리끼리 모여 상의 좀 해야겠소."

집법장로는 대답을 하고 나서 몸을 돌려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외쳤다.

"방주님의 명령이니, 칠대제자 이하는 모두 밖으로 물러가 기다리도록 하시오!"

이때 진우량이 앞으로 다가가 몸을 꺾었다.

"방주께 아뢰옵니다. 이 송형제는 본방을 위해 큰 공을 세웠으니, 본방에 가입하는 것을 윤허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본방을 위해 이바지 할 것입니다."

송청서는 이 말에 이내 안색이 변했다.

"아니..... 그건.....!"
순간 진우량이 고개를 돌려 그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러자 송청서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떨구더니, 더 이상 아마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개방에 가입하는 문제는 진우량의 일방적인 제의인 것 같았다.
사화룡은 쾌히 승락했다.
"그거 좋지. 좋고 말고. 송청서 우리 방에 들어온다면야 당분간 육대제자의 위치에서 팔대장로인 진우량의 통솔을 받도록 해라. 물론 본방의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쯤은 상식이니 내가 더 이상 입을 놀리지 않아도 되겠소..... 아무튼 잘 해봐. 잘하면 상을 줄 것이고 잘못하면 벌을 내릴 거다."
사화룡은 천하 제일 대방의 방주답지 않게 말주변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한편, 송청서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띄어졌으나 곧 억제를 하고 앞으로 다가가 사화룡에게 무릎을 꿇었다.
"제자 송청서가 방주님께 큰절을 올립니다. 육대제자의 지위를 하사하신 방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장로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올렸다.
집법장로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송형제, 자네가 본방에 가입한 이상 본방의 규칙을 엄수해야 하네. 설령 앞으로 자네가 무당파의 장문인이 된다 해도, 본방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내 말을 알아듣겠는가?"
그의 말투는 매우 준엄했다. 송청서는 고분고분 대답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집법장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본방은 무당파와 더불어 협의를 위해 같은 길을 걸어온게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다른 뜻을 갖고 있네, 하물며 자네는 장차 무당파의 장문직을 계승할 수 있을 텐데, 어째서 본방에 귀속되려고 하는지 그 까닭을 분명히 밝혀 주길 바라네."

송청서는 진우량을 힐끗 쳐다보고 나서 대답했다.
"진장로님이 제자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여러모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인품을 흠모한 나머지 뒤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진우량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집안 식구이니 허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미파의 장문인 멸절사태가 죽은 후에 새로 장문직을 계승한 미모의 젊은 여인 주지약은, 송형제와 죽마지우이며 둘은 일찌기 혼례를 언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교의 대마두인 장무기가 완력으로 그 여인을 납치해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지간의 우애를 생각해 책임지고 그 여인을 빼앗아 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무기는 들을수록 울화가 치밀었다.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함부로 지껄이다니.....'
그는 당장 뛰쳐나가 혼쭐을 내주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이어 사화룡의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고로 영웅은 미인을 좋아한다더니 그 말이 맞긴 맞아. 한 사람은 장차 무당파의 장문인이 될 인물이고 한 사람은 아미파의 장문인이니 그야말로 짝자꿍 잘 어울리는군. 천생연분에다 천생배필이야."
집법장로가 가장 신중했다.
"정녕 송형제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왜 장삼봉 장진인 혹은 송대협에게 하소연을 하지 않고 진장로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모르겠구료."
진우량이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송형제의 말에 의하면, 장무기 녀석은 장취산의 아들로서 장삼봉은 제자들 중에서 장취산을 가장 아꼈고, 또한 무당파가 근래 마교와 손을 잡으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얘기를 꺼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삼봉과 송대협이 마교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당금 무림에서 오직 본방만이 마교와 정면으로 적대시하고 있고, 또한 마교와 대결할 만한 힘을 비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심사숙고한 연후에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집법장로는 비로소 납득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런 이유가 있었군. 마교를 멸하고 장무기 녀석을 제거한다면, 송형제의 염원도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오."

장무기는 나무 위에 몸을 숨긴 채,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이 되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서역 대막에서, 광명정에서, 송청서가 주지약을 대하는 태도가 어딘지 모르게 유별난 데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가 주지약에게 흠모의 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쨌든 장무기는 내심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무당 제자가 개방에 가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미리 태사부님이나 송사백님의 승낙을 받아야 순서이거늘, 그는 단순히 일개 여자로 인해 사문을 배반하고 부친을 배신했으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나? 게다가 주지약은 이미 나에게 진심을 주었는데, 송사형이 개방의 도움을 얻는다고 해서 강제로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송사형은 이미 강호에 명성이 알려져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재로 인정돼 있는데, 어째서 저다지도 생각이 부족할까?'

"방주님께 아뢰옵니다. 제자는 대도 부근에서 마교의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잡았는데, 그 자는 본방이 계획하고 있는 대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방주님께서 직접 그 자에 대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사화룡은 매우 기뻐했다.

"어서 끌어내도록 해라!"

진우량은 즉시 손뼉을 세 번 쳤다.

"그 마두를 데리고 와라!"

곧이어 대전 뒤쪽에서 개방 제자 넷이 한 사람을 끌고 왔다.

끌려온 자는 두 손이 뒤로 묶여 있으며 약관을 갓 넘긴 젊은이였는데, 장무기는 호접곡 명교대회 때 그를 본 기억이 있었다. 단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젊은이는 얼굴에 짙은 노기가 깔려, 진우량의 곁을 지날때 갑자기 그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진우량은 재빨리 피하며 냅다 그의 뺨을 후려쳤다. 순간 찰싹하는 소리가 들리며 젊은이의 왼쪽 뺨이 이내 푸르딩딩하게 부어올랐다. 그를 압송해 온 개방 제자는 등을 떠밀며 호통을 쳤다.

"어서 무릎을 꿇고 방주님께 큰절을 올리지 못하겠느냐!"

젊은이는 기침과 함께 이번에는 사화룡의 얼굴을 겨냥해 호통을 쳤다.

젊은이와 사화룡의 거리가 매우 가까왔고 또한 진력을 잔뜩 끌어올려 침을 뱉은 탓인지 사화룡은 황급히 피한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가래침이 이마에 달라붙고 말았다. 진우량은 대뜸 그 젊은이를 걷어차 쓰러뜨리며 사화룡의 앞을 가로막고 우악스럽게 호통을 쳤다.

"이런 발칙한 놈!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젊은이는 다짜고짜 욕을 터뜨렸다.

"이 더러운 거렁뱅이야, 네놈들 손에 잡힌 이상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진우량이 앞을 가로막는 틈을 타서 사화룡은 얼른 가래침을 닦아 버렸다. 진우량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정중하게 말했다.

"방주님께 아뢰옵니다. 이 녀석은 마교의 일류 고수로서 사대호교법왕보다 무공이 뛰어났으니, 절대 과소평가해선 아니 됩니다."

장무기는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엔 의아했으나, 곧 깨달은 바가

있었다. 진우량은 방주의 낭패한 입장을 덮어 주기 위해 일부러 상대방의 무공을 고강하다고 과장시킨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사화룡이 개방의 방주이면서 가래침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도 얼굴에 나타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당황한 빛이었다.

집법장로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진형제, 이 자는 누구인가?"

진우량은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의 이름은 한림아(韓林兒)라고 하며, 바로 한산동의 아들입니다."

장무기는 암암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호접곡대회 때 그는 줄곧 부친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뿐, 나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없었으니 선뜻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군.'

집법장로는 기뻐하는 눈치였다.

"아, 그가 한산동의 아들이라고? 진형제, 정말 큰 공을 세웠네. 한산동이 근래에 원군(元軍)을 연패시켜 위명을 떨치고 있으며 그의 부하들 중에 주원장, 서달, 상우춘 등은 모두 마교의 중요한 인물들이니, 이 녀석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한산동도 어쩔 수 없이 본방에 무릎을 꿇고 말 걸세."

한림아는 다시 우악스럽게 욕을 퍼부었다.

"이 똥물에 빠져 죽을 구더기 같은 놈아! 지금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냐? 나의 아버님 같은 영웅호걸이 네놈들 같은 비겁한 소인배의 위협에 넘어갈 것 같으냐?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개소리 말아라! 나의 아버님은 오직 장교주의 명령에 따를 뿐이다. 너희 개방이 명교와 쟁응을 하려 들다니,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얘기도 못들었느냐? 하기야 무식한 놈들이

니..... 너희들의 방주인지 방귀인지는 몰라도, 아마 장교주의 발바닥을 핥아줄 자격조차 없을 것이다!"

진우량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히죽히죽 웃었다.

"한형제, 자넨 마교의 장교주를 신주단지처럼 받들어 모시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를 그 신주단지에게 안내해 주겠나? 우리에게도 그 신주단진지 똥단지를 배알할 영광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한림아는 콧방귀를 날렸다.

"흥! 장교주는 큰 일을 맡고 있는 분인지라 본교의 형제들도 좀처럼 뵙기가 힘든데, 네까짓 놈들을 일일이 접견할 틈이 어디 있겠느냐?"

진우량은 여전히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말했다.

"듣자 하니 장무기는 이미 원병에게 잡혀가 대도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는데, 그래도 허풍을 떨 작정이냐?"

한림아는 발끈하며 침을 내뱉었다.

"주둥아리 닥쳐라! 몽고 오랑캐가 우리의 교주님을 붙잡아 갔다고? 천군만마가 그분을 칭칭 포위한다 해도 그림자 조차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장교주께서 물론 대도에 간 적이 있지만, 그것은 육대문파의 인물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무슨 참수형을 당했다고? 네놈의 조상 중에 누가 참수형을 당해 그 귀신이 뒤집어 씌어져 누구나 다 참수형을 당했다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진우량은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강호에 소문이 파다하니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할 게 아니냐? 한 가지 묻겠는데, 어째서 최근 반 년 동안 명교의 그 무슨 한산동이니, 서수휘니, 주원장, 포대화상 같은 이름만 들릴 뿐 장무기라는 이름 석 자가 자라 대가리처럼 쏙 들어갔느냐? 그게 바로 저승길에 올랐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한림아는 화가 치밀어 눈에 핏발이 곤두서고, 이마에 지렁이 같은 시퍼런 심줄이 솟아났다.

진우량은 턱을 삐딱하게 쳐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장무기의 무공과 계집 홀리는 솜씨는 나도 인정하지 않는 바가 아니다. 주 낭자를 농락한 것만 보아도 그 실력을 짐작 할 수 있지. 하지만 녀석은 비명 횡사할 운명을 타고 났어. 내가 아는 용한 점장이가 그의 운을 꼽아보니, 올해를 넘기지 못할 거라 하더군....."

이때 뜨락 우측에 우뚝 솟아 있는 느티나무 위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대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했다. 장무기는 이내 긴장되며 그쪽을 예리한 눈빛으로 훑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음..... 나보다 먼저 와 있는 불청객이 있군. 내가 여지껏 느끼지 못했으니 무공이 상당한 인물 같은데, 대관절 누구일까?'

한림아의 성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네놈이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피똥싸고 죽을 상이다. 장교주는 성품이 인후하여 누구보다도 천수를 누릴 분이다."

진우량은 장탄식을 하며 혀를 끌끌 내찼다.

"하지만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길 마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느냐?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니 관상에 나타난 대로 비명 횡사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지....."

난데없이 느티나무 위에서 한 줄기의 청색 그림자가 뛰어 내린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 자의 입에서 뜻밖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장무기는 여기 있다! 누가 나더러 비명 횡사했다고 했느냐?"

그는 한 줄기 회오리바람처럼 대전 안으로 뛰쳐들어갔다. 대전 문 쪽에 서 있는 장봉용두가 즉시 그 자의 뒷덜미를 향해 나꿔채려 했으나, 날렵한 신법으로 피했다.

그제서야 나타난 자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는데, 청색 장삼에 방건을 쓴 준수하게 생긴 서생이었다. 그리고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눈동자는 호수처럼 맑았다.

장무기는 그 자를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그만 입이 딱 벌이지고 말았다. 뜻밖에도 남장을 한 조민이었다.

한편, 개방 제자들은 장무기를 본 적이 없었다. 단지 소문만으로 명교의 교주가 스물 살 가량의 젊은이로서 무공이 지극히 높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한데 방금 장봉용두의 금나수법을 피하는 것을 보고 그 뛰어난 신법에 명교의 교주임에 틀림없다고 믿으며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장무기는 복잡미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반가움과 가벼운 흥분마저 느꼈다.

진우량은 남장한 조민을 유심히 살펴보며 눈동자를 교활하게 굴렸다. 아무리 봐도 소문에 듣던 장무기의 모습과는 똑같지 않았다. 게다가 음성이 아무래도 여자 같은 느낌이 들어 대뜸 호통을 쳤다.

"장무기는 벌써 죽었다. 너는 누구인데 그의 행세를 하느냐?"

조민은 성난 음성으로 외쳤다.

"장무기는 이렇게 엄연히 살아 있는데, 그게 무슨 망언이냐? 하늘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 너희들이 모두 죽은 연후에도 백 년은 더 살 것이다."

장무기는 이 말을 듣자 뭉클한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조민이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달리했다.

'저런 악랄한 여인이 무슨 양심이 있을까? 난 절대 저 아름다운 겉모습에 현혹돼선 안 된다.'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졌다. 진우량은 냉소를 날렸다.

"넌 대관절 누구냐?"

조민의 태도는 확고했다.

"내가 바로 명교의 교주 장무기다! 네가 나의 부하를 잡은 모양

인데, 어서 놓아주지 못하겠느냐? 너도 사내 대장부라 자처한다면 나하고 일 대 일로 승부를 짓자!"

이때 옆에서 한 사람이 코웃음을 치며 나섰다.

"조민 낭자!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송청서의 눈은 속이지 못할 것이오! 방주께 아뢰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여양왕의 딸로서 많은 고수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겁니다."

집법장로가 즉시 입술을 오무려 휘파람을 불더니, 장봉용두를 향해 외쳤다.

"장봉장로, 속히 형제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적의 공격에 대비하시오!"

장봉용두는 즉시 대답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삽시간에 절간 밖에서 우렁찬 기합소리가 들리며, 개방 제자들이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조민은 그들의 기세에 위압감을 느끼는 듯 안색이 약간 변하더니, 이내 손뼉을 치자 두 사람이 사뿐히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왔다. 바로 현명이로인 녹장객과 학필옹이었다.

"저놈들을 잡아라!"

집법장로의 외침에 따라 네 명의 칠대제자가 현명이로에게 덮쳐갔다. 그러나 그들은 현명이로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눈깜짝할 사이에 네 명의 칠대제자는 모두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백발이 성성한 전공장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다짜고짜 학필옹을 향해 일장을 격출해 냈다.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리며 그의 장세는 매우 위력적이었다.

학필옹은 현명패천장으로 응수했다. 순간 펑! 하는 굉음이 터지며 쌍방의 장력이 허공에서 맞부딪쳤다. 거기에 따라 주위에 무서운 회오리가 일었다. 두 사람은 모두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일장으로선 우열을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연거푸 삼장을 겨루자 전공장로가 뒤로 반 걸음 물러나며 열세를 드러냈다. 한편, 녹장객은 녹각장을 휘두르며 집법장로와 장발용두를 상대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 역시 선뜻 고하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장봉용두는 전공장로의 안색이 빨갛게 상기되어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을 보자, 내심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전공장로라 하면 개방에서 첫손 꼽는 무공 고수이거늘, 그가 상대방을 당해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나설 만한 인물이 없을 것이다. 쌍방이 약 십여 초식을 교환하자 전공장로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백발이 헝클어져 매우 낭패한 모습이었다.

장봉용두는 가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의 상황으론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장봉용두는 즉시 철봉으로 허공을 가르며 학필옹의 하체를 후려쳐갔다.

조민은 현명이로가 나타나는 순간 물러갈 생각이었으나, 진우량이 장검을 뽑아 쥐고 앞을 가로막았다. 조민은 만안사에서 육대문파 무학의 정수를 배운바 있기 때문에, 즉시 삼검을 떨쳐냈다. 그녀가 전개한 첫 번째 초식은 화산검법이며, 두 번째는 곤륜검법, 세 번째는 공동파의 검법이었다. 이어 그녀는 네 번째 초식을 전개했는데, 바로 아미파의 금정구식(金頂九式)이었다

진우량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조민의 변화무쌍한 검초를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순간 조민의 장검이 작은 원을 그리며 그의 가슴을 겨냥해 전광석화같이 쳐나갔다.

진우량으로선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때 창! 하는 맑은 금속성이 들리며 한 자루의 장검이 비스듬히 뻗쳐와 조민의 검을 밀어냈다. 느닷없이 출수한 사람은 다름아닌 송청서였다.

장무기는 높은 나무 위에서 이들이 싸우는 광경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다. 송청서가 전개한 무당검법은 힘이 곁들여 있으면서도 많은 변화가 숨겨져 있었다. 과연 송원교의 진전(眞傳)을

이어받은 게 역력했다.

진우량은 측면에서 협공을 전개했다. 조민은 비록 각대문파의 절초를 배웠으나 이직은 깊이가 부족했다. 더군다나 혼자서 두 사람을 상대하자니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해야만 했다.

장무기는 내심 초조해 하면서 또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왜 평범한 검을 사용하는 것일까? 의천검을 사용하면 충분히 상대방의 검을 절단시켜 포위망을 뚫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늘 의천검을 갖고 다니는 그녀인데, 오늘은 그 보검을 몸에 지니지 않았다. 장무기는 잠시 초조해 하다가 절로 자신을 탓했다.

'장무기야! 저 요녀는 너의 누이동생을 해친 흉수이다. 그런데 넌 그녀의 안위를 걱정해 주다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저승에 있는 누이를 대할 것이며 의부님과 지약에게도 죄를 짓는 게 아니냐?'

이때 개방의 몇몇 고수가 다시 싸움에 가담했다. 그러나 조민 쪽에는 더 이상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녹장객은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군주마마, 일단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조민도 동감이었다.

"좋아요. 이 진가 녀석은 장공자를 모함하고 저주를 했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알아서 이 녀석 만큼은 단단히 혼을 내주세요!"

현명이로는 일제히 대답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군주께선 그 녀석을 우리에게 맡기고 먼저 떠나가십시오."

조민이 다시 말했다.

"저 한림아는 장공자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 줘야 돼요."

녹장객이 대답했다.

"어서 떠나십시오. 사람을 구하는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강적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도 태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다. 개방 고수들을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대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화룡은 구석진 곳에 서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전공, 집법, 두 장로는 조민 등의 대화를 듣자 즉시 명령을 내려 퇴로를 차단케 했다.

돌연, 녹장객과 학필옹은 싸우던 상대를 제쳐두고 맹렬히 사화룡에게 덮쳐갔다. 그들은 흡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처럼 행동을 같이했다. 그들의 신법은 어느 때보다도 신속 절륜했다.

사화룡이 질겁하는 순간, 진우량이 황급히 그를 미륵불상 뒤로 밀어부쳤다. 알고보니, 그는 조민이 현명이로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심상치 않는 낌새를 채고 사화룡의 곁으로 다가간 것이다.

현명이로가 격출한 장풍은 미륵불상에 적중되어 흙가루가 분비했다. 아울러 대전 천장에 맞닿을 만큼 우람한 불상은 엄청난 장풍에 의해 흔들거렸다.

학필옹은 앞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재차 불상을 향해 쌍장을 밀어냈다. 꽝! 육중한 불상이 끝내 그의 장풍을 견뎌내지 못해 쓰러져 내렸다. 개방 제자들이 신으로 받들고 있는 불상이 무너지자, 모두들 아연실색하며 놀란 외침을 발했다. 그 바람에 혼란이 일었다.

조민은 그 혼란을 틈타 재빨리 뜨락으로 몸을 날렸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송청서와 장봉용두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붙었다. 순간, 절문 옆에서 세 자루의 타구봉(打狗棒)이 예리한 파공음을 일으키며 조민의 하체를 향해 느닷없이 휘몰아쳐 왔다.

조민은 송청서의 장검과 장봉용두의 철봉을 피하며 다시 몸을 번뜩여 두 자루의 타구봉을 피했지만, 세 번째 타구봉이 왼쪽 발꿈치에 적중되었다. 그녀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만 몸의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 송청서는 그녀에게 숨돌릴 기회를 주지 않고 검자루로 그녀의 뒷통수를 내리쳐 갔다. 그녀를 기절시켜 사로잡을 속셈이었다.

그런데 검자루가 그녀의 뒷통수에 적중되려는 찰나, 홀연 장봉용두의 수중에 쥐어져 있는 철봉이 비스듬히 뻗쳐와 송청서의 장검을 옆으로 밀어부치는 게 아닌가! 한 줄기의 그림자가 번개처럼 담장을 뛰어넘은 것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다.

송청서는 즉시 몸을 돌려 장봉용두에게 다그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그녀를 도와 달아나게 만듭니까?"

장봉용두는 버럭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자네야 말로 무엇 때문에 내 철봉을 막았나?"

송청서는 대뜸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분명히 철봉으로 나의 장검을 밀어부치고 나서 오히려.....!"

장봉용두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어서 그 계집을 찾자!"

두 사람은 일제히 몸을 솟구쳐 담장을 뛰어넘었다. 담장 밖에 칠대제자 한 명이 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었다. 장봉용두가 그에게 물었다.

"그 요녀는 어느 방향으로 달아났나?"

담장 밖에서 지키고 있던 일곱 명의 개방 제자는 입을 모아 대답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봉용두는 화를 냈다.

"방금 분명 한 사람이 이쪽으로 뛰쳐나왔을 텐데, 모두들 눈이 멀었느냐?"

육대제자 한 명이 그 다리가 부러진 칠대제자를 부축하며 대답했다.

"조금 전에 이 형님이 담장 안에서 뛰쳐나왔을 뿐 그 외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봉용두는 멍해지더니, 그 칠대제자에게 물었다.

"자네는 무엇하려고 담장을 뛰어넘었나?"

칠대제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하며 대꾸했다.

"나..... 나는 내 던져진 것이오. 그 요녀의 수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이했소."

장봉용두는 그녀를 놓쳐 버리자 고개를 돌려 송청서에게 화풀이를 했다.

"방금 자네가 검으로 내 철봉을 막지 않았다면, 그 요녀를 때려잡을 수 있었을 텐데 대관절 속셈이 뭐야? 본방에 가입하자마자 똥구멍으로 호박씨를 까려는 건가?"

송청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펄쩍 뛰었다.

"제가 검자루로 그 계집을 제압하려는데, 장봉용두께서 봉으로 나의 검을 밀어부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녀가 달아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립니까?"

장봉용두는 안색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이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왜 자네의 검을 밀어부치겠는가? 난 본방에서 수십 년 동안 몸담아 오면서 명색이 장봉용두이거늘 어찌 외적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묻겠는데, 무슨 속셈으로 그 요녀를 도왔는가? 흥!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이번 일을 간단하게 묵과하진 않을 걸세!"

송청서는 무당파에서 비록 제 삼대(三代) 제자지만, 무당파의 문하들은 그가 미래의 장문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유연주, 장송계 등 사숙뻘 되는 사람들도 말을 조심스럽게 했다.

그런데 지금 장봉용두로부터 힐난하는 문책을 받자 발끈했다. 게다가 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지 않은가!

"장봉용두께선 호박씨를 운운했는데, 과연 그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겠군요!"

장봉용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본디 성깔이 불과 같았다. 그의 입에서 대뜸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런 발칙한 놈! 너는 위아래도 없느냐? 아니면 무당파의 세력을 믿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거냐?"

그는 말을 내뱉기 무섭게 송청서의 면상을 향해 철봉을 떨쳐냈다.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전개한 일격이니 만치 그 위력이 엄청났다.

송청서 역시 참을 대로 참았다. 그는 당할 수만 없어 즉시 장검으로 맞이했다. 순간 장검과 철봉이 맞부딪치며 요란한 금속성과 함께 불꽃이 튕겼다.

송청서는 손목이 얼얼해지는 충격을 느꼈다. 장봉용두는 이미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었다.

"주리를 틀어 죽일 놈! 이제보니 네놈은 그 요망한 계집의 밀구멍에서 기어나온 첩자였구나!"

그는 일단 이성을 잃자 개방의 고수답게 질펵한 욕설도 서슴치 않았다. 아울러 두 번째도 철봉을 후려쳐 갔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절문 안쪽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와 그의 철봉을 가로막았다. 그는 바로 팔대제자인 진우량이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 살피며 물었다.

"그 요녀는 어디 있습니까?"

장봉용두는 송청서에게 삿대질을 했다.

"저 놈이 놓아 주었네!"

"아니오. 장봉용두가 놓아 주었소!"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현명이로가 뛰쳐나왔다.

주위를 살펴보니 조민이 보이지 않자 무사히 이곳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즉시 광소를 날리며 일제히 쌍장을 밀어냈다. 가까이 있는 네 명의 개방 제자가 그들의 장풍을 맞자 그 자리에 쓰러졌다.

진공장롱, 집법장로가 뒤쫓아 달려왔을 때는 현명이로의 광소가 이미 십여 장 밖에서 메아리쳐 왔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조민은 대관절 어떻게 된 것일까?

알고보니, 송청서가 검자루로 그녀의 뒷통수를 내리치려는 위기일발의 순간, 장무기는 자세한 생각을 굴릴 새도 없이 반사적으로 고송 위에서 떨어져 내린 것이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치 그가 구사한 신법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는 한 줄기 빛처럼 떨어져내리기 무섭게 건곤이위신공을 전개해 장봉용두의 철봉을 송청서의 장검으로 밀어부치게 만든 것이다.

그가 연마한 건곤이위신공만으로도 불가사의한 행동을 연출할 수 있는데, 그간 몇 달 동안 무인도에서 소조가 번역한 <성화령비결>까지 터득하였으니, 파사삼사(波斯三使)의 괴이한 무공보다 열 배는 더 고강했다.

그는 비록 창졸간에 행동을 개시했지만 장봉용두와 송청서같은 고수들도 그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니 장봉용두는 송청서가 장검으로 자신의 철봉을 막았다고 하고 송청서는 그가 자신의 장검을 밀어부쳤다고 굳게 믿는 게 당연했다.

장무기는 그들이 흠칫 놀라는 순간, 왼손으로 칠대제자 한 명을 나꿔잡아 냅다 담장 밖으로 집어던지는 동시에, 조민을 끌어안고 전광석화처럼 대전 지붕 위로 몸을 솟구친 것이다.

장무기가 구사한 불가사의한 신법은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은신술에 가까왔다. 물론 미륵불상이 쓰러져 주위에 흙먼지가 뿌옇게 깔려 있었고, 개방 제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혼란을

빗고 있었기 때문에, 장무기가 듣을 보았지만, 칠대제자를 적시에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장봉용두와 송청서의 주의력을 그쪽에 쏠리게 한 것이 무엇보다도 주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무공이 높은 자들은 현명이로를 협공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 무공이 약한 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그가 번개처럼 나타나 조민을 구해 연기같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조민은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난데없이 강한 힘에 이끌려 일학충천(一鶴沖天)의 기세로 몸이 허공으로 날아가자,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대전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선 그녀는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고 얼른 고개를 돌려 자신을 구해 준 장본인을 쳐다보았다. 짙은 눈썹, 생기가 넘치는 서글서글한 눈동자, 바로 장무기가 아닌가!
 순간, 꿈에서 갓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꿈인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니.....!"
 장무기는 황급히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가 조민을 데리고 이곳을 벗어날 생각이라면 지붕 위로 몸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곳에 좀더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개방이 명교를 상대할 대책을 극비리에 상의하고 있고, 송사형이 뜻밖에도 개방에 가입했으니 보다 자세한 것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한림아를 구해야겠다는 마음도 작용했다.
 대전 안은 흙먼지로 뒤덮힌 가운데 미륵불상이 쓰러져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장무기는 처마 쪽으로 옮겨가 절묘한 신법으로 대전 좌측에 세워져 있는 불상 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대전 안에는 부상을 당한 몇몇 개방 제자들이 쓰러진 채 신음을 하고 있을 뿐, 한림아는 다른 곳으로 끌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주위를 두리번 살폈으나, 몸을 숨길 만한 적당한 곳이

눈에 띄지 않았다. 조민은 그의 생각을 꿰뚫듯 커다란 가죽북을 가리켰다. 그 북은 높은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으며 우측에 걸어 놓은 거종(巨鐘)과 마주 보고 있었다.

장무기는 이내 그녀의 뜻을 알아차리고 벽에 등을 바싹 붙인 채 큰 북 가까이 접근해 갔다. 이어 북의 일면을 손가락으로 긁자 쇠가죽이 열 십자로 찢어졌다. 장무기는 잽싸게 몸을 날려 그 틈새를 뚫고 북 속으로 들어갔다. 조민도 잇따라 행동을 전개했다.

북은 비록 크지만 바닥이 원형을 이루고 있어 두 사람이 들어가면 몸을 포개야만 했다. 뒤따라 들어온 조민은 서슴없이 장무기의 몸을 깔고 앉았다. 장무기는 그녀를 밀어내려 했으나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했다. 서로의 몸이 밀착되자 그녀의 몸에서 유향(油香)이 은은히 풍겨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는 애증이 교차되는 야릇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녀에게 문책할 말이 많았지만, 이런 상황하에선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조민은 머리에 쓰고 있는 방건을 벗어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짚으며 정감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름처럼 치렁치렁한 머리결이 장무기의 얼굴에 와 닿자 흠칫했다.

'결국 또 그녀를 구해 주고 말았군. 다시는 그녀에게 현혹되지 말아야지.....'

그는 의식적으로 조민을 밀어냈다. 조민은 자존심이 상한 듯 입을 삐쭉거리더니, 그의 가슴에 한 차례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녀다운 오기의 표출이었다.

장무기도 오기가 생겨 무릎을 세워 그녀의 등을 찍었다. 조민은 이 뜻밖의 일격에 심한 고통을 느껴 입을 벌리며 소리를 지르려 했다. 그것을 본 장무기는 당황하여 얼른 그녀의 목을 끌어안으며 다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때 집법장로의 음성이 들려왔다.

"방주님께 아뢰옵니다. 적은 이미 달아났습니다. 저희들이 무능

하여 적을 제압하지 못했으니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사화룡이 즉시 그의 말을 받았다.
 "내 어찌 벌을 내리겠소. 그 년놈들의 무공이 심히 고강하다는 것을 모두 직접 보지 않았소?! 빌어먹을, 오늘은 재수가 더럽게도 없는 날이오. 일진이 좋지 않았던 것뿐이니, 장로와는 아무 상관도 없소."
 집법장로는 정중하게 말했다.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장봉용두와 송청서가 서로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며 언쟁을 벌이자, 대전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사화룡은 진우량의 의견을 물었다.
 "진형제, 자네가 보기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진우량이 곧 대답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선 장봉용두께선 본방의 원로이시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송형제도 자신의 영달을 제쳐두고 본방에 가입했으며, 또한 그 조민이란 요녀와는 앙숙이므로 절대 고의로 그녀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필시 그 요사한 계집이 차력타력(借力打力)과 같은 괴이한 무공을 구사해 용두 형님의 철봉으로 송형제의 장검을 뿌리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서로 오해가 생긴 모양입니다."
 장무기는 내심 혀를 찼다. 진우량은 과연 심계가 깊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했으면서도 엇비슷하게 추측을 해낸 것이다. 사화룡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그 분석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군. 모두는 본방을 위해 애를 써야 하는데, 사소한 일로 대가리 깨지게 싸워서야 되겠나?"
 장봉용두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설령 내가....."

진우량이 즉시 그의 말을 받았다.

"송형제, 용두 형님은 덕망이 높아 설령 자네를 잘못 나무라셨더라도 성심껏 받아들여야 당연하네. 자, 어서 사과를 드리게."

송청서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다가가 몸을 숙였다.

"장봉용두, 소제가 무례한 행동을 취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봉용두는 방주 등의 이목을 의식해 더 이상 노골적으로 화를 낼 수 없어, 냉소를 날리며 퉁명스럽게 한 마디 내뱉었다.

"알았네!"

진우량은 일방적으로 송청서를 몰아세운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말을 곰곰히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았다. 그는 앞서 조민이 차력타력과 같은 괴이한 무공을 구사해 용두 형님의 철봉으로 송형제의 장검을 뿌리치게끔 만든 것 같다고 했고, 이번에는 용두 형님의 덕망이 높아 설령 잘못 나무라셨더라도 성심껏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으니, 결국 모든 게 장봉용두의 잘못이란 뜻이 아니겠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진우량은 최근 방주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문제삼지 않았다.

사화룡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진형제, 조금 전에 이곳에 나타나 한바탕 지랄발광을 떨다가 꽁무니를 뺀 요녀가 여양왕의 딸이었다고? 그렇다면 마교와는 으르렁대는 앙숙일 텐데, 어째서 우리가 그 마교의 마두 새끼 장무기를 욕하는데 괜히 나서서 열을 내는지 모르겠군."

진우량이 생각을 굴리며 대답을 하기 전에, 장발용두가 눈살을 찌푸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오랑캐 요녀가 유별나게 마교 교주를 옹호하고 나서는게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때 송청서가 나섰다.

"그 이유라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화룡은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럼 자네가 속시원히 말해 보게."

송청서는 또렷한 음성으로 말했다.

"마교는 비록 조정과 맞서고 있지만, 그 군주 요녀는 장무기에게 현혹되어 그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그를 감싸고 나선 겁니다."

개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모두 입이 딱 벌어지며 의아해 했다.

제 2 장 빗나간 연심(戀心)

한편 장무기는 북 속에서 송청서의 얘기를 듣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그게 정말이란 말인가? 정말로 그녀가 나에게 일생을 맡길 생각이란 말인가?'

장무기는 절로 조민을 올려다보았다. 조민 역시 그의 몸을 깔고 앉은 채 호흡이 좀전보다 가빠지는 것 같았다. 북 속은 비록 침침했지만 공력이 심후한 장무기는 그녀의 표정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조민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햇볕처럼 빛났다. 그 눈에는 무한한 감정이 넘실거렸다.

장무기는 단전으로부터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쳐 올라 그녀의 양손을 힘있게 움켜쥐었다. 그 순간 조민의 앵두 같은 입술이 동백꽃처럼 확대되어 그의 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끓어오르는 충동으로 인해 그녀의 입술을 삼키고 있었다. 강렬한 본능이었다. 그러나 그 본능은 이성(理性)에 의해 억눌려졌다. 조민의 붉은 입술이 갑자기 주아의 선혈이 낭자한 얼굴로 음각되었기 때문이다. 끓어올랐던 열정이 삽시간에 증오로 둔갑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손에 힘을 주었

다. 그 바람에 조민은 손이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비명을 내지 않으려니 눈물이 찔끔 흘러내렸다. 조민은 암팡스럽게 그를 노려보았으나 장무기는 의식적으로 그녀를 외면하듯 고개를 돌려 버렸다. 그러한 장무기가 너무나도 얄미웠다. 발로 그의 턱이라도 걷어찼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았다.

이때 진우량의 호기심이 담긴 물음소리가 들려왔다.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정말 그런 해괴한 일이 있단 말인가?"

송청서는 이를 갈아부치듯 열을 내며 말했다.

"장무기 녀석은 생김새가 평범하여 영웅스런 데라곤 한 군데도 없지만, 마교의 사술(邪術)을 배워 계집을 홀리는데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의 마수에 걸려들어 농락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법장로는 납득이 간다는 듯이 턱을 끄덕였다.

"맞아. 마교에 몸담고 있는 음도(淫徒)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상대를 홀리는 요사스러운 수법을 알고 있겠지. 아미파의 기효부는 마교 양소의 사술에 걸려들어 몸을 더럽히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으며, 장무기의 부친 장취산도 백미응왕의 딸이 쳐놓은 요법(妖法)에 빠져 역시 패가망신하지 않았나? 장무기는 요녀의 피를 타고났으며 명색이 마교의 우두머리이니, 채화보양술(採花補陽術)에 일가견을 갖고 있을 게 분명하지. 아마 그 오랑캐 군주도 그의 마수에 걸려들어 몸을 더럽혔을 걸세. 생쌀이 이미 익은 밥으로 변했는데 그 계집이 소마두에게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동감이라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서 전공장로는 분개를 금치 못해 한 마디 했다.

"그런 강호의 패륜아들은 하루속히 죽여 없애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양가집 규수가 그들의 희생물이 되겠는가!"

사화룡은 혓바닥을 내밀어 입술을 천천히 핥더니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빌어먹을, 어쨌든 장무기 녀석은 여복이 터져 살맛 나겠군."

장무기는 이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울화통이 터질 것만 같았다. 분명 자기는 아직까지 동자지신(童子之身)이거늘 아미파 멸절사태부터 말끝마다 자기더러 음적이니, 음도라고 몰아붙이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 이곳에선 한 술 더 떠 자기가 이미 조민의 몸을 더럽혔다느니 생쌀이 익은 밥이 됐다느니, 멋대로 말을 주워삼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때 조민이 갑자기 그의 가슴을 꼬집었다. 장무기는 흠칫하며 공연히 당황해졌다.

'조 낭자와 내가 이곳에서 몸을 맞붙인 채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정말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겠군.'

전공장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미파의 주지약 낭자가 정녕 그 음적의 손에 걸려들었다면, 이미 청백(淸白)을 잃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군. 송형제, 아무 염려 말게. 우리가 자네를 도와 틀림없이 주 낭자를 빼앗아 오겠네. 절대 기효부의 일이 재현되게끔 하지 않을 걸세."

집법장로도 한 마디 거들었다.

"형님의 말이 맞습니다. 무당파는 왕년에 은이정을 돕지 못했으니 이번에도 송형제를 돕지 못할 게 뻔합니다. 송형제는 무당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방에 가입하기로 작심했으니, 우리가 어찌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있겠소?"

개방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여 장무기를 음적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송청서를 위해 주지약을 되찾아 주겠다고 다짐했다.

이즈음 북 속에 있는 조민이 장무기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음탕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죠? 나를 생쌀에서 익은 밥으로 만든 것도 당신이라면서요?"

그녀의 말 속에는 다소간의 분노와 질책, 그리고 장난이 섞여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묘한 색깔로 어우러져 묘하게도 장무기의 본능을 자극했다. 일순 장무기는 본능적인 힘에 이끌려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말았다. 그 즉시 소녀 특유의 감미로운 채취가 그를 아찔한 현기증 속으로 몰아넣었다.

장무기는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그녀와 더불어 함께 있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원초적인 욕심일 뿐, 결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랑과 미움, 그는 두 개의 상반된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자 공연히 짜증이 났다.

'이 여인이 음탕하지 않다면, 아니 나의 사촌누이를 죽이지만 않았더라도 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녀와 일생을 같이 할 텐데.....'

송청서는 개방 사람들에게 형식적이나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러자 사화룡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음적이 무슨 방법으로 오랑캐 군주를 유혹해 수중에 넣었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가?"

송청서는 고개를 한 차례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그 자세한 내막은 당사자가 은밀하게 음수(淫手)를 뻗은 것이니 만치 제 삼자로선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날 요녀가 조정의 무사들을 이끌고 태사부님을 잡기 위해 무당산에 나타났는데, 그 음적의 얼굴을 보자 순순히 물러갔습니다. 그로 인해 무당파는 큰 화를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나의 삼사숙께서 지골(肢骨)이 부러져 이십 년 동안 행동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그

요녀가 준 약으로 뼈를 잇게 되었습니다."

집법장로가 그의 말을 받았다.

"바로 그것이네. 조정은 줄곧 무당파를 눈에 가시로 생각해 왔는데, 그 오랑캐 군주가 만약 음수에 걸려들어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았다면, 선뜻 약을 내주어 유삼협을 도울 리가 있겠는가? 어쨌든 그 음적은 질이 좋지 않은 녀석임에 틀림없지만, 태사부님과 사숙백들에게 도움을 준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군."

송청서도 그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맞습니다. 녀석은 태사부님과 사숙백님들의 은혜를 잊을 만큼 아직까지는 배은망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우량이 교활하게 눈동자를 굴리며 얼른 나섰다.

"방주께 아뢰옵니다. 지금 송형제의 말을 듣고 보니 한 가지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그 수가 성공한다면 녀석을 꼼짝 못하게 굴복시켜 마교의 모든 마도들이 우리 명령에 따르게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화룡은 솔깃했다.

"그런 기똥찬 묘책이 있다면,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 보게."

진우량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모두 한집안 식구지만, 이런 일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말에 주위에 있는 개방 고수들 중에 십여 명이 스스로 대전 밖으로 물러나 직책이 높은 몇몇 핵심 인물만 남았다. 그래도 진우량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일이 조금이라도 누설되면 엄청난 결과가 벌어질 테니, 송형제와 두 분 용두 형님께서 혹시 엿듣는 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봐 주십시오."

장봉용두와 장발용두는 즉시 대전 지붕 위로 몸을 솟구쳤고, 진우량과 송청서는 대전 앞뒤를 자세히 살폈다. 심지어 여러 개의

신상 뒤와 휘장 뒤, 액자 뒤까지 확인해 보았다.

장무기와 조민은 숨을죽인 채 긴장에 싸여 있었다. 장무기는 조민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전 안에 이 거고(巨鼓)이외에는 완벽하게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

네 사람은 구석구석 살펴보고 나서 다시 대전에 모였다. 진우량은 비로소 나직하게 말했다.

"이번 일은 성사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쥔 자가 바로 송형제요."

송청서는 멍해졌다.

"내가.....?"

진우량은 그를 똑바로 주시했다.

"그렇다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게."

북 속에 숨어 있는 장무기도 진우량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긴장된 채 신경을 곤두세웠다.

진우량은 이번에 장발용두에게 고개를 돌렸다.

"수고스럽지만, 장발용두께서 오독실심산(五毒失心散)을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을 송형제에게 내주시면 됩니다."

진우량은 다시 송청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자네는 그 오독실심산을 갖고 곧장 무당산으로 달려가 암암리에 장진인과 무당 대협들의 음식에다 풀어넣게. 우린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네가 일을 성사시키면 한꺼번에 잡아오겠네."

여기까지 들은 중인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장진인 등을 납치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진우량은 본격적인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들을 인질로 삼아 장무기 녀석을 위협하면, 녀석은 틀림없이 본방의 명령에 따르게 될 겁니다."

사화룡이 먼저 손뼉을 치며 찬성을 했다.

"그거 아주 좋은 수군. 좋아, 좋아. 훌륭해!"

집법장로도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 볼 만한 계획이야. 본방의 오독실심산을 음식에 풀어넣을 수만 있다면, 설령 장무기라 하더라도 영락없이 우리 손에 걸려들기 마련이지. 하지만 마교의 경계가 워낙 삼엄해 직접 그들에게 오독실심산을 전개하기는 어렵지만, 송형제는 무당의 제자이니 무당파 사람들을 상대하기엔 아주 쉬울 걸세. 그래서 집안도둑이 무섭다는 말도 있지 않는 가? 송형제가 나서 주기만 한다면, 일은 감쪽같이 해치울 수가 있을 걸세."

송청서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건..... 그건 곤란합니다. 어떻게 내 손으로 태사부님과 아버님께 해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우량이 그를 설득했다.

"오독실심산은 본방의 독특한 영약으로 잠시 동안 사람의 정신을 잃게 할 뿐 몸에 전혀 해로움을 주지 않네. 우린 영존과 장진인을 누구보다도 존경하는데 그들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할 리가 있겠는가?"

송청서는 그래도 승낙하지 않았다.

"제가 사전에 태사부님과 부친의 승낙없이 본방에 가입한 것만도 나중에 큰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본방과 무당파는 모두 협의도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므로,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릅니다. 저는 절대 그런 불효막심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진우량은 끈질겼다.

"송형제, 왜 그다지도 생각이 좁은가? 자고로 큰일을 위해선 작은 일을 희생시킬 수 있으며, 대의(大義)를 위해서 혈육까지도 외면해야 된다고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우리의 목적은 단지 마교를 섬멸하는데 있을 뿐, 무당파의 여러분을 모셔 오겠다는 것은 그 방법에 불과하네. 그들도 나중에 우리의 굳은 뜻을 알게 되면 이해해 줄 걸세. 왕년에 육대문파가 마교를 협공할 때도 무

당파 역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송청서는 여전히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
 "제가 만약 이번 일을 실천에 옮긴다면, 평생을 두고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강호인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니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진우량은 그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방금 내가 무엇 때문에 팔대장로들까지 자리를 피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주위를 다시 샅샅이 확인한 것도 이 일을 극비리에 진행하기 위함이네. 자네도 약을 풀은 후 정신을 잃은 척하게. 우리가 자네까지 붙잡아올 테니 아무도 자네를 의심하지 않을 걸세. 이곳에 있는 우리 일곱 명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을 게 아닌가? 우리야 자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할 것이니 조금도 위축될 게 없네."
 송청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정녕 방주님과 진형님의 분부라면 따라야 마땅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효(孝)와 의(義)를 근본으로 삼아야 하거늘, 내 어찌 부친에게 해를 끼치는 불효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만큼은 분부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개방은 늘 효(孝)를 강조해 왔다. 그래서 송청서가 효를 앞세워 거절하자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한데 진우량이 갑자기 냉소를 날렸다.
 "아랫 사람으로서 윗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한가지 분명히 묻고 싶은 말이 있네. 막칠협과 자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의 배분이 높은가, 아니면 자네의 배분이 높은가?"
 진우량의 물음은 실로 엉뚱한 것이었다. 장무기는 그가 왜 갑자기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송청서는 다시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그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좋습니다. 방주님과 여러분들의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의 부친께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선 아니 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겠다면 절대 이번 일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사화룡, 진우량 등은 그가 승낙하자 모두 기뻐했다.

진우량은 쾌히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를 말게. 진형제는 우리와 서로 형제로 칭호하고 있으니 송대협 역시 우리의 존장임에 틀림없네. 그러니 송형제가 그런 제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린 그 어르신네를 정중히 모실 걸세."

장무기는 내심의혹을 금치 못했다.

'송사형은 줄곧 승낙을 하지 않다가 진우량이 막칠숙을 거론하자 왜 생각이 달라진 것일까?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텐데..... 나중에 막칠숙을 뵙고 직접 여쭈어보면 알게 되겠지.'

이어 집법장로와 진우량이 나직이 상의를 했다. 장삼봉 등이 중독된 후 어떤 방법으로 연락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납치해 올 것인가에 대해 소상히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사화룡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진우량의 의견에 따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장발용두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했다.

"지금은 엄동설한이니 오독사(五毒蛇)가 땅 속에 깊이 들어가 동면을 하고 있을 것이오. 소제가 바로 장백산으로 달려가 몇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빠르면 스무 날, 늦어도 한 달이면 돌아올 겁니다. 동면을 하는 오독사로 오독실심산을 만들면 가장 독성이 강할 뿐 아니라 무색무취의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설령 장진인 같은 고수들도 절대 사전에 눈치를 채지 못할 겁니다."

집법장로가 그의 말을 받았다.

"진형제와 송형제는 장발용두와 함께 장백산으로 가게. 우린 먼저 남쪽으로 내려갈 테니 한 달 뒤에 노하구(老河口)에서 만나기로 하세. 오늘이 섣달 초여드레이니 해를 넘기고 정월 초여드렛날 만나면 되겠군."

그는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다음 말을 이었다.

"그 한림아는 쓸모가 많은 놈이니, 장봉용두가 특별히 잘 지켜줬으면 좋겠네. 마교에서 놈을 구하러 올지도 모르게. 자, 이제 우린 적의 이목을 피해 서로 흩어져 이곳을 떠나도록 하세."

그들은 분분히 방주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서 송청서, 진우량, 장발용두가 먼저 북쪽으로 향했다. 삽시간에 미륵묘 앞에 운집했던 개방 제자들이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떠나 버렸다.

장무기는 그들이 멀리 떠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비로소 조민을 밀어내며 북 속에서 내왔다. 조민도 따라서 뛰어내리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를 요염하게 쏘아보았다.

장무기는 억눌렸던 울화가 터졌다.

"흥! 무슨 염치로 나를 만나려 왔지?"

조민 역시 차가운 표정으로 쏘아부쳤다.

"왜 그렇게 화를 내죠? 내가 장교주께 무슨 죄라도 졌다는 건가요?"

장무기의 얼굴에 서릿발이 깔렸다.

"월내 욕심이 많은 여자이니 의천검과 도룡도를 훔쳐간 것은 그런 데로 이해하겠소! 그리고 나를 무인도에 버려두고 떠난 것도 용서할 순 있소. 하지만 중상을 입은 주아에게 다시 독수를 전개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소! 당신같이 악랄한 여인은 세상에서 둘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오! 그리고서도 뻔뻔스럽게.....!"

여기까지 말한 장무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 무섭게 다짜고짜 조민의 뺨을 후려쳤다. 조

민은 그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도저히 피할 새가 없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호되게 뺨을 얻어맞아 얼굴이 이내 불그죽죽하게 부어올랐다.

조민은 이 갑작스러운 일에 아픔과 분노보다도 놀라움이 앞섰다. 그녀는 눈물을 주루루 흘리며 소리쳤다.

"당신은 내가 의천검과 도룡도를 훔쳤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주아에게 독수를 전개했다는데 그녀를 불러와 대질을 시켜 주세요!"

장무기는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하자 더욱 울화가 치밀었다.

"좋아! 저승으로 보내 그녀와 대질케 하지!"

장무기는 전광석화같이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배신감에 그는 치를 떨었다.

조민은 숨이 막힐 것 같아 본능적으로 그의 가슴을 향해 지풍을 날렸다. 그러나 지풍이 그의 가슴에 닿자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졌다. 장무기가 구양신공으로 몸을 호위했기 때문이다. 삽시간에 조민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더니, 혀를 내밀며 그만 까무라치고 말았다.

장무기는 원래 그녀를 목졸라 죽일 생각이었으나 까무라친 것을 보자 그만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그는 조민의 목에서 손을 풀고 말았다. 조민은 그 즉시 축 늘어진 체 쿵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쓰러졌다.

한참 후에야 조민은 나직한 신음을 토하며 깨어났다. 장무기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얼굴에 분명 염려와 당황함이 엇갈려 있는 것을 조민은 확연히 간파할 수 있었다. 게다가 조민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숨까지 내쉬었다.

조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를 똑바로 주시하며 물었다.

"주아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나요?"

장무기는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 얼굴에 난도질을 했는데 살아 있겠소?"
조민은 떨리는 음성으로 반문했다.
"누가.... 누가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을 했죠? 내가 왜 주아의 얼굴에 난도질을 하겠어요? 주낭자가 그렇게 말했겠죠?"
장무기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주낭자는 절대 뒤꽁무니에서 남의 나쁜 말을 할 사람이 아니오! 자기가 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함부로 당신을 모함하지 않소!"
"그럼 주낭자 자신이 그렇게 말했나요?"
"주아는 벌써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소! 그 무인도에 우리 다섯 명밖에 없었는데 의부님이 그런 짓을 했겠소? 아니면 내가 했겠소? 주아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난도질 할 지는 더더욱 없지 않소! 흥! 아무리 발뺌을 한다 해도 이번엔 호락호락 속지 않을 것이오. 내가 그녀와 혼례를 올릴까 봐 그런 독수를 전개한 것 같은데 똑똑히 들으시오! 그녀가 죽었든 살았든 간에 난 그녀를 영원한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소!"
조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장무기는 냉소를 날렸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았군. 사람을 시켜 우리를 배로 유인한 연후에 육지에 가까이 이르면 포격을 해서 몰살시키려 했지만, 나의 의부님이 그 음모를 사전에 알아차려 무사히 중원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소. 음모가 제대로 성공되지 않아 몹시 서운하겠군!"
조민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눈동자에 연민의 빛깔이 띄어지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미색과 요염한 자태에 행여나 자신이 다시 빨

려들까 봐 얼른 고개를 돌려 냉랭하게 말했다.

"난 누이동생을 위해 복수해 주기로 맹세했지만, 워낙 모질지 못한 놈이라 오늘은 이대로 떠나겠소. 하지만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면 언젠가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을 명심하시오!"

말을 끝낸 장무기는 곧 성큼성큼 미륵묘 밖으로 걸음을 떼어놓았다.

그가 약 십여 장쯤걸어나갔을 때 조민이 뒤쫓아와 소리쳤다.

"이봐요!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죠?"

장무기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오?"

조민은 계속 뒤따라오며 말했다.

"사대협과 주낭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니 그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장무기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의 의부님은 나처럼 자비롭지가 못하시니, 그대를 보면 당장 죽여 버릴 것이오!"

조민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의 의부님은 수단이 악랄할지 몰라도 당신처럼 생각이 좁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대협이 나를 보자마자 살수를 전개한다면, 당신은 자연히 누이동생의 복수를 하게 되는 셈이니 바라는 바가 아니겠어요?"

장무기는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내가 어째서 생각이 좁다는 거요? 어쨌든 난 그대를 의부님께 데려갈 수 없소!"

조민의 입가에 담담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봐요! 마음이 약하고 소견이 좁은 양반! 속으로는 날 끔찍이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행여나 사대협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데려가지 않으려는 거죠?"

장무기는 그녀가 자신의 정곡을 찌르자 절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호통을 쳤다.

"닥치시오! 그렇게 잘난 척만 하다가는 언젠간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오! 아무튼 부탁이니 나에게 좀 멀리 떨어져 주시오. 언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달라져 그대를 죽이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민은 그에게 바싹 다가왔다.

"난 사대협과 주낭자를 만나 직접 물어볼 말이 있어요. 그전에 내 추측만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장무기는 은근히 호기심이 생겼다.

"그들에게 대관절 무슨 말을 물으려는 거요?"

조민은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그들과 대면하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겁을 먹는 거죠?"

장무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좋소. 그대신 이것은 그대가 스스로 원한 일이니, 나의 의부님이 살수를 전개한다 해도 날 원망하진 마시오!"

조민은 턱을 치켜올리며 도도하게 말했다.

"당신이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장무기는 다시 비위가 뒤틀렸다.

"내가 왜 염려를 하겠소!? 흥! 그대가 죽기를 학수고대하겠소!"

조민은 빙긋이 웃었다.

"그럼지금이라도 직접 날 죽이면 되잖아요?"

장무기는 그녀와 더 이상 입씨름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입을 굳게 닫아 버리고 성큼성큼 고을 쪽으로 걸어갔다. 막상 고을에 당도하자 장무기는 다시 망설여졌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조낭자, 내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 첫 번째 요구에 따라 도룡도를 찾아주었으니, 아직 두 가지 일이 남았소. 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소. 그런데 낭자가 만약 나의 의부님을 만나게 되면 십중팔구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대로 떠나시오. 내가 나머지 두 가지 조건마저 들어주어 빚을 청산한 연후에 다시 나의 의부님을 뵈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사실 이것은 장무기의 궁색한 변명이었다. 조민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생긋이 웃었다.

"당신은 내가 죽는 게 겁이 나서 억지로 구실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장무기는 그녀를 한 대 쥐어 박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관절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조민은 정감이 듬뿍 담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기뻐요. 당신이 진심으로 날 좋아하는지 줄곧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젠 확신을 얻었어요."

장무기는 조민에게 손발을 들고 말았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젠 사정투로 나왔다.

"조낭자, 제발 부탁이오. 어서 떠나가시오."

조민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싫어요. 꼭 사대협을 만나야겠어요."

장무기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객점으로 향했다. 사손이 머물러 있는 객방 밖에 이르러 잠시 주춤하다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의부님!"

그는 자신의 몸으로 조민의 앞을 가로막고 두어 번 불렀으나 방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들려오지 않았다.

장무기가 문을 밀어보니 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었다. 그는 웬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의부님은 워낙 청각이 예민하여 자기가 문 밖에 이르면 설령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외출을 했다면 안에서 문을 잠그어 놓을 리가 없지 않는가!

장무기가 힘을 주어 문을 밀자 빗장이 끊어지며 문이 열렸다. 과연 사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대신 창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무기는 다시 주지약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주낭자!"

역시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침상에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 주지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강적과 맞부딪친 게 아닐까?'

점원을 불러 물어보니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두 사람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장무기는 다소 마음이 놓였다.

'둘이 함께 잠시 어디를 간 모양이군.'

사실 장무기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다. 사손은 비록 실명했지만 무공이 뛰어나 당금 무림에서 적수가 될 만한 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세심한 주지약과 함께 있으니 별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장무기는 사손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주위를 유심히 살폈으나,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해 다시 방안으로 돌아왔다.

조민이 다시 그의 비위를 슬슬 긁었다.

"당신은 사대협이 방에 없는 것을 확인하자 왜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장무기는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그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내가 언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거요?"

조민은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문을 열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긴장돼 있던 안색이 이내 풀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장무기는 더 이상 그녀와 입씨름을 벌이지 않고 침상에 걸터앉았다.

조민은 짓궂게 의자를 끌어당겨 바로 그의 앞에 앉으며 싱글벙글했다.

"당신의 마음을 다 알아요. 사대협이 날 보자마자 살수를 전개할지 모른다고 전전긍긍하다가, 막상 그 분이 없는 것을 알자 천만다행이라 생각했겠죠? 그렇게도 날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 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장무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차마 그녀에게 다시 손찌검을 할 수 없었다.

"그래, 그대를 끔찍이 생각한 나머지 밤잠을 설쳐 왔으니 어떻게 할 생각이오?"

조민은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띄운 채 말했다.

"그래서 기쁘다고 했잖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구름 위를 둥실둥실 날으는 기분이에요."

장무기는 이를 갈았다.

"그럼 왜 거듭해서 날 죽이려 했소? 그렇게도 날 끔찍하게 죽이고 싶었단 말이오?"

조민은 얼굴을 약간 붉히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그건 부인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당신을 죽이려 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녹류장에서 당신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하늘에 맹세할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벼락을 맞아 십팔 층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장무기는 그녀가 진지하게 맹세를 하는 것을 듣자 다소 누그러졌다.
"그렇다면 왜 의천검과 도룡도를 훔쳐가면서 나를 무인도에 버려 두었소?"
조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끝끝내 그렇게 인정한다면 나로선 입이 열개 있어도 변명하기가 어려워요. 사대협과 주낭자가 돌아온 후 넷이서 대질하면 자연히 모든 진상이 밝혀질 거예요."
장무기는 냉소를 날렸다.
"감언이설로 날 속일 순 있어도 의부님과 주낭자를 속이진 못할 것이오?"
조민은 다시 그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당신은 왜 내 감언이설에 속는 거죠? 그게 바로 날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장무기는 말로서 그녀를 당할 수 없었다. 그는 오기가 뻗쳤다.
"그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또 어떻게 하겠소?"
조민은 활짝 웃었다.
"왜 자꾸만 그런 투로 묻죠? 내 대답은 마찬가지에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장무기는 그녀가 오뉴월의 장미처럼 웃는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그 웃음 속으로 빨려들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돌려 버렸다.
조민은 매우 느긋했다.

"미륵묘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더니 배가 고파요."

그녀는 점원을 불러 작은 황금 덩어리를 내주며 가장 좋은 술상을 차려오라고 했다. 점원은 연신 굽신거리며 물러가더니, 잠시 후 푸짐한 과일부터 갖고 왔다.

"의부님이 돌아오면 식사를 같이하도록 합시다."

조민은 막무가내였다.

"사대협께서 당도하시면 내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미리 배불리 먹어두어야 하지 않겠어요? 배불리 먹고 죽은 귀신은 혈색도 좋대요."

장무기는 그녀의 너무나 태연한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조민이 다시 말했다.

"금덩어리는 얼마든지 있으니, 그들이 오면 다시 한 상 차려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장무기는 냉랭하게 말했다.

"낭자와 더 이상 식사를 함께 하지 않겠소. 어느 순간에 다시 십향연근산을 음식에다 넣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조민은 이내 토라졌다.

"좋아요. 강요하진 않겠어요."

이렇게 말한 그녀는 혼자서 과일을 맛있게 먹었다.

장무기는 점원을 불러 국수를 말아오게 하여 그녀와 멀찌감치 떨어져 게걸스럽게 먹었다.

조민의 식탁에는 이미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그녀는 얼마동안 혼자서 먹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루루 흘러내렸다. 그래도 장무기가 아랑곳하지 않자 아예 젓가락을 팽개치며 식탁에 엎드려 훌쩍훌쩍 흐느껴 울었다. 그래도 장무기는 한 마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조민은 한참 동안 혼자서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녀는 창 밖을 살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한 시진만 지나면 날이 어두워지겠네요. 그 한림아는 어디로 끌려갔을까? 그의 행방을 놓치면 다시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을 텐데....."

그 말에 장무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내가 깜박 잊고 있었군. 난 우선 그를 구하려 갔다 와야겠소!"

조민은 입을 삐쭉거리며 그에게 눈을 흘겼다.

"정말 얼굴이 두껍군요. 누가 당신에게 말했나요? 왜 내가 혼자서 중얼거린 말에 신경을 곤두세우죠?"

장무기는 그녀에게 속수무책이었다. 못된 계모 낯짝처럼 흐렸다 풀렸다 하니, 도무지 그녀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었다. 입을 열었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곧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즉시 조민이 따라나섰다.

"나도 함께 가겠어요!"

장무기는 앙갚음을 하듯 쏘아부쳤다.

"그대는 나의 누이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어찌 원수와 동행을 할 수 있겠소?"

조민은 턱을 치켜세우며 토라진 표정으로 한 마디 내뱉었다.

"좋아요! 혼자 가세요!"

장무기는 밖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물었다.

"혼자 이곳에 남아 무엇을 하려는 거요?"

조민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곳에서 당신의 의부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장무기는 내심 당황해졌다.

"나의 의부님은 악을 원수처럼 여기는 분이라 그대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오!"

조민은 장탄식을 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그게 내 운명이라면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 밖에요."

장무기는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입을 열었다.

"잠시만이라도 이곳을 피해 줬으면 좋겠소. 나중에 나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시다."

조민은 거절했다.

"이곳 외에는 몸을 피할 만한 곳이 없어요."

장무기는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우이독경임을 알았다.

"좋소. 나와 함께 한림아를 구하러 갑시다. 갔다 와서 다시 의부님과 대질하면 될 테니까."

조민의 입가에 득이한 미소가 띄어졌다.

"이것은 당신의 요구에 따라 내가 함께 가는 것이지, 결코 내가 생떼를 써서 같아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장무기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대 같은 여성을 만나게 된 것도 나의 운명인 것 같으니 감수하는 도리밖에."

조민은 생긋이 웃으며 장무기를 방문 밖으로 밀어냈다.

"밖에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어 방문을 닫았다.

잠시 후 방문이 다시 열렸을 때 조민은 이미 여장으로 갈아입었다. 붉은 비단 옷에 양피로 만든 피풍(披風)을 걸쳐 매우 호화스러운 차림새였다.

장무기는 그녀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봇짐 속에 이런 귀중한 옷이 들어 있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이 여인은 심계가 깊고 하는 일마다 허실을 종잡을 수 없구나.'

장무기가 생각을 굴리고 있는 사이에 조민의 눈가에 웃음이 번

졌다.

"왜 그렇게 넋빠진 사람모양 날 쳐다보죠? 이 옷이 예쁜가요?"

장무기는 푸념을 하듯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용모가 꽃처럼 예쁘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마음이 사갈(蛇蝎) 같은데....."

조민은 까르르 웃었다.

"장교주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겠어요. 장교주, 당신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게 어떻겠어요?"

장무기는 냉랭하게 말했다.

"난 어려서부터 남루한 차림새로 자라왔소. 내 차림새가 누추해 그 화려한 옷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 오도록 하시오."

"또 심술을 부리는군요. 난 단지 당신이 멋있는 옷을 입은걸 보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가서 옷을 한 벌 사오겠어요. 그 거렁뱅이들은 관도를 따라 산해관(山海關) 방향으로 갔으니, 우리가 걸음을 재촉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장무기의 대답을 듣지 않고 객점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장무기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맥없이 침상에 걸터앉으며 자책감에 빠졌다.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모질게 먹어도 그녀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았다. 상대방은 분명 자기의 누이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흉수이거늘 애당초 맹세한 대로 도저히 그녀에게 살수를 전개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꾸만 그녀에게 마음이 쏠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장무기는 내심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다.

'무기야! 이 못난 놈아! 너도 사내 대장부라 자처할 수 있느냐? 네가 무슨 면목으로 명교를 이끌며 천하의 군호를 호령한단 말이냐?'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도 조민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지며 주위에 땅거미가 깔렸다. 그는 웬지 초조해졌다.
'내가 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나 혼자서 한림아를 구하러 갈까?

그러나 그의 생각은 이내 바뀌어졌다. 만약 그녀가 새 옷을 사가지고 돌아와 사손과 맞부딪친다면, 사손은 다짜고짜 그녀의 천령개에 일장을 전개할 것이고, 그럼 그녀는 뇌장이 파열되어 목숨을 잃을 게 아닌가? 그녀가 사온 옷은 주위에 널부러질 것이고.....
그런 상황을 상상하자 장무기는 절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진 채 방 안을 왔다갔다 거닐었다. 그의 뇌리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때 가벼운 발자국소리가 들리며 조민이 보따리 두 개를 들고 들어왔다.
장무기는 내심 반가왔으나 겉으론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이제야 오는 거요? 난 지금 떠나려던 참이었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으니 어서 떠납시다!"
"이왕 오래 기다렸으니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갖고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어요. 내 이미 말을 두 필 구해 왔으니 밤을 새워가며 길을 재촉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보따리를 풀어 옷가지를 꺼내 주었다.
"여긴 작은 고을이기 때문에 좋은 옷이 없어요. 잠시 이 옷으로 갈아입었다가 대도에 당도하면 가죽 옷을 새로 사드리겠어요."
장무기는 이내 표정이 차가와졌다. 그는 심각한 음성으로 말했다.
"조낭자, 혹시 나에게 부귀영화의 허울을 뒤집어 씌워 조정에 귀순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아니오? 만약 그런 속셈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현명할 것이오. 나 장무기는 당당한 한족(漢族)

의 자손으로서, 설령 왕작(王爵)에 봉해진다 해도 절대로 몽고에 투항하지 않을 것이오."

조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교주, 그렇게 흥분하시지만 말고 이 옷이 몽고 의복인지 한인의 의복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그녀는 회색 비단 장포를 펼쳐 보였다.

장무기는 그녀가 구입해 온 옷이 한인의 의복임을 확인하고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조민은 그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물었다.

"나의 이 차림새가 몽고의 군주 같나요? 아니면 한인의 낭자 같나요?"

장무기는 그녀가 묻는 말에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처음에는 단지 그녀의 의복이 몹시 화려하다고만 느꼈을 뿐 몽고 의상인지 한인의 의상인지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그녀의 말을 듣고 비로소 그녀가 한인 낭자의 차림새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민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정이 듬뿍 담긴 눈동자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눈빛에서 선뜻 가슴에 와 닿은 것이 있었다.

조민이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이 한인이든 몽고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한인이라면 나도 한인이고, 당신이 몽고인이라면 나도 몽고인이에요. 당신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져 있겠죠. 한인과 몽고인의 분쟁, 한인의 흥망성쇠, 권세위명 등등..... 하지만 내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장무기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한한 정감이 담긴 그녀의 말을 듣자 절로 의지가 흐려지며 뇌리에 혼란이 왔다. 그는 잠시 동안 넋잃은 사람처럼 굳어져 있다가 진지하게 물었다.

"나의 누이동생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 보시오. 내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까 봐 죽인 게 아니오?"

조민은 고개를 내두르며 음성을 높여 부인했다.

"은낭자를 해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내가 한 말은 거짓없는 사실이에요."

장무기는 장탄식을 했다.

"조낭자, 그대가 나에게 베풀어 준 정의는 잘 알고 있소. 나도 목석이 아니거늘 어찌 그 고마운 정을 외면하겠소?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날 속일 필요가 있겠소?"

조민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예전에 난 똑똑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모두 자기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군요. 장교주, 오늘 이곳에 남아 끝까지 사대협과 주낭자를 기다리도록 해요."

장무기는 멍해졌다.

"왜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소?"

조민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리고 한림아를 구하는 일은 염려 마세요. 내가 책임지고 그를 구해 주겠어요."

말을 끝낸 그녀는 밖으로 나가더니, 주지약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렸다.

장무기는 그녀의 속셈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는 침상에 홀로 앉아 곰곰이 생각을 굴리다가 문득 뇌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혹시 그녀는 내가 주지약과 혼약을 한 사실을 알아차린게 아닐

까? 그래서 주아를 죽인 걸로 부족해 다시 주지약을 해치려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현명이로가 미륵묘를 떠난 즉시 이곳으로 달려와 의부님과 주지약을 해쳤을지도 모른다!'

현명이로가 연상되자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녹장객과 학필옹의 무공은 막강하여 사손이 설령 실명되지 않았다 해도 그들 두 사람의 협공은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장무기는 벌떡 일어나 조민이 들어 있는 객방으로 달려갔다.

"조낭자, 현명이로는 어디로 갔소?"

조민은 방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들은 내가 미륵묘를 벗어나 산해관 쪽으로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남쪽으로 쫓아갔을 거예요."

"그게 정말이오?"

조민은 냉소를 날렸다.

"흥! 내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장무기는 말문이 막혀 잠시 멍청하니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러자 조민이 그의 비위를 긁듯 다시 말했다.

"만약 내가 현명이로를 시켜 이 객점으로 달려와 사대협과 당신이 사랑하는 주낭자를 죽이려고 시켰다면, 내 말을 믿겠나요?"

그녀의 말은 예리한 화살처럼 장무기의 정곡을 찔렀다. 그것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던 가상이 아니었는가!

장무기는 대뜸 방문을 걷어차며 안으로 뛰쳐들어가 살기띤 음성으로 외쳤다.

"방금 뭐라고 했소?"

조민은 그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자 겁이 났다. 아울러 공연한 말을 내뱉은 것이 후회되었다.

"그렇게 화를 내지 마세요. 난 다만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장무기는 그녀를 뚫어지게 주시했다.
"한사코 나의 의부님을 기다려 대질하겠다고 느긋한 태도를 취해 온 것이, 혹시 그들을 이미 저승으로 보냈기 때문이 아니오?"
조민은 그의 살기띤 눈을 주시하며 정색을 했다.
"장교주, 내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세상만사는 복잡 미묘하여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남의 망언에 좌우되거나 스스로 경솔한 판단을 내려선 안 돼요. 정녕 나를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수를 전개하세요. 그대신 당신의 의부님이 무사히 돌아와 당신의 추측이 빗나갔다는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생각이죠?"
장무기는 그녀의 말에 마치 찬물 세례를 받은 듯 정신이 확 들었다. 그는 자신이 경솔한 행동을 하려던 것이 부끄러웠다.
"나의 의부님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있겠소? 앞으론 의부님의 생사안위를 갖고 실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오."
조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쓸데없이 입을 놀려 미안해요.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장무기는 그녀가 잘못을 시인하자 마음이 봄눈 녹듯 풀렸다.
"나 역시 경솔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오."
그는 다시 사손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날 밤을 꼬박 세우고 이튿날 동이 터올 무렵까지 사손과 주지약은 돌아오지 않았다.
장무기는 다시 걱정이 되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마친 그는 조민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다. 그러나 조민도 그들 두 사람의 행방에 대해 짚이는 바가 없었다.
조민은 한참 생각을 굴리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차라리 사화룡 일당을 쫓아가 소식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부님도 내가 개방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곧 계산을 치렀다. 장무기는 객점 주인에게 만약 사손과 주지약이 돌아오면 객점에서 자기를 기다려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들이 객점을 나서자 점원이 밤색 준마 두 필을 끌고왔다. 장무기는 두 필의 준마가 건장하며 털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보고 아주 귀한 명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조민은 어제 이 두 필의 준마를 구하느라고 밖에서 시간을 오래 지체했던 것 같았다.
조민은 장무기가 감탄해 하는 것을 보자 몹시 만족해 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안장에 올랐다. 곧이어 두 필의 준마는 남쪽을 향해 질주해 갔다. 길가는 행인들은 준수하게 생긴 한 쌍의 젊은 남녀가 화려한 차림새로 준마를 몰고가는 것을 보자 모두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두 사람은 이날 하루 종일 길을 재촉해 이백여 리를 벗어났다. 그들은 밤이 깊어서야 객점을 찾아 하룻밤을 유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다시 길을 재촉했다.
이날 정오 무렵, 삭풍이 갑자기 기승을 부리는가 싶더니 먹장구름이 낮게 주저앉으며 날씨가 잔뜩 흐려졌다. 다시 이 십여 리 가량 달리자 하늘에서 닭털 같은 함박눈이 펑펑 쏟아졌다. 길을 재촉하는 동안 두 사람은 줄곧 말이 없었다. 눈발은 갈수록 굵어졌다. 두 사람은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길을 재촉하는데만 열중했다.
이날 그들이 거쳐온 곳은 거의 다 황산준령이었다. 저녁쯤 되자 눈이 한 자 가량 쌓였다. 그들이 타고 온 말은 비록 보기 드문 준마였지만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땅거미가 깔리기 무섭게 주위는 어두컴컴해졌다. 두 사람은 안장에서 내려 어둠을 뚫고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민가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장무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조낭자, 낭자의 생각으론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무리하게 계속 길을 재촉한다면 말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오."

조민은 앙칼지게 쏘아부쳤다.

"당신은 타고 온 말만 걱정해 줄 뿐, 내가 지쳐서 죽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군요!"

장무기는 아차 하며 내심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체내에 구양신공이 축적돼 있어 피로와 추위를 이겨낼 수 있지만, 그녀는 여지껏 쉬지 않고 길을 재촉해 오느라고 몹시 길을 재촉해 오느라고 몹시 지쳐 있겠군.....'

장무기는 적당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말에 올라 다시 얼마쯤 가자 바스락소리가 들리며 길옆에서 한 마리의 노루가 뛰쳐나와 산 속으로 달려가는 게 눈에 띄었다.

장무기는 즉시 소리쳤다.

"저놈을 잡아 저녁 식사를 합시다."

말을 내뱉기 무섭게 안장 위에서 몸을 날려 노루새끼의 뒤를 쫓아갔다. 눈이 쌓인 산길에 노루 발자국이 찍혀 있어 뒤를 쫓기가 수월했다. 언덕배기를 넘어서자 야음이 깔린 가운데 그 노루가 어느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보였다.

장무기는 시위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몸을 날렸다. 노루가 미처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는 재빨리 노루의 뒷덜미를 움켜잡았다. 노루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손목을 물려 했지만, 장무기가 손에 힘을 가하자 으드득 소리와 함께 노루의 목뼈가 부러졌다.

동굴을 살펴보니 비록 넓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쉬기엔 충분했

다. 장무기는 곧 노루를 짊어지고 조민에게 돌아가 넌지시 제의했다.
"저쪽에 작은 동굴이 있는데, 하룻밤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떻겠소?"
조민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답지 않게 수줍어하는 것을 보자 오히려 장무기가 쑥스러웠다. 장무기가 말고삐를 잡고 노루를 안장 위에 올린 채 앞장서 걷자, 조민은 묵묵히 뒤를 따랐다.
어제는 객점에서 따로 방을 정해 하룻밤을 지냈지만, 오늘은 부득이 함께 동굴 속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다. 부부가 아닌 젊은 남녀로서 사실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다.
장무기는 두 필의 말을 언덕배기 아래 늙은 소나무가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끌고가 눈을 피하게 했다. 동굴 앞으로 돌아온 그는 마른 나뭇 가지를 주워 불을 피웠다. 불빛을 빌려 다시 동굴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했다. 동굴 안쪽은 칠흑같은 어둠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노루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더니, 눈(雪)으로 물을 대신해 깨끗이 씻어 굽기 시작했다. 한편 조민은 가죽 겉옷을 벗어 동굴 바닥에 깔았다. 앞쪽에서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동굴 안은 봄날처럼 훈훈했다.
장무기는 고개를 돌려 다시 동굴 안을 살폈다. 불빛이 명암(明暗)되는 가운데 조민의 달덩어리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비치자,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묘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었다.
조민의 모습은 마치 신방을 꾸미고 있는 화사한 새색시 같았다. 이 순간 조민도 마침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의 눈동자가 마주쳤다. 그러자 약속이나 한 듯 그들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늘 온종일 추위와 허기에 시달려 온 것이, 서로 마주 보며 짓는 미소로 인해 말끔히 씻어지는 것 같았다.

노루 고기가 알맞게 익자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맛있게 뜯어먹었다. 장무기는 조민이 입김을 후후 불어가며 노루고기를 열심히 뜯어먹는 모습을 지긋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온 몽고족의 군주가 자기로 인해 추위를 무릅쓰고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한편으론 안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안스러운 빛깔보다는 사랑스러운 색채가 더 진하게 담겨져 있었다.

조민의 지금 모습은 한없이 천진난만했다. 그녀가 강호의 효웅(梟雄)들을 좌지우지하는 여걸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더우기 누이동생의 얼굴을 난도질한 악랄한 여인이라고는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조민은 한창 게걸스럽게 노루고기를 뜯다가 그의 눈길을 의식했는지 홀연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양볼이 불그스름하게 물들어지며 눈을 곱게 흘겼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처음 보나요?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고기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장무기는 얼른 얼버무렸다.

"하도 맛있게 먹길래 부러워서 쳐다본 것뿐이오."

조민은 티없이 맑게 웃었다.

"여지껏 산해진미를 다 먹어 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에요. 아마 당신이 직접 구워서 그런가 봐요."

장무기는 그녀의 웃는 모습이 해당화(海棠花)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여 고기를 뜯었다.

'낭자가 원한다면 매일 고기를 구워줄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이 말을 고기와 함께 삼켜 버렸다.

식사를 마치자 장무기는 모닥불에 마른 장작을 충분하게 집어넣고 조민과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덧 눈발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하현달이 수줍은 처녀처럼 삐끔히 얼굴을 내밀었다. 주위는 조용하기만 했다. 이따금 어디선가 밤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와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더불어 정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뿐이었다.

장무기는 동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올리가 만무였다. 그는 살며시 눈을 떴다. 조민은 그의 맞은편에서 세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으나, 역시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이러한 침묵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정적이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잠들었소?"

그가 나직이 묻자 조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내둘렀다. 당돌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그녀가 침묵을 지키자 장무기는 오히려 불편했다.

"몹시 피곤할 텐데 눈을 좀 붙이시구료."

조민은 잔잔한 미소에 싸여 있는 앵두 같은 입술을 열었다.

"잠이 오지 않는군요. 당신과 만났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굴은 협소하여 두 사람은 비록 떨어져 앉아 있지만 서로 손을 내밀면 맞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왔다. 장무기는 그녀에게서 야래향(夜來香)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오는 것을 느꼈다.

조민이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내 신을 벗기고 발바닥을 간지럽히던 일이 생각나나요?"

그 말에 장무기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때는..... 사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한밤중에 단둘이 심산 동굴에 있으면서 그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자 당황함이 앞섰다.

당시는 단지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즉흥적으로 취한 행동이었지만, 나중에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렸던 게 사실이었다.

조민은 역시 당돌하고 도전적이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쏠렸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장무기를 똑바로 주시하며 다음 말을 이었다.

"사실 이틀 동안 아무 말 않고 참아왔지만, 미륵불묘에서 거렁뱅이에게 곤봉으로 발뒤꿈치를 맞은 게 은근히 아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추운 데 있다가 이렇게 따스한 곳에 들어오니 더 쑤시는군요. 당신은 의술도 능통하다고 들었는데 좀 살펴 봐 주겠어요?"

장무기의 시선은 절로 그녀의 발에 쏠렸다. 비록 가죽신을 신고 있었지만, 그의 뇌리에 그녀의 고운 맨발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만안사에 잠입해 들어갔을 때 비녀가 대청에서 그녀의 맨발을 씻겨 주던 광경을 창문 틈으로 훔쳐보지 않았던가! 그 당시 장무기가 느꼈던 감정은 처음 아무 생각 없이 그녀의 발바닥을 간지럽혔을 때와 또 달랐었다. 당시 가슴이 설레였던 게 아직도 기억해 생생했다.

한데, 오늘 밤 조민이 스스로 자기에게 맨발을 보이겠다고 한 것은 또 의미가 달랐다. 물론 장무기도 미륵불묘에서 그녀가 곤봉에 발뒤꿈치를 맞고 쓰러진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그녀를 구해 준 것이기도 했다. 당시 곤봉으로 호되게 맞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이유를 내세워 자기에게 발을 치료해 달라고 한 것을, 장무기는 그저 단순하게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조민은 몽고의 형통을 타고 났기 때문에 한인(漢人)의 풍속에 구애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인의 규수라면 평생을 함께 할 반

려자가 아닌 이상 절대 맨발을 보여 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한인의 풍속대로라면 그녀가 맨발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고, 장무기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의 마음까지 받아들이는 걸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장무기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가 다시 바라본 조민의 눈동자는 뜨거웠다. 장무기는 왈칵 그녀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말굽소리가 들려왔다. 정적을 깨며 들려오는 그 말굽소리는 그의 가슴을 질타했다. 조민의 표정은 이내 긴장되었다.

장무기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니, 남쪽으로부터 달려오는 말은 모두 네 필이었다. 동굴 밖을 보니 멎었던 눈발이 다시 뿌려지고 있었다.

'야심한데 눈보라를 무릅쓰고 길을 재촉하는 것을 보면 필시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가 생각을 굴리는 사이에 말굽소리는 언덕 아래에 이르러 갑자기 멎었다. 그러더니 곧 이어 동굴 쪽으로 옮겨져 왔다.

장무기는 긴장되었다.

'이 동굴은 언덕 넘어 은밀한 곳에 위치해 있어 노루의 뒤를 쫓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저들이 어찌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일까?'

그는 의혹을 느꼈으나 이내 그 의혹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다.

'맞아 우리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겨놓았으니 저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 이곳으로 오는 게 분명하다.'

조민이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상대가 적일지도 모르니, 일단 몸을 숨겨 상대방의 정체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먼저 동굴 밖으로 나가 눈을 쓸어모아 모닥불을 껐다.

이때 말굽소리가 멎고 대신 네 사람이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삽시간에 그들은 동굴에서 십여 장 떨어진 곳까지 접근해 왔다.

장무기가 나직하게 말했다.

"네 사람의 빠른 신법으로 미루어,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는 고수인 것 같소."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 동굴 밖으로 나가 다시 몸을 숨길만한 곳을 찾는다면, 영락없이 상대방에게 발각될 것이다.

장무기가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조민이 그의 손을 잡으며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동굴은 협소해졌다. 그러나 생각보다 깊었다. 그들이 약 이 장 가량 들어갔을 때 밖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다.

"이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장무기는 그 음성을 듣자 갑자기 눈동자가 빛났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임에 분명했다. 다음 순간, 그는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떠올렸다. 뜻밖에도 사숙부인 장송계였다.

곧 이어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발자국이 이 동굴까지 연결돼 있군요."

이번에는 은이정의 음성임을 대번에 알아들었다. 장무기는 당장 소리쳐 자신을 알리려 했다. 한데 조민이 난데없이 손으로 그의 입을 막으며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가 단둘이 이곳에 있는 게 누구에게 발각되면 공연한 오해를 사게 될 거예요."

장무기는 그녀의 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와 조민은 비록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야밤중에 단둘이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사숙백들에게 발각된다면 입장이 난처해질 게 뻔했다. 자기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상대방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더군다나 조민은 원조(元朝) 황실의 군주로서 장송계, 은이정 등을

만안사에 감금했던 장본인이 아닌가! 쌍방이 맞닥뜨린다면 필경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자신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게 분명했다.

'역시 장사숙과 은육숙이 떠날 때까지 잠자코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가 속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 유연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기 보십시오. 타다 남은 솔가지와 노루의 가죽과 피도 있군요."

다른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받았다.

"난 줄곧 불길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칠제(七弟)가 무사하길 바랄 뿐이네."

이번에 들려온 것은 송원교의 음성이었다.

장무기는 표정이 굳어졌다. 네 분의 사숙백님이 일제히 강호로 나온 것도 뜻밖이지만, 그들의 말투를 들어보니 막칠숙께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았다. 장무기도 은근히 염려가 되었다.

장송계의 낭랑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대사형께선 막사제를 아직도 철부지 소년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근래에 와서 막사제의 위명은 강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전의 막내둥이가 아닙니다. 설사 강적을 만났다 해도 혼자의 힘으로 충분히 상대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을 이은 사람은 은이정이었다.

"저는 칠제에 대해선 별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무기가 걱정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식이 없으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명교의 교주이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비록 무공은 강하지만 마음이 모질지 못해, 험악한 강호의 풍파를 잘 헤쳐나갈지 의문입니다."

장무기는 그 말에 심히 감동되었다. 사백님과 사숙님들이 자기를 얼마나 염려해 주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조민은 그의 귀에 대고 다시 나직하게 말했다.
"나같이 사악한 사람이 당신 곁에 꼭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들 기절초풍하시겠군요."
송원교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칠제가 북쪽으로 장무기를 찾으러 내려갔다가 무슨 단서를 잡은 게 분명한데, 그가 천준 객점에 남긴 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야. 물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급히 남긴 글 같은데....."
장송계가 그의 말을 이었다.
"문중에 변절자가 있으니 처리해 달라고 글을 남겼는데, 우리 무당파에 변절자가 있을리 있겠습니까? 혹시 무기 그 애가....!"
여기까지 말한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은이정이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무기는 절대 문중의 명예를 더럽힐 애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송계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 조민이란 요녀가 너무 간교하다는 사실이네. 무기는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해 미색에 현혹되기가 쉽네. 그는 절대 부친처럼 불행한 과정을 밟지 말아야 할텐데...."
네 사람은 모두 침묵을 지키며 제각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부싯돌로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리더니, 솔가지가 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피어올랐다.
그 불빛은 동굴 안까지 비쳐서 장무기와 조민은 비록 한번 꺾어진 동굴 안쪽에 몸을 도사리고 있지만, 그 불빛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가 있었다.
장무기는 어렴풋이 조민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조민의 얼굴에는 분노가 깔려 있었다. 아마 장송계의 말에 기분이 몹시 상한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문득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어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장사숙님의 말씀이 옳을지도 모른다. 나의 어머님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결국 아버님을 최악의 경우로 몰아넣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조낭자는 명문정파의 공적일 뿐 아니라 나의 누이동생을 상해했고, 태사부님과 사백, 사숙님들을 모독했으니 오죽하겠는가?'

이때 송원교가 갑자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장사제, 난 줄곧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네. 이미 작고한 오제를 생각해 차마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했는데....."

장송계가 천천히 말했다.

"사형께선 혹시 칠제가 무기에게 독수를 당했다고 염려하시는 게 아닙니까?"

송원교의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지만, 장무기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장송계가 다시 말했다.

"무기는 천성이 착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칠제의 성질이 워낙 직선적인데다가 다혈질이므로 무기를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그 요녀가 충동질을 했다면 사형께서 우려하는 불행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 속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니..... 게다가 자고로 영웅은 미색에 약하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선 무기가 이성을 잃지 않길 바라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은이정은 그들과 생각이 다소 달랐다.

"대사형, 그리고 장사형, 지금 두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모두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요? 무기가 아무리 이성을 잃는다 해도 천륜을 저버리는 짓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송원교의 음성은 여전히 염려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칠제의 장검을 발견한 순간부터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네."

유연주가 그의 말을 이었다.

"그 일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무공을 연마한 자는 무기를 목숨처럼 여기는데, 더군다나 그 장검은 스승님께서 하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 귀중한 검인데 검만 발견되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여기까지 말한 그는 입을 다물었다.

장무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막칠숙의 안위가 염려되는 한편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울적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몸을 도사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져다. 만약 발각되는 날이면 자신과 조민의 관계를 오해받게 될 뿐 아니라, 자칫 막사숙을 불리하게 만든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장무기는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민의 손을 잡고 살금살금 동굴 깊숙이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깊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비릿한 것이 들짐승의 냄새 같기도 하고 피비린내 같기도 했다.

장무기는 손으로 앞을 더듬으며 좁은 동굴을 꺾어 돌자, 갑자기 손끝에 이상한 물체가 와 닿았다. 물렁물렁한 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순간 장무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의 뇌리에 전광석화같이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 자가 친구든 적이든 간에 소리를 내는 날엔 사백숙님들에게 발각될 것이다!'

그는 반사적으로 지풍을 날려 상대방의 가슴 앞 다섯 군데 혈도를 찍는 동시 손목을 나꿔잡았다. 그러자 차가운 감촉이 손을 통해 전달돼 왔다. 상대방은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것이다.

장무기는 희미한 불빛을 빌려 상대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순간, 장무기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눈 앞에 벌어져 있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동굴 깊숙한 곳에 시체로 변해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그의 칠사숙인 막성곡이었다.

장무기의 놀라움은 실로 형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시체를 끌어안고 동굴 바깥쪽으로 다시 얼마 정도 걸어나갔다. 불빛이 잘 새어 들어오는 지점에 이르러 다시 확인해 보았으나 틀림없는 막성곡 막칠숙이었다.

장무기는 청천벽력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다. 그가 막성곡의 시신을 안고 반사적으로 동굴 바깥쪽을 향해 뛰쳐나오는 바람에 동굴 밖에 있는 송원교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대뜸 소리쳤다.

"동굴 안에 누가 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싸늘한 검광이 연거푸 번뜩였다. 무당 사협이 모두 검을 뽑은 게 분명했다.

장무기는 내심 아뿔싸를 토했다.

'내가 막칠숙을 살해한 대역무도한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군. 사백님과 사숙님들이 동굴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달아날 수도 없고.....'

막칠숙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고마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송원교 등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변명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역시 조민의 생각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갑자기 동굴 밖으로 몸을 날리며 장검을 떨쳐 연거푸 사검(四劍)을 전개했다. 그녀가 펼친 검초는 모두 아미파의 무서운 살초였다. 물론 그녀가 노린 것은 무당 사협이었다.

무당 사협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재빨리 수비 자세를 취했다. 그 틈을 타서 조민은 무당 사협이 타고 온 네 필의 준마 중의 한 필을 골라 전광석화같이 안장 위로 올라타며 송원교가 반격해 오는 일검을 뿌리침과 동시에 말의 복부를 힘껏 걷어찼다. 그 말은 고통을 못 이겨 곧 앞을 향해 치달렸다.

그 순간 조민은 등줄기에 심한 충격을 느끼며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유연주가 전개한 일장을 맞은 것이다.

무당 사협은 지체하지 않고 경공을 전개해 뒤쫓아 왔다.

조민은 자신의 안위보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내가 멀리 달아날수록 그가 굴 안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넷이 모두 날 쫓아오는 것으로 보아 동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미처 생각지 못한 모양이니 천만다행이다!'

그녀는 등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검으로 말의 엉덩이를 살짝 찔렀다. 그러자 준마는 길게 울부짖으며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려나갔다.

한편, 장무기는 조민이 난데없이 동굴 밖으로 뛰쳐 나가자 멍해졌으나 이내 그녀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기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호이산지계(調虎離山之計)를 전개한 것이다. 장무기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행동을 만류하기엔 때가 너무 늦었다.

장무기는 조민의 호의를 헛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막성곡의 시신을 안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예민한 청각으로 조민과 무당 사협이 동쪽으로 달려간 것을 알고 반대쪽으로 신법을 전개했다.

약 이 리(里)쯤 벗어나 커다란 바윗돌 아래 막칠숙의 시신을 감추고 나서 나무 위로 몸을 솟구쳤다. 그의 가슴은 아직도 심하게

뛰고 있었다. 막칠숙의 처참한 죽음을 생각하자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무당파는 왜 계속 이런 불상사를 겪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사숙님을 살해한 흉수는 누구일까? 등뼈가 으스러진 것으로 보아 내가장력(內家掌力)에 의해 목숨을 잃은게 분명한데.....'

약 반 시진이 지나자 세 필의 준마가 동쪽으로부터 달려왔다. 송원교와 유연주가 제각기 준마 한 필씩 몰고 은이정과 장송계가 말 한 필에 같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유연주의 음성이 뚜렷이 들려왔다.

"그 요녀는 나의 일장을 맞고 말을 탄 채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니 살아나기 어려울 거야."

장송계가 그의 말을 받았다.

"오늘에서야 만안사에서 당했던 수모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녀가 이런 황량한 동굴 속에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이정이 그에게 물었다.

"사형, 그녀가 혼자 동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장송계가 대답했다.

"글쎄..... 워낙 요사스러운 계집이라 종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 요녀를 죽인 것은 통쾌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칠제의 행방을 속히 찾아내는 게 시급하네."

장무기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네 사람의 모습이 차츰 멀어질수록 더 이상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송원교 등이 멀어지자 나무에서 뛰어내려 말굽자국을 따라 동쪽으로 치달렸다. 그는 초조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비록 교활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날 도와주었다. 만약 이로 인해 그녀가 불상사라도 당하게 된다면, 나는..... 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신법을 전개했다. 약 사, 오 리 가량 달리자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나타났다. 눈이 쌓인 그곳 벼랑 가장자리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발자국과 말굽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벼랑 가장자리에 있는 돌더미의 일부가 무너져 버린 흔적 역력했다. 조민이 말을 몰고 허겁지겁 달아나다가 그만 길을 잘못 택해 벼랑 아래로 말과 함께 떨어진 게 분명했다.

장무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벼랑 아래를 향해 소리높여 외쳤다.

"조낭자! 조낭자!"

연거푸 외쳐 불렀으나 메아리만 멀리 퍼져 갈 뿐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장무기는 더욱 조급해졌다. 벼랑 가장자리에 서서 아랫쪽을 살펴보니 칠흑같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벼랑은 깎아지른 듯하여 도저히 발을 내딛을 곳이 없었다. 게다가 응달진 탓인지 두꺼운 얼음층에 덮혀 있었다.

장무기는 가만히 서서 그녀의 대답이 들려오길 기다릴수 만은 없었다. 그는 곧 몸을 돌려 열 손가락에 진력을 모아 마치 갈퀴처럼 빙층을 찍어 꽂으며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벼랑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얼마 후에 그는 벼랑 밑바닥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발밑에 말랑말랑한 느낌이 와 닿았다. 그는 흠칫 놀라며 즉시 옆으로 몸을 피했다.

알고보니 그가 밟은 것은 말의 시체였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니 조민은 말의 목을 껴안은 채 그곳에 함께 있었다. 장무기는 얼른 그녀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 보았다. 천만다행하게도 맥박이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다. 단지 심한 충격에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다. 장무기는 그녀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나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골짜기 안은 어둠침침하고 눈이 녹지 않아 허리까지 쌓여 있었다. 아마 조민은 안장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사력을 다해 말의 목을 껴안았기 때문에, 떨어져 버린 충격이 단지 말에게 가해져 말은 그 자리에서 죽고 조민은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진 것 같았다. 장무기는 그녀가 비록 심한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알았다.

장무기는 곧 그녀를 끌어안고 자신의 구양신공으로 우선 그녀의 얼은 몸을 녹여 주었다. 이어 운공료상을 하니 반 시진 후에 조민은 드디어 천천히 깨어났다.

장무기는 지체하지 않고 그녀의 등에 쌍장을 붙이고 구양진기를 체내에 주입시켜 주었다. 다시 한 시진 가량이 흘렀다. 어느덧 동녘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조민은 갑자기 울컥하고 안 모금의 검붉은 피를 토해 내더니 비로소 미약하게 입을 열었다.

"그들은 모두 갔나요? 당신의 얼굴은 보지 못했죠?"

그녀는 장무기가 누명을 쓰지 않았는지 그것이 가장 염려되는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마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 염려 마시오. 나를 보지 못했소. 나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다니.....'

장무기는 말을 하면서 계속 그녀의 체내에 진력을 주입시켜 주었다. 조민은 눈을 지긋이 감았다. 비록 사지가 나른하여 전혀 힘을 쓸 수 없지만 마음은 한없이 뿌듯했다. 구양진기가 그녀의 체내에 다시 몇 바퀴 유전되자 몸이 한결 개운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담담한 미소를 띄운 채 말했다.

"이제 됐어요. 좀 쉬도록 하세요."

장무기는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으며 자신의 볼을 그녀의 왼쪽 볼에 대었다.

"낭자는 나의 명예를 구해 준 것이오. 그것은 나의 목숨을 열 번 구해 준 것보다 더 귀중하오. 난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겠

소."

조민은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간사하고 악랄한 요녀이니, 당신의 명예보다도 당신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바로 이때였다. 벼랑 위에서 갑작스레 유연주의 싸늘한 외침이 들려왔다.

"이 요망한 계집! 과연 죽지 않았구나. 네가 막칠협을 어떻게 죽였는지 어서 이실직고하지 못하겠느냐!"

장무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네 분 사백숙님들은 분명 떠나갔는데 어째서 다시 되돌아온 것일까?

조민이 황급히 그에게 말했다.

"어서 얼굴을 돌리세요. 그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이번에는 장송계의 냉랭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이 악랄한 요녀야! 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돌을 던져 당장 분신쇄골시키겠다!"

조민이 벼랑 위를 올려보니 송원교 등이 벼랑 가장자리에서 제각기 커다란 바윗돌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들이 돌을 던진다면 벼랑 밑 골짜기가 협소하여 자기와 장무기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녀는 장무기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우선 옷자락을 찢어 얼굴을 가리고 날 안고 달아나세요."

장무기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옷자락을 찢어 복면을 했다. 그리고 털모자를 눌러 쓰자 두 눈만 노출되었다.

무당 사협은 강호의 경험이 많은 만치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민을 벼랑 밑으로 몰아넣었지만, 조민이 군주의 신분이므로 틀림없이 주위에 호위병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일

부러 말을 몰아 멀리 떠나는 척하다가 은밀한 곳에 말을 숨겨두고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조민이 나왔던 동굴부터 살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대신 동굴 밖에서 장무기의 발자국을 찾아서 곧장 뒤쫓아갔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막성곡의 시체를 발견한 무당 사협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특히 은이정은 까무라칠 정도로 통곡을 터뜨렸다.

한참 후에야 유연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조민 그 요녀는 비록 무공이 약하지 않지만 그 혼자의 힘으로선 절대 막칠제를 죽이지 못할 것이니, 필경 주위에 고수들이 있을 걸세. 우린 이곳에서 슬퍼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일일이 찾아내 복수를 해야 하네."

장송계가 그의 말을 받았다.

"우린 일단 동굴 주위에 은신해 있도록 합시다. 날이 밝으면 요녀의 부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 송원교는 항상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그들은 곧 슬픔을 억제하고 각자 동굴 주위에 몸을 숨겼다.

한데 날이 밝아올 무렵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무당 사협은 다시 조민이 떨어졌던 벼랑 쪽으로 달려갔다. 뜻밖에도 벼랑 아래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와 내려다보니,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조민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무당 사협은 그제서야 요녀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막성곡의 사인을 다그치기에 이른 것이다. 그것을 캘 생각이 아니었다면, 벌써 큰 바윗돌을 던져 두 사람을 공격했을 것이다.

지금 장무기와 조민이 있는 골짜기는 커다란 우물처럼 사면이 막혀 있고 단지 서북쪽에 좁은 출로가 있을 뿐이다.

장송계의 호통이 다시 들려왔다.

"이 몽고 오랑캐들아! 어서 이쪽으로올라오지 못하겠느냐? 더

이상 꾸물댄다면 돌을 던지겠다!"

장무기는 사사백님이 자기를 몽고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일단 안심이 되었다. 그는 호화스러운 차림새로 조민과 함께 있기 때문이었다.

장무기는 주위를 두리번 살펴 몸을 피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사백숙님들이 큼지막한 바윗돌을 던진다면 자기는 충분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조민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으로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는 도리밖에 별 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조민을 안고 협소한 벼랑 틈새로 천천히 기어올라갔다. 그리고 무공이 약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일부러 몇 번 미끄러지곤 했다. 이 협소한 틈새로 기어오르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게다가 일부러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위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연히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낭패한 모습까지 보여 주어야만 했다.

일단 골짜기를 벗어나면 조민을 안고 달아날 작정이었다. 자신이 신법을 최고 경지로 전개하면 설령 조민을 안고 있다 해도 능히 무당사협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송계는 관찰력이 예민하여 그가 일부러 낭패한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에게 알려 장무기가 올라오자마자 선제공격을 취해 제압하기로 서로 약정해 놓았다.

과연 장무기가 벼랑위로 오르는 순간 네 자루의 장검이 날아와 그의 몸에서 반 자 가량의 간격을 두고 진로를 완전히 봉쇄했다.

송원교가 이를 갈아부치며 호통쳤다.

"이 악랄한 오랑캐놈아!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목숨이 부지될 것으로 생각했느냐? 무당 막칠협에게 살수를 전개한 놈이 누군지 냉큼 밝혀라!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을 시엔 난도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송원교는 본디 성품이 차분하여 좀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성곡의 죽음으로 인해 말투가 거칠어졌다.

조민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노금시화(盧金時化) 장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녀는 앞서 이미 장무기에게 성화령의 무공을 전개하도록 귀띔을 해준 바가 있었다.

장무기는 본디 사백숙님들에게 무공을 전개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하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아랫 입술을 깨물며 갑자기 조민의 몸을 번쩍 들어올려 은이정을 향해 던지는 동시에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괴성을 지르며 장송계를 겨냥해 공격해 갔다.

은이정은 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멍해졌으나 생각을 굴릴 겨를도 없이 일단 조민의 몸을 받아 혈도를 찍어 한쪽에 팽개쳤다. 그 순간 장송계는 그의 신랄한 금나수법을 피하기 위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으며, 장무기는 성화령의 괴이한 무공으로 각법(脚法)을 전개했다.

모든 것이 눈깜박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장송계가 뒤로 물러나자마자 그에게 반격을 시도했을 때 장무기는 이미 은이정에게 몸을 번뜩여 그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아 왔다. 실로 상식을 초월한 몸놀림이었다.

무당 사협은 자타가 공인하는 무림의 일류 고수지만, 그가 단숨에 전개한 여러 가지 괴이한 초식으로 인해 자중지란이 생겼다.

눈속에 쓰러져 있는 조민이 무당 사협을 혼란시키기 위해 소리쳤다.

"노금시화 장군! 이번에는 우리 몽고인의 특기인 씨름 묘기를 보여 주세요!"

장송계는 적시에 소리쳤다.

"저 오랑캐의 초식이 괴이하니 태극권(太極拳)으로 상대해야겠습니다!"

네 사람은 즉시 검법에서 권법으로 변화시켰다. 일단 수비망이 구축되었다.

장무기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로선 상대방을 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민과 함께 달아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갑자기 땅에 주저앉더니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마구 두드렸다. 무당 사협은 여지껏 살아오면서 숱한 적을 상대해 왔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난데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러한 괴초는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전 들어본 적도 없었다.

무당사협은 이미 장검을 거두고 각자 태극권을 전개해 수비망을 구축했지만, 상황이 바뀌자 송원교, 유연주, 장송계가 다시 장검을 뽑아쥐고 장무기에게 덮쳐갔다.

한편 은이정은 장무기에게 장검을 빼앗겼지만, 막성곡이 남긴 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검을 다시 뽑아들고는 사형들과 보조를 맞추었다. 순간 장무기는 상반신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반원을 그리며 땅에 쌓여 있는 눈을 냅다 걷어찼다. 거기에 따라 허공에 눈보라가 난비하며 무당사협을 향해 휘몰아쳐 갔다.

이 초식은 바로 성화령의 괴초로서 산중노인이 즐겨 사용하던 것이었다. 산중노인이 교를 창립하기 전에 파사국 사막에서 행상을 해왔는데, 가끔 흉악한 여상(旅商)들을 만나면 이 수법을 사용하곤 했다. 일단 멀리서 여상의 행렬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괴성을 지른다. 그러면 여상들이 가까이 다가와 영문을 물을 것이고, 그 순간을 이용해 냅다 몸을 회전시키며 모래를 걷어찬다. 여상들은 난데없이 날아오는 모래에 눈을

뜰 수 없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 칼을 전개하면 삽시간에 수십 명의 여상들이 피를 뿌리며 쓰러지곤 했다. 실로 악랄한 수법이었다.

지금 장무기가 눈보라를 일으키자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당사협은 눈보라로 당황함을 금치 못했으나 임기웅변이 빨라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장무기의 몸놀림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다. 그는 다짜고짜 유연주의 다리를 끌어안고 땅에서 한 바퀴 뒹굴며 전광석화처럼 세 군데 혈도를 찍었다. 이어 용수철에 의해 튕겨지듯 은이정에게 덮쳐가 단숨에 다섯 군데 혈도를 찍자 은이정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송원교가 적시에 뒤에서 덮쳐왔지만, 장무기가 팔꿈치를 뒤로 쭉 밀어내는 동시에 흡사 자석에 끌리듯 몸이 뒤로 미끄러져 송원교의 몸과 맞부딪쳤다. 그러한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송원교는 미처 검초를 전개하기도 전에 가슴에 심한 충격을 느끼며 혈도가 찍히고 말았다. 그는 장무기의 머리 위로 쳐들었던 장검을 떨어뜨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장송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네 사람 중에 이제 남은 것은 자기 혼자뿐이었다. 그는 차라리 상대방과 죽음을 함께 하겠다는 각오로 장검을 싸늘하게 떨치며 양패구상(兩敗俱傷)의 타법을 전개했다. 그러나 장무기와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 현격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역시 아랫배와 왼쪽 허벅지에 혈도가 찍혀 쓰러지고 말았다. 장무기가 노린 것은 그의 하체였다. 단지 그를 쓰러뜨려 움직일 수 없게끔 하기 위해 혈도를 찍은 것이다. 한데 장송계는 쓰러지자마자 갑자기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전신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장무기는 흠칫 놀랐다. 혹시 장사백님께서 숨겨온 질환이 있는데, 지금 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뇌리에 스쳤다. 그는 크게 당황하여 얼굴 앞으로 달려가 가슴을 더듬어 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송계가 별안간 왼손을 쭉 뻗어내 그의 얼굴을 가렸던 복면을 벗겼다. 너무 뜻밖의 행동이라 장무기는 미처 방어할 새도 없이 복면이 벗겨지고 말았다. 일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모두 돌처럼 굳어졌다.

한참 후에야 장송계가 한맺힌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무기..... 이놈! 이제 봤더니 네가.....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는 너무나 놀랍고 분노한 나머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눈에서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알고보니, 장송계는 도저히 상대방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대로 눈을 감을 수는 없었다. 원수가 누구이며 대관절 어떤 누구인지 알기 위해 일부러 비명을 질러 복면을 벗기게 된 것이다.

장무기는 정체가 탄로나자 혼백이 달아난 듯 뇌리에 혼란이 오며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사사백님! 제가 아닙니다! 네가..... 어찌 칠사숙님을.....!"

장송계는 처연하게 웃었다.

"좋다, 좋아! 어서 우리마저 죽여라. 대사형, 이사형, 그리고 육제, 모두들 똑똑히 보셨죠? 이 오랑캐의 앞잡이가 다름아닌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무기입니다!"

송원교, 유연주, 은이정은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그저 넋빠진 사람모양 멍하니 장무기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눈앞에 전개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장무기는 미쳐 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갑자기 땅에서 한자루의 장검을 주워들어 자신의 목을 향해 베어갔다. 그것을 본 조민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잠깐만! 대장부라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줄도 알아야 해요!

만약 당신이 이대로 헛된 죽음을 택한다면, 막칠협을 살해한 진짜 흉수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결코 무당 제협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거예요."

장무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오?"

그는 조민에게 다가가 혈도를 풀어주었다. 조민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위로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끄는 명교에 많은 고수가 있고 내 수하 중에서도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 있으니, 틀림없이 원흉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장송계가 소리쳤다.

"무기야! 네놈이 눈꼽만큼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어서 우리에게 살수를 전개해라!"

장무기는 안색이 창백해져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조민은 그를 똑바로 주시하며 입을 열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기분이 어때요? 당신은 나더러 주 낭자를 죽인 흉수라 고집했는데, 이제 내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장무기는 비로소 그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다.

'그럼.....그녀가 정말 나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누명을.....'

조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사백숙님들에게 혈도를 찍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풀 수 있나요?"

장무기는 고개를 내둘렀다.

"성화령에 수록된 점혈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풀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열 두 시진 후에는 스스로 풀어지게 될 거요."

조민은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이분들을 동굴로 데려다 놓고 우린 떠나요. 진짜 흉수를 잡기 전엔 이분들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무기는 도저히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그녀의 의견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알았소."
그는 무당 사협을 안아 커다란 바윗돌 뒤로 옮겨놓았다. 일단 풍설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무당 사협은 계속 욕을 해댔지만, 장무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민이 그를 거들었다.
"네 분은 모두 무림고인인데 어찌 이다지도 생각이 얄팍하죠? 만약 장상공이 흉수라면 이 자리에서 당장 네 분을 죽여 입을 봉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게 아니겠어요? 만약 네 분이 계속 욕설을 한다면 각자의 뺨을 후려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어요. 나는 원래 사악한 요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쯤은 서슴없이 해낼 수가 있다는 걸 어려분들은 잘 알고 있겠죠?"
송원교 등은 아연실색해졌다. 대장부는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모욕을 당할 수는 없는 법, 만약 이 요녀에게 뺨을 얻어맞고 무릎을 꿇리게 된다면, 평생을 두고 그 치욕감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곧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다.
조민은 빙긋이 웃으며 장무기에게 말했다.
"내가 가서 말을 끌고 올께요. 나를 남겨두고 당신이 말을 끌러 가기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장무기는 그녀의 말을 부인할 수 없었다. 조민은 워낙 성격이 당돌해 사백숙님들에게 무슨 행동을 전개할지 사실 염려가 되었다.
"그럼 수고를 좀 해주시오."
조민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저들을 끔찍이 생각하고 있지만, 저들은 당신을 믿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장무기는 그녀의 투덜거림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 조민은 곧 천

천히 걸어나갔다. 그녀는 상세가 심한 탓인지 걸음이 비틀거렸다. 장무기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고마움과 미안함이 엇갈렸다.

한데, 조민이 앞으로 얼마정도 걸어나갔을 때, 북쪽 대로로부터 급박한 말굽소리가 들려왔다. 한 필의 말이 앞서 달리고 있으며 두 필의 말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민은 그 소리를 듣자 다시 되돌아왔다.

"누가 이곳을 향해 말을 몰고 오는 것 같아요."

장무기는 그녀와 함께 바윗돌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유연주의 몸이 바윗돌 밖으로 조금 노출돼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무당 사협의 아혈(啞穴)을 찍어 입을 열 수 없게 했다.

곧이어 앞서 달리던 말이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이르렀다. 뒤를 따르고 있는 두 필의 말은 약 이, 삼 십장의 간격이 떨어져 있었다. 앞서 달리는 말에 쫓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순간, 장무기는 앞서 달려온 말에 탄 사람을 알아보고 나직이 외쳤다.

"앗! 송청서 사형이.....!"

조민이 즉시 그에게 귀띔을 했다.

"어서 그를 막으세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미륵묘에서 있었던 일을 벌써 잊었나요?"

장무기는 그 말에 불현듯 느끼는 바가 있어 얼음조각을 집어 냅다 던지자 정확하게 송청서가 몰고 오는 준마의 무릎뼈에 적중되었다.

준마는 그 즉시 무릎이 꺾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바람에

송청서의 몸도 허공으로 날아올라 한 바퀴 회전하더니 사뿐히 땅에 떨어져 내렸다.

장무기는 다시 작은 얼음조각을 던져 그의 오른쪽 다리의 혈도를 찍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두 필의 준마가 가까이 달려왔으며 송청서는 나직한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뒤따라 말을 몰고 달려온 두 사람은 바로 개방의 진우량과 장발용두였다.

장무기는 내심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들 세 사람은 실심산을 만드는 독물을 구하기 위해 장백산으로 가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쫓기고 쫓으며 이곳까지 온 것일까?'

진우량과 장발용두는 즉시 안장에서 뛰어내려 무기를 뽑아 쥐었다. 그들은 송청서의 말이 지쳐 쓰러진 것으로 생각했다. 송청서는 장무기가 얼음조각으로 자신의 무릎 혈도를 찍은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해 단지 낙마하면서 무릎을 다친 것으로만 알았다.

장무기가 다시 얼음조각을 집어 진우량에게 던지려는데 조민이 만류했다. 그녀가 턱으로 진우량과 송청서를 가리키며 눈짓을 하자 장무기는 비로소 그녀의 뜻을 알아차렸다. 하여 일단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지 들어보기로 했다.

장발용두가 먼저 성난 음성으로 외쳤다.

"송가야, 야밤중에 몰래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계획을 너의 부친께 알리기 위해서냐?"

그는 팔괘도(八卦刀)를 좌우로 떨치며 당장이라도 송청서의 목을 내리칠 기세였다.

송청서는 냉랭하게 대꾸했다.

"아버님께 알릴 생각은 없었소. 그러나 아버님을 해치는 일에 협조할 순 없었소.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장발용두는 대뜸 호통을 쳤다.

"닥쳐라! 네가 감히 방주의 명을 거역할 작정이냐? 방을 배신하는 자는 어떠한 벌을 받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송청서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죄인이오.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소. 요 며칠 동안 눈만 감으면 막칠숙의 혼백이 내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려 왔소. 장발용두, 제발 단칼에 날 죽여 주시오. 그러면 감사를 할 것이오!"
장발용두는 팔괘도를 번쩍 들어올렸다.
"좋다! 소원이라면 기꺼이 막성곡의 곁으로 보내 주마!"
진우량이 얼른 나섰다.
"용두 형님, 송형제가 우리를 협조하지 않겠다면 죽여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장발용두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놓아 주자는 뜻인가?"
진우량은 교활하게 눈동자를 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막성곡을 죽였으니 무당파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저런 대역무도한 자는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건 비겁한 자를 죽이기 위해 구태여 우리 협의도의 칼을 더럽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무기는 미륵묘에서 진우량이 막성곡을 언급하자, 송청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고분고분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송청서가 바로 막성곡을 살해한 흉수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청천벽락을 맞은 듯 심한 충격을 받았다.
송원교 등 네 사람은 바윗돌에 가려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의 대화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들 역시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다.
단지 조민만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지 입가에 경멸에 찬

웃음이 스쳐가며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송청서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진형님, 그 일은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사나이로서 어찌 그 약속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진우량은 냉랭하게 웃었다.
 "자넨 내가 한 맹세를 기억하고 있군. 자네가 스스로 맹세한 것을 잊었는가? 자네는 분명 모든 일을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자네가 먼저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 사실을 이 자리서 털어놓은 걸세."
 송청서는 안색이 참담해졌다.
 "나더러 태사부님과 아버님의 음식에다 독을 풀어 넣으라는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으니, 어서 날 죽여 주시오!"
 진우량은 느긋하게 말했다.
 "송형제, 흐름을 잘 타는 사람만이 현명한 인물이네. 난 자네더러 그들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정신을 잃게 하는 미약을 먹이라고 했네. 미륵묘에서 자넨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지 않았는가!?"
 송청서는 세차게 고개를 내둘렀다.
 "난 단지 미약을 풀어넣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오! 그런데 알고보니 장발용두가 잡으려는 오독사와 지네 따위는 모두 살인을 할 수 있는 독약이오. 절대 미약에 쓰여질 수가 없소!"
 진우량은 천천히 장검을 거두었다.
 "아미파의 주 낭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미인인데, 자넨 그 여인이 장무기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겠다는 건가? 그날 밤에 자넨 아미파 여제자들의 침실을 훔쳐 보다가 막성곡에게 들켜 달아나는 바람에 막성곡은 뒤쫓아가게 되었고, 결국 석강(石江)에서 맞부딪쳐 싸움을 벌여 자네가 막성곡을 죽이지 않았던가?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자네가 그

미모의 주 낭자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데, 이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마당에 포기하려 하다니 나로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네."

송청서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악을 쓰듯 성난 음성으로 외쳤다.

"그날 밤 난 막사숙을 당해 내지 못해 차라리 그의 손에 죽으려 했소. 그런데 당신이 난데없이 나서서 날 돕지 않았소? 난 결국 당신의 간계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오!"

진우량은 간사하게 웃었다.

"이제와서 나를 원망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그날 밤 막성곡에게 치명상을 입힌 진천철장(震天鐵掌)은 내가 전개한 것인가? 아니면 자네가 전개한 것인가? 그건 분명 자네 무당파의 무공이잖는가? 그날 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자네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 아니라 명성까지 지켜 주었는데, 이제 와서 오히려 날 원망하다니! 그리고서도 자네는 인간이라 할 수 있나? 아무튼 좋네. 자네를 사귀게 된 것도 내 전생의 업보일지 모르니 더 이상 지난 일을 따지고 싶지 않네. 그리고 자네가 사숙을 죽인 일도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겠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되겠지. 난 이만 가야겠네."

송청서는 그가 이렇게 고분고분 물러갈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대..... 대관절 날..... 어떻게 할 생각이오?"

그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량은 태연하게 말했다.

"내 자네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네. 참, 자네에게 보여 줄 것이 있네. 이게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장무기는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진우량이 송청서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때 송청서의 입에서 놀란 외침이 터졌다.
"앗! 그것은..... 아미 장문인을 상징하는 철지환이 아니오? 분명히 주낭자의 반지인데 어째서..... 당신 손에.....!"
놀란 것은 장무기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지약과 헤어졌을 때 분명 저 철지환을 손에 끼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째서 진우량의 수중에 들어간 것일까? 음..... 틀림없이 진우량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기 위해 가짜를 만든 게 분명해!'
진우량이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자세히 보게. 이 철지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확인해 보게."
잠시 후 송청서의 격동된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서역에서 멸절사태에게 무공을 가르침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이 반지를 끼고 있었소. 내가 보기엔 진짜인 것 같소."
이어 검으로 반지를 연거푸 내리치는 금속성이 들려오더니, 진우량이 입을 열었다.
"만약 가짜라면 벌써 토막났을 걸세. 자세히 보게. 이 반지 안쪽에 유태양녀(留胎襄女)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지 않은가? 바로 왕년에 대협 곽정이 그의 딸이자 아미파의 조사이신 곽양 여협에게 준 것으로, 역대 아미파 장문인의 징표로 전해져 온 철지환이네."
"그것을 어떻게..... 그럼 주 낭자는.....!"
"하핫.....!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 장발용두 우린 이만 떠나도록 합시다."
진우량은 즉시 몸을 돌려 장발용두와 떠나가려 하자 송청서가 다급히 그를 불러세웠다.
"진형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낭자가 어떻게 되었소? 주

낭자가 이미 진형님의 수중에.....?"

진우량은 몸을 돌려 다시 앞으로 다가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데로 주낭자는 이미 내 손아귀에 들어왔네. 남자라면 누구나 그 같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자가 없을 걸세. 자네가 정녕 그녀를 포기하겠다면 나라도 그녀를 차지해야 할 게 아니겠는가? 물론 자네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우릴 돕는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자네같이 뜻이 확고한 자가 마음을 돌릴 리가 있겠나?"

그는 다시 몸을 돌려 떠나가려 했다. 그러자 송청서가 황급히 외쳤다.

"잠깐만!"

진우량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주시했다. 송청서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눈가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그는 모종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 괴로워하고 있는게 분명했다.

장무기는 자신도 모르게 송원교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송원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비통함이 극에 달해 있는 모습이었다.

이때 송청서의 음성이 들려왔다.

"진형님, 용두형님, 소제가 한때나마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든 것은 진형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진우량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와야지. 자넨 역시 나의 좋은 형제일세. 나만 믿게. 곧 자네와 주낭자가 혼례를 올릴 수 있게끔 주선을 해 주겠네. 일단 우리를 협조해 장진인과 영존 등을 제압시키면 장무기 녀석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될 걸세!"

"그렇고 말고, 거듭 말하지만 우린 단지 장진인과 영존 등을

당분간 연금하려는 것뿐이네.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지 않는 한 장무기를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네. 우리가 만약 장진인 등을 해친다면 장무기는 필시 혈안이 되어 우리 개방을 찾아와 복수하려고 날뛸 텐데, 그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게 아니겠는가?"

진우량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개방이 장무기를 굴복시킨 다음 오랑캐들을 몰아내 천하를 거머쥔다면 자네야말로 개국공신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아내와 더불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걸세."

송청서는 고개를 떨구었다.

"소제는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선 주낭자부터 만나보고 싶으니....."

"하하.....! 염려 말게. 지금 방주님과 모든 장로께서 노룡(盧龍)에 와 있네. 물론 주낭자도 함께 있네."

송청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주 낭자는 어떻게 해서 진형님에게.....!"

진우량은 빙긋이 웃었다.

"그것은 용두형님의 공로였네. 그날 장봉용두와 장발용두가 주루에서 술을 마실 때 낯설은 세 사람이 본방 제자로 위장해 있는 것을 발견했네. 당시는 내색을 하지 않고 나중에 암암리에 조사해 보니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천하일색 주낭자라는 것을 알았네. 장발용두께서 곧 사람을 시켜 그녀를 모셔오게 되었지. 주낭자는 머리카락 하나 다친 데 없이 편안하니 조금도 염려를 말게."

장무기는 내심 아뿔싸를 토했다.

'이제보니 그나 주루에서 이미 들통이 났군. 의부님께서 실명만 하시지 않았다면 미리 낌새를 알아차렸을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우량은 사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득의하게 말했다.

"주낭자가 자네와 혼례를 올리면 아미, 무당 두 문파가 모두 개방의 분부에 따라야 할 걸세. 게다가 명교까지 흡수 될 것이니 그 기세가 얼마나 호호탕탕한가를 한번 상상해 보게. 몽고 오랑캐만 몰아내면 이 금수강산은 하하.....주인이 바뀌게 될 걸세."

그는 마치 개방이 천하를 얻으면 자기가 용좌에 오를 것 같이 득의양양했다. 그는 송청서에게 물었다.

"송형제, 무릎을 다친 것 같은데 괜찮은가?"

송청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타고 온 말이 갑자기 고꾸라지는 바람에 얼음조각이 튀어 공교롭게도 무릎 혈도에 맞았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진우량은 껄껄 웃었다.

"막칠협이 이 부근에서 죽음을 당했으며 그의 시체를 숨겨둔 동굴도 이곳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귀신에 씌운 모양일세.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게 달리던 말이 갑자기 여기에서 고꾸라질 리가 있겠는가? 하핫..... 자, 이제 그만 떠나세."

송청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곧 말에 올라타고 떠나갔다.

장무기는 그들이 멀어지자 얼른 송원교 등 네 사람의 혈도를 풀어 무릎을 꿇고 백배사죄했다.

"사백님, 사숙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중벌을 내려 주십시오."

송원교는 장탄식과 함께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연주가 얼른 장무기를 부축해 일으켰다.

"조금 전에 우리가 너를 오해했으니 잘못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 우린 한집안 식구이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청서가..... 청서가..... 정말 뜻밖이다. 만약 우리가 직접 듣지 않았다면 도

저히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송원교는 장검을 뽑아쥐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 아미 여협의 침실을 훔쳐봤기 때문에 막 사제가 혼을 내주려고 했던 건데, 그놈이 감히 그런 대역무도한 짓을..... 이놈을 당장 쫓아가 내 손으로 죽여 없애겠다!"
 그는 즉시 신법을 전개해 송청서 등이 사라진 방향으로 달려갔다.
 장송계가 얼른 소리쳤다.
 "형님! 고정하십시오. 심사숙고한 연후에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송원교는 그의 만류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치달렸다.
 그러자 장무기가 즉시 신법을 펼쳐 눈깜짝할 사이에 그의 앞을 가로막고 공손히 몸을 숙였다.
 "대사백님, 사사백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송사형께선 사교한 무리에게 현혹되어 일시적으로 그릇된 일을 저질렀지만 차후에 틀림없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벌을 주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송원교는 울먹였다.
 "칠제..... 칠제..... 이 못난 사형을 용서해 주게."
 그의 뇌리에 갑자기 왕년에 장취산이 자결한 일막이 떠올랐다. 당시 장취산은 유대암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끊지 않았던가! 지금에서야 당시 오사제의 심정을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었다. 그는 홀연 검끝을 돌리더니 자신의 목을 향해 그어갔다.

 장무기는 소스라치게 놀라 건곤이위신공을 전개해 맨손으로 장검을 집어 빼앗았다. 전광석화와도 같은 출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원교의 목줄기에 혈흔이 그려졌다.
 이때 유연주 등이 달려왔다. 장송계는 간곡하게 말했다.

"형님, 청서가 저지른 대역무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보다 강산을 되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소(小)로 인해 대(大)를 그릇쳐서는 아니됩니다."

송원교는 대뜸 눈을 부라리며 성난 음성으로 말했다.

"그..... 그럼 그 대역무도한 놈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인가? 내 아들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를 줄이야.....!"

장송계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 진우량의 말을 들어보면, 개방은 청서를 앞세워 우리의 은사를 모해(謀害)하고 무림을 어지럽혀 천하를 넘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은사님과 본문의 안위가 먼저 해결해야 할 급선무이며, 천하무림과 만백성의 화복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청서의 행위는 언젠가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니 우린 먼저 대사(大事)를 상의하는 게 급합니다."

송원교는 그의 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장검을 거두었다.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네. 자네의 말에 따르도록 하겠네."

은이정이 약을 꺼내 그의 목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장송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개방이 은사님께 불리한 행동을 취할 음모를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속히 문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우량은 교활한 자이므로 음모를 앞당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송원교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네. 난 아들 녀석을 벌하는데만 흥분하여 은사님의 안위를 잊고 있었으니..... 자, 어서 무당산으로 떠나세."

장송계가 장무기에게 말했다.

"무기야, 주낭자를 구하는 일은 너에게 맡기겠다. 일을 무사히 마친 후에 무당에 들려주길 바란다."

장무기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사백님의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장송계가 다시 나직하게 말했다.

"저 조낭자는 무슨 속셈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해라. 남아 대장부가 미색으로 인해 큰 일을 그릇쳐서는 아니 된다. 내 말을 명심하겠느냐?"

무당 사협과 장무기는 곧 막성곡의 시신을 묻어주고 눈물을 뿌리며 재를 올렸다.

이어 송원교 등이 먼저 떠나갔다.

그제서야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던 조민이 장무기 곁으로 다가왔다.

"당신의 사사백이 이 요녀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송청서가 좋은 본보기라고도 말했겠군요."

장무기는 멋쩍어하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조민은 냉소를 날리며 다시 말해다.

"송대협께선 나중엔 아들보다도 주낭자를 더 원망하게 될테니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주낭자가 자기 아들을 유혹해 신세를 망치게 만들었다고 할 거예요."

장무기는 속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의 대사백님은 사리에 분명한 정인군자이신데 함부로 무고한 사람을 원망할 리 있겠소?"

조민은 다시 코웃음을 쳤다.

"군자로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기 마련이에요."

그녀는 말끝을 멈칫하더니 생긋이 웃었다.

"자, 이젠 당신의 사랑스러운 주낭자를 구하려 갈 차례군요. 송청서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날엔 산통이 깨질 테니까요."

장무기는 공연히 얼굴이 붉어졌다.

"산통이 깨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솔직히 말해 가슴이 찔리는 바가 없지 않았다.

제 3 장 홀연히 나타난 황삼미인(黃杉美女)

장무기는 말을 끌고 와 조민과 관내를 향해 달렸다.

만약 의부가 진짜 개방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면, 그를 이용해 명교에 협박해 올 것이 분명한 일이므로 당장 의부를 해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지약은 너무 순진한 탓에 진우량 같은 음흉한 놈과 송청서와 같은 염치없는 놈들의 강압을 받을 때는 필시 자살을 해 버릴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채찍질을 가했다. 그러나 부상입은 조민과 함께 있으므로 한 조그마한 객점에 투숙했다. 방에 누운 장무기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조민의 방 곁에 와서 조민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간단히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남쪽 방향으로 달려갔다.

다음날 그는 새로 말 한 필을 구입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렸다.

노룡은 하북의 중진(重鎭)으로, 당대(唐代)에는 절도사가 주재하던 곳이며, 그 뒤 송대(宋代)에는 전쟁을 치뤄 많은 파손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구가 많은 곳이다.

장무기는 노룡의 큰길과 골목을 샅샅이 쏘다녔지만 이상하게도 거지라고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구나. 이런 큰 고장에 거지 한 명 보이지 않다니, 아마 모두 방주를 참배하러 간 모양이군. 집회 장소만 알아내면 의부와 주지약을 정말 개방에서 납치해 갔는지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장무기는 절간 사당, 빈 집이나 넓은 뜰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

러나 여전히 조금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갑자기 동남쪽 끝에 있는 누각에 불이 밝게 켜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저 집은 분명히 어느 벼슬아치의 집이 아니면 어느 갑부의 집이 틀림없으니 개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한 그림자가 창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저 집에 도둑놈이 들어갔었나 한번 가서 살펴보자.'

그는 즉시 경공을 써 누각까지 달려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러자 안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진장로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야. 분명히 정원 초파일 노하구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자고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하고 우리를 여기서 기다리게 해놓더니, 자기가 방주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그것은 분명 개방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장무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장무기는 조용히 말소리가 나는 곳으로 접근했다.

안에서 다시 개방의 방주 사화룡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진장로는 정말 보통이 아니야. 그 무슨 금모사왕 사손인가 하는 자를 강호에서 이십여 년이나 찾으러 다녔는데도 아무도 그의 그림자조차 보지를 못했는데, 그 진장로가 그 자를 잡아왔으니, 우리 개방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을 뿐 아니라 무림 전체에서도 그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이야....."

장무기는 의부의 행방을 알아내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한편 그는 놀랍기도 했다. 개방에 그런 고수가 있었다니 의부를 구출하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은 않았다. 그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다.

안에는 사화룡이 중앙에, 그리고 양옆으로 전공, 집법, 장봉용두, 그리고 차림새가 화려한 한 중년으로 보이는 뚱뚱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보기엔 무척 거부(巨富)로 보이는데, 등에는 여섯 개의 자루를 메고 있었다.

'그랬었군. 노룡의 이 거부가 바로 개방의 제자였구나. 이런 부자집에서 집회를 할 줄 누가 생각을 했겠는가.'

"진장로가 그렇게 급하게 연락을 해 왔을 땐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야.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제기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자 장봉용두가 입을 열었다.

"방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강호에서 그 자를 찾아다닌 것은 순전히 도룡도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그 도룡도가 그 자의 손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자를 잡아 두고 밥만 먹여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면, 독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자는 겁니다."

사화룡은 손을 저었다.

"안돼, 안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을거야. 진장로가 도착한 뒤에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거야."

장봉용두는 방주가 사사건건 진우량의 말만 듣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화룡은 품 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어 장봉용두에게 건네며 말했다.

"풍형제(風兄弟), 당신이 즉시 호주(濠洲)로 가서 이 편지를 한산동(韓山童)에게 전해 주게. 한산동의 아들이 여기에서 아무일도 없이 잘 있다고, 그리고 한산동이 우리 개방에만 들어오면, 아들은 무사할 것이라고 얘기하게."

"이런 작은 일은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반 년 동안 한산동의 세력이 많이 커졌어. 듣자 하니, 그의 밑

에는 무슨 주원장이니 서달이니 상우춘이니 하는 무척 재주가 많은 자들이 있다고 하더군. 그러니 이번 일은 풍형제가 직접 가야겠소. 첫째는 한산동이 우리 개방으로 들어오게끔 잘 얘기해야 되고, 또한 그의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둘째는 도대체 명교에 무슨 대단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시오. 모두 작은 일이 아니니 풍형제가 직접 가야 된다는 거요."

장봉용두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했다.

"네, 분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무림 각파를 모두 통일하면 만족이라는 그들의 말이 들려왔다. 들어 보니, 사화룡은 진우량보다는 야심이 없었다. 강산을 빼어 황제가 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장무기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보아 하니 의부와 주지약은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을 먼저 구출하고 나서, 다시 이놈들을 단단히 혼내 줘야겠다고 장무기는 생각했다.

그는 가볍게 오른발을 튕겨 나무 위로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니, 누각 밑 한 곳에 십여 명의 개방 제자들이 모두 무기를 들고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곳이 바로 사손과 주지약을 감금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그곳으로 접근했다.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살펴보니 이상하게도 안은 조용했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다시 서쪽에 있는 방으로 가서 살펴보니, 안에는 술잔과 먹다 남은 안주가 널려 있었고 역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가운데에 있는 방으로 가서 보니, 안에는 촛불도 켜 있지 않은 체 조용해 살며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문은 안으로 잠겨져 있었다.

그는 낮은 소리로 불렀다.

"의부님, 여기 계십니까?"
그러나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아마, 여기에 감금되지 않은 모양이군. 그런데 왜 개방 제자들이 여기를 그렇게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나를 속이려고 한 것인가?'
그러나 그는 갑자기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내력을 모아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는 앞으로 첫발을 내딛자 그만 뭉클한 느낌을 느꼈다. 사람을 밟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얼른 허리를 굽혀 만져 보니 조금 전에 죽은 것 같았다. 칠, 팔 구의 시체가 모두 심한 내상을 입은 것이었다. 그는 한 시체의 옷을 찢어 보니, 가슴에 주먹자국이 나 있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 실로 위력이 대단한 주먹이었다.
'의부께서 위력을 발휘하셨군. 경비들을 모두 죽이고 탈출한 모양인데.'
그가 방 주위를 살펴보니, 과연 한 구석에 불길 모양을 그린 명교의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그렇구나. 조금 전에 창문 밖으로 달아난 그림자가 바로 의부였구나. 그런데 의부께서 어떻게 개방에 붙잡혔을까? 아마 앞을 못 봐 개방의 함정에 빠진 모양이군. 의부께서 아직 멀리 못 가셨을 거야. 빨리 찾아서 돌아와 이 개방놈들에게 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단단히 혼내줘야겠군.'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그림자가 달아난 서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다. 큰길을 따라 몇 리 길을 달려가자 앞에 갈림길이 있었다. 그가 사방을 둘러보니 큰 바위덩어리에 또 불길이 그려져 있었다.
장무기는 불길이 그려진 방향으로 달렸다. 명교에서 연락을 취하는 수단으로 불길을 그리는 암호에 대해서는 양소에게 들은 적

이 있었다. 또한 조금 전에 본 불길은 간단하게 그린 것 같지만, 사손과 같이 문무를 겸비한 분이면 그렇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숨에 사하역(沙河驛)까지 달려가니 날이 이미 밝아왔다. 그는 만두 몇 개를 사 먹어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고 다시 서쪽으로 달렸다.

큰길 끝까지 오니 다시 불길을 그린 것이 보였다. 그 방향은 한 낡은 사당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의부가 분명히 여기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매우 기뻤다.

안으로 들어가자, 웬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보니 대청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도박을 하고 있었다.

옷이 매우 화려하며 부귀해 보이는 도박장의 주인은, 장무기가 들어오자 큰 손님으로 알고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였다.

"자, 도련님, 어서 오십시요. 재수가 좋으실 것 같은데 한 번 하시지요?"

장무기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도박꾼들 중에 강호 인물이 없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불렀다.

"의부님, 의부님! 어디에 계십니까?"

한참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다시 몇 번을 불렀다.

한 도박꾼이 장무기가 노름을 하지 않고 시끄럽게 외치자 귀찮다는 듯이 그를 놀렸다.

"그래, 네 의부가 여기 있다. 와서 주사위 놀음이나 하거라."

장내는 와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장무기는 도박장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머리가 노랗고 키 큰 어른께서 한 분 오시지 않았소? 앞을 못 보는 장님인데....."

"농담도 잘 하시는군요. 그래 세상에 장님이 주사위놀이하는 일

도 있소? 그 장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오?"

장무기는 의부를 찾지 못하고 거기다 자기를 놀려대자 그만 화가 치밀어 한 손에 한 놈씩 움켜잡고 지붕 위로 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노름판의 은덩어리를 모두 품 속에 집어넣고 큰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노름꾼들은 모두 겁에 질려 감히 그를 따라나와 잡으려고 하지를 못했다.

장무기가 다시 서쪽 방향으로 걸어가니, 또 불길 표시가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그는 풍윤(豊潤)에 도착했다. 이곳은 하북성의 큰 성이다. 그는 불길 표시를 따라 한참을 가니 불길은 여전히 서남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장무기는 날이 어두워지자 어둠 속에서 불길 표시를 못 알아보고 지나칠까 염려되어 객점에 투숙하고, 다시 이튿날 아침에 길을 떠나 오후에 옥전(玉田)에 당도하여 보니, 불길 표시는 다시 삼하(三河)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삼하에서 다시 향하까지 갔다. 장무기는 내심 아무래도 개방의 속임수에 속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불길 표시를 따라 찾으러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향하에서 보성, 다시 대백장, 번장, 다시 동남쪽으로 해서 영하까지 온 장무기는 다시는 불길 표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영하에서 아무리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아무런 표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음, 이 괘씸한 놈들! 과연 내가 속아 며칠을 헛되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는 즉시 말 한 필을 사서 쏜살같이 다시 노룡을 향해 달렸다. 그는 거리에서 백색 장포를 사 입고, 옷에다 큰 불길을 그렸다. 그것은 그가 이번엔 정정당당히 명교의 신분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장무기가 그 갑부의 저택 앞에 당도해 보니, 문이 꼭 잠겨 있었다. 그가 쌍장을 뻗자 꽝! 하는 요란한 소리와 동시에 양쪽 대문

이 부서져 안으로 넘어지면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며, 큰 어항 두 개가 문짝에 부딪쳐 깨지고 말았다. 그는 큰 걸음으로 걸어 들어가며 외쳤다.

"개방은 듣거라! 빨리 사화룡을 불러 나를 만나게 해라!"

마당에는 십여 명의 사, 오 대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문짝이 부서져 날아오자 이미 놀라 눈이 휘둥그래져 있는데, 한 백의 소년이 유유히 걸어 들어오면서 소란을 피우자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넌 누구냐? 뭐하는 놈이냐?"

장무기가 양팔을 내두르자 칠, 팔 명의 개방 제자가 나뒹굴었다. 그는 대청을 지나 다시 일장에 중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안에는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거기엔 사화룡이 중앙에 앉아 있었다.

이때 이미 연회석에 앉아 있던 개방 수령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듣자, 무슨 영문인지 조사하러 뛰쳐나오다 장무기와 마주쳤다. 장무기는 그 자의 앞가슴을 휘어잡고 사화룡을 향해 내던졌다. 갑부처럼 보이는 주인이 맨 끝에 앉아있다가 사람이 연회석 위로 날아오자 재빨리 일어나 그 자를 받았지만, 그만 그 무서운 힘에 뒤로 칠, 팔 보 밀렸다. 다행히 큰 기둥으로 밀려 쓰러지지는 않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만 기둥 밑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을 목격한 개방 사람들은 모두 놀라 겁에 질렸다.

바로 이때 장무기는 엇! 하고 소리를 냈다. 정말 놀랍고도 기뻤다. 원탁의 왼쪽 맨 위에 주지약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옆에는 송청서가 앉아 있었다.

주지약은 놀라 외쳤다.

"무기 오빠!"

그녀는 일어서자 그만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무기는

놀라 앞으로 달려나가 그녀를 부축하며 안았다. 그런데 아직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팍! 하고 송청서의 일장이 그의 등을 때렸다. 거기다 또 한 명의 개방의 일권을 맞았다.

그 때 이미 장무기의 온몸에는 구양신공이 감돌아 장풍과 주먹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는 주지약을 안고 마당으로 뛰어가 주지약에게 물었다.

"의부께선 어디에 계시오?"

주지약의 음성은 매우 떨렸다.

"저는..... 저는....."

"어르신네께 무슨 사고는 없소?"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들에게 여기에 잡혀와 봉혈을 당했어요. 그리고 의부님의 행방은 몰라요."

장무기는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려 했으나, 봉혈의 수법이 너무 괴이해 두 번씩이나 주물러도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두 발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개방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까지 뛰쳐나갔고, 사화룡이 포권의 예를 올리며 물었다.

"각하께서 바로 명교의 교주이시오?"

장무기는 상대가 개방의 방주인 것 같아 예절을 잊지 않고 역시 포권의 예를 올렸다.

"죄송합니다. 귀방의 총타(總舵)까지 쳐들어 와서 무례를 저지른 죄 용서하십시오."

"장교주의 명성은 소인의 귀가 시끄럽도록 들어왔습니다. 오늘 노형의 신법을 직접 뵈니 정말 소문대로군요. 하! 하! 정말 탄복했소."

"사방주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모사왕은 지금 어디에 있소? 어서 나를 만나게 해주시오."

사화룡은 하! 하! 하! 하고 크게 웃었다.

"장교주께서 젊은 나이에 어찌 말투가 그리 당돌합니까? 우린 다만 호의를 베풀려고 술 한 잔 대접하려고 초청했더니, 그 사사왕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방의 칠, 팔명 제자까지 해치고 달아났습니다.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장교주께서 얘기해 보시오!"

'음! 과연 그 개방 제자들을 의부께서 처치했구나. 보아하니 지금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군. 그렇다면 어디로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귀방에서 어찌 주낭자를 감금하셨소."

"그것은....."

하고 사화룡이 머뭇거리자 진우량이 재빨리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명교의 장무기의 무공이 고강하다고들 하는데, 알고 보니 매우 경우가 없는 사람이군요. 주낭자는 아미파의 장문으로서 명문 정파의 수뇌인데, 귀교와 같은 사교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요? 이 송청서 형제는 무당파의 젊은 인재로서 주낭자와는 정말 천생의 배필감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쪽을 지나기에 저희 개방에서 손님으로 초대한 것뿐인데, 무슨 이유로 명교에서 간섭을 하는 거요? 정말 가소롭군."

"그렇다면 왜 주낭자의 혈도를 봉했소?"

"아니 지금까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누가 그녀의 혈도를 봉했다는 거요? 개방과 아미파는 서로 인연이 많은 사이입니다. 아미파를 창파한 조사 곽여협은 방의 상대(上代) 황방주의 친딸이고, 폐방 상대의 방주 야율은 곽여협의 친형부라는 것은 세 살 어린애도 다 아는 일인데, 우리 개방에서 어찌 감히 아미파의 장문을 감금한다는 거요? 장교주는 어찌 세상 사람들이 웃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흥! 그렇다면 주낭자 자신이 자기의 혈도를 찔렀다는 거요?"

"천만에! 장교주께서 달려와 주낭자를 납치한 것을 우리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그런 무례한 말을 하시오? 주낭자께서 앙탈을 부리자 당신이 그녀의 혈도를 봉한게 아닙니까? 아무리 영웅 호색이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자기 신분을 알고 체통을 지키시오!"
장무기는 진우량의 구변을 당해낼 수 없었다. 오히려 상대에게 당하자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나의 의부의 행방을 말할 수 없다 그거요?"
"장교주, 귀교의 광명좌사 양소가 당년 아미파의 기효부를 간살(姦殺)하여 천하무림의 손가락질을 받아왔는데, 당신이 오늘 자신의 무공을 믿고 또 그런 짓을 한다면 아마 살아 남지 못할 거요!"
"주낭자, 당신이 직접 어떻게 여기에 잡혀 온 것인지 얘기 하시오!"
"저.....저.....는....."
그녀는 갑자기 말을 못하고 그만 쓰러져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명교의 마두가 또 살인을 했다!"
개방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장무기가 여자를 괴롭히려다가 안 되니 아미파의 장문을 죽이다니!"
"음적(淫賊) 장무기를 죽여라!"
장무기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서서히 사화룡을 향해 접근했다.
'도둑을 잡으려면 제일 먼저 두목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저놈을 잡아 의부의 행방도 알아내야 된다.'
장무기가 이렇게 생각을 굴리는 동안 장봉용두와 집법장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봉용두는 철봉을 들었고, 집법장로는 오른손에 쇠갈고리를, 왼손엔 쇠지팡이를 들고 동시에 장무기를 향해 공격했다.

장무기는 기합을 넣고 건곤이위심법을 전개했다. 그러자 집법장로는 쇠갈고리로 장봉용두의 철봉을 가로막고, 쇠자팡이로는 다시 장봉용두의 겨드랑이를 후려치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전공장로가 장검을 뽑으며 외쳤다.

"이놈의 무공은 괴이하니 모두 조심하시오!"

그러면서 휙! 휙! 휙! 하고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세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매번 장무기의 아랫배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정말 예리하였다.

'훌륭한 검법이군.'

그러면서 재빨리 옆으로 피하여 왼손으로 상대의 넙적다리를 향해 찔렀다. 그러나 전공장로의 검 끝은 다시 장무기의 손을 향해 공격해 오는 것이었다. 어느 사이엔가 번개와 같이 초식을 바꾼 것이다. 그의 이 초식 하나만 봐도 즉시 무림에서 보기 드문 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방의 명성이 강호에 떠들썩하고, 백 년을 내려오면서 조금도 쇠퇴하지 않은 것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출한 인물이 있다니.....'

장무기도 내심 탄복했다.

순식간에 장무기는 개방의 세 고수와 벌써 이십여 회합을 부딪쳤다.

"살구진(殺狗陣)을 쳐라!"

갑자기 진우량이 소리치자, 스물 한 명이나 되는 개방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병기를 들고 살구진을 쳤다.

그러자 전공장로가 소리쳤다.

"장교주, 미안하오. 한 사람을 상대하는데 여럿을 동원해서. 그러나 악한 자를 처치하는데는 그런 일 대 일 규칙을 지킬 수는 없소!"

"천만에! 괜찮소!"

"그렇지만 우린 모두 무기를 들었는데 장교주는 맨손이니, 무슨 무기가 필요하면 말씀하시오. 부탁을 들어줄 것이니."

장무기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전공장로가 무공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의기(義氣)도 있는 사람이구나. 진우량과 같은 놈과는 무척 다른데.....'

"여러분과 장난 좀 치기로서니 무슨 무기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면 나 스스로 뺏어오지 못할 것 같소?"

그러자 장무기의 신형이 번쩍 하더니 어느새 살구진에서 뛰쳐나와 진우량과 송청서의 어깨를 짚고 나서 재빨리 두 사람의 무기를 빼앗아 들고 다시 살구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살구진을 치고 있는 스물 한 명의 제자들 옷자락 하나 스치지 않았다. 모두 그의 이런 훌륭한 솜씨에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 하! 하! 귀방의 살구진이란 이름은 정말 잘 지었소. 그것으로 개를 잡기는 쉬워도 용이나 범을 잡기엔 아무 쓸모가 없군요."

그러면서 양쪽 무기를 서로 부딪치자 자신의 경력이 검 끝까지 전도되어 철그렁 하는 소리와 동시에 양쪽 검이 모두 부러져 버렸다.

"모두 덮쳐라!"

장봉용두가 외치며 철봉을 장무기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집법장로의 갈고리와 지팡이도 동시에 공격해 왔다.

장무기는 왼쪽으로 덮치며 건곤이위심법을 전개하여 순식간에 스물 한 명의 만도를 모두 빼앗아 던져 버렸다. 그가 던져 버린 스물 한 개의 칼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차례로 대청 기둥에 순서대로 꽂히는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진우량의 외침이 들려왔다.

"장무기, 어서 멈추지 못하겠느냐!"

장무기가 뒤돌아보자 진우량의 장검이 주지약의 등을 노리고 있

었다.

장무기는 냉소를 지었다.

"백 년 동안 위세를 떨치던 개방에서 이런 비겁한 짓을 하다니, 홍칠공 대협의 명성에 먹칠할까 두렵지 않소?"

전공장로가 화를 벌컥 냈다.

"진장로, 어서 주낭자를 놔주시요! 우리 개방 전체의 힘으로 명교의 한 사람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다니 창피하게 그게 무슨 짓이오?"

진우량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대장부란 머리로 싸우지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 장무기, 이래도 항복하지 않겠느냐?"

장무기는 크게 웃었다.

"좋소. 오늘에야 이 장무기가 개방의 진짜 위세를 보게 됐소!"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뒤로 공중제비를 도니, 어느새 두 발이 사화룡의 양 어깨를 딛고 서 있었다. 그리고는 그의 오른쪽 손바닥을 사화룡의 정문혈을 노리고, 왼손은 이미 사화룡의 목덜미의 경맥을 움켜쥐었다.

성화령에서 얻은 무공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무기도 천만 뜻밖이었다.

개방 사람들은 방주가 붙잡히자 모두 놀라 소란을 피웠다. 장무기가 가볍게 장력을 뻗으면 사화룡은 즉사할 판이었다. 개방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다 잠시 적막이 흘렀다. 모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다.

바로 이때 갑자기 지붕 위에서 금소화명(琴簫和鳴)의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들리는 듯 말 듯 갑자기 동쪽에서 났다가 서쪽에서 났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이 들려오더니, 갑자기 네 명의 백의 소녀가 각기 다른 지붕 위에서 표연히 마당으로 내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요금(瑤琴)을 들고 있었다. 그러자 문 밖에

서 네 명의 흑의 소녀가 손에 모두 장소(長簫)를 들고 들어왔다. 네 명의 백의 소녀, 네 명의 흑의 소녀는 각기 교차해서 서 있었다.

그러자 조용히 한 명의 황삼을 입은 여인이 손에 열 두어 살 된 소녀를 데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약 이십 칠, 팔 세로 보이는 여인이었다. 뛰어난 각선미에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핏기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녀가 데리고 온 여자 아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추해 보였다. 돼지코에다 큰 입에 덧니까지 나 있어 흉악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런 그 계집아이는 한 손은 미인의 손을 잡고 한 손엔 뜻밖에도 청죽봉(青竹棒)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개방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시선이 모두 그 청죽봉에 쏠려 있었다.

장무기는 여자들이 들어오자 자기가 여전히 사화룡의 목발을 타고 있는 꼴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진우량이 여전히 검 끝을 주지약의 등에 대고 있어서 사화룡을 풀어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개방 사람들은 한눈 팔지 않고 모두 청죽봉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 백의 소녀나 흑의 소녀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청죽봉만이 제일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의아해 하며 청죽봉을 자세히 보니, 지팡이 전체가 반들반들하며 온통 녹색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탔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밖엔 별로 이상한 점을 볼 수가 없었다.

황삼 미녀는 눈동자를 돌리며 사방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매서웠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 본 후 나중에 장무기에게 시선이 멈췄다.

"장교주, 나이가 어리지도 않은데 아직까지 그런 철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는 말투였으나 그의 음성은 매우 친절해 꼭 누나가 동생을 훈계하는 것처럼 들렸다.

장무기는 얼굴이 빨개졌다.

"개방의 진장로께서 비겁한 수단으로 나의 동반을 위협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도리밖에 없었소."

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남의 방주를 발로 취급하다니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장안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들으니 명교의 작은 마두라 하던데, 지금 보니 과연 소문대로군."

그러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저으며 매우 못마땅한 인상을 풍겼다.

사화룡이 갑자기 크게 외쳤다.

"장무기 이 색마야! 빨리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장무기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으나 자신의 목덜미의 경맥을 잡혀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그 자가 여자들의 앞에서 자기를 색마라고 부르자 그만 화가 치밀어 목덜미에 자신의 내력을 주입시키자, 사화룡은 고통을 참지 못해 아야!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개방 사람들은 장무기가 그렇게 무례하자 화가 치밀었으나, 한편 방주가 이처럼 약하게 보이자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개방의 방주라면 강호의 제일 큰 방의 방주인데, 체통을 잃고 적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다니! 개방의 제자들도 이렇게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진우량이 입을 열었다.

"장무기, 네가 방주를 놔주면 나도 검을 거두겠다."

그러면서 장무기가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검을 거두었다.

"좋다!"

장무기의 몸이 잠깐 움직이는 듯하더니 어느새 주지약의 옆에

와 섰다.

주지약은 기진맥진했는지 두 눈이 움푹 들어가 보기에 매우 가련하였다. 장무기는 그녀를 부축하여 돌의자에 앉혔다.

진우량이 황삼 미녀를 향해 읍을 하며 말했다.

"방가(芳駕)께서 무슨 일로 폐방을 왕림하셨습니까? 어떻게 칭호를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실 수 없습니까?"

황삼 미녀는 냉랭한 음성으로 말했다.

"혼원벽력수 성곤은 어디에 있느냐? 빨리 나와서 나를 만나라고 해라!"

장무기는 혼원벽력수 성곤이란 말에 무슨 영문인지 의아해 했다. 순간 진우량의 얼굴이 갑자기 크게 일그러지더니, 재빨리 정색을 하고 담담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금모사왕 사손의 사부님이 아니요? 그렇다면 장교주에게 물어야 옳지 않소?"

"당신은 누구요?"

"저는 진우량이라 하오. 개방의 팔대 장로올시다."

황삼 미녀는 사화룡을 노려보더니 다시 물었다.

"저 자는 누구요? 생김새는 무척 영웅 기개가 있는 듯한데, 어찌 그렇게 쓸모가 없소? 조금 당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니."

개방 사람들은 모두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진우량이 대답을 했다.

"이분은 바로 본방의 방주올시다. 그런데 중병을 앓고 이제 막 회복했소. 당신은 손님이라 우리가 양보했지만 앞으로 또 그런 무례한 말을 지껄이면 가만히 두지 않겠소."

황삼 미녀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도 없이 한 흑의 소녀를 향해 말했다.

"소취(小翠)야, 그 편지를 보여 줘라."

네! 하고 대답하고 나서 흑의 소녀는 품 속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장무기가 옆으로 슬쩍 곁눈질해 보니, 겉봉에 명교 <한산동나리 귀하>라고 씌어 있었고, 밑에는 <개방 사화룡>이라고 적혀 있었다.

장봉용두는 그 편지를 보자 그만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더니 화를 벌컥 냈다.

"이 천한 계집애야, 알고 보니 중간에서 편지를 훔친 게 바로 네 계집애였구나!"

그는 철봉을 쳐들고 앞으로 덮칠 기세였다.

소녀는 깔깔 웃었다.

"나야 어린 계집애지만 당신처럼 큰 사람이 편지 하나도 못 지킵니까?"

그러면서 가냘픈 팔을 휘두르자 그 편지는 직선을 그으며 장봉용두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장봉용두는 재빨리 편지를 낚아챘다.

장무기는 사화룡이 장봉용두를 시켜 편지를 한산동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한산동의 아들을 인질로, 그를 개방에 항복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었다. 지금 이들의 대화를 듣자 장무기는 이 백의, 흑의 소녀들이 도중에서 편지를 절취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봉용두의 무공이 매우 정강하여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를 희롱한 사람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여덟 명의 소녀들은 모두 매우 영리한 것이 아니면 무공이 장봉용두보다 더 고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황삼미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때 황삼미녀가 입을 열었다.

"한산동은 회사에서 몽고놈들을 쫓아내어, 모두 그가 인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영웅 인물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명교를 배반하고 개방에 항복할 것 같소? 이 편지가 한산동에게 전해진다 해도 그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요. 내가 보기엔 이 장봉용두가 정말 흐리멍텅한 사람이로군요. 개방에 큰 사건이라 장봉용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의 편지를 꺼내 놓는 거요?"

장무기가 포권의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

황삼 미녀는 다시 개방을 향해 말했다.

"그래 당신들이 한림아를 납치했다고 한산동을 항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장봉용두, 당신이 그날 계속 방해를 받았을 때 작은 길로 가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소?"

진우량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편지를 받아들고 보았다. 겉봉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는 겉봉을 찢고 안을 들여보더니 그만 안색이 크게 변해 버렸다. 편지 내용은 완전히 딴판으로, 개방이 명교에 항복하는 것으로 씌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황삼 미녀는 냉소를 지었다.

"그렇소. 그 편지 내용은 나도 이미 보았소. 그렇지만 내가 고친 것은 아니오. 내가 이 편지를 본 후에야 장봉용두가 누군가에게 당한 것을 알았소. 나는 개방과의 인연을 생각해서 위세가 당당한 천하 제일의 방회가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게끔 빼앗았던 거요. 당신네들이 잘 생각해 보시오. 이 편지가 명교에 들어갔다면 개방은 앞으로 무슨 낯으로 강호에 존재하겠소?"

모두 편지 내용을 보니 사실대로였다. 그렇다면 황삼 미녀가 개방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또 누가 이 편지 내용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인가?

흑의 소녀 소취가 웃으며 말했다.

"누가 바꿔치기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지요?"

개방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 그러자 소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장봉용두, 외포를 벗어 보세요."
장봉용두는 벌써 아까부터 얼굴이 붉어져 목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그는 외포를 벗어 뒤로 던져 버리며 외쳤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러자 그의 뒤에 서 있던 개방 사람은 모두 앗! 하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무슨 이상한 물체라도 본 것 같았다. 장봉용두는 영문을 몰라 다시 안에 입은 옷을 벗어 버리자, 몸에 바짝 붙은 속옷에 큰 박쥐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입가에 피까지 흘리고 있는 한 마리의 험악한 모습의 박쥐였다.
"청익복왕 위일소!"
하고 모두 외쳤다.
위일소는 중원에 별로 오지를 않아 명성을 그리 날리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신출귀몰하게 나타나 그의 솜씨를 발휘해 그의 명성은 백미응왕에 못지 않았다.
장무기는 내심 기뻤다.
'이형과 같은 경공이 아니면 장봉용두를 저렇게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을 거야.'
장봉용두는 놀라 속옷을 장무기를 향해 휘두르면서 화를 벌컥냈다.
"좋다, 알고보니 네놈들이 노부를 희롱한 것이구나!"
장무기는 가볍게 옷소매를 흔들어 날아오는 옷을 공중으로 날려 나뭇 가지에 걸리게 하였다. 장무기가 가볍게 웃었다.
"청익복왕이 당신한테 사정을 봐준 것이오. 그가 그 때 당신을 죽이기는 아주 쉬웠을 것이오."
그 말에 장봉용두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치를 떨었다.
진우량은 이 일을 밝힐수록 점점 더 창피만 당할 것을 알고, 그

문제는 다시 거론치 않고 황삼 미녀에게 물었다.

"낭자는 누구신데 저희 개방과 인연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황삼 미녀는 냉소를 지었다.

"당신들과 무슨 인연이 있겠소? 다만 이 청죽봉과 인연이 있지."

개방 사람들은 벌써 이 청죽봉이 개방의 신물(信物)인 타구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어떻게 남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없었다. 모두 사화룡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사화룡의 얼굴은 백짓장과 같이 질려 어찌할 줄을 몰랐다.

전공장로가 물었다.

"방주, 저 계집아이가 들고 있는 타구봉(打狗棒)이 진짜요, 가짜요?"

"내가 보기엔..... 가짜인 것 같소."

"방주, 그럼 진짜 타구봉을 꺼내 보여 주시겠소?"

"타구봉은 개방의 최고의 보물인데 어떻게 함부로 꺼낼 수 있소. 그리고 지금 지니고 있지도 않소. 만약 잃어 버리면 큰일이라....."

그 말에 모두는 체통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개방 방주로서 어떻게 타구봉을 잃어 버린다는 말인가!

여동(女童)이 죽봉을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보세요! 이 타구봉이 바로 본방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타구봉이오. 어째서 이것이 가짜라는 거죠?"

본방이라는 말에 개방 제자들은 모두 내심 의아해 하며 자세히 보니, 분명 방주의 신물인 타구봉이 틀림없었다.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해 했다.

황삼 미녀가 입을 열었다.

"소문에 개방 방주께서 항룡십팔장(降龍十八掌)과 타구봉법으로

천하에 명성을 떨쳤다는데, 소홍(小虹)아, 네가 먼저 사방주한테 항룡십팔장의 무공을 가르침받아 보거라. 소냉(小冷)아, 너는 소홍 언니가 이긴 후 다시 타구봉법을 실험해 보아라."

그러자 두 소녀가 앞으로 나와 각기 좌우로 서서 자세를 취했다.

진우량이 노기띤 음성으로 나무랐다.

"낭자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벌써 우리 개방을 경멸한 것인데, 두 하녀를 시켜 우리 방주에게 도전을 하다니, 강호에 이런 도리도 있소? 사방주님, 이 제자가 먼저 이 계집아이들을 처치하고 나서 다시 이 낭자의 실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기에 개방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소. 진장로가 상대하시오."

진우량은 장검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섰다.

소홍이 물었다.

"나는 항룡십팔장을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건데, 당신은 그 장법을 아시오? 그 장법이 검을 사용하는 겁니까?"

"사방주가 어떤 신분인데 너 같은 계집아이와 상대하겠느냐!"

황삼 미녀가 장무기에게 말했다.

"장교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저 진가 놈을 던져 버리고 저 가짜 사방주를 끌어내 주십시오."

그 말에 장무기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았다. 장무기는 어느새 사화룡 앞으로 접근했다. 사화룡이 충천포(沖天抱)의 초식으로 장무기를 향해 주먹을 뻗었다. 팍! 하고 주먹이 장무기의 가슴을 때렸다.

"하! 하! 하! 항룡십팔장이 이런 쓸모없는 권법이오?"

장무기는 그의 가슴을 움켜쥐고 그를 바짝 치켜올렸다.

진우량은 이미 자기는 장무기의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느새 사람들 속으로 숨어 버렸다.

못난 계집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와 사화룡을 때리고 물어뜯으며 외쳤다.

"너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악마다!"

사화룡은 장무기에게 혈도를 잡혀 꼼짝할 수도 없었다. 그의 키가 커서 계집아이는 작은 주먹을 그의 아랫배에 때리고 있었다. 장무기가 사화룡을 아래로 누르니 사화룡의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자, 계집아이는 그의 머리를 낚아챘다. 순간 사화룡의 머리가 갑자기 떨어지며 대머리가 나타났다. 알고보니 그는 원래 대머리였던 것이다. 그리고 여동이 막 때리고 사화룡의 코를 비틀었으나 조금도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었다.

모두 어리둥절해 자세히 보니 그는 코도 가짜로 만들었다.

순간 개방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넌 누구냐? 도대체 어떤 놈인데 우리 사방주로 변장했느냐?"

장무기는 힘껏 그 자를 내동댕이치자 그 자는 나가떨어져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 장봉용두는 화가 치밀어 그 자의 뺨을 힘껏 몇 번 내리쳤다. 그 가짜 방주의 뺨이 부어올라 그 자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진장로가 시킨 겁니다!"

"진우량이 어디 있느냐?"

집법장로가 외치자 진우량은 그림자조차 나타내지 않았다. 이미 음모가 간파된 것을 알고 도망을 쳐 버린 것이다.

"발리 그 자를 잡아오거라!"

장봉용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계속 그 자의 뺨을 후려쳤다.

집법장로가 그를 말렸다.

"풍형제, 이러면 안 되오. 이 자가 죽어 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후 그는 황삼 미녀에게 포권의 예를 올렸다.

"낭자께서 모든 것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소고 있었을 겁니다. 낭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지요? 우리 개방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황삼 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소녀는 심산에 숨어 살면서 바깥 사람과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알아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애를 누구도 알아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개방 사람들은 모두 계집아이를 쳐다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전공장로가 앞으로 걸어나와 자세히 쳐다보았다.

"어딘가 사방주를 많이 닮았는데,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름은 사홍석(史紅石), 바로 사방주의 외동딸입니다. 사방주께서 죽기 직전 부인을 시켜 이 아이를 안고 타구봉을 들고 나를 찾아와 복수를 해 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니? 낭자께서는 사방주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요?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선대의 방주들의 항룡십팔장이 야율제(耶律帝)까지 내려오다 이미 완전히 끊겨, 그 후 역대 방주들은 십 사 장까지 익힐 수밖에 없었다. 사화룡은 십 이 장까지 연마하고, 이십여 년 전에 그 장법을 익히려다 그만 내력이 부족해 반신불수가 되어 두 팔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인을 데리고 각처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영약을 구하려고 했다. 그리고는 개방의 모든 일을 전공과 집법, 두 장로와 장봉, 장발 두 용두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나 두 장로와 두 용두는 각기 책임이 달라 자기네들의 일만을 관리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양파로 갈라져 세력이 점점 약해졌던 것인데, 갑

자기 방주가 나타나자 젊은 개방 제자들은 방주를 직접 본 적이 없었고, 또한 전공장로나 다른 사람들은 서로 떨어진 지 이십여 년이나 되어 방주의 용모로 비슷하게 변장한 가짜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황삼 미녀는 탄식을 했다.

"사방주는 혼원벽력수 성곤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엇! 성곤은 분명히 광명정에서 죽은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어떻게 사화룡을 죽였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 전에 한 짓이란 말인가?'

"낭자, 사방주가 언제 피살당했습니까?"

"작년 시월 육일입니다. 약 두 달 전이지요."

"그렇다면 이상하군? 성곤이 한 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사부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방주가 한 노인과 십이장이나 싸워 그 노인이 피를 토하고 가 버렸는데, 사방주도 그 노인의 장력에 부상을 입었지요. 그 노인이 삼일 후면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안 사방주는 모든 일을 부인한테 부탁하고 그 원수의 이름을 밝혔는데, 바로 혼원벽력수 성곤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방주의 마비 증세는 이미 구성이나 다 치료되어 그가 익힌 항룡십팔장 중의 십 이 장으로 이미 강호의 일류 고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십 이장을 다 사용해도 그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홍석은 거기까지 듣자 그만 소리내어 크게 울고 말았다.

전공장로는 비분하여 그 더러운 옷소매로 사홍석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소세매(小世妹), 방주의 원수는 우리 수만 제자의 원수니 언젠가는 성곤을 붙잡아 갈기갈기 찢어 버릴 것이다. 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

"어머니는 지금 이 양(楊) 언니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지금에서야 모두는 이 황삼 미녀의 성이 양씨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은 여전히 조금도 알 수 없었다.

황삼 여자는 가벼운 탄식을 토했다.

"사부인께서도 성곤의 일장을 맞고 상처가 심한데다, 저의 집까지 왔을 땐 이미 위독하여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지 지금은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집법장로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 성곤이라는 자가 우리 방주와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독수를 썼을까요?"

"사부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성곤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 원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주께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있었답니다. 사부인의 말에 의하면, 아마 개방의 어느 제자가 성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다는군요. 그래서 사방주를 찾아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성곤이 사손을 피하기 위해 이미 수십 년 전에 강호에서 종적을 감추었는데, 개방 제자들이 어떻게 그와 원한을 맺었겠소? 보아 하니 무슨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옆에서 듣고만 있던 장발용두가 갑자기 반달형의 칼을 집어들고 가짜 방주인 대머리의 목에 대고 외쳤다.

"네 이름이 뭐냐? 무슨 이유로 방주로 가장했는지 사실대로 말해라!"

대머리도 겁에 질려 혼이 빠졌다.

"소인..... 대머리 유오(劉敖)라 합니다. 원래 산서해현(山西解

縣) 난석강(亂石岡) 산채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둑질을 하러 내려왔는데, 진우량과 그의 사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진우량이 저를 걷어차고 나서 검을 들어 죽이려고 하여, 소인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우량이 한참 나를 보고 나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부님, 이놈이 우리가 이틀 전에 본 그 자와 무척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사부란 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아니야, 나이도 안 맞고 코도 납작하고 머리도 대머리잖아!' 이 말에 진장로가 '제가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인을 해현까지 데리고 가 객점에 투숙시키고 저한테 가발을 씌우고 석고로 제 코도 높이고 다른 모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 나리들, 소인이 아무리 간이 크다 해도 어찌 감히 여러분들을 속일 용기가 있겠습니까? 진장로가 강제로 시키니 따랐을 뿐입니다. 소인 집엔 여든 살이 넘은 노모가 계십니다. 제발 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무릎을 꿇고 연실 절을 하며 손을 빌었다.

"진우량은 소림파 출신이다. 그의 사부는 분명 소림사의 고승일 것이야. 그런데 그에게 또 어떤 사부가 있지?"

집법장로가 낮은 소리로 그렇게 말하자, 장무기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사부는 바로 성곤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곤이 어떻게 이름을 원진으로 바꿔 공견신승의 제자가 됐고 또 광명정을 기습하여 끝내 은야왕의 칼에 죽었지만, 나중에 시체가 실종된 얘기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그렇다면 틀림없소. 분명히 광명정에서 성곤이 죽은 척하고 있다가 혼란한 틈을 노려 도망을 쳐 버렸던 겁니다."

전공장로가 노기띤 음성을 말했다.

"알고 보니 진우량, 이 못된 놈의 짓이었구나. 그 사부와 제자 두 사람이 야심이 커 천하를 독차지하려고, 사방주를 해치고 이

놈을 변장시켜서 괴뢰를 만들고 다시 명교를 협박해 소림, 무당, 아미 삼파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 것이야. 그런데 송청서는 어디로 사라졌지?"

그제서야 모두들 개방 방주와 황삼 미녀, 사홍석 등에 정신이 팔려 그들이 도망친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알았다.

전공장로는 황삼 미녀에게 포권의 예를 올렸다.

"낭자의 은혜는 우리 개방에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조상들이 개방과 대대로 인연을 맺었었는데, 이만한 작은 일로 무슨 은혜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사방주의 이 외동딸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읍을 하고 나서 어느새 이미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

"낭자,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러나 어느새 네 명의 백의 소녀와 네 명의 흑의 소녀마저도 지붕을 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전공장로는 사홍석의 손을 잡고 장무기를 향해 말했다.

"장교주, 잠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장무기는 안으로 들어가 전공장로, 그리고 주지약과 같이 자리에 앉자, 장무기는 일일이 이름을 물어본 후 말했다.

"조(曺) 장로, 만약 저의 의부님께서 귀방에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행방이라도 좀 알려 주십시오."

전공장로는 긴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진우량 그놈의 간계에 속아 너무 많은 천하 영웅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대협과 주낭자는 우리가 관외에서 어렵게 초청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때 사대협께서 몸에 병이 있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싸우지도 않고 여기에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닷새 전날 밤에 사대협께서 갑자기 간수들을 죽

이고 도망을 쳐 버렸습니다. 그분이 죽인 개방 제자들의 시체는 아직 뒷마당에 있습니다. 못 믿으시면 직접 가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장무기는 그의 솔직한 태도와 또 그날 밤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이라 다시 물었다.

"제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서쪽 방향으로 그린 폐교의 연락 암호는 제가 조사해 보니 본교 형제들이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귀방과 무슨 관련이 없는지요?"

"어쩌면 진우량 그놈이 한 짓인지도 모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조금도 모릅니다."

장무기는 내심 성곤이 광명정을 자유자재로 출입하면서 필시 명교의 기호를 알고 있어 그가 한 짓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만약 의부가 성곤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면 하고 생각하니 그만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사홍석에게 물었다.

"그 양 언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었느냐?"

사홍석은 고개를 저었다.

"본 적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타구봉을 갖고 며칠 동안 마차를 타고 가다 다시 내려 산으로 올랐는데, 나중에 어머님은 더 이상 걷지 못해 기어서 어느 나무숲까지 와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언니가 나오더니 뒤에 양 언니가 나와 저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한참 물어본 후 이 타구봉을 갖고 갔고, 반나절이 지나자 그만 어머니는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 뒤 양언니가 여덟 명의 언니들과 나를 데리고 마차를 타고 이리로 온 겁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려 자세히 얘기하지를 못했다. 지방 이름을 물

어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입에서 조금도 단서를 찾아 낼 수 없었다.
 전공장로가 다시 말했다.
 "귀교의 한산동 나리의 아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후 분부하자, 한 제자가 바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한림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천벌을 받을 거지떼들아!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우리 명교의 교주가 어떤 신분인데 너희 같은 거지 소굴에 오겠느냐? 어서 빨리 나를 죽여라! 어떤 간계를 부려도 소용없다!"
 그 말을 들은 개방 장로들은 모두 참회스러운 표정들이었다.
 장무기는 한림아의 인품에 감동해 앞으로 나서며 그를 마중하였다.
 "한대형, 나요. 며칠 동안 고생이 많았소."
 한림아는 깜짝 놀라 그만 무릎을 끓고 절을 올렸다.
 "교주님께서 정말 오셨군요. 어서 명령을 내려 이 거지떼들을 모조리 쓸어 버리게 하십시오."
 장무기는 웃으며 그를 일으켰다.
 "한대형, 개방 여러 장로들도 다른 사람의 간계에 속았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한형께선 나를 봐서도 이제 그만 화를 푸시고 용서하십시오."
 그 말에 한림아는 개방 장로들을 그저 노려보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집법장로가 입을 열었다.
 "장교주께서 오늘 이렇게 왕림하셨으니 정말 큰 영광입니다. 자, 어서 연회를 차리고 장교주를 환영하는 동시에 한형에게 사죄를 합시다."
 장무기는 의부의 안부가 걱정됐고, 또한 주지약에게 물어 볼 말

도 많아 음식을 먹을 심정이 아니었다.

"여러분의 호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의부님을 찾는 일이 급해 지금 떠나야겠으니 용서하십시오."

전공장로와 여럿이 완곡하게 만류하자, 장무기는 이대로 떠나면 개방에게 실례를 저지를 것 같아 연회석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다. 연회 중에 개방 고수들은 정중히 사죄하고 나서 개방 제자를 시켜 사손의 행방을 사방으로 알아내게 하여 즉시 장무기에게 연락을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장무기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서 그들과 마음껏 먹고 마셨다.

개방의 여러 고수들은 장무기가 나이도 젊고 무공이 그렇게 높은데도 조금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성품이 활달한데 반해, 합심하여 몽고 오랑캐를 몰아내기로 약속하고 노룡 밖 십여 리까지 배웅하고 나서 그제서야 서로 헤어졌다.

제 4 장 깨져 버린 혼례식(婚禮式)

장무기, 주지약, 한림아 세 사람은 개방의 갑부가 마련해 준 말을 타고 관도를 따라서 남하(南下)했다. 한림아는 도중에서 마치 하인처럼 시중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은근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한대형, 당신은 비록 우리 교에 속해 있는 형제지만, 인간적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있소. 물론 공적인 일에는 나의 호령을 듣겠지만, 평상시에는 형제, 친구처럼 지내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한림아는 몹시 황공해 하였다.

"당치도 않습니다. 항상 교주님을 가까이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오늘 제가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실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주지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당신의 교주도 아닌데 뭣 때문에 나에게도 공경하게 대하는

것이죠?"

"주낭자께서는 선녀와 대등한 인물입니다. 소인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만도 전생의 타고난 복입니다. 말투가 좀 거칠어도 흉보지 마십시오."

주지약은 자신의 용모가 청순하고 아름다워서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한림아처럼 오체투지(五體投地)한 남성은 평생 처음 만났다. 그러니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윽고 장무기가, 그녀가 개방에게 잡혀가게 된 경위를 묻자, 주지약은 이렇게 말했다.

----- 그날 그가 객점을 나간 뒤 얼마 후 사손은 느닷없이 온몸을 떨면서 헛소리를 지껄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겁이 덜컥 나서 있는 힘을 다하여 타이르고 위로해 주었다. 그러자 사손은 마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이 방 안에서 날뛰었다. 얼마 후 바닥에 쓰러지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바로 이때 개방의 육, 칠 명 고수가 동시에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왔다. 그녀가 미처 검을 뽑기도 전에 이미 제압당해서 사손과 함께 노룡(盧龍)으로 압송된 것이다. -----

장무기는 어릴 때부터 의부가 칠상권을 연마하는 바람에 심맥을 상한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온 가족이 성곤에게 살해되었기에 간간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에 발작되어서 개방의 침습을 막아내지 못할 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두 사람은 사손이 있을 만한 곳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전혀 집히는 게 없었다.

장무기가 말했다.

"경사(京師)는 각처의 인물이 모이는 곳이오.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나가게 될 것이오. 거기서 바로 대도에 가서 수소문하는 게 어떻겠소? 청익복왕 위형에게 혹 무슨 단서라도 있을 줄

모르지 않소?"

"당신이 정말 위일소를 만나러 대도에 가는 겁니까?"

주지약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장무기는 그녀의 말뜻을 눈치채고 그만 얼굴이 빨개졌다.

"위형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양좌사, 고두타, 팽화상 등 그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좋은 대책을 세워 줄 것이오."

"대도에 있는 그 여자를 찾아가면 더욱 좋은 대책을 세워 줄 거예요. 양좌사 그들이 어떻게 그 낭자의 총명한 머리를 따라가겠어요?"

장무기는 조민과 만났던 일을 그녀에게 숨기고 있었는데, 막상 그녀가 빈정대며 말을 하자 표정이 몹시 부자연스러워 졌다.

"당신은 기분만 좋았다 하면 한 번씩 창피를 주는구료."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은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줄 알았나요?"

장무기는 주지약과 백년해로를 약속한 사이라 더 이상 아무 말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지약,당신에게 꼭 얘기해 줄 일이 있는데, 화내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겠소?"

"화내야 할 일은 화내고 화내지 않아야 할 일은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장무기는 잠시 생각을 했다. 그 사이 타고 있던 말은 작은 마을 한 곳 가까워졌다. 이때 이미 해도 저물어서 객점을 찾아 투숙하기로 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주지약의 배심(背心)을 다시 한 차례 주물러 주었다.

"우리 밖으로 산보하러 가요."

주지약은 객점 안이 더럽고 냄새난다며 장무기에게 말했다.

"그럽시다."

그녀와 손을 맞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 이때 석양은 산등성이

에 걸려 있었고 서쪽 하늘의 놀은 마치 피빛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걷다가 큰 나무 밑에 앉았다. 이윽고 해는 서산에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용기를 내어 미륵묘에서 조민을 만났던 일이며, 어떻게 막성곡의 시체를 발견한 것과, 어떻게 송원교를 만난 것과, 어째서 명교의 불길 표시를 따라서 기북(冀北) 일대를 돌았던 일들을 일일이 말해 주었다. 나중에는 주지약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약, 당신은 나의 미혼처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 않소? 그러기에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은 거요. 조낭자가 의부를 다시 만나려 하는 건 의부에게 물어 볼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소. 난 그 당시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자꾸만 두려워지는구료."

"뭘 두려워하는 거죠?"

"의부에게는 실심풍(失心風)이란 증세가 있기 때문에 발작하게 되면 인사불성되어 버린다오. 그의 두 눈이 장님으로 된 것도 우리 어머님의 은침을 맞아서 멀게 된 것이오. 내가 출생할 때도 의부는 우리 부모를 살해하려 했소. 그런데 나의 울음소리를 듣더니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소. 난.....난 정말 두려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난 정말 걱정되오. 나의 사촌누이는..... 바로..... 의부가 살해한 것이오."

그러자 주지약은 놀라서 펄쩍 뛰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사대협께서는 우리 후배들을 더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어찌 은낭자를 죽일 수 있겠어요?"

"물론 이건 나의 추측에 불과하오. 설령 사촌누이가 의부에게 살해되었다면, 그건 어르신네의 고질병이 갑자기 발작되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본의는 아닐 것이오. 아아, 이 모든 잘못은 전부 성곤 그 악적 때문이오."

주지약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동시에 십향연근산에 중독된 것도 의부 그 어르신네의 짓이란 말인가요? 그는 어디서 독약을 구했죠? 사람이란 갑자기 정신착란을 일으키면 살인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음식에다 독을 뿌려 놓겠어요?"

장무기의 눈앞에는 마치 짙은 안개가 깔려 있는 것처럼 전혀 빛을 볼 수 없었다. 이윽고 주지약의 싸늘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무기 오빠, 당신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조낭자의 누명을 벗겨주려 하는군요."

"만약에 조낭자가 범인이라면 의부를 피하는 것도 시급할 것인데 뭣 때문에 의부를 만나려 하겠소?"

그 낭자는 신기묘산(神機妙算)해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생각해 낼 겁니다."

그녀의 말투는 갑자기 부드럽게 변하면서 그의 몸에 안기었다.

"무기 오빠,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온후하며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총명지모(聰明智謀)를 따진다면 조낭자의 상대는 될 수 없어요."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이윽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매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약, 세상만사는 번뇌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료. 난 달자들을 몰아내는 대업을 완수하면 당신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겠소. 그 때는 속세의 일은 전혀 상관하지 않겠소."

"당신은 명교의 교주에요. 만약 하늘이 도와서 호로(胡盧)를 정말 몰아내게 된다면 천하는 당신 명교가 장악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조용히 산단 말인가요?"

"나의 재간으로는 교주가 과분하며 또 하고 싶지도 않소. 만약 명교가 중권(重權)을 장악하게 되면, 교주의 자리는 더욱 마땅히 영명지철한 사람이 담당해야만 하오."

이윽고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끝없이 사랑을 속삭였다.

이때 갑자기 이 장 밖에 있는 큰 나무 뒤에서 흐흐 하며 두 번 냉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사이에 그림자 하나가 몇 번 흔들거리더니 멀리 사라졌다. 그러자 주지약은 벌떡 일어나더니 창백한 얼굴을 하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조민이에요. 그녀는 줄곧 우리를 미행했어요!"

"그녀가 분명할까? 뭣 때문에 우리를 미행했을까?"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아직도 발뺌할 작정입니까? 당신들은 필시 날 놀라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약속한게 아네요?"

주지약이 화를 내며 말을 하자 장무기는 연신 억울하다며 소리쳤다.

주지약은 잠시 앞뒤의 경과를 생각하더니 또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장무기는 왼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으며 오른손의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또 눈물을 흘리는 거요? 만약에 내가 조낭자하고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오."

"무기 오빠,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주지약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자 장무기는 그녀를 품안으로 끌어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의부를 찾게 되면 그 어르신네에게 부탁해서 우리 두 사람의 혼례를 주선해달라고 할 것이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헤어지지 않고 백년해로할 게 아니오? 이렇게 하면 되겠소."

"제발 오늘의 말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오랫 동안 부둥켜안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바람은 점차 강하게 불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객점으로 들어와서 각기 취침했다.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조민의 종적

은 다시 발견하지 못했다.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대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해질 무렵이었으나, 합성(合城)의 남녀들은 모두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다. 큰길과 작은 골목까지 모두 깨끗이 청소해 놓고 집집마다 대문밖에는 향안(香安)을 설치해 놓았다.

장무기 일행은 객점에 투숙하면서 안 안에 무슨 큰일이 있는지 종업원에게 물어보았다.

"손님들께서는 정말 때마침 오셨습니다. 내일이 대유황성(大遊皇城)하는 날입니다."

"대유황성이라니?"

"내일은 황상께서 일 년에 한 번 대유황성하는 날입니다. 황상께서 경수사에 봉향하러 가실 때 수만 명의 남녀들이 반희유행(拌戲遊行)합니다. 그 행렬의 길이는 자그만치 삼, 사십 리는 되는 실로 장관입니다. 손님들께서 내일 일찍 일어나 서서 옥덕전문 밖에 가시면 황상, 황후, 귀비, 태자, 공주, 모두 보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백성들이 경사(京師)에 살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황상을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적을 지아비로 섬기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간(漢奸)이다. 달자의 황제가 뭐 볼게 있느냐?"

한림아가 화를 내며 호통치자 종업원은 눈을 크게 뜨고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 당신..... 당신이 하는 말은 반역 행위가 아닙니까? 죽는 게 겁나지 않습니까?"

"나는 한림아다! 달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느냐! 그런데 넌 황상이 어쩌구저쩌구 하다니, 정말 쓸개도 없는 놈이구나!"

그 종업원은 우락부락한 그를 보자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주지약은 얼른 그 자의 등에 있는 혈도를 찍으며 말

했다.

"이 자가 나가면 필시 입을 놀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병들이 곧 우리를 잡으러 오겠지요."

말을 하면서 그를 침대 밑으로 걷어찼다.

"우선 그를 며칠 굶긴 후 우리가 떠날 때 풀어 줍시다."

잠시 후 주인장이 밖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복, 아복! 또 거기서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냐! 빨리 3호실에 세숫물 갖다 드려라!"

그러자 한림아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고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빨리 술과 음식을 가져오너라!"

잠시 후 다른 종업원이 음식을 갖고 들어오면서 중얼거렸다.

"아복, 이 녀석은 아마 황상에 불꽃놀이 구경하러 갔을 거야. 그 녀석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한단 말이야."

다음날 아침 장무기가 깨어나자 밖은 몹시 소란했다. 문 밖으로 나가보니 수 많은 남녀들이 모두 호화스런 옷을 입고 북쪽으로 몰려갔다. 저마다 즐거워하는 모습은 설날을 방불케 했다. 폭죽 소리도 사방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다. 주지약도 문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우리도 구경하러 갑시다."

"난 여양왕부에 있는 무사들과 싸운 적이 있어서 내 얼굴을 알아볼 것이오. 구경하러 가더라도 우선 변장 좀 해야겠소."

장무기, 주지약, 한림아 세 사람은 시골남자와 여자로 변장하고 얼굴과 양손은 흙탕물로 노랗게 칠한 다음, 사람들을 따라서 황성으로 몰려갔다.

그 때는 겨우 모말진초(卯末辰初) 시각인데도. 황성의 안팎은 이미 인산인해가 되어서 발디딜 곳이 없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사람들을 살짝 밀어내며 길을 터 주었다. 잠시 후 연춘문 밖에 있는 부잣집 처마 밑에까지 왔다. 얼마 후 바로 징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왔다, 왔다! 라고 소리치며 목을 내밀고 쳐다보았다.

징소리는 점차 가까이 다가올수록 소리가 요란했다. 이윽고 백 팔명의 우람한 남자들이 모두 청색옷을 입고 왼손에는 징을 하나씩 들고 있었고, 오른손의 징추로 일제히 징을 쳤다. 백 팔개 징이 동시에 울리는 소리는 실로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 징부대가 지나가자 뒤에는 삼백 육십명의 장고 부대가 따랐고, 그 뒤는 한인의 고적대, 서역의 비파대, 몽고의 호각(號角)대가 따랐다. 부대마다 백에서 오백 명은 되었다. 악대가 모두 지나가자 빨간 비단으로 만든 큰 깃발 두 개가 따라왔다. 하나는 안방호국(安邦護國)이란 글이 씌어 있고, 하나는 진사복마(鎭邪伏魔) 였다. 옆에는 금빛 찬란한 범문(梵文)이 많이 씌어 있었다. 깃발의 전후에는 몽고 정병 이백 명이 호위하고 있었다. 사백 명이 타고 있는 말은 모두 흰 색이었다. 백성들은 이러한 위세를 보게 되자 모두 큰 소리로 환호성을 쳤다.

큰 깃발 두 개가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서쪽에 몰려 있는 사람 숲에서 흰 빛이 연거푸 번뜩거리더니 두 줄기 비도(飛刀)가 두 개의 깃대를 향해서 날아갔다. 비도는 한 줄에 일곱 자루씩 연결시킨 것이다. 일곱 자루 비도는 질서정연하게 깃대에 꽂혔다. 비록 깃대는 매우 굵었으나 일곱 자루의 비도가 일제히 꽂히자 몇 번 휘청거리면서 바로 부러졌다. 그러자 비명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십여 명이 깃대에 깔리고 말았다.

이 갑작스런 변고는 장무기의 일행도 예측 못한 일이었다. 한림아는 너무나 기뻐서 갈채를 보내려는 찰나 갑자기 부드러운 손 한 쪽이 뻗어와서 그의 입을 막았다. 주지약이 때마침 그가 소리치는 것을 저지시킨 것이다.

순간 사백 명 몽고병들이 각각 병기를 들고 사람 숲 속에서 범인을 수색했다.
장무기는 열 네 자루의 비도를 발사한 수경(手勁)이 매우 예리한 것을 보고 무림 고수의 소행이란 것을 짐작했다. 그러나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잠시 후 몽고병들은 칠, 팔 명의 남자들을 억지로 끌어냈다. 그들은 모두 억울하다며 소리쳤으나 몽고병들은 일제히 창칼을 휘둘러서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그러자 한림아는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비도를 던진 자는 벌써 사라졌는데, 저 멍청한 놈들은 양민을 학살하여 화풀이를 하다니!"
"한대형, 소리를 낮추세요."
주지약이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네."
한림아는 더 이상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한 차례 소란이 끝나자 뒤에는 악기소리가 다시 울렸다. 다가오는 부대들은 모두 칼을 삼키고 불을 토하는 서역비기(西域秘技)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갈채를 보냈다. 방금 있었던 유혈참극은 마치 깨끗이 잊어버린 듯했다. 그 다음은 화려한 마차 행렬이었다. 마차 위마다 준동미녀(俊童美女)들이 모두 연극 속에 있는 인물처럼 분장했다.
장무기 일행은 항상 가난한 벽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번화기상은 전혀 볼 기회가 없었다. 제각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차 위에는 전부 금기(錦旗)가 꽂혀 있었고, 뒤로 갈수록 마차는 더욱 화려했다. 이는 모두가 몽고의 왕공대신들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며, 또 각자가 부(富)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결같이 돈을 아끼지 않고 마차를 장식했다.
갑자기 깨진 징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비쩍 마른 말 두 필이 채

차(綵車) 한 대를 끌고 들어왔다. 이 마차는 전혀 장식이 달려있지 않았고 몹시 허름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빈정거렸다.

"저런 형편없는 마차로 황성 들러리에 참석했다니, 정말 사람 웃기는군."

마차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다. 장무기는 마차를 보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차 안에는 한 남자가 노랑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렸으며, 두 눈을 꼭 감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이건 금모사왕 사손으로 분장한 게 틀림없었다. 옆에는 파란 옷을 입은 미모의 소녀가 찻잔을 들고 정성껏 모시고 있었다. 용모는 비록 주지약만은 못했지만 치장한 것은 그녀가 만안사의 담 위에 있을 때와 똑같았다.

순간 한림아가 말했다.

"주낭자, 저 사람은 당신을 꼭 닮았어요."

그러자 주지약은 콧방귀만 뀌고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그녀가 몹시 화내고 있는 것을 보자, 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오른손을 잡아주었다.

이 마차의 뒤에도 여전히 사손과 주지약으로 분장한 마차가 따르고 있었다. 그 여자배우가 낄낄거리며 남자 배우의 등 뒤로 가서 두 손가락으로 갑자기 가짜 사손의 등을 힘껏 한 번 찍었다. 그러자 가짜 사손은 악! 하고 크게 소리치면서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가짜 주지약이 발로 누르면서 검을 들어올리더니 찌르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잘한다! 잘한다! 빨리 죽여라!"

세 번째 마차도 역시 가짜 사손과 가짜 주지약이었으나 그들이 육, 칠 명의 개방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장무기는 이 마차 세 대가 조민이 연출해낸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는 주지약이 대도에 올 줄 미리 예상해서 주지약을 한 차례

놀려주려는 속셈이었다. 이윽고 그는 허리를 굽히더니 작은 돌 몇 개를 집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살짝 튕겨서 세 번째 마차를 끌고 있던 두 말의 오른쪽 눈을 적중했다. 돌은 뇌로 관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두 말은 몇 번 애절하게 울부짖더니 바로 쓰러져 죽었다. 그러자 마차는 뒤집히고 차 안에 있던 남녀 배우들은 모두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순간 거리는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요녀가 날 이처럼 모욕하다니 내.....내.....내....."

주지약이 입술을 깨물고 말을 하자 장무기가 얼른 위로해 주었다.

"지약, 그 못된 여자가어떤 해괴망측한 짓을 하더라도 당신은 신경쓰지 말아요. 남이 아무리 당신과 나를 이간질시킨다 해도 난 믿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주지약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말했다.

"아, 생각났어요. 그날 의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잘 있었는데 갑자기 몸을 한 번 떨더니 바닥에 쓰러지면서 헛소리하게 되었죠. 혹시.....혹시 당시 그 요녀가 객점의 어두운 곳에 숨어서 의부의 후심에 암기를 발사한 게 아닐까요?"

"그녀의 무공으로는 의부를 암살한다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이고, 혹 현명이로(玄冥二老)가 그랬는지도 모르지 않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몽고 관병들은 이미 백성들을 탄압해서 죽은 말을 끌어내자 뒤에 있던 마차들이 다시 끊임없이 다가왔다. 마차 행렬이 지나가자 범창(梵唱) 소리가 들리면서 빨간 가사를 걸친 번승(番僧) 행렬이 걸어 들어왔다. 번승 대의 뒤에는 이천 명의 철갑 어림군(御林軍)이 따랐고, 그 뒤에는 삼천 명의 궁전수(弓箭手)가 있었다. 궁전수가 모두 지나가자 향연(香煙)이 모락모락 나면서 신상(神像)을 하나하나 가마에 태운 채 지나갔다. 모두 삼백 육십 존(尊)의 신상이 있었는데, 맨 끝에는 관성제군

(關聖帝君)의 신상이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염불을 외우는 자도 있고, 무릎꿇고 절을 하는 자도 있었다.

신상이 지나가자 금과금추(金瓜金錘)를 들고 있는 의장대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우선보산(羽扇寶傘) 행렬이 하나씩 지나갔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말했다.

"황상께서 오신다! 황상께서 오신다!"

멀리서 황주대교(黃紂大轎 한 대가 삼십 이 명의 금의시위들에게 들린 채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무기가 자세히 그 몽고 황제를 살펴보니, 얼굴은 파리하면서 핼쓱한 것이 몹시 쇠약하게 보였다. 그러나 말을 타고 있는 황태자는 매우 영기(英氣)가 있었다. 등에는 금과 옥으로 장식한 긴 활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영낙없는 몽고 건아의 차림이다.

한림아가 장무기의 귀에 대고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교주님, 소인이 덮쳐가서 단칼에 저 달자 황제를 죽여 버릴까요?"

"안 되오. 달자 황제의 신변에는 필시 많은 고수들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가 가겠소."

그러자 장무기의 왼쪽에 서 있던 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안 됩니다!"

장무기, 주지약, 한림아 세 사람은 일제히 깜짝 놀라며 그 자를 쳐다보았다. 이 자는 쉰 살쯤 되는 낭중(郎中)이었다. 등에는 약자루를 짊어지고 있었으며 오른손에는 호장(虎杖)을 짚고 있었다. 그 자는 양손의 엄지를 펴서 가슴 앞에 나란히 하더니 명교의 화염수세(火염手勢)를 해 보이면서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팽영옥, 교주님께 인사드립니다. 교주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정말로 매우 기쁩니다."

그러자 장무기도 매우 기뻐했다.

"아, 당신은 팽....."

그 자는 바로 팽영옥이었다. 그의 변장술이 교묘해서 옆에 한참 동안 있었는데도 장무기의 일행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이윽고 팽영옥이 조그만 소리도 다시 말했다.

"여기는 말할 곳이 못 됩니다. 달자 황제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장무기는 전부터 그의 견식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제와 황태자가 지나간 후 다시 삼천 명의 철갑 어림군이 있었고, 그 뒤에는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 구경하러 따라갔다. 이윽고 길가에 있던 백성들은 일제히 말했다.

"황후낭낭과, 공주낭낭을 보러 가자!"

사람들은 모두 서쪽으로 몰려갔다. 그러자 주지약이 말했다.

"우리도 구경하러 가요."

네 사람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옥덕진 밖으로 따라갔다. 거기엔 일곱 채의 화려한 누각이 우뚝 솟아 있었고, 누각 밖에는 어림군이 등조(藤條)를 들고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쫓아내고 있었다. 비록 백성들이 많이 몰려 있었으나 장무기 일행은 가볍게 누각 앞으로 다가갔다. 중간에 있는 제일 높은 누각에는 황제가 자리하고 있었고, 옆에는 황후 두 분이 있었다. 황후들은 모두 뚱뚱한 중년 부인이었으며, 온 몸은 주옥 보석으로 감싸있어서 휘황찬란했다. 머리에는 고관(高冠)을 쓰고 있었는데, 매우 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황태자는 왼쪽 아래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 밑에는 스무 살 가량의 공주가 앉아있었다. 장무기는 두루 살펴보다가 왼쪽 두번째 누각에 있는 한 소녀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었다. 이 소녀는 초구(招구)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바로 조민이었다. 이 누각의 중간에 앉아있는 수염 긴 왕야(王爺)는 조민의 부친인 여양왕 찰한특목이었다. 조민의 오빠인 고고특목이는 누각 위에서 왔다갔다하며 거닐고 있

었다. 응시호보(鷹視虎步)한 것이 매우 사납고 날카롭게 보였다. 주지약은 조민을 잠시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돌아가요."
네 사람은 사람 숲을 헤쳐나와서 객점으로 돌아갔다. 팽영옥은 장무기에게 참견(參見)인사를 하고 나서, 그 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무기는 사손에 관한 소식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팽영옥은 금방 회사(淮泗)에서 대도로 왔기 때문에 사손이 중원에 이미 돌아왔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는 주원장, 서달, 상우춘 등이 전에 없는 전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명교의 위성을 더욱 크게 떨쳤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한림아가 말했다.
"팽대사님, 지금 우리가 채루(綵樓)에 덮쳐서 달자 황제를 단칼에 죽여 버리면, 일로영일(一勞永逸)하지 않습니까?"
팽영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황제가 혼용무도(昏庸無道)한다는 건 바로 우리를 크게 돕고 있는 격이 되는데 뭐하러 그를 죽이겠느냐?"
"달자 황제가 혼용무도하기에 백성들은 몹시 수난을 겪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를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형제가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달자 황제는 번승을 임용(任用)하기 때문에 조정 안은 몹시 문란해지고 있으며, 또 가로(駕魯)에서 황하를 개발하고 명했으니 노민상재(努民傷財) 때문에 천인공노할 지경이 되었다. 게다가 우리같은 오합지졸이 몽고 정병을 쳐부술 수 있는 건 모두 그 멍청한 황제가 재능있는 관리를 임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몽고병이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멍청한 장군들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달자 황제는 바로 우리의 큰 동업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말을 듣고 있던 장무기는 고개를 연신 끄덕거렸다. 팽영옥이 다시 말했다.
"만약에 우리가 달자 황제를 살해한다면 황태자가 황위에 오르

게 될 것이다. 그 황태자의 생김새만 보아도 보통내기는 아닐 것 같다. 설사 새 황제도 혼군(昏君)이긴 해도 그의 멍청한 애비보다는 나을 것이다. 만약 그가 정전(征戰)에 능한 장군들을 기용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그 때는 큰일이 아니냐?"

이윽고 장무기가 말했다.

"대사님께서 때마침 도착하셨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러자 한림아는 자기의 뺨을 때리며 욕지거리로 말했다.

"죽어도 싸지, 죽어도 싸! 네 이녀석, 나중에 또 이런 멍청한 짓을 하겠느냐?"

순간 장무기, 주지약, 팽영옥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팽영옥이 다시 말했다.

"교주님은 천금지체(千金之體)입니다. 게다가 어깨에는 호로(胡虜)를 몰아내며 나라를 재건하는 중임이 걸려 있어서 무모한 모험은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황제의 신변에는 많은 고수가 호위하고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시면 큰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장무기는 포권의 예로 인사하며 말했다.

"대사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윽고 주지약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팽대사님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은 함부로 모험을 하려는 겁니까? 나중에 우리의 큰 뜻이 이뤄지게 되면 채루의 용의(龍椅)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장교주입니다."

그러자 한림아는 박수치며 말했다.

"그 땐 교주님께서는 황제가 되시고 주낭자께서는 황후낭낭이 되시고, 양좌사님과 팽대사님은 바로 좌,우 승상이 될겁니다."

주지약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기뻐하는 모습은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장무기는 손을 마구 흔들며 말했

다.
"한형제, 다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본교는 오로지 백성들을 수심화열(水深火熱)에서 구제하는 일만 도모할 뿐입니다. 절대로 부귀영화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광명정대한 대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되면 황포(黃袍)를 입게 되시고 뿌리칠 순 없게 될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오."
주지약은 결단성 있는 그의 말을 듣자 실망한 얼굴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장무기가 말했다.
"나와 팽대사님은 밖에 나가서 의부 소식을 알아보겠소."
그는 한림아의 성격이 외골수라 불공평한 일을 보게 되면 즉시 주먹을 휘두르기 때문에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한형제, 당신과 지약은 오늘 밤에는 나가지 마시고 객점에서 푹 쉬십시오."
"네, 조심하세요, 교주님."
그러자 장무기와 팽영옥은 이경(二更)전에 객점에서 회합하기로 약속하고 두 사람은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갔다. 장무기는 서쪽 방향으로 걸어갔다. 도중에는 백성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유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걷고 있는 곳은 갈수록 조용하고 후미졌다. 불쑥 고개를 들어보니, 그날 조민과 술을 마셨던 작은 주점 앞에 당도한 것이다. 그는 내심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을 오게 됐구나. 진정 난 조낭자를 잊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이때 주점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조용하여 술손님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한 종업원이 카운터 옆에 있는 탁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내당으로 들어가 보니 구석에 있는 탁자 위에는 꺼질 듯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탁자 옆에는 한 사람이 안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그 탁자는 바로 그와 조민이 두 번씩이나 술을 마셨던 자리였다. 주점에는 술 손님이 한 사람뿐이었다. 그 사람은 발자국소리를 듣더니 불쑥 일어났다. 그러자 촛불의 빛은 흔들거리며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뜻밖에도 조민이었다. 순간 두 사람은 모두 아! 하고 소리를쳤다. 이윽고 조민이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당신.....당신이 어떻게 왔죠?"

감정이 몹시 격동되어서 말소리가 떨렸다. 그러자 장무기가 말했다.

"지나는 길에 들렸을 뿐이오. 그런데....."

탁자 옆으로 다가가 보니 그녀의 반대편에는 젓가락 한 쌍이 놓여 있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소?"

그러자 조민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뇨, 지난번 두 번씩이나 이 자리에서 당신하고 술을 마실 때, 당신은 나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지요. 그래서.....그래서 제가 종업원을 시켜서 젓가락 한 쌍을 더 준비하라고 했죠."

장무기는 내심 감격했다. 탁자에 놓여 있는 안주 네 접시는 첫 번째 조민이 그를 초대해서 술마셨던 안주와 똑같은 것임을 보자,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조낭자!"

그러나 조민은 상심하듯 말했다.

"제가 몽고의 왕가에서 태어난 게 원망스러울 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때 갑자기 창 밖에서 흐흐하며 두 번 냉소가 들리더니, 한 물체가 날아들어와서 촛불을 꺼뜨렸다. 순간 방 안은 칠흑처럼 깜깜했다. 장무기와 조민은 모두 주지약의 짓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일시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윽고 지붕 위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리면서 주지약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조민이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그녀는 이미 백년해로하기로 약속했다는데 정말입니까?"

"그렇소.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소."

"그날 제가 나무 뒤에서 당신과 그녀가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걸 듣게 되었을 때는 당장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제가 두 번 냉소를 지었더니 오늘 그녀가 복수하는군요. 그러나.....그러나 당신은 한 마디도 제가 좋아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장무기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조낭자, 내가 여기에 와서 당신을 만난 게 잘못이오. 당신은 금지옥엽의 몸입니다. 앞으로는 이 산촌야부(山村野夫)를 잊어버리구료."

조민은 그의 손을 잡으며 손등에 있는 상처 자국을 만지면서 말했다.

"이건 제가 물어서 생긴 자국입니다. 당신의 무공과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자국은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손등에 있는 상처 자국도 지울 수 없으면서 제 가슴의 상처 자국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술에다 진하게 키스했다. 그런데 갑자기 조민은 그의 입술을 호되게 물어 버렸다. 그의 윗입술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밀치면서 몸을 되돌리더니 창문으로 빠져나가며 소리쳤다.

"당신이 미워, 당신이 미워!"

한림아는 장무기와 팽영옥이 객점을 나간 후 주지약에게 말했다.

"주낭자, 일찍 쉬시오."

"한대형, 절 무서워하는 겁니까?"

그러자 한림아는 얼굴을 붉히며 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재빨리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 동안 주지약을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몽롱하게 잠들었다. 갑자기 꽈다당! 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마치 동편에 있는 방 안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인 것 같았다. 그 방은 바로 주지약의 방이었다. 그러자 한림아는 재빨리 방을 뛰쳐나갔다. 동편의 방에 있는 창문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달빛에 반사되었는데, 마치 공중에 걸려있는 듯 살며시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한림아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주낭자, 주낭자?"

문을 열어 보았으나 방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자 그는 어깨로 힘껏 밀어부쳐서 빗장을 부러뜨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급히 부싯돌로 촛불을 밝혀보니 주지약은 대들보에 목매달려 있었다. 순간 그는 기절초풍했다. 얼른 몸을 튕겨서 밧줄을 끊고 주지약을 침대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코에 손을 대어보니 다행히 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주낭자, 주낭자! 당신.....당신이 뭣 때문에....."

갑자기 문 밖에서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한형제, 무슨 일이오?"

한 사람이 걸어들어왔는데, 바로 장무기였다. 장무기도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마치 갑자기 벼락을 맞은 듯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주지약의 목에 있는 밧줄을 풀어주며 그녀의 가슴을 만져

보았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러자 기뻐하며 말했다.
"괜찮소, 구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그녀의 배심(背心)에 있는 소복혈도를 몇 번 주물러 주자 한 줄기 구양진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갔다. 왕복으로 한 번 부딪치더니 주지약은 와! 하고 소리내며 울어 버렸다. 한림아는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다.
"됐어요, 됐어요! 주낭자가 살아났어요!"
주지약은 눈을 뜨고 장무기를 보게 되자 울면서 말했다.
"뭣 때문에 살렸어요? 차라리 죽어 버리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요?"
문득 그의 윗입술에 이빨자국이 있는 것을 보더니, 울화가 치밀어서 그의 빰을 힘껏 후려쳤다. 순간 한림아는 깜짝 놀랐다.
'교주를 구타하다니 될 법이란 말인가?'
그러나 주지약은 그의 마음 속에 마치 천신(天神)같은 존재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갑자기 사람 손이 뻗어오면서 그의 어깨를 두 번 살짝 두드렸다. 한림아가 뒤돌아보니 바로 팽영옥이 어느새 온 것이다. 그는 몹시 기뻐했다.
"팽대사님, 돌아오셨군요. 어서 주낭자 좀 타일러 보세요."
그러자 팽영옥은 웃으며 말했다.
"뭘 타이르란 말이냐?"
그러면서 장무기에게 말했다.
"교주님께 아뢰오. 금모사왕의 소식을 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무기는 음! 하고 대답했으나 표정이 몹시 부자연스러웠다. 그러자 팽영옥은 한림아에게 말했다.
"한형재,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싫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주낭자는 교주님의 적수가 못 됩니다."
팽영옥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멍청한 친구, 우리 둘이서 주낭자를 돕는다고 교주님을 이길 것 같으냐? 교주님은 분명히 주낭자에게 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한림아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자 한림아는 몹시 걱정스런 표정으로 한없이 뒤돌아보았다.

주지약은 그만 피식 하고 웃더니 바로 침대에 쓰러져서 흐느끼며 울었다. 장무기는 침대로 다가가서 살며시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약, 절대로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한 게 아니오.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소."

주지약은 발을 동동구르며 울면서 말했다.

"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전 앞으로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장무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상 일이란 본시 오해를 일으키기 아주 쉬운 것이오..... "

주지약은 불쑥 일어나서 앉았다.

"당신의 입술 좀 보세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장무기는 오늘 있었던 일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자기는 이미 주지약하고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정으로 그녀를 달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불그스름한 얼굴과, 목에는 밧줄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만약 한림아가 제때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부끄럽기도 하고 애석하기도 했다. 이윽고 팔을 내밀어서 그녀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는데 주지약은 머리를 돌려서 피하더니 화를 벌컥 냈다.

"더러운 몸으로 절 건드리지 말아요. 제가 그리도 만만하게 보입니까?"

그러자 장무기는 그녀가 꼼짝하지 못하게 양팔을 바짝 조르고는

그녀의 입술에다 진하게 키스했다. 이윽고 그녀의 마음도 점차 누그러졌다.
 다음날 아침, 장무기는 팽영옥에게 대도에 사흘간 더 머물면서 사손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주지약과 한림아를 데리고 남쪽에 있는 회사(淮泗)로 내려갔다.
 막상 산동(山東) 경내에 당도하자 몽고의 패잔병들이 벌떼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패잔병 중의 한 낙오자를 잡아서 신문해 보니, 주원장이 회북(淮北) 전쟁에서 연거푸 대승을 몇 번 거뒀기에 원병(元兵)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걸음을 한층 더 재촉해 노완(魯完) 변계에 도착했다. 이곳은 이미 명교 의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의군 중에서 한림아를 아는 자가 급히 원수부에 통보했다.
 세 사람이 호주(濠洲)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산동이 주원장, 서달, 상우춘, 등유, 탕화 등 정군들을 이끌고 삼십 리 밖까지 영접하러 나왔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모두 굉장히 기뻐했다. 한산동은 교주가 아들을 구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더욱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들은 수많은 병사들의 옹호를 받으며 호주성으로 들어갔다.
 장무기는 성 안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양소, 범요, 은천정, 위일소, 은야왕, 철관도인, 설불득, 주전, 오행기의 여러 장기사 등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몰려왔다.
 장무기는 사손이 중원에 돌아온 일이며, 개방에게 잡혀가서 다시 실종된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해 주었다. 양소, 범요, 은천정 등은 여러모로 곰곰이 생각하고 상의해 보았으나, 모두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범요가 말했다.
 "그 황삼(黃杉) 미녀의 내력은 모르겠지만, 사형의 행적을 그녀한테서 찾게 될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군호들은 무림에 그런 황삼 미녀가 있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장무기는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였으나 당장 어떻게 할 방도는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오행기에 속해 있는 교도들을 각처에 파견해서 수소문하기로 했다. 다시 하루가 지나자 팽영옥이 대도에서 왔다. 그 역시 사손에 관한 소식은 전혀 알아내지 못했다.

명교의 의군이 여러 차례 대승을 거두었으나 피해도 매우 극심했다. 앞으로 이, 삼 개월 동안은 의군의 세력을 재정돈하고 신병을 모집해야만 원군과 다시 대전을 치를 수 있었다. 군호들은 교주가 몽고의 군주를 아내로 맞이할까 봐 하루속히 주지약하고 혼례를 치루도록 권고하였다. 그러자 장무기도 쾌히 승낙했다.

양소는 삼월 십오 일을 황도길일(黃道吉日)로 택일했다. 그러자 명교의 아래윗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교주의 혼사일에 분주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명교의 위성이 천하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동로(東路)에서는 한산동이 회사 일대의 성(城)을 많이 함락하였고, 서로에 있는 서수휘(徐壽煇)도 약북, 예남 일대에서 원병을 연패시키고 있었다. 교주의 혼사가 밖으로 전해지자 무림 인사의 하례는 마치 밀물처럼 밀려왔다. 각 문파의 장문인들도 모두 하객과 예물을 보내왔다. 장삼봉은 손수 쓴 가아가부(佳皃佳婦) 네 자를 임축하여 태극권경 한 권과 송원교, 유연주, 은이정 삼대 제자를 하객으로 보내왔다.

장무기는 진우량과 송청서가 흉계를 꾸며서 장삼봉을 해칠까봐 위일소를 사례사(謝禮使)로 무당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위일소에게 급히 말했다.

"진우량 그놈은 위형이 마음대로 처치하세요. 그러나 송청서는 저의 송대사백의 독생자이며 미래의 무당파 장문인이라서, 당분간 무당파 자신들에게 처리하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대사

백님의 정을 상하지 않을 겁니다."

위일소는 대답하고 나서 정중한 예를 올린 다음 무당으로 떠났다.

삼월 십일이 되었다.아미의 여러 여협들은 제각기 선물을 갖고 호주에 왔다. 다만 정민군은 직접 오지 않고 선물만 보내왔다.

드디어 삼월 시오일이 되었다. 명교의 아래윗 사람들은 모두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배천지(拜天地) 하는 예당은 호주에서 제일 부자집의 대청에 마련했다. 장삼봉의 <가아가부> 네 자로 된 대입축(大入軸)은 중앙에 걸려 있었다. 은천정은 신랑측 주혼(主婚)이고, 상우춘은 신부측 주혼이며, 철관도인을 호주총순(濠洲總巡)으로 임명해서 적의 침입을 막게 하였다. 탕화는 의군을 이끌고 성 밖에 주둔하면서 적을 막았다. 이날 오전에 소림파와 화산파도 예물을 보내오며 축하해 주었다.

신시일각(申時一刻) 길시가 되자 호각과 폭죽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대청에 일제히 들어오자 찬례생이 낭랑한 목청으로 찬례(贊禮)하였다. 그러자 송원교와 은야왕이 장무기를 데리고 나왔다. 사죽(絲竹)소리가 울리자 여덟 명의 아미파 젊은 여협들이 주지약을 데리고 대청 안으로 들어왔다. 주지약의 몸에는 빨간색 금포(錦袍)를 입었고, 봉관하피(鳳冠霞被) 하였으며, 얼굴은 빨간 천으로 가려 있었다.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신랑, 신부는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섰다. 그러자 찬례생(사회자)이 낭랑하게 외쳤다.

"배천(拜天)!"

장무기와 주지약이 무릎을 꿇으려는 찰나 갑자기 대문 밖에서 큰 소리의 외침이 들렸다.

"잠깐 멈추시오!"

파란 빛이 번뜩거리더니 한 청의(靑衣) 소녀가 웃음을 띠우고 어느새 대청 안에 서 있었다. 바로 조민이었다. 군호들은 그녀가

온 것을 보자 저마다 호통치며 격분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바로 덮쳐가서 출수하려 했다. 그러자 양소는 양팔을 벌리면서 덩달아 한 번 외쳤다.

"잠깐 멈추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폐교와 아미파의 장문이 혼례식을 올리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조낭자가 축하하러 왔으면 바로 우리들의 반가운 손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미파와 명교의 체면을 봐서라도 지나간 일들은 잠시 접어 두시고, 조낭자를 무례하게 대하지 맙시다."

그는 설불득과 팽영옥에게 눈치를 하자, 두 사람은 즉시 알아차리고 후원으로 돌아가서 조민이 얼마나 많은 고수들을 데려왔는지 살펴보았다. 이윽고 양소가 조민에게 말했다.

"조낭자, 이쪽 상좌로 어셔서 관례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낭자에게 술 석 잔을 다시 권하겠소."

"장교주에게 몇 마디 드린 후 바로 물러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폐를 끼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모르지만 혼례식이 끝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혼례식이 끝나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만큼은 조낭자가 지중하길 바라오."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조민이 만약에 난동을 부린다면 즉시 출수하여 그녀의 혈도를 찍어서 제압한 다음에 다시 애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조민이 장무기에게 말했다.

"장무기, 당신은 명교의 교주요. 사내 대장부가 약속한 말은 책임지게 되어 있죠!"

"내가 한 말들은 모두 책임지오!"

"그날 당신의 유삼숙과 은육숙의 목숨을 구해줄 때, 당신은 나의 세 가지 조건을 따르기로 약속했죠? 그렇죠?"

"틀림없소. 당신은 나한테 도룡보도를 빌려서 구경하자고 했소. 그런데 당신은 이미 구경했을 뿐더러 보도를 훔쳐갔소."
근래 수십 년 동안강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림지존(武林至尊) 도룡도의 행방에 모두 관심이 있었다. 갑자기 조민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자 순간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조민이 말했다.
"도룡도가 누구의 수중에 있는지는 오직 금모사왕 사대협께서만 알고 있소. 당신은 그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나요?"
사손이 이미 중원에 돌아온 일은 무림의 군호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금모사왕의 말을 꺼내자 대청 안의 소란스런 소리가 금방 조용해졌다.
장무기가 말했다.
"난 의부가 계신 곳을 몰라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소. 낭자가 가르쳐 주시기 바라오."
"내가 당신한테 하라는 세 가지 일이 절대로 무림의 협의지도(俠義之道)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당신은 복종하기로 약속했어요. 도룡도를 빌려 본 일은 비록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보도는 결국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도가 도난당한 것에 당신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첫 번째 일은 이미 실천된 거지요. 지금 두 번째 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무기, 천하의 영웅호걸 여러분들 앞에서 당신은 절대로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는 것이오?"
그러자 양소가 얼른 말을 가로챘다.
"조낭자, 당신이 폐교 교주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은 물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만, 무림도의를 위배하지 않는다면 폐교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진심갈력(盡心竭力)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교주가 새 부인과 친지를 참배하는 좋은 시각이니, 다른 일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제발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의 말투는 몹시 엄하고 사나왔다. 그러나 조민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짜증부리며 말했다.

"나의 이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소."

갑자기 장무기의 몸 앞으로 다가가서 발 뒤꿈치를 들더니 그의 귀에 대고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두 번째 일은 오늘 당신과 주낭자가 혼례를 치루지 않는 것이오!"

"뭐라구?!"

"그게 바로 두 번째 일예요. 세 번째 일은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당신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녀의 이 몇 마디는 비록 조그만 소리로 말했지만, 주지약과 가까이 서 있는 송원교, 유연주, 은이정,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를 하고 있는 아미의 여덟 여자도 모두 들었다. 그들은 모두 아연실색했다.

장무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일은 따를 수 없소!"

"당신은 약속을 어길 작정입니까?"

"우리가 사전에 분명히 약속한 것은 협의지도를 위배하지 않는 것이오. 나와 주낭자는 부부가 되기를 약속했는데, 만약에 당신의 뜻대로 한다면 그것이 <의>자를 위배하는 것이오!"

그러자 조민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과 그녀가 혼사를 치루게 되면, 그거야말로 불효불의(不孝不義)가 되는 것이에요. 대도에서 유황성할 때 당신의 의부가 남에게 어떠한 암습을 당했는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장무기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조낭자, 오늘 당신은 나의 손님이라 내가 양보하겠소. 만약에 또 허튼소리를 지껄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두 번째 일은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지 한

번 보세요."

오른손을 펴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온 몸을 떨면서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이..... 이건 나....."

조민은 재빨리 손을 오므려서 그 물건을 품 안에 넣으며 말했다.

"두 번째 일을 따르든 안 따르든 그건 당신 자유예요."

말을 하면서 대문 밖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 안에 무슨 물건이 있었기에 장무기를 이처럼 경황없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주지약의 두 눈은 빨간 천에 가려 있었기에 장무기와 조민의 말소리만 들릴 뿐 전혀 밖을 볼 수 없었다. 장무기가 급히 말했다.

"조.....조낭자, 잠시 걸음을 멈추시오!"

"당신이 내 말을 따르겠다면 날 따라오고, 따르지 않겠다면 빨리 신부와 혼례식을 올리시지요."

그녀는 낭랑한 소리로 말을 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고 곧장 대문 밖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장무기가 얼른 외쳤다.

"조낭자, 잠깐 멈추시오!"

그러면서 급히 다가가서 소리쳤다.

"좋소. 당신의 뜻을 따르겠소. 오늘 혼례식을 치루지 않겠소!"

조민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렇다면 날 따라 오시죠."

장무기는 고개를 뒤로 돌렸다. 주지약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몹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막상 그녀에게 몇 마디 설명해 주려는데, 조민이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이자 이를 악물고 조민의 뒤를 따랐다.

장무기가 대문 앞까지 쫓아갔을 때 갑자기 몸 옆으로 빨간 그림자가 번뜩거리더니 한 사람이 조민의 등 뒤에 다가가 빨간 옷자

락 안에서 손을 내밀었다. 다섯 손가락을 조민의 머리 위로 찍어 내렸다. 이처럼 신속하고 민첩하게 출수한 자는 바로 신부 주지약이었다.

장무기는 멈칫했다.

'이 일초는 정말 무섭구나. 지약이 어디에서 이처럼 정묘한 무공을 배웠을까?'

그녀의 수장(手掌)은 이미 조민의 정문(頂門)을 감싸고 있었고, 다섯 손가락이 찍어내렸다 하면 즉시 뇌가 깨지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자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즉시 앞으로 튕겨 가서 주지약의 맥문을 잡으려 했다. 그러자 주지약은 왼손 팔꿈치로 느닷없이 공격했다. 순간 팍! 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면서 그의 가슴에 정통으로 적중했다. 장무기의 체내에 있는 구양신공이 즉시 발동되어 이 일격의 경력을 감소시켰지만, 흉복간의 기혈이 치솟는 것 같으면서 다리가 약간 휘청거렸다.

이 사이에 조민은 이미 앞으로 반 발자국 나가면서 뇌문 급소를 피했지만 어깨에 심한 통증을 한 차례 느꼈다. 주지약의 오른손 다섯 손가락이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 삽입된 것이다. 그러자 장무기는 아! 하고 소리를 한 번 지르더니 손을 뻗어서 주지약에게 밀어갔다. 장무기는 그녀와 싸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서 다만 막아내고 타이르려 했다. 그러나 주지약은 양손으로 연거푸 위험한 초수로 팔초를 전개하였다. 장무기가 건곤이위심법을 전개해서야 막아내었다. 팔공(攻) 팔수(守)는 전광석화처럼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대청 안에 있는 군호들은 숨을 죽이며 눈여겨 보고 있었으나 모두 놀라서 멍해졌다.

조민은 어깨에 중상을 입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상처 난 다섯 구멍에서는 피가 샘처럼 솟아나 입고 있던 옷이 절반은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주지약은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말했다.

"장무기, 당신은 저 요녀의 유혹을 받고 날 버리고 그녀를 따라 가려 했습니까?"

"지약, 나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기 바라오. 우리의 혼인 약속은 장무기가 절대로 지킬 것이오. 다만 며칠 뒤로....."

주지약은 냉랭하게 말했다.

"당신이 꼭 가야 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조민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걸어갔다. 바닥에는 온통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로 젖어 있었다. 장무기가 말했다.

"의부께선 나에게 산처럼 무거운 은혜를 베푸셨소. 지약, 지약, 당신이 이해하기 바라오."

그러면서 조민을 뒤쫓아 나갔다. 은천정, 양소, 송원교, 유연주, 은이정 등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었다. 주지약은 불쑥 손을 내밀더니 얼굴을 가린 빨간 천을 찢어내며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자가 날 배신한 것이지, 내가 그 자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지약과 장무기는 은단의절(恩斷義絶)합니다!"

말을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는 봉관을 풀어내리더니, 한 주먹의 진주를 움켜잡고 나서 봉관을 던져 버렸다. 양손에 힘을 가하자 진주는 모드 가루로 변해서 우수수 하며 흘러내렸다.

"나 주지약이 오늘의 치욕을 씻지 않는다면, 바로 이 진주처럼 될 것이오."

은천정, 송원교, 양소 등은 그녀를 타이르고 진정시켜서 장무기가 돌아오면 내막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주지약은 양손으로 빨간 장포(長袍)를 두 갈래로 찢어서 바닥에 팽개치면서 즉시 몸을 위로 솟구치더니 공중에서 살짝 몸을 꺾어서 지붕 위로 올라갔다.

양소, 은천정 등이 일제히 따라갔으나 그녀는 마치 둥실둥실 떠가는 가벼운 빨간 구름처럼 동쪽으로 사라졌다. 경공의 실력은 청익복왕 위일소와 비슷했다. 양소의 일행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잠시 멍하더니 다시 대청으로 돌아왔다.

아미파의 여자들은 조그만 소리로 서로 몇 마디 상의하더니 화난 표정을 하며 작별인사를 했다. 그러자 은천정은 연신 사과하면서 장무기가 돌아오면 아미 금정에 가서 사과한 후 다시 혼사를 주선한다고 말했다. 절대로 양가의 화기를 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미파의 여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즉시 분산하여 주지약을 찾아나섰다. 남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사내 대장부가 박행(薄倖)하면 좋지 못하다고 호되게 나무랐다.

조민이 장무기에게 보인 것은 다름아닌 한 줌의 담황색 머리카락이었다. 장무기는 금방 사손의 머리카락인 줄 알았다. 사손이 수련한 내공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긴 머리카락이 담황색으로 변해 버렸다. 그러나 서역 색목인의 금발과는 아주 달랐다.

그가 대문 쪽으로 나가 보니, 조민은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어깨의 선혈이 대로에 점점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숨을 한 번 몰아쉬더니 수 장을 달려가서 그녀를 가로막고 말했다.

"조낭자, 나를 불의(不義)의 인간으로 몰아세우지 마시오!"

조민의 어깨는 상처가 몹시 깊었다. 처음엔 한 모금 진기만 믿고 억지로 지탱하며 달려온 것이다. 막상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진기가 흩어지면서 바로 쓰러졌다.

장무기는 몸을 굽히며 말했다.

"우선 나에게 말하시오. 의부는 어디에 계시오?"

"날 데리고가서 그를 구해야 해요. 내가....내가 당신에게....안내하겠어요."

"그 어르신네 생명은 무사하오?"

"당신의 의부.....의부는 성곤에게 잡혀 있어요."

장무기는 <성곤> 두 글자를 듣게 되자 그 놀라움은 실로 오장육부가 모두 터지 듯했다. 이 자는 무공이 고강할 뿐 아니라 계략 또한 풍부하고 사손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라, 그에게 잡혔다면 위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조민이 말했다.

"당신 혼자서는 안 되어요. 어서..... 양소, 그들을 불러서 같이....."

그러면서 손으로 서쪽을 가리키더니 갑자기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기절했다. 장무기는 의부가 지금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자 오장육부가 불에 타는 듯했다. 얼른 조민을 안아들고 옷자락을 찢어서 그녀의 상처를 동여매고 길가에 있는 한 명교 교도를 불러 분부했다.

"빨리 양좌사에게 통보해서 급히 사람을 데리고 서쪽으로 달려오라고 명하여라. 내가 분부할 일이 있다고 전해라!"

그 교도는 대답하고 나서 날 듯이 뛰어가서 통보하러 갔다.

장무기는 한시라도 지체하면 의부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얼른 조민을 안아들고 성문 옆으로 달려갔다. 수문사졸에게 명해서 건마(健馬) 한 필을 끌어오라 했다. 몸을 날려서 올라타더니 서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수 리를 달려가더니 품안에 있는 조민의 몸이 점점 차가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맥박을 재어보니 몹시 약하게 뛰고 있었다. 순간 그는 놀라서 몹시 다급했다. 얼른 상처를 살펴보니 깊이는 뼈가 보일 정도며 상처 옆의 근육은 모두 흑자색으로 변해 필시 극독에 중독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몹시 경이했다.

'지약은 아미의 제자인데, 어찌 이토록 음독한 무공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녀의 수법은 멸절사태보다 더 예리하고 악랄하다. 그건 무슨 연유일까?'

당장은 조민을 급히 구하지 않으면 독이 퍼져서 죽게 될 것이

다. 그는 신랑 복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독을 치료하는 약품을 휴대했을 리는 만무했다. 잠시 생각하더니 즉시 말에서 뛰어내렸다. 이윽고 그녀의 몸을 안아들더니 몸을 튕겨서 왼쪽에 있는 산속으로 달려갔다. 사방을 둘러보면서 독을 제거하는 약초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는 흔해 빠진 약초 한 뿌리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사방을 찾아보았다.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오른쪽 전방에 있는 작은 폭포 옆에 사,오 송이의 빨간 작은 꽃을 발견했다. 이건 불좌소홍연(佛座小紅蓮)이란 꽃인데 독을 제거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매우 기뻤다. 얼른 조민을 안아들고 골짜기 개울을 지나가서 빨간 꽃을 꺾었다. 꽃을 입으로 씹어서 반은 조민에게 먹이고 반은 그녀의 어깨에다 붙여 주었다. 그리고 조민을 안아들고 서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삼십여 리쯤 달려가니 조민이 깨어나서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제.....제가 아직 살아있나요?"

그러자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기분이 어때요?"

"어깨가 몹시 가려워요. 아아, 주낭자의 그 일수무공(一手武功)은 정말 무섭군요."

장무기는 그녀를 살며시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다시 살펴보니, 흑기(黑氣)는 전혀 가시지 않고 다만 맥박이 전처럼 미약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으로 그녀의 어깨를 빨아주었다. 한 모금씩 당에 뱉어 낼 때마다 그 비린내는 코를 진동시켰다. 조민은 그의 머리를 만지며 한숨을 쉬었다.

"장공자, 이 중간의 곡절을 아직도 생각해 내지 못했나요?"

장무기는 더러운 피를 전부 빨아낸 후 개울에 가서 입가심하고 그녀의 옆으로 돌아와서 앉으며 말했다.

"곡절이라니?"

"주낭자는 명문정파의 제자인데, 어찌 이런 음독한 사문무공을 할 줄 압니까?"

"나도 이상한 생각이 드오. 도대체 누가 그녀에게 가르쳤을까요?"

조민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필시 마교 사파의 작은 도적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자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마교에는 많은 마두가 있지만, 아무도 이런 무공은 할 줄 모르오. 다만 청익복왕이 사람 목의 피를 빨고 장무기는 어깨 피를 빨아 댈 뿐이오."

이윽고 바로 되물었다.

"나의 의부는 어째서 성곤에게 잡혔소? 도대체 지금은 어디에 있소?"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서 구해낼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는 말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즉시 달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날 버려둘 게 아닙니까?"

그러자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그토록 정도 의리도 없는 줄 알았소?"

"당신은 의부를 위해서 꽃다운 새색시도 버렸는데, 나쯤이야.. ..."

말을 하면서 천천히 그의 몸에 기대면서 다시 말했다.

"오늘 당신의 첫날밤을 늦추어 놓았는데 날 원망할 건가요?"

어찌된 일인지 장무기의 지금 심정은 몹시 즐거웠다.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자신도 말할 수 없었다. 장무기가 말했다.

"물론 당신을 원망하오. 나중에 당신이 그 준수한 군마야(郡馬爺)라는 분하고 혼례식을 올릴 때, 나는 한바탕 소란을 피울 것이오. 절대로 새색시를 편하게 할 수는 없소."

조민의 창백한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소란피우면 단칼에 죽여 버릴 거예요."

장무기는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웬 한숨입니까?"

"그 군마야라는 분은 전생에 무슨 선행을 했기에 이처럼 복을 타고났을까?"

조민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도 늦지 않아요."

"뭐요?"

조민은 얼굴이 빨개졌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쯤 얘기했으니 두 사람은 모두 부끄러워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장무기는 다시 그녀의 상처에 약을 발라 주고 나서 그녀를 안아들고 다시 서쪽으로 달렸다. 조민이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기에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녀의 얼굴에서 풍기는 분향과 지향(脂香)을 코로 맡고, 손에는 부드러운 몸매를 안고 있으니, 끓어오르는 욕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만약 의부를 구해내는 일이 시급하지 않았다면 이 산골짜기에서 평생 동안 걷고 싶은 심정이었다.

두 사람은 호주(濠洲) 서쪽의 교외에 있는 야산에서 하룻밤을 노숙했다. 다음날 그들은 작은 마을 한 곳에 가서 건강한 말 두 필을 구입했다. 조민의 독상(毒傷)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게다가 몸까지 허약해서 하는 수 없이 장무기와 말을 같이 탔다. 이렇게 닷새 동안을 달려서 하남 경내에 도착했다. 이날 두 사람이 한참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백여 명의 말탄 자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몽고의 기병이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말을 길 옆으로 몰아서 길을 비켜주었다. 몽고 기병들이 쏜살처럼 지나가자 수십 장 뒤에는 또 한패의 말탄 자들이 있었다. 장무기가 바라보니 그들 중에는 신전팔웅(神箭八雄)이 끼어 있었다. 그러자 속으로 걱정하며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그 자들은 두 사람의 얼굴이 길 옆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신전팔웅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자들이 모두 지나가고 나서 장무기는 말머리를 다시 돌려 앞으로 달리려는 찰나, 갑자기 가볍고 민첩한 말굽소리가 들리면서 말 세 필이 쏜살처럼 달려왔다. 중간은 백마였고 말 위에 탄 자는 비단으로 된 도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옆에는 각각 밤색 말이었다. 안장에는 녹장객과 학필옹, 즉 현명이로가 타고 있었다.

장무기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려는데 녹장객이 이미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군주낭낭께서는 당황하지 마시오. 구원 부대가 왔습니다."

그러자 학필옹은 즉시 소리 높여서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신전팔웅 등이 휘파람소리를 듣더니 즉시 달려와서 두 사람을 중간에 놓고 포위했다. 그러자 조민이 말했다.

"오빠, 여기서 오빠를 만날 줄은 정말 뜻밖이군요. 아버님은 안녕하세요?"

장무기는 그녀가 <오빠>라고 부르자, 비로소 그 백마를 타고 있는자가 바로 조민의 오빠인 고고특목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한나라 이름은 왕보보(王保保)다.

왕보보는 뜻밖에도 누이를 보게 되어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장무기를 알지 못했다. 이윽고 이마를 찌푸리며,

"누이, 너.....너.....!"

"오빠, 전 적에게 암습을 당해서 몸에 심한 독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이분 장공자께서 구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빠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녹장객은 왕보보의 귓가에 입을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소왕야(小王爺), 저 자가 바로 마교의 교주 장무기입니다."

왕보보는 오래 전부터 장무기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민이 그에게 협박당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오른손을 한번 휘두르자, 현명이로는 장무기의 좌우에 다섯 치 정도 떨어진 곳에 다가갔으며, 아울러 신전팔웅 중의 사웅도 각각 화살을 장진하여 그의 후심에 조준했다.
왕보보가 말했다.
"장교주, 각하는 일교의 주인이며 무림에서 이름나 있는 호걸인데, 연약한 나의 누이를 괴롭히다니 남들이 비웃을 게 두렵지 않소? 빨리 그녀를 놓아주시오. 목숨만은 살려 주겠소."
"오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장공자는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째서 괴롭힌다는 겁니까?"
왕보보는 낭랑한 어조로 말했다.
"장교주, 당신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해도 두 주먹으로는 네 사람을 상대할 수 없소. 나의 누이를 살려준다면 오늘 우리도 당신을 살려 주겠소. 나 왕보보가 한 말은 절대적이오."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조낭자의 독상은 몹시 심하다. 날 다라서 천리길을 달리게 되면 상처가 쉽사리 낫게 되지 않는다. 이왕에 그녀의 오빠와 만나게 됐으니, 아무래도 그녀의 오빠를 따라서 왕부의 명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그녀의 몸에 좋을 것이다.'
"조낭자, 오빠께서 당신을 모셔간다 하니 우리는 여기서 작별합시다. 다만 나의 의부가 있는 곳을 말해 준다면 내가 가서 구출해 낼 방법을 생각하겠소. 우리는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오."
"내가 끝까지 사대협이 있는 곳을 알리지 않는 것은 그만한 깊은 까닭이 있어요. 난 다만 당신을 데려가서 그를 찾는다고 대답할 뿐 장소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중상을 입어서 먼 길을 간다는 건 너무 무리가 되오.

그러니 오빠하고 같이 돌아가는 게 좋겠소."

그러자 조민은 몹시 화나는 얼굴을 하며 말했다.

"당신이 날 떼어놓고 간다면 사대협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거예요. 나의 몸은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어서 걸어다니면 오히려 더 빨리 나을 수 있어요. 왕부에 돌아가면 난 답답해서 죽을 거예요."

장무기가 왕보보에게 말했다.

"소왕야, 당신의 누이를 타일러 보구료."

왕보보는 몹시 이상했다.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흐흐!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너의 손이 내 누이의 사혈(死穴)을 누르고 있으니 당연히 네가 시킨 대로 헛소리를 하지 않느냐?"

그러자 장무기는 몸을 위로 솟구치며 말에서 내렸다.

신전팔웅 중의 두 사람은 그가 출수하여 왕보보를 기습하려는 줄 알고 휙휙 화살 두 자루를 그에게 발사하였다. 그러자 장무기는 왼손으로 건곤이위심법을 전개해서 낭아전(狼牙箭)두 자루를 거꾸로 되돌아가게 하자, 경풍이 더욱 강했다. 순간 팍! 팍! 하며 두 번 소리가 나더니 활을 쏜 두 사람 수중에 있던 장궁이 쪼개지면서 부러졌다. 그 두 사람이 빨리 피하지 않았으면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장무기는 조민에게 멀리 떨어지며 말했다.

"조낭자, 먼저 왕부로 돌아가서 상처를 치료하시오.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조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왕부에 있는 의사가 어찌 당신의 의술을 따르겠어요?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왕보보는 장무기가 누이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이가 여전히

동행하기로 고집하는 것을 보자, 그만 놀라면서도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자 현명이로에게 말했다.

"수고스럽지만, 두 분이 제 누이를 보호하세요. 그럼 우리는 가자!"

"네!"

현명이로는 대답하고 나서 조민의 말 옆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조민이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녹,학 두 분 선생님, 제게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장교주를 따라가고 있는 참이오. 마침 손이 부족해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도 절 따라서 같이 갑시다."

그러자 현명이로는 왕보보의 눈치를 바라보았다. 녹장객이 말했다.

"마교의 대마두는 괴팍한 일을 행하니, 군주께서는 그와 자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소왕야와 함께 왕부로 돌아가십시오."

조민이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두 분은 지금 제 오빠의 말만 듣고 제 말은 듣지도 않는겁니까?"

녹장객이 억지웃음을 하며 말했다.

"소왕야께서는 군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민은 코웃음을 치며 왕보보에게 말했다.

"오빠, 제가 강호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벌써 아버님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오빠는 날 걱정하지 않아도 나 자신이 조심할 거예요. 아버님을 뵈면 안부나 전해 주세요."

왕보보는 아버지가 딸을 몹시 총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서 감히 지나치게 위협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홀로 마교의 교주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찌 두고만 볼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녀가 말에 올라타는 것을 보더니 즉시 팔을 양쪽으로 벌리며

말했다.
"착한 동생아, 아버님께서 지금 이리로 오고 계시니 잠깐 기다려서 아버님을 만나 뵈어라."
그러자 조민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오신다면 난 갈 수 없게 됩니다. 오빠, 난 오빠의 일을 간섭하지 않으니 오빠도 제 일을 간섭하지 마세요."
왕보보는 다시 장무기를 훑어보니 그는 훤칠한 키에 얼굴은 준수하게 생겼다. 자기 누이의 말투를 들어보면 이미 그에게 반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명교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크나큰 반역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들자, 즉시 왼손을 한번 흔들면서 소리쳤다.
"우선 이 마두를 잡아라!"
그러나 녹장객은 녹장을 휘두르고 학필옹은 학필을 휘두르면서 일제히 장무기에게 공격했다. 조민은 현명이로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그가 다칠까 봐 소리치며 말했다.
"현명이로, 당신들이 장교주를 다치게 한다면 난 아버님에게 알려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왕보보가 화를 내며 말했다.
"현명이로, 당신들이 이 마두를 살해할 수 있다면 부왕과 난 모두 후한 상을 하사할 것이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녹선생, 소왕(小王)은 미녀 네 명을 추가로 선물해서 당신을 즐겁게 해주겠소!"
그들 남매 두 사람은, 하나는 죽이라고 명령하고 하나는 다치지 못하게 명령하니, 현명이로는 진퇴양난에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녹장객이 사제에게 눈치를 하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사로잡아라!"

장무기는 갑자기 성화령에 적혀 있는 무공을 전개했더니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녹장객의 따귀를 힘차게 한 대 때렸다.

"사로잡아 보아라!"

녹장객은 갑자기 얻어맞자 놀라면서도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역시 그는 일류 고수였다. 심신을 어지럽히지 않고 녹장을 빈틈없이 휘둘렀다. 장무기는 다시 도습을 가하려 했으나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조민은 말고삐를 한 번 당겨서 급히 말을 몰고 갔다. 그러자 왕보보는 말채찍을 휘둘러서 그녀가 타고 있는 말의 왼눈을 적중시켰다. 순간 그 말은 길게 비명을 지르며 앞발을 들어올렸다. 조민은 상처를 입어서 몸이 몹시 허약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안장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러자 화를 내며 말했다.

"오빠, 꼭 저를 막아야 합니까?"

"누이야, 내 말을 들어라. 집에 돌아간 후 너에게 사과하마."

"오빠, 제가 가지 못하면 한 사람이 비명에 죽게 됩니다. 그럼 장교주는 앞으로 뼈 속 깊이 절 원망할 겁니다. 당신 누이도 살 수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양왕부에는 고수가 구름처럼 많아서 널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마두가 출수하여 널 해치기는 커녕 만나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자 조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바로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난..... 죽게 될거예요."

그들 남매 두 사람은 정의가 몹시 두텁기 때문에 서로가 못할 말이 없었다. 조민은 다급한 나머지 장무기에게 기울어진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한 것이다. 그러자 왕보보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넌 몽고의 왕족인데 어찌 오랑캐에게 정을 쏟을 수 있느냐? 만약 아버님이 아시게 되면 그 어르신네는 홧병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왼손을 한 번 휘두르자 다시 세 명의 호수가 앞으로 다가가서 협공했다. 그러자 조민이 소리쳤다.

"장공자, 당신이 의부를 구출하고 싶으면 먼저 날 구해줘야해요!"

왕보보는 누이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자 몹시 초조했다. 즉시 그녀를 자기 팔로 안아와서 말을 몰고 달려갔다. 조민의 무공은 원래 자기 오빠보다 뛰어났으나 중상을 입어서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크게 소리쳤다.

"장공자! 구해줘요! 구해줘요! 장공자!....."

장무기는 십성(成)의 경력으로 후려쳐서 현명이로가 뒤로 삼 보(步) 물러가게 하고 나서, 경공을 전개하여 왕보보의 말을 뒤쫓았다. 그러자 현명이로와 나머지 세 명의 고수도 얼른 쫓아왔다. 장무기는 다섯명이 가깝게 쫓아올 때마다 뒤로 몇 장씩 후려쳤다. 구양신공의 위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명이로도 감히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옆으로 피하고 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자 장무기는 드디어 왕보보의 말을 따라잡았다. 이윽고 몸을 위로 솟구치면서 왕보보의 뒷덜미를 움켜잡았다. 이 일조(一爪)에는 나혈수법(拿穴手法)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왕보보의 상반신은 즉시 마비가 되었다. 이윽고 조민을 안고 있는 두 팔이 풀어졌다. 그러나 몸은 이미 장무기에게 들어올려져 녹장객에게 던져졌다. 녹장객은 얼른 받았다. 이때 장무기는 이미 조민을 안고 말에서 뛰어내린 후 좌측에 있는 산언덕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학필옹과 나머지 호수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뒤쫓아왔다. 그러나 이 산은 수백 장 높이에 달하고 있기에 경공이 뛰어난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비록 현명이로의 내력이 막강했으

나 경공은 일류에 속하지 못해서 오히려 나머지 사, 오 명이 학필옹을 앞질러 쫓아오고 있었다. 왕보보는 장무기가 조민을 안고 점점 높은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자 발을 동동 구르며 욕을 마구 퍼부으며 소리쳤다.

"활을 쏘아라! 활을 쏘아라!"

그러나 너무나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장무기에게 화살이 미치지 못했다.

장무기가 조민을 안고 한참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 사람이 낭랑한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려왔다.

"군주낭낭, 소승은 여기서 오랫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산 뒤에서 빨간 도포를 입은 번승 이십여 명이 돌아나왔다. 장무기는 이 번승들의 옷차림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무공이 대단한 것도 지난번 만안사에서 경험한 바가 있었다. 이윽고 맨 앞에 있는 번승 한 명이 합장을 하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소승은 왕야의 명령을 받아 군주를 왕부로 모셔가야 합니다."

그러자 조민이 되물었다.

"너희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군주께서 부상당해서 왕야가 몹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승에게 분부하셔서 군주 방가(芳駕)를 영접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수중에 들고 있는 흰비둘기 한 마리를 들어 보였다. 그러나 조민이 다시 물었다.

"아버님은 어디에 계시죠?"

"왕야께서는 산 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군주의 상처가 어떠한지 급히 보고 싶어합니다."

장무기는 더 이상 얘기를 들어봐야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돌진해가며 소리쳤다.

"살고 싶으면 빨리 물러서라!"

그러자 번승 두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앞으로 일 부씩 내

딛으며 일 장씩 후려쳤다. 장무기는 좌장을 후려쳐서 양승(兩僧)의 장력을 되돌려 보냈다.

번승 둘은 일제히 소리쳤다.

"아미아미공(阿未阿未供)! 아미아미공!"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자 조민은 손해보기 싫어서 같이 소리쳤다.

"네가 아미아미공이다."

두 번승은 삼 보씩 뒷걸음질치자, 뒤에 있던 두 번승이 각각 일장을 뻗어서 밀려오는 승려의 배심을 밀더니 다시 그들을 밀어왔다. 두 번승은 초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시 배산장(背山掌)으로 공격해 왔다. 장무기는 그들한테 진력(眞力)을 허비하기 싫어서 바로 건곤이위심법으로 두 번승의 경력을 분산시키려 했다. 그러나 손가락이 두 승려의 장연(掌緣)에 닿는 순간 갑자기 그들의 장연에 찰싹 들러붙었다.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붙어 보린 듯했다. 그러자 두 번승은 크게 소리쳤다.

'아미아미공, 아미아미공!"

장무기는 두 번이나 끌어당겨 보았지만 전혀 뿌리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구양신공을 운용하여 반격해 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번승을 밀어내지 못했다. 이때 그들의 뒤에 있던 이십 이명의 번승은 이미 두 줄로 나란히 서서 각각 우장으로 앞 사람의 후심(後心)을 밀고 있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태사부님의 말로는 천축(天竺)의 무공 중에 병체연공법(併體連功法)이란 것이 있다고 하셨다. 이 이십 사명의 번승이 합력하여 나와 대장(對掌)한다면 나의 내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십 사명이 합력한 힘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는 쫓아오는 자가 또 있을까 봐 걱정했다. 순간 대갈일성하면서 손에다 공력을 삼성(成) 더 끌어올리더니 갑자기 비스듬히 공

격하면서 왼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자 이십 사명의 번승의 경력은 이미 일직선으로 연성(連成)할 수 없었다. 순간 앞에 있던 육 명은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곧장 앞으로 돌진해왔다. 장무기는 양손을 마주 휘둘러서 그들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순간 팍팍.....하며 여섯 번 소리가 들리더니 번승 육 명이 차례로 쓰러지면서 피를 토해냈다. 그러자 뒤에 받쳐 있던 일곱, 여덟 번째 번승이 바로 돌진하면서 공격해왔다. 장무기는 우장으로 후려치면서 약간 경력을 더 가해서 옆으로 밀어 버리려 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그를 공격해오는 자가 있었다. 그는 좌장을 뒤로 후려치면서 그 일장을 분산시키려 했는데, 갑자기 한 줄기 음한지기(陰寒之氣)가 장중에서 곧장 전해오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윽고 몸이 한 번 휘청하더니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바로 녹장객이 현명신장으로 갑자기 도습한 것이다.

"녹선생, 멈추시오!"

조민은 놀래서 소리쳤다. 바로 장무기에게 덮쳐가서 그의 몸을 가로막고 호통쳤다.

"감히 누가 또 출수하겠느냐?"

녹장객의 생각 같아선 일장을 더 후려쳐서 생애에 제일 강적을 이대로 없애 버리고 싶었지만, 군주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자, 하는 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그는 휘파람을 길게 불어서 동료들에게 알리며 말했다.

"군주낭낭, 왕야께서는 오직 군주께서 왕부로 돌아가시기를 바랄 뿐 딴 뜻은 없습니다. 이 자는 대역무도한 반역인데 뭣 때문에 군주께서 이러시는 겁니까?"

조민의 심정 같아선 그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잘못했다간 장무기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봐 생각을 달리했다. 이윽고 터져나오는 말문을 억제하면서 장무기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잠시 후 란령(鑾鈴) 소리가 울리면서 말 세 필이 산길을 따라 쏜살처럼 달려왔다. 하나는 학필옹이고 하나는 왕보보고, 마지막 한 사람은 다름아닌 여양왕이 친히 온 것이다. 세 사람은 가까이 달려오자 모두 말에서 뛰어내렸다. 이윽고 여양왕이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민민, 왜 그러느냐? 뭣 때문에 오빠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말썽을 부리는 것이냐?"

여양왕은 앞으로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조민이 갑자기 품에서 비수 한 자루를 꺼내들고 자기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소리쳤다.

"아버님, 소녀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오늘 아버님의 면전에서 죽어 버릴 겁니다."

여양왕은 너무나 놀래서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할말 있으면 좋게 말로 해라. 네가.....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자 조민은 어깨의 상처를 여양왕에게 보이면서 녹장객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자는 엉뚱한 생각으로 소녀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제가 죽을 각오로 반항하자 그가.....그가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녹장객은 놀래서 어쩔 줄 몰랐다.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양왕은 그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네놈이 감히..... 지난번 한희의 일도 내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덮어놓았는데, 다시 나의 딸을 범하려 하다니, 저놈을 잡아라!"

이때 그를 따르던 무사들도 이미 당도하였다. 왕야가 호령하는 소리를 듣자 비록 녹장객의 무공이 뛰어난 줄 알지만 그래도 무

사 네 명이 녹장객에게 다가갔다. 녹장객은 놀라면서도 화가 났다. 즉시 일장을 후려쳐서 무사들이 접근 못하게 해놓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제, 가자!"
학필옹이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조민이 소리쳤다.
"학선생,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 당신 사형처럼 호색한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형을 잡아준다면 우리 아버님께서 큰 벼슬을 내리고, 또 후한 상을 줄 것입니다."
현명이로의 무공은 몹시 탁월했지만 공명이록(功名利祿)을 탐하기 때문에 왕부에 투신하게 된 것이다. 학필옹은 평소에 사형이 호색탐음(好色貪淫)한 줄 알기 때문에 조민의 말을 듣고 거의 부인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벼슬과 상을 준다는 말에 그는 또 귀가 솔깃했다. 다만 그와 녹장객은 동문에다 막연한 사이라 일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자 녹장객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사제, 네가 벼슬과 부를 누리고 싶으면 날 잡아라."
그러자 학필옹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형 갑시다!"
이윽고 녹장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떠났다. 여양왕부의 무사들은 그들을 신처럼 받들고 있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나서서 그들을 가로막겠는가? 여양왕이 연신 호령을 했으나 무사들은 잡는 척만 하고 실제로 나서는 자가 없었다.
여양왕이 말했다.
"민민, 부상을 입었으니 돌아가서 상처부터 치료하라."
그러자 조민은 장무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 장공자께서는 녹장객이 절 범하려는 걸 때마침 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도리어 그가 무슨 역반반적(逆반反賊)이라고 오해하며 얘기한 겁니다. 아버님, 소녀에

게 급한 볼일이 한 가지 있어서 필히 장공자하고 같이 처리하러 가야 합니다. 일이 성사된 후에 다시 그와 함께 와서 아버님을 뵙겠습니다."

"네 오빠의 말로는 이 자가 마교의 교주라는데 틀림없으렸다!"

"오빠는 농담도 잘 하는군요. 아버님이 보기에 그가 반역의 우두머리 같습니까?"

여양왕이 장무기를 살펴보니 나이는 스물 한두 살에 불과했고, 상처를 입은 후 안색이 초췌해서 영정수발(英挺秀拔)한 기질이 상실되어 수십 만 대군을 통솔하는 우두머리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설령 교주가 아니더라도 필시 마교 중의 중요한 인물로 단정하면서 조민에게 말했다.

"그를 성 안으로 데려가서 자세히 심문해 보자. 만약에 마교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 그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할때는 이미 딸의 체면을 생각해 준 것이다. 이윽고 네 명의 무사가 왕야의 명령을 받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조민이 울면서 말했다.

"아버님, 소녀가 죽는 꼴을 보셔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수를 가슴에다 반 치쯤 찌르자 선혈이 삽시간에 옷을 빨갛게 물들었다. 여양왕이 놀라서 소리쳤다.

"민민, 절대로 허튼짓해서는 안 된다."

조민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님, 불효 소녀는 이미 장공자와 몰래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딸을 없는 셈치고 소녀를 놓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아버님 면전에서 죽겠습니다."

여양왕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왼손으로 자기의 수염을 연신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는 장병을 호령할 때나 적과 전쟁을 할 때는 모두 한 마디로 결정을 했지만, 오늘 이러한 난감한 일을 닥치게 되자 실로 손발이 묶인 듯했다. 그러자 왕보보가 말했다.

"누이, 너와 장공자는 모두 부상을 입었으니, 잠시 아버님하고 함께 돌아가서 명의에게 상처를 치료한 다음에 아버님에게 부탁해서 혼례식을 주선해 달라고 해라.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승용쾌서(乘龍快서)를 얻게 되시고, 나에게는 영웅매부가 한 분 생기게 된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조민은 그가 완병지계(緩兵之計)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장무기가 일단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조만간에 그를 사형시킬 게 뻔한 일이다.

"아버님, 일이 이쯤 되었으니 소녀는 죽든 살든 장공자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아버님과 오빠가 어떠한 계략을 쓰더라도 제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두 갈래 길 뿐입니다. 소녀를 살려주신다면 이대로 물러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녀를 죽여 버리십시오."

여양왕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민민, 분명히 알아 두어라! 네가 이 반적(反賊)을 따르게 되면 넌 앞으로 나의 딸이 될 수 없다!"

"아버님, 오빠, 모두가 민민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절 용서해주십시오."

여양왕은 딸아이의 마음이 끝내 돌아서지 않자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민민, 부디 몸조심하거라 아버지는 가겠다..... 부디.....부디 조심하거라."

조민은 고개를 끄덕거릴 뿐 감히 아버님을 다시 쳐다보지 못했다.

여양왕은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말했다.

"민민, 네 상처는 견딜만 하냐? 돈은 지니고 있느냐?"

조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윽고 여양왕은

좌우의 수하에게 말했다.

"나의 말 두 필을 군주에게 갖다 주거라."

좌우의 위사는 대답하고 나서 말을 조민에게 갖다 준 다음 여양왕을 옹호하며 산 밑으로 내려갔다. 여섯 명의 번승은 땅에 쭈그리고 있었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자 나머지 번승들은 두 사람이 한 명씩 부축해서 곧 뒤따라서 내려갔다.

잠시 후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 버렸다. 오직 장무기와 조민 두 사람만 남겨 놓았다.

제 5 장 단양절(端陽節)의 도사대회(屠獅大會)

장무기는 녹장객이 도습한 일장을 얻어맞고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 구양진기를 체내에서 세 번 회전시키자, 어혈(瘀血) 두 모금을 토해냈다. 비로소 막힌 흉구가 뚫리는 것 같았다. 이윽고 눈을 떠보니 조민의 얼굴은 온통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낭자,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아직도 날 '조낭자'라고 부릅니까? 이젠 난 조정의 사람도 아니고 군주도 아닙니다. 당신.....당신은 아직도 날 소요녀(小妖女)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장무기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 볼 게 있는데,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내 사촌누이 주아 얼굴의 검상은 도대체 당신의 짓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독수란 말이오?"

"난 당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사대협을 만나면 그분이 당신에게 자세한 내막을 말해 줄 것입니다."

장무기는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내 의부가 알고 있다니?"

"내상이 채 완쾌되지 않아서 말을 많이 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당신에게 말하겠어요. 만약에 은 낭자를 살해한 범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자결하여 사죄할 겁니다."

장무기는 그녀의 단호한 말투를 듣자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필시 파사국 명교가 그 배 안에 고수를 매복시켜 놓고 사법(邪法)으로 한밤중에 우리를 기절시킨 후, 주아를 살해하고 의천검과 도룡도를 훔쳐간 것이오? 나중에 우리가 의부를 구출해 놓고 필히 파사국에 한번 들려서 소조에게 분명히 알아봐야겠소."

조민은 입을 삐죽거리며 한 번 웃었다.

"당신은 소조를 만나려고 온갖 핑계를 둘러대는군요. 제발 엉뚱한 생각일랑 말고, 하루속히 공력을 회복해서 소림사에 가는 일이 시급합니다."

"뭐하러 소림사에 간단 말이오?"

"사대협을 구해야 할 게 아닙니까?"

장무기는 더욱 이상하게 느껴져 되물었다.

"의부가 소림사에 있단 말이오? 어째서 거기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대협께서 소림사에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윽고 조민은 자기 수하 중에 있는 한 명이 소림사에 출가를 했는데, 사손이 확실히 소림사에 있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왔다는 일이며, 또 결국은 양장을 얻어맞고 죽었다는 얘기를 장무기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장무기가 말했다.

"흠, 정말 지독하군."

그의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내식(內息)을 건드리게 되었다. 참

다못해 다시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 냈다. 그러자 조민이 급히 말했다.
"진작 당신의 내상이 이처럼 심하고 또 참을성이 없는 줄 알았다면, 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무기는 땅에 주저앉으며 바위에 기대서 운기조식을 하려했지만,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소림신승 공견은 나의 의부가 칠상권으로 타사(打死)한 것이오. 소림의 승속들은 이 십여 년 동안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갈았소. 더구나 성곤이 바로 소림사에 출가했으니, 의부는 살아 남을 수가 없지 않소?"
"너무 조급할 것 없습니다. 사대협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딱 한 가지 있으니까요."
"무슨 물건이오?"
"도룡보도!"
장무기도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도룡도는 <무림지존>이라고 호칭한다. 소림파가 수백 년 동안 무림의 우두머리 격으로 있었으며 이 보도에 대한 애착심은 어느 문파보다 더 강했다. 그들은 보도를 얻기 위해서도 사손을 쉽게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조민이 다시 말했다.
"사대협을 구출하는 일은 아무래도 우리 둘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명교의 군웅들을 모집하여 소림을 대거 침습한다면 쌍방이 많은 피해를 면치 못해요. 소림파가 만약에 명교의 진공을 막아내지 못할 땐, 오히려 사대협의 생명에 지장이 있게 됩니다."
장무기는 그녀의 세심한 생각을 듣게 되자 내심 감동되었다.
"민매(敏妹), 당신 말이 모두 옳소."
조민은 처음으로 그가 <민매>라고 부르는 걸 듣자 말할 수 없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막상 부모의 은혜와 오빠의 정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장무기는 그녀의 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위로해 줄지 몰랐다. 순간 억지로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도 떠납시다."

조민은 그의 안색이 창백한 걸 보자 상처가 몹시 심한 줄 알았다.

"우리는 속히 이 위험한 곳을 떠나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머물 곳을 정합시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비틀거리며 말을 끌고왔다. 막 말에 올라타려는데 흉구에 한 차례 극렬한 통증을 느껴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조민이 이를 악물고 오른팔로 밀어서 그를 말 등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막상 힘을 가하자 비수에 찔린 가슴의 상처에서 다시 많은 피가 쏟아졌다. 그녀도 억지로 올라타서 그의 뒤에 앉았다. 처음에는 장무기가 그녀를 부축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그녀의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잠시 숨을 헐떡거리더니 천천히 말을 몰고 전진했다. 나머지 말 한 필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하산한 후 아예 큰길을 택해서 갔다. 얼마 동안 가다가 바로 작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약간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무리 왕보보가 사람을 시켜서 잡으려 온다 해도 이러한 후미진 샛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온통 난석(亂石)과 가시밭으로 되어 있어서 말 두 필의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었다. 절룩거리며 한 시간쯤 걸었는데, 겨우 이십 리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갑자기 산 속에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았다. 그러자 장무기는 기뻐하며 말했다.

"앞에 인가가 있으니, 거기서 하룻밤 신세집시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인가가 아니라 절간이었다. 조민은

장무기를 부축하여 말에서 내렸다. 말머리를 서쪽으로 돌려놓고 나뭇 가지를 하나 주워서 말엉덩이를 몇 번 후려쳤다. 그러자 말들은 울부짖으며 쏜살처럼 달려갔다. 그녀는 도처에 의진(疑陣)을 펼쳐 놓아 왕보보의 추병(追兵)을 따돌리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막상 말을 잃게 되면 도피하는데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부축하며 절간 앞으로 다가갔다. 대문 위에 있는 현판에는 <중악신묘>라고 씌어 있었다. 조민이 문고리로 세 번 두드렸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다시 세 번을 두드리자 갑자기 안에서 음산한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려왔다.

"사람이냐, 귀신이냐? 죽으러 왔느냐?"

삐그덕 하면서 대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문 뒤에서 인영(人影) 하나가 나타났다. 그 자의 얼굴은 똑똑히 불 수 없었으나, 대머리에 승복을 입은 걸 보아서는 중이 틀림없었다. 장무기가 말했다.

"우리 남매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몸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디 보찰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대사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자는 코웃음을 치며 냉랭하게 말했다.

"출가한 사람은 남의 편리를 봐주지 않는 법이오. 그러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문을 닫으려 하자 조민이 급히 말했다.

"남의 편리를 봐주게 되면 자신한테 그 만큼 덕이 옵니다."

"무슨 덕이냐?"

조민은 귀걸이 한 쌍을 떼어서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 화상은 귀걸이에 모두 진주가 박혀 있는 걸 보자 두 사람을 다시 훑어보면서 말했다.

"좋소. 들어오시오."

조민은 장무기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 화상은 두 사람을 데리고 대전과 원자를 지나서 동쪽에 있는 행랑채로 왔다.

"여기서 묵도록 하시오."

방 안에는 등불이 없어서 몹시 캄캄했다. 조민이 침상을 한 번 더듬어보니, 침상에는 초석 한 장만 있을 뿐 다른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학사제(학四弟), 누굴 데리고 들어왔느냐?"

"지나가는 과객 두 사람이오."

그러면서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조민이 말했다.

"시주, 밥 두 그릇과 나물 한 접시 좀 부탁합니다."

"출가인은 남에게 적선하지 않는 법이오."

말을 하면서 유유히 사라졌다.

"저 중은 정말 못된 놈이군. 무기 오빠, 시장하시죠? 먹을 것 좀 구해야 할 텐데....."

순간 갑자기 발자국소리가 나면서 칠, 팔 명이 걸어왔다. 그 중 두 명이 방문을 열면서 촛대를 높이 들고 두 사람을 비춰 보았다. 장무기가 한 번 흘낏 보니 모두 필 명의 승인이었다. 모두가 우락부락하게 생긴자들 뿐이었다. 이윽고 주름살투성이의 노승이 말했다.

"당신들 몸에 지니고 있는 재물은 모두 내놓으시오!"

그러자 조민이 말했다.

"왜 그러시죠?"

"두 분 시주께서는 마침 이 절을 보수 공사하려는데 찾아 오신 겁니다. 그러니 두 분 몸에 지닌 재물은 모두 시주하시지요. 만약에 인색하여 응하지 않으셔서 보살님이 화를 내시면 야단입니다."

조민은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건 강도의 소행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팔 형제는 원래 강도짓을 했는데, 최근에 개과천선해서 엉터리 중이 된 것이오. 아유, 이거야말로 우리 출가인의 육근(六根)이 또 더럽히게 되는구료."

장무기와 조민은 몹시 놀랐다. 이 팔 명의 화상이 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더구나 이 노승의 말투를 들어보면, 어떠한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작자들이었다.

조민은 품안에서 칠, 팔 덩어리의 황금과 진주 목걸이를 꺼내어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재물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남매도 무림의 사람이니 여러분은 강호의 의기를 필히 고려해야 하오."

그러자 그 노승은 웃으며 말했다.

"두 분이 무림 사람이라니, 그거 잘됐군요. 어느 파의 문하죠?"

"우리는 소림의 제자요."

그 노승은 멈칫하더니, 바로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말했다.

"소림의 제자라, 정말 잘 만났다!"

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다. 그러자 조민은 손을 움추려서 노승의 공격을 피했다. 이윽고 장무기가 조민에게 말했다.

"민매, 내 등 뒤로 오시오. 내가 이 팔 명의 도적놈을 요리 하겠소!"

족지다모(足智多謀)한 조민도 이때만은 속수무책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그 노승이 말했다.

"우리는 소림사에서 쫓겨난 반도다. 다른 파의 강호 사람을 만나면 살려줄 수 있지만, 소림의 제자들은 절대로 살려줄 수 없다! 꼬마 아가씨, 네가 소림의 문하란 걸 알았으니, 우리는 할 수 없이 선간후살(先姦後殺)하겠다! 절대로 살려줄 수 없다!"

그러자 장무기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옳거니, 당신들은 원진의 문하구료. 그렇죠?"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자 조민이 말을 가로챘다.

"마침 우리는 소림사에 가서 진우량 큰 형님을 만나서 원진대사님을 소림사의 방장으로 추거(推擧)하려던 참이오."

"잘됐구료. 아불여래 보도중생(我佛如來 普渡衆生)."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을 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죠."

그녀가 이같은 말을 하자, 팔 명의 승인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들 팔 명의 화상은 정말로 원진과 진우량의 일당이었으며, 모두가 진우량의 소개로 원진의 문하로 들어간 것이다. 방금 그 노승이 <아불여래, 보도중생>이란 말은 그들 일당들이 만날 때 쓰는 암호였다. 만약에 본당의 사람이라면, <화개견불 심즉영산(花開見佛 心卽靈山)>이라고 대답하면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이다. 조민은 그 노승의 말투에서 원진의 제자란 걸 알았으며, 아울러 원진이 방장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속셈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약정한 암호는 어찌 알겠는가!

키가 작고 뚱뚱한 승인 한 명이 말했다.

"부대형, 이 계집이 우리 사부님을 소림사의 방장으로 추거한다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소식을 얻었을까요? 이 일은 중대한 일이라 필히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소."

이 여덟 사람은 비록 삭발하여 중이 됐지만, 상호간에 아직도 큰형님, 둘째형님으로 칭하는 걸 보면 옛날에 녹림의 습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몸에 중상을 입은 후라 진기를 끌어모을 수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모아 보았으나, 시종 맥락(脈絡)을 따라서 운행해 주지 않았다. 순간 그 노승은 다섯 손가락을 마치 독수리 발

톱처럼 세워서 조민에게 찍어갔다. 조민은 막아낼 힘이 없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몹시 다급했다. 그로서는 지금이라도 운기조식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삼 성(成)의 공력을 회복해서 이 팔 명의 악적을 처치할 수 있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 키가 작고 뚱뚱한 승인은 이 시점에서도 노골적으로 운기조식하는 걸 보자 화를 내며 호통쳤다.

"대단한 녀석이군. 노자(老子)가 우선 너부터 하늘로 보내주마."

말을 하더니, 오른팔을 쳐들고 부드득! 하며 소리를 내면서 장무기의 가슴으로 맹렬하게 후려쳤다. 조민은 상황이 위급해지자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그 자는 일권을 후려치더니, 오른팔이 힘없이 밑으로 떨구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노승은 깜짝 놀랐다. 그가 한번 잡아당겨 보았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미 그는 죽어 있었다. 그러자 나머지 승인들은 제각기 격노하며 소리쳤다.

"이 녀석에게 사법(邪法)이 있다! 사술(邪術)이 있다!"

그 뚱뚱한 승인은 팔에 운경(運勁)하며 장무기의 흉구에 맹렬하게 공격한 것이, 바로 담중혈(膽中穴)에 정통으로 맞았다. 장무기의 구양신공은 적을 공격하기에는 부족했으나, 몸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했다. 구양신공은 적이 가격해 온 권경을 되돌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일격을 가해 그로서 그의 체내에 있는 구양진기를 인동(引動)시켰다. 경상가경, 역중관력(勁上加勁 力中貫力)되어서 그 방승이 즉시 죽게 된 것이다.

그 노승은 장무기의 흉구에 독침 같은 물건이 있어서 그 방승을 죽게 만들었다면서, 즉시 출장하여 오른팔을 후려쳤다. 우선 그의 팔을 부러뜨린 다음에 천천히 요리할 속셈이었다. 이 일초의 맹렬한 장력이 장무기의 팔에 부딪쳐 오자, 그의 체내에 있는 구양진기가 인동하는 바람에 도리어 반격해 갔다. 그러자 그 노승

은 즉시 반격해 오는 힘에 밀려서 마치 화살처럼 창문을 뚫고 밖에 있는 괴나무에 박혀 머리통이 깨지며 그대로 숨지고 말았다.

나머지 승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일제히 장무기의 앞뒤 좌우로 공격을 퍼부었다. 순간 펑펑, 아이구! 푹푹.....! 하는 소리가 울리면서 모두 차례로 진사(盡死)되었다. 이때 두 사람은 지칠대로 지쳐서 전혀 움직일 힘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시체더미에 누워서 기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장무기와 조민은 모두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은 중악신묘에서 며칠을 지냈다. 그 동안 편안하게 지냈으며 더구나 소림사에서 연락하러 온 사람도 없었다. 팔 일째가 되자 조민의 상처는 거의 완쾌되었다. 장무기의 체내 진기도 차츰 관통되면서 사지에 힘이 생겨났다. 만약에 적이 온다 해도 능히 도망갈 수 있을 정도였다. 다시 십여 일이 지나자 두 사람의 체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장무기는 즉시 조민과 사손을 구출하는 방법을 상의하였다. 이윽고 조민이 말했다.

"우선 소실산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기회를 엿봐서 행동하는 게 좋아요."

장무기와 조민은 절간에서 거주했던 모든 흔적을 조심스럽게 지우고 나서, 이 십여 리 밖으로 걸어나왔다. 농가에서 옷가지를 구입한 후 후미진 곳으로 가서 갈아입었다. 원래 입었던 옷가지는 구덩이를 파서 모두 묻어 버리고 천천히 소실산 밑으로 내려갔다.

소림사에서 칠, 팔 리쯤 떨어진 곳에 올 때까지 도중에 사중승인(寺中僧人)을 세 번이나 만났었다. 그러자 조민이 말했다.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그들은 산길 옆에 있는 초가집 두 채를 발견하였다. 문 앞에는 채소밭이 있었고, 마침 한 농부가 채소에 거름을 주고 있었다.

"그에게 하룻밤 신세지러 가지요."

그러자 장무기가 앞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하며 말했다.

"노인장,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습니까?"

그 농부는 마치 듣지 못한 듯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장무기가 다시 한 번 말했으나 그 농부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갑자기 삐그덕! 하며 소리가 한 번 나더니 문이 열리면서, 한 백발의 할머니가 걸어나오며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집 양반은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예요. 손님들, 무슨 볼일입니까?"

"제 누이가 목이 말라서 물 좀 얻어 마시려 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할머니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몹시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탁자와 의자도 모두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할머니의 옷가지도 몹시 청결했다. 조민은 내심 기뻐했다. 물을 마시고나서 은자를 한 덩이 내놓으며 웃으면서 말했다.

"할머님, 제 오빠가 절 데리고 외가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서 발목을 겹질려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할머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룻밤 묵는 거야 무방하지만 우리에겐 방 한 칸과 침대 하나밖에 없소. 설사 우리 두 늙은이가 방을 비워 준다 해도, 남녀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같이 잘 수는 없지 않소? 호호..... 꼬마 아가씨, 이 할머니에게 이실직고 하시지? 댁은 아버지를 등지고 몰래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도망나온 것이지?"

조민은 그녀가 자신의 내막을 말해 버리자, 그만 얼굴이 빨개졌다. 이 할머니의 날카로운 안력에 깜짝 놀랐다. 더구나 그녀의 말투를 들어보니 보통 농가의 노부(老婦) 같지는 않았다. 새삼 그녀를 몇 번 더 쳐다보게 되었다. 조민의 눈에도 장무기는 그런대로 보통 농부 같았지만, 자기의 용모나 행동거지는 절대로 농녀 같지 않았다. 이윽고 맥없이 입을 열었다.

"할머님께서 알아버렸으니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이 오빠는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해 온 사람입니다. 제 아버님은 그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사를 반대했어요. 다행히 어머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머님께서는 절대로 이 얘기를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노파는 껄껄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도 젊었을 때는 풍류인물이었다우. 안심해요. 나의 방을 당신 부부에게 비워 주겠수. 이곳은 몹시 외진 데라서 당신 집안 사람들이 찾지 못할 거유. 만약에 어떤 자가 당신들에게 난처하게 굴면 이 노파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우."

조민은 그녀의 이같은 말을 듣자, 그녀가 무림의 인물이라는 걸 더욱 확신했다. 이곳은 소림사와 무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녀와 성곤이 친구인지 적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각별히 조심해서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무릎을 꿇고 말했다.

"할머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우 오빠, 빨리 와서 할머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그러자 장무기는 다가가서 읍례로 감사를 표했다. 그 노파는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거렸다. 이윽고 자기 방을 즉시 비워 주더니, 대청에다 침대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밑에는 볏짚을 깔고 위에는 초석을 한 장 덮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장무기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채소에 거름을 뿌렸던 그 농부의 재주가 더욱 대단하던데, 당신은 눈여겨보지 않았소?"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그는 어깨에 분수(糞水)를 지고 아주 느리게 걸었는데도, 분수 두 통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소. 그건 내력이 깊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오."

"당신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장무기는 웃으며 말했다.

"시험해 볼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소."

그러면서 조민을 안아들고 어깨에 짊어졌다. 마치 지게를 지는 시늉을 했다. 그러자 조민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어머! 나를 분통(糞桶)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노파는 밖에서 그들 두 사람이 장난치며 희희낙락하는 소리를 듣자 좀전에 약간 의심했던 생각은 모두 사라졌다.

그날 밤, 장무기는 의자에 누워서 구양진기로 십이 주천(周天)을 운기시키자 곧바로 잠에 떨어졌다. 그러나 조민은 침대에서 뒤척거리며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새벽 무렵에서야 그녀가 몽롱하게 잠들려는 찰나 갑자기 발자국소리가 멀리서부터 차츰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매우 신속한 걸음으로 문 앞에 다가왔다. 조민은 손을 내밀어 장무기를 밀었다. 마침 장무기도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순간 문 밖에서 맑은 음성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두(杜)씨 현항려(賢伉儷) 계십니까? 야밤에 불쑥 찾아와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군요."

잠시 지나자 그 노파가 말했다.

"청해삼검(靑海三劍)입니까? 우리 부부가 먼 천서(川西)에서 여기까지 피해 온 것은 당신 옥진관(玉眞觀)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일은 한낱 사소한 마찰에 불과한데, 구태여 이처럼 핍박할 건 없지 않소?"

그러자 문 밖에 있던 그 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두 분이 정녕 겁에 질렸다면, 우리에게 정중하게 절을 세번 하시오. 그러면 이 옥진관은 전에 있었던 허물을 모두 없었던 일로 하겠소."

순간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다. 이윽고 그 노파

가 말했다.

"당신들의 소식통에 정말 놀랐소.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이때는 만월(滿月)이라 달빛이 환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장무기와 조민은 벽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문 밖에는 세 명의 황관도인(黃冠道人)이 서 있었다. 중간에 있는 짧은 수염이 달린 자가 말했다.

"두 분께서는 절을 하여 사죄할 겁니까? 아니면 쌍구 연자창으로 사생결단을 낼 겁니까?"

그 노파가 미처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벙어리 노인은 이미 큰 걸음으로 밖으로 나가더니 두 손을 양허리에 짚고 무섭게 세 도인을 노려보았다. 그러자 노파도 따라나와서 남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 짧은 수염의 도인이 말했다.

"두선생은 어찌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이 청해삼검하고 말도 하기 싫은 겁니까?"

"제 부군은 귀머거리라서 세 분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두선생은 바람소리를 듣고 무기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무림에 유명한데, 어찌 귀머거리가 되었소? 정말 애석하게 되었소."

수염이 짧은 도인의 옆에 있던 뚱뚱한 도인이 장검을 뽑아 들고 말했다.

"두백당(杜百當), 역삼랑(易三浪), 그대들은 어찌 병기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그 노파 역삼랑이 말했다.

"마도장(馬道長), 당신은 여전히 성격이 급하시군요. 두 분 소도장(邵道長)께서도 몇 년 사이에 머리가 많이 하얗게 시셨구료."

순간 갑자기 양손을 들어올리자, 파란 빛이 번뜩거리면서 양손에 각각 반 치 정도 길이의 단도가 세 자루씩 있었다. 농아노인

두백당도 덩달아 손을 쳐들자, 역시 같은 단도 여섯 자루가 쌍장에 나눠져 있었다. 이윽고 그의 왼손에 있던 칼이 오른손으로 굴러오고, 오른손에 있던 칼이 왼손으로 굴러가면서 마치 손가락을 교차하는 것처럼 무척 숙달되고 정확했다.

세 도인은 모두 놀랐다. 그들은 무림에서 이러한 병기를 본 일이 전혀 없었다. 크기와 모양은 비도와 비슷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다. 두백당은 원래 쌍구로 천서에서 위력을 떨쳤고, 그의 아내인 역삼랑은 연자창을 즐겨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열 두 자루 단도를 사용하는 걸 보면, 필시 매우 매섭고 또 몹시 괴이한 초수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 뚱뚱한 마법통이 장검을 한 번 휘두르며 숙연하게 읊었다.

"삼재검진천지인(三才劍陣天地人)!"

그러자 수염이 짧은 도인 소학이 말을 이었다.

"전축성치출옥진(專逐星馳出玉陣)!"

순간 도인 세 명은 걸음을 옮기면서 두씨 이로를 중간에 몰아넣고 포위했다. 그러자 두씨 부부는 서로 등을 맞대고 네 손에는 은빛을 반짝거리면서 두 자루 단도를 교환하며 춤추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양손에 있는 단도가 서로 돌아가며 왔다갔다 할 뿐만 아니라, 두백당의 단도가 역삼랑의 손으로 옮겨가고 역삼랑의 단도가 두백당의 손으로 옮겨졌다. 그러자 조민이 이상하다는 듯이 소리를 낮춰서 물었다.

"그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장무기는 이마를 찌푸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더 쳐다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아, 알겠소! 그는 내 의부의 사자후(獅子吼)를 겁내고 있는 거라오."

"사자후라뇨?"

그러자 장무기는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느닷없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 저따위 무공을 믿고 도사복호(屠獅伏虎)하려 들다니!"

조민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혼자서 중얼거리니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자 장무기는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저 다섯 놈은 모두 내 의부의 원수들이오. 저 늙은이는 의부의 사자후가 무서워서 일부러 자기 귀를 멀게 만든 것이오....."

순간 탕탕.....! 소리가 들리면서 다섯 사람은 접전에 들어갔다.

청해삼검이 연거푸 다섯 차례를 공격했으나, 두씨 부부가 모두 막아냈다. 두 사람 수중에 열 두 자루 단도는 돌아가며 왔다갔다 했다. 달빛 아래서 삼도광환(三道光環)을 연결하더니, 몸 부위를 둘러싸면서 매우 엄밀하게 수비했다. 청해삼검은 오랫 동안 공격해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하자 즉시 수비태세로 돌렸다. 그러자 두백당은 몸을 비비고 들어가서 단도로 그 왜소한 도인의 하복부로 찔러갔다. 그러자 마법통과 소학은 장검으로 그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모두 역삼랑의 단두에 저지당했다. 그제서야 그들 부부가 연마한 도법이 일공일수(一攻一守) 라는 걸 알았다. 즉 공격자는 공격만 전담하는 것이다. 소연은 그의 단도가 다가오자 뒤로 물러서면서 피해 버렸다. 두백당은 즉시 그의 품안으로 덮쳐가면서 그의 급소를 노리자 점점 더 위험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학이 대갈일성하며 마법통과 옆에서 파고들며 일도(一道)의 검망을 조성하여 두백당을 세 치 밖으로 밀어냈다. 세 검이 연방하게 되자 실로 물샐 틈이 없었다.

장무기는 다시 살며시 냉소하며 조민의 귀에 대고 말했다.

"저 두 가지 도법과 검법은 모두 우리 의부를 상대하기 위해서

연마한 것이오. 그들은 수비가 많은데 비해서 공격은 아주 적으며, 게다가 수비를 오래하다가 다시 공격하게 되니 그들이 다시 하루 밤낮을 더 싸우더라도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오."

과연 두백당이 여러 번 공격했으나, 파고들지 못하자 다시 수비태세로 돌렸다.

조민이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금모사왕은 무공이 탁월한데, 저 다섯 녀석은 수비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죠?"

이때 마법통이 갑자기 소리쳤다.

"멈추시오!"

그러자 모두 뒤로 물러섰다. 마법통이 말했다.

"현항려가 연마한 도법은 도사(屠獅)에게 사용할 겁니까?"

그러자 역삼랑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당신의 안력은 정말 매섭군요."

"현항려는 사손에게 원한이 있기에 원수를 꼭 갚아야 합니다. 이미 그 작자가 소림사에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뭣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역삼랑은 곁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우리 부부의 일이오. 도장께서 심려할 것 없습니다."

"옥진관과 현 부부지간에 있었던 마찰은 역삼랑의 말대로 사소한 일에 불과한데, 구태여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서로 친구가 되어서 같이 사손을 찾는 게 어떠한지.....?"

"옥진관도 사손과 마찰이 있었소?"

"그런 건 없지만..... 흐흐!"

"사손과 아무런 원한도 없으면서 어찌 고심고예(苦心苦詣)하게 그 검법을 연마했습니까? 우리 쌍방의 초수는 모두 칠상권을 극제(剋制)하기 위한 겁니다."

"역삼랑의 안력은 아주 훌륭합니다. 옥진관은 단지 도룡도를 한 번 구경하고 싶은 것뿐이오."

역삼랑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윽고 손가락으로 두백당의 장심(掌心)에 재빨리 몇 자 적었다. 두백당도 그녀의 장심에 글을 썼다. 부부들은 손가락을 혀를 대신해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 역삼랑이 말했다.

"우리 부부는 오직 복수만 할 뿐, 도룡도에는 관심이 없소!"

마법통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것 참 잘되었군요. 우리 사람 다섯이 연수(聯手)해서 소림에 쳐들어갑시다. 현 부부는 복수를 하고 옥진관은 보도 한 자루를 얻게 되니, 쌍방이 각각 소원 성취하면 화기를 상하지 않을 것이오."

이윽고 다섯 사람은 동맹을 맺고 맹세하였다. 두씨 부부는 세 도인을 안으로 모셔서 복수와 탈도(奪刀)의 계획을 논의했다.

청해삼검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좌정했다. 그러나 방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걸 보자 몇 번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역삼랑이 웃으며 말했다.

"세 분은 신경쓸 것 없습니다. 저 안에는 대도에서 온 한쌍의 젊은 부부가 있는데, 전혀 무공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자 마법통이 말했다.

"제가 현 부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도모한 일이 실로 엄청난 일이라 자칫 잘못하면 천하 호걸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역삼랑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반나절이나 접전을 했는데, 그들 두 식구는 아직도 송장처럼 자고 있습니다. 마도장께서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면 직접 보시는 게 좋겠군요."

말을 하면서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

다.

장무기는 마침 이 다섯 사람에게서 의부를 찾아서 구출하는 단서를 얻어낼 참이라, 당분간 그들을 처치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즉시 조민을 안아들고 옷을 입은 채 침대에 올라가서 자고 있는 척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신발만 벗고 솜이불을 몸에다 덮었다. 이윽고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빗장은 소학의 내경에 의해서 진단되었다. 역삼랑이 촛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자 청해삼검도 따라서 들어갔다.

장무기는 촛불의 불빛을 보자 잠에 취해 있는 눈으로 역삼랑을 바라보았다. 얼굴엔 온통 망연한 빛이었다. 마법통은 검을 뽑아 그의 목으로 찔러갔다. 몹시 매섭고도 신속한 초수였다. 그러자 장무기는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상반신을 앞으로 당기면서 오히려 검끝에다 목을 갖다 댔다. 순간 마법통은 검을 거두며 역삼랑에게 말했다.

"역삼랑의 말이 옳았소. 자, 나갑시다."

다섯 사람은 방문을 닫고 다시 대청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마법통이 말했다.

"사손이 소림사에 있다는 게 틀림없습니까?"

"그렇소. 소림사에는 이미 영웅첩(英雄帖)을 밖으로 살포했소. 그 영웅첩에 의하면 단양절(端陽節)에 소림사에서 도사대회(屠獅大會)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소. 만약에 그들이 사손을 잡지 못했다면, 온 천하의 영웅들 면전에서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하겠소?"

그러자 마법통이 다시 말했다.

"소림파의 공견신승은 사손의 권하에 죽어서 소림의 승속 제자들은 당연히 복수를 해야 되겠군. 그러니 현항려는 단양절에 소림사로 들어가서 가만히 원수가 죽어가는 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힘들이지 않고 피맺힌 원한을 갚게 되는 것이오. 그런데 두 노선생님은 뭣 때문에 귀를 못 쓰게 됐으며, 또 소림파를

자진해서 적대 관계로 만들려 했습니까?"
역삼랑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부군의 귀가 먼 것은 이미 오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손이란 악적을 만나자마자 이 노파가 제일 먼저 그의 두 귀를 찔러서 멀게 할 것이오. 우리 부부는 그와 동귀여진(同歸旅盡) 되기만 바랄 뿐이오. 흐흐..... 제 사랑하는 아들이 그에게 살해된 후부터 우리 노부부는 이승과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소림파에게 잘못 보여도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우리 부부가 죽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장무기는 그녀가 말하는 걸 듣자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의부가 옛날에 성곤한테 당한 원기(怨氣)를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발산했구나. 이 두씨 부부는 그다지 나쁜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데, 다만 사랑하는 아들의 참사에 상심해서 의부를 죽이고 아들의 복수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원한 관계는 절대로 조처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의부를 구출하면 멀리 피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만 죄악을 더 짓지 않는 길이다.'
이때 옆 방에 있는 다섯 사람에게서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벽 틈으로 내다보니, 두씨 부부와 마법통 세 사람은 손가락으로 찻 물을 찍어서 탁자 위에 글을 쓰고 있었다.
'이 다섯 사람은 정말 조심하는군. 비록 나와 민매가 강호의 인물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어도, 여전히 기밀이 누설되는 걸 두려워한다. 아아! 내 의부는 강호에 너무나 많은 원가(怨家)가 있으며 또 도룡도를 노리는 사람은 더욱 많다. 그러니 소림사에서 조금만 소홀해도 단양절이 되기도 전에 화를 당할지 모른다. 아무래도 하루속히 의부를 구출하는 게 상책이다.'
이 다섯 사람은 손가락으로 글을 써 가며 계속 밀담을 나누었다. 장무기는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의자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청해삼검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장무기가

역삼랑에게 말했다.

"할머님, 어젯밤에 세 분 도야께서 손에 반짝이는 칼을 들었던데 왜 왔습니까? 전 처음엔 우리를 잡으러 왔는 줄 알고 몹시 놀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아닌 줄 알았습니다."

역삼랑은 그가 장검을 칼이라고 부르는 걸 듣자, 속으로 매우 우스웠다. 이윽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은 길을 잘못 찾은 것이우.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갔수. 점심 먹고 나서 우리는 나무 세 짐을 소림사에 갖고 가서 팔려고 하는데, 젊은이가 한 짐 좀 거들어 줄 수 있겠수? 절에 있는 중이 물으면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겠수. 이건 젊은이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절에서 의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유. 색시는 꽃처럼 예쁜 위인이라 밖으로 나가면 안 되우."

비록 듣기에는 그녀가 장무기와 상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명령을 내려서 그가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장무기도 듣자마자 이미 알아차렸다.

"할머님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두 식구가 머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사방으로 도망다니며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무기는 두씨 부부를 따라서 각자 나무 한 짐을 지고 소림사로 갔다. 그는 머리에 죽립(竹笠)을 썼고 허리춤엔 짧은 도끼를 찼고 맨발에 짚신을 신었다. 세 사람 중에 유독 그가 짊어진 나무가 제일 많았다. 조민은 문 밖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전송했다.

두씨 부부는 일부러 아주 느리게 걸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렸다. 소림사의 밖에 있는 산정에 오자 나뭇단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했다. 산정에는 중 두 명이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을 보았는데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역삼랑은 머리를 싸맨 거칠은 헝겊을 풀어서 땀을 닦았다. 다시

손을 내밀어서 장무기의 땀을 닦아 주며 말했다.

"얘야, 힘들지?"

"전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는 어머니라고 부르자, 문득 자신의 모친이 생각나서 가슴이 몹시 아팠다. 역삼랑도 그가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얼른 머리띠로 땀을 닦는 척하면서 사실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두백당은 일어나서 나뭇짐을 지고 왼손을 한번 휘두르더니 산정 밖으로 나갔다. 비록 그는 두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해도 늙은 마누라가 죽은 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승인에게 빈틈이 노출될까 봐 얼른 자리를 떠난 것이다.

장무기는 역삼랑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나뭇짐에서 두 묶음을 꺼내어 자기의 짐더미에 올려놓고 말했다.

"어머님, 가시죠."

역삼랑은 그가 이처럼 다정한 걸 보자 잠시 생각했다.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 소년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이다. 난 손자도 몇 안았을 것이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장무기가 짐을 지고 산정 밖으로 나가는 걸 보자 그제서야 따라서 나갔다. 심정이 격동되어서 걸음을 약간 산만하였다. 장무기는 뒤로 돌아서 부축해 주며 생각했다.

'만약 우리 어머님이 아직도 살아 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부축해서.....'

한 승인이 말했다.

"이 소년은 효심이 지극하군. 정말 보기 드물다."

다른 승인이 말했다.

"할머님, 이 장작은 절 안에 갖고 가서 파실 겁니까? 요 며칠은 방장께서 법지(法旨)를 내려서 외인의 출입을 못하도록 했습니

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역삼랑은 몹시 실망했다.
'과연 소림사의 방어 태세가 엄밀하구나. 정말 들어가기 힘들게 됐구나.'
두백당은 수 장을 걸어갔는데, 두 사람이 즉시 따라오지 않는걸 보자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
다른 한 승인이 말했다.
"이 시골 사람 일가는 모자자효(母慈子孝)하니, 우리가 편리를 봐 줍시다. 사제, 네가 그들을 데리고 후문으로 들어가서 향적주(香積廚)로 가라. 감사가 만약에 알게 되면, 자주 오는 장작 장수라고 말해라.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감사(監査)가 외인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건 잡인들을 방비하는 겁니다. 이런 충실한 시골 사람들의 생계를 구태여 끊을 필요가 없죠."
이윽고 두씨 부부와 장무기를 데리고 후문으로 돌아가서 절 안으로 들어갔다. 세 짐의 장작을 채방(菜房)으로 갖고 가자, 향적주를 관리하는 승인이 장작 값을 계산해 주었다.
역삼랑이 말했다.
"우리에겐 아주 좋은 배추가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시켜서 내일 몇 근 갖다 드리겠소. 그건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녀를 데려온 승인이 웃으며 말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감사가 알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향적주를 관리하는 승인이 장무기를 몇 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단양절 전후에 절엔 수천 명의 손님이 찾아올 겁니다. 물을 긷고 장작을 쪼개며 모든 일이 분주할 겁니다. 내가 보기엔 이 젊은 친구가 몹시 건장한 것 같은데, 두 달만 도와 줄 수 있겠습니

까? 한 달에 다섯 전씩 월급을 주면 어떠하겠소?"

역삼랑은 대단히 기뻐하며 얼른 말했다.

"그것 참 잘 되었군요. 아들도 집에서 별다른 할일이 없는데, 절에서 사부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몇 푼 벌어들이면 정말 좋겠군요."

장무기는 곤란한 입장이 되었다.

'소림사에서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데, 두 달 동안 있게 되면 그들에게 발각될 것이다.'

"어머님, 제 색시는....."

역삼랑은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하자 얼른 말했다.

"네 색시는 집에 잘 있을 거다. 넌 이 애미가 그 애를 서운하게 대할까 봐 그러느냐? 넌 여기에 있으면서 사부님들 말씀을 잘 들어라.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애미와 색시는 며칠 후에 널 보러 오마."

말을 하면서 그의 머리를 매만져 주었다. 눈에는 자상하고 사랑하는 빛이 충만되어 있었다.

그 향적주를 관리하는 승인은 단양대회의 일 때문에 여러날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는 장무기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보여서 간곡히 그에게 권하였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을 했다.

'내가 낮엔 주방에만 있으면 고수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밤엔 기회를 봐서 의부의 행방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러나 일부러 내키지 않는 척했다. 나중에 그를 데려온 승인이 옆에서 재차 권하자, 그제서야 억지로 승낙하며 말했다.

"사부님,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여섯 전 은자를 주세요. 다섯 전은 제 어머님께 드리고 일전은 제 색시에게....."

그러자 향적주를 관리하는 승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좋다. 여섯 전을 주마!"

역삼랑은 다시 몇 마디 당부하고 나서 두백당과 함께 천천히 하

산했다. 장무기는 쫓아가서 말했다.

"어머님, 제 색시를 부탁합니다."

"알았다. 안심해라."

장무기는 주방에서 장작을 쪼개고, 석탄을 운반하고, 불을 지피고, 물을 기르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그는 석탄을 운반할 때 일부러 얼굴을 새까맣게 칠했다. 게다가 머리까지 산발해서 실로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그는 화공(火工)들과 함께 향적주의 작은 방에서 잤다. 그는 소림사가 와룡장호(臥龍藏虎)한 걸 알고 더구나 화공 중에서도 간간이 절기를 지니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칠, 팔 일을 지내는 동안 역삼랑은 조민을 데리고 그를 두 번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어떠한 거칠은 일도 부지런하게 해서 향적주를 관리하는 승인이 몹시 즐거워했다. 게다가 다른 화공들도 그와 매우 화목하게 지냈다. 그는 감히 탐문(探問)하지 못하고 다만 귀를 바짝 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잡담에서 단서를 찾고 있었다.

구 일째 되던 날 밤, 장무기는 잠결에 반 리(里)쯤 떨어진 곳에서 호갈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그래서 살며시 일어나 즉시 경공을 전개하여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소리가 나는 걸 들어보면 절의 왼쪽에 있는 숲 속이었다. 이윽고 몸을 솟구쳐서 한 그루 큰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무 뒤와 풀속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그제서야 이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날아가며 차츰 가까이 다가갔다.

이때 숲 속에선 이미 병기가 교차되면서 여러 사람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도광(刀光)이 종횡하고 검영(劍影)이 번뜩거리면서, 여섯 사람이 두 군데로 나눠서 서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 검을 사용하는 셋은 바로 청해삼

검이었다. 그들은 정반오행의 가삼재진(假三才陣)을 포진하여 매우 긴밀하게 방어하고 있었다. 옆에서 공격하는 세 명의 승인은 각각 계도를 사용해서 파진하여 곧바로 공격했다. 이, 삼 십 초가 지나자 푹! 하는 소리가 나면서 청해삼검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맞고 쓰러졌다. 가삼재진이 돌파되자 나머지 두 사람은 더욱 적수가 못 됐다. 다시 몇 초가 지나자 한 사람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칼에 맞고 죽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뚱뚱하고 키가 작은 마법통이였다. 나머지 한 사람은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그러자 한 승인이 조그만 소리로 호통쳤다.

"잠깐 멈춰라!"

세 자루 계도는 그를 겹겹으로 포위할 뿐 공격을 하지 않았다.

"너희 청해옥진관과 우리 소림파는 전혀 원한 관계가 없는데, 뭣 때문에 야밤을 틈타서 기습해 온 것이냐?"

청해삼검 중에 남은 한 사람은 소학이었다.

"우리 사형제가 너희들에게 패전(敗戰)한 건 오직 우리들이 배운 무예가 뛰어나지 못한 것이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사손 때문에 온 것이냐? 아니면 도룡도를 얻을 생각으로 온 것이냐? 흐흐.....! 난 사손이 옥진관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니 필시 보도 때문에 온 게로군. 네 놈들은 이따위 재주로 소림사를 넘보려 하느냐? 소림사는 천여 년 동안 무림을 이끌어 왔는데, 이처럼 과소 평가하는 건 정말 뜻밖이다."

소학은 그가 한참 얘기하는 걸 틈타서 일검을 곧바로 찔러 갔다. 그 승인은 황급히 피했으나 결국 한 발이 늦어서 왼쪽 어깨를 찔리고 말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양승이 일제히 쌍도를 후려치자 소학은 즉시 목과 몸통이 두 동강으로 변했다.

세 승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해삼검의 시신을 들고 재빨리 절 안으로 달려갔다. 장무기가 막 뒤따라서 결과를 구경하려는데, 갑자기 우측 전방의 풀밭에서 살며시 호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재빨리 조용히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지나자 풀밭에서 박수를 두 번 살짝 치더니 멀리서도 박수를 치며 응수했다. 이윽고 전후좌우에서 여섯명 승인이 일어섰다. 손에는 장창과 도검을 각각 들고 부채꼴로 흩어져서 절 안으로 돌아갔다.

장무기는 그 여섯 승인이 멀리 가 버리자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같이 자고 있던 화공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사흘이 또 지났다. 이날 밤은 천둥번개가 치며 큰 비가 내렸다. 장무기는 즉시 기뻐했다.

"하늘이 날 돕는군."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사방은 칠흑같이 캄캄했다. 그는 재빠르게 앞에 있는 대전으로 다가갔다.

'나한당, 달마당, 반약원, 방장정사 네 곳은 소림사의 으뜸가는 근본 요지다. 내가 꼭 한 번 가봐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소림사에는 집채가 겹겹으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디가 나한당이며 어디가 반약원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요리조리 피하며 발길따라 걸어가자 한 대나무밭까지 오게 되었다. 앞에 작은 집이 한 칸 있었고,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때 그의 온몸은 벌써 젖어 있었다. 그는 살며시 창문 밑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방장 공문대사의 음성이었다.

공문대사가 말했다.

"금모사왕 때문에 소림파는 한 달 동안 이미 이십 삼 명이 살해됐다. 죄악을 많이 쌓게 하는 건 절대로 우리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이 아니다. 명교의 광명좌사 양소, 우사 범요, 백미응왕 은천

정, 청익복왕 위일소는 차례로 사자를 파견해서 사손을 놓아 주라고 나에게 빌었지만....."
장무기는 이곳까지 듣자 내심 기뻐하면서도 위안이 되었다.
'내 외할아버지와 양좌사 등이 이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왔었구나.'
공문은 다시 말을 이었다.
"비록 본사가 여러번 미뤄왔지만 명교가 이대로 호락호락 물러나겠느냐? 그 장교주는 무공이 출신입화(出神入化)하며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필시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나와 공지 사제 등은 그의 도움을 받았으니 은정을 빚지고 있다. 만약에 그가 직접 와서 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일은 실로 어렵구나. 사제, 사질, 너희 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생각이 없느냐?"
창로음침(蒼老陰沈)한 음성이 살짝 기침을 한 번 했다. 장무기는 그 소리를 듣자 마음이 크게 진동되었다. 바로 원진으로 이름을 바꾼 성곤이란 걸 금방 알았다. 장무기는 한 번도 그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없지만, 그날 광명정에서 자루를 사이에 두고 그가 옛일을 말하는 걸 들었고, 암석을 사이에 두고 그가 호통치는 소리를 들었었다. 그러니 그의 음성은 몹시 귀에 익었다.
"사손은 태사숙 세 분께서 지키고 계시니 절대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번 영웅대회는 우리 소림파 천백 년의 흥망이 걸려 있습니다. 마교의 사소한 은원들은 방장사숙님께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만안사에 있었던 일은 마교가 몰래 조정과 내통하여 육대문파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방장사숙께서는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공문은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어째서 명교가 조정과 내통하였지?"

"명교의 장교주는 원래 아미파의 장문인 주 낭자와 혼인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하던 날 여양왕의 군주가 갑자기 그 장가란 녀석을 데리고 떠나 버렸습니다. 이 일은 강호를 진동했으니, 방장사숙께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 그 일은 들었다."

"그 군주의 수하에는 아주 유능한 부하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고두타라 합니다. 두 분 사숙님도 만안사에서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지는 만안사의 고탑(高塔)에서 조민에게는 무공을 선보이라고 핍박당하였고, 고두타에게는 몹시 수모를 당했다. 그 당시는 내력을 전부 상실하여 전혀 반항하지 못했다. 지금도 아직 잔분이 남아 있었다.

"흥, 이번 큰일을 치루고 나면 난 다시 대도로 가서 고두타를 찾아 겨뤄 보겠다."

"두 분 사숙님께선 그 고두타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고두타는 아는 게 몹시 광범하다. 마치 각파의 무공을 모두 섭렵한 것 같아서 그의 문도를 알 수 없었다."

"고두타는 바로 마교의 광명우사 범요입니다."

그러자 공문과 공지는 동시에 입을 열었다.

"정말이냐?"

몹시 경악하는 듯했다.

"원진이 감히 사숙님을 기만하겠습니까? 단양절에 그가 만약에 본사에 온다면, 두 분 사숙님은 즉시 알게 될 겁니다."

그러자 공지는 가라앉은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장무기와 그 군주는 확실히 몰래 내통한 것이다. 군주로 하여금 육대문파의 수령 인물을 잡고, 다시 장무기로 하여금 사람을 구해서 인정을 베푸는 것이군."

"십중팔구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공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그 장교주는 충후협의한 게 그런 사람 같지 않았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오해하면 안 된다."

"방장사숙님, 옛말에도 사람의 얼굴은 알 수 있어도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손은 장무기의 의부이며 또 마교의 사대호교법왕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마교는 필시 만사를 제쳐놓고 구하려 할 겁니다. 도사대회가 열리게 되면 모든 일은 자연히 알게 됩니다."

이윽고 세 사람은 어떻게 손님을 접대할 것이며, 어떻게 적이 사손을 강탈하는 걸 막을 것이며, 또 각 문파에 얼마나 호수가 있는가를 계산했다. 원진의 주장은 각파를 이간질시켜서 상호간에 싸움을 붙이자는 것이었다. 소림파는 그들 중 몇몇이 패배하고 또 부상을 입게 되면, 그 때 나가서 도룡도를 장관하고 사손을 죽여서 공견에게 제물로 바치자고 의논했다. 그러나 공문은 정중하기를 주장하며, 또 인명을 많이 상하는 걸 원치 않으며, 또 마치 명교를 감히 얕잡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공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찬성하며 말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아무래도 사손이 단양절 전에 도룡도가 있는 곳을 말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도사대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도리어 본파의 위명만 꺾이게 됩니다."

"사제의 말이 틀림없다. 우리는 필히 대회 중에 양도입위해야 된다. 이 무림지존의 도룡보도가 이미 본파로 돌아와서 보관하게 되었으니, 그 땐 본파가 천하를 호령하면 어느 누구도 복종하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원진, 네가 다시 사손에게 말해서 보도를 내놓으라고 타일러 보아라. 만약에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의 목숨을 살려 줄 것이다."

"네, 두 분 사숙님의 분부를 명심하겠습니다."

발자국소리가 가볍게 나면서 원진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장무기는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이 세 분 소림승은 무공이 아주 고강해서 약간의 소리가 나기만 하면 즉시 그들에게 발각된다. 만약에 세 사람이 일제히 출수하면 자기에겐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때 가서 의부를 구하려면 실로 천난만난하게 될 것이다. 이윽고 호흡을 중단하고 꼼짝하지 않았다.
원진의 마르고 긴 신형(身形)이 북쪽으로 걸어갔다. 수중에 들고 있는 기름종이 우산은 빗방울을 맞자 요란하게 소리가 났다. 장무기는 그가 십여 장 밖으로 걸어가는 걸 보자, 그제서야 살며시 걸음을 옮기며 뒤를 좇아갔다.

제 6 장 세 고승(高僧)과 사손의 행방(行方)

소낙비가 내리자 사원 지붕과 각처의 순찰은 한층 허술해졌다. 장무기는 담 밑이나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그들을 미행했다.
원진이 사원 뒷담을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의부께서 사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원 안에서 아무런 행적을 찾아낼 수 없었군.'
장무기는 대담하게 담을 넘지 못하고 담 밑으로 천천히 숨어서 걷다가 순찰하는 스님이 지나가자 그제서야 담을 뛰어 넘었다. 원진은 사원에서 백 장이나 떨어진 곳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더니 한 작은 산봉우리 밑에 오자, 재빨리 산 위로 오르고 있었다. 원진의 나이 이미 칠십을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동작은 민첩했다. 그가 들고 있는 우산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유유히 뛰어올라가고 있었다.
장무기가 재빨리 산 밑까지 달려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길 옆에서 흰 빛이 번쩍이며 누군가 병기를 들고 매복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빨리 몸을 숨기고 잠시 지나자 나무 숲에서 네 사람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앞에 셋, 뒤에 한

명이 줄지어 산 위로 달리는 것이었다.

산 위에는 집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다만 소나무 몇 그루만 보였다. 장무기는 사손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몰라, 사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도 산 위로 향했다.

앞에 가는 네 명의 경공은 대단했지만 장무기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잠깐 사이에 그들과의 거리는 불과 이십여 장밖에 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희미하게 넷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남자는 평범한 차림새였다.

'아마 저 네 사람도 필시 의부님을 괴롭히러 온 자들일 것이다. 저들이 먼저 원진과 지칠 대로 싸울 때까지 내가 끼여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네 사람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었다.

순간 장무기는 그들 중 두 명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앗! 저 둘은 곤륜파의 하태충, 반숙한 부부가 아닌가!'

그러자 갑자기 원진이 긴 휘파람을 불며 갑자기 방향을 바꿔 산 밑으로 쏜살같이 뛰어내려오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재빨리 길 옆 풀 숲에 몸을 낮추고 기어서 왼쪽으로 몇 장 이동하자, 병기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원진과 그들이 벌써 싸움이 붙은 것이었다. 병기가 맞부딪치는 소리를 들어 보니, 두 사람이 원진을 상대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니? 네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나머지 두 명은 의부님을 찾으려 산 위로 올라갔을 것이다.'

장무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풀 숲 속에서 산 위로 쏜살같이 올라갔다. 산 위에 오르자 허허 벌판인 평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세 그루의 높은 소나무가 품(品)자 모양으로 서 있었다. 나뭇 가지는 하늘을 향해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모양은 꼭 용이 승천하는 모양처럼 보였다.

'아니, 그렇다면 의부님께서 여기에 감금당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러자 오른쪽 끝의 풀 숲에서 바스락! 하고 사람이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며, 뒤따라 반숙한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빨리 행동을 해요. 두 사제가 그 늙은 소림 승려와 오래 끌지 못할 거예요!"

"알았소!"

하태충의 대답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두 사람은 일어나 세 그루의 소나무를 향해 덮치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혹시나 사손이 이 근처에 있을까 하고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풀 숲에 숨어 앞으로 기어갔다. 순간 하태충이 상처를 입은 듯 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보니 하태충은 이미 세 나무 사이에 서서 장검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누구와 싸우는지 상대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순간 순간 하태충의 장검이 무슨 이상한 병기와 부딪치는 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장무기는 호기심이 생겨 앞으로 기어가 자세히 바라보더니, 그만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것은 소나무에 구멍을 파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놓고, 각각의 나무 안에 노승이 한 명씩 들어가 있고, 손에는 모두 긴 검은색 밧줄을 들고 하태충 부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두컴컴한 야밤에 검은 밧줄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태충 부부는 방어자세를 취하고 정신 없이 장검을 휘두르고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상대의 무기를 자세히 볼 수가 없어 반격할 여지가 없었다. 세 개의 밧줄은 느릿느릿한 것 같으나 실은 매우 날카로웠다. 그러나 조금도 소리를 내지를 않았다. 비오는 야밤에 조용한 산봉우리에서 세 개의 밧줄은 마치 귀신과도 같았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그 모습은 무척 괴이해 보였다.

하씨 부부는 소리를 지르며 마음이 급해 품자 모양으로 포위 당한 속에서 빠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여전히 긴 밧줄에 진로가 막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내심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검은 밧줄을 사용하는 자들의 내력은 심후하고 공력이 정순하여 자신도 감히 그들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음! 원진이 말하기를, 의부님을 자신의 태사숙 세 명이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세 노승인 모양이군. 정말 공력이 극치에 도달했구나.'
그러자 앗!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하태충은 이미 등에 밧줄을 맞고 포위망 속에서 밖으로 나뒹굴며 쓰러졌다. 보아하니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 광경을 본 반숙한은 당황하다가 가까스로 잠깐 정신을 돌린 사이에 그만 세 개의 밧줄이 동시에 그를 후려치자 비명소리와 함께 그녀도 머리통이 깨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서, 도대체 사람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형체로 포위망 밖으로 튕겨져 나오고 있었다.
원진은 싸우면서도 서서히 산 위로 걸어오고 있었다.
"자, 용기가 있으면 따라와 보거라."
원진과 상대하고 있는 두 대한은 모두 곤륜파의 상당한 고수인지라, 무공이 고강한 원진일지언정 두 명을 한꺼번에 해치울 수는 없었다. 한 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이에 나머지 한 명은 도망갈지도 모르므로 두 사람을 산 위까지 유인하고 있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산 위 소나무에서 몇 장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지만, 갑자기 하태충의 시신을 보자 순간 똑같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어느새 두 개의 밧줄이 소리도 없이 그들의 허리를 감아버렸다. 그런 후 밧줄을 당기더니 갑자기 밧줄을 흔들자 두 사람은 밧줄에서 풀려나 허공을 향해 몸이 날렸다. 두 사람은 백

여 장이나 되는 산 밑으로 던져진 것이다. 잠깐 사이에 두 사람은 산 밑에 떨어져 즉사하였다. 그러나 산 밑으로 떨어지면서 외친 비명소리는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었다.

세 명의 노승이 순식간에 네 명의 곤륜파 고수를 해치운 것을 본 장무기는, 그들의 심후한 무공에 혀를 내둘렀다. 녹장객이나 학필옹보다도 한 수 위인 것만 같았다. 태사부 장삼봉만은 못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미 신통한 경지에 도달한 것은 분명했다.

'소림사에 아직 이런 원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마 태사부님과 양소도 모르고 있을 거다.'

그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풀 숲에 엎드려 감히 꼼짝도 하지를 못했다.

원진은 하태충 부부의 시체를 산 밑으로 걷어차 버렸다. 그러자 한참 지나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는 내심 생각했다.

'하태충 부부가 나한테 입은 덕을 원한으로 갚으려고 하더니, 오늘 또 여기까지 와 보도(寶刀)를 탐해 의부님을 괴롭히려고 했구나. 그들의 인품은 정말 비열하지만 무공은 훌륭하다. 한 무학의 일파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런 최후를 당하다니.....'

그 때 원진이 공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들려왔다.

"세 분 태사숙의 신공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네 명의 곤륜파 고수를 해치우시다니, 원진은 정말 탄복하여 뭐라고 형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으나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만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원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원진이 방장 사숙의 명을 받아 세 분 사숙께 문안드리옵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게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메마른 음성이 들려왔다.

"공견 사질의 덕과 예가 깊어 우리 셋이 제일 좋아했었지. 원래 그가 소림일파의 무학을 높이 빛냈는데, 불행하게도 이 못된 놈의 손에 죽어 우리 셋은 수십 년 동안을 이미 세상 일에 나서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공견 사질을 위해 이 산으로 온 것이네. 이 놈은 죽어 마땅하니, 단칼에 베어 버리면 그만인데, 귀찮게 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조용히 지내고 있는 우리를 시끄럽게 할 셈이냐?"

"태사숙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방장 사숙의 말씀이, 저의 은사님도 그 자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은사님의 무공이 실로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러니 그 자 혼자서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를 여기에 잡아두고 세 분 사숙께서 지키게 수고를 끼친 것은, 저 자의 패거리들이 구출하러 오게끔 하여 당년에 은사를 죽인 원수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룡도를 다른 놈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그 보도를 갖고 무림지존의 이름으로, 천년이나 내려온 우리 소림사의 성세를 깎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장무기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원진, 이 악적아! 너는 천 갈래 만 갈래 찢겨도 네가 지은 죄를 다 씻지 못할 것이다. 네놈이 입에 침도 안 바른 거짓말로 수십 년이나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던 고승들을 끌어내, 그들의 힘을 빌어 무림의 고수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하다니!'

"그래, 얘기해 보거라."

한 노승의 음성이 들렸다.

내리는 비는 아직 그치지 않고 천둥 번개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원진이 세 나무 사이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보며 말을 하였다.

"사손, 생각해 보았느냐? 네가 지금이라도 도룡도가 있는 곳을 마하면 즉시 너를 여기서 보내 주겠다."
장무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아니, 어째서 땅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일까? 거기에 무슨 지하 감옥이라도 있어 의부님께서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인가?'
그러자 찌렁찌렁한 한 노승의 음성이 들려왔다.
"원진, 우리 출가인들은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데, 왜 저 자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만일 저 자가 정말 보도를 감춘 곳을 말하면 저 자를 풀어 주려는 것이냐?"
"태사숙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한 바, 은사님을 죽인 원한이 아무리 깊다 해도 본파의 성망을 좌지우지하는 일보다 더 중하겠습니까? 만약 보도를 내놓는다면 제가 즉시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삼 년 후 제자가 다시 은사님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좋다! 무림에는 신의가 제일 중하여 한번 꺼낸 말을 다시 줏어 담을 수가 없으니, 아무리 간악한 놈이라 할지라도 소림 제자는 절대로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세 소림 노승은 무공만 절륜한 것이 아니라, 덕의 소양도 높은 노승들이구나. 단지 원진의 간계에 속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원진의 말소리가 또 들렸다.
"사손, 내 태사숙의 말씀을 들었느냐? 세 분께서 너를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러자 땅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성곤, 네가 아직 나를 볼 면목이 있느냐?!"
그 말소리는 분명 의부님이 틀림없었다. 장무기는 정신이 번쩍 들어 당장이라도 뛰어가 단번에 성곤을 죽여 버리고 싶었다. 그

렇게 되면 세 노승의 긴 밧줄이 즉시 자기를 향해 공격해 올 것이다. 혹시 성곤이 덤벼들지 않는다해도 자기는 세 노승의 연합 공격에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장무기는 자신의 심정을 억제하고 침착하게 생각을 굴렸다.

'원진이 돌아간 후 세 노승을 찾아가 절을 하고 우여 곡절을 얘기하면 불법이 깊은 세 노승이 시비를 잘 가려줄지도 모를 것이다.'

다시 원진의 겸손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손, 내 나이가 칠십이 넘었는데 지나간 일은 모두 잊어 버려라. 많아야 이십 년 후면 우리 두 사람 모두 땅 속에 묻힐 것인데, 네가 너한테 잘못한 점도 많지만 너한테 잘 대해준 적도 많았지. 옛날 일은 모두 잊어 버리자."

"성곤아, 네가 아직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냐?"

원진이 똑같은 말로 반 시진을 허비해도 사손은 여전히 그 한마디 뿐이었다.

원진은 다시 냉랭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좋다. 사흘의 여유를 주마. 사흘 후 네가 여전히 보도의 소재를 털어놓지 않으면 내가 무슨 수단으로 너를 대할 것인지 네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세 노승에게 절을 한 후 산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

장무기는 그가 멀리 간 것을 확인한 뒤 막 일어나서 세 노승에게 호소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의 기류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습격한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 것에 그만 깜짝 놀라 재빨리 옆으로 몸을 굴려 피하자, 순간 자신의 얼굴 위로 무엇인가 두 개의 물체가 스쳐 지나갔다. 바람소리조차 내지를 않은 두 개의 긴 밧줄이었다. 그는 일 장여를 굴러 피하자 다시 또 하나의 검은 밧줄이 자기의 가슴을 향해 공격해

왔다. 그 검은 밧줄은 일직선으로 바꾸어 예리한 검과 같이 쏜살처럼 자기의 가슴을 향해 찔러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다른 두 개의 밧줄은 장무기의 등뒤에서 공격해 오고 있었다.

조금 전에 곤륜파의 네 고수가 죽은 것을 본 장무기는 이 세 개의 이상한 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으므로,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왼손으로 앞에서 오는 밧줄을 잡아 옆으로 제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휘청거리더니 순간 산사태와도 같은 위력을 지닌 경력이 자기의 가슴을 향해 덮쳐 왔다. 만약 그것에 제대로 맞는다면 장무기는 즉시 갈비뼈가 부러지고 오장육부가 터질 것이 분명했다.

바로 이 전광석화의 순간, 그는 재빨리 오른손으로 뒤에서 공격해오는 두 개의 검은 밧줄을 제치고 왼손으로 건곤이위심법과 구양신공을 섞어 앞에서 오는 경력을 흘려 보내고, 동시에 휙! 몸을 공중으로 솟구쳤다.

바로 그 때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하며 세, 네 번이나 밝은 빛이 비쳤다. 그리고 엇! 하고 두 노승이 놀라운 듯 소리를 냈다. 그것은 상대의 높은 무공에 무척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다시 몇 번의 번개가 장무기의 모습을 환하게 비치자 세 노승은 나란히 위를 쳐다보다니, 그만 이 절정에 달한 신공을 지닌 자가 바로 얼굴에 때가 묻어 지저분하게 생긴 시골뜨기 소년인 것을 알고 더욱 놀라는 것이었다.

세 마리의 흑룡과 같은 세 개의 흑색(黑色)은 세 방향에서 쏜살같이 그를 향해 덮쳐 가고 있었다. 장무기는 번쩍 하는 번개에 순간 세 노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동북쪽 소나무에 앉아 있는 노승은 얼굴이 칠흑같이 검은 것이 쇠붙이 같았다. 그리고 서북쪽의 소나무에 있는 노승은 얼굴이 깡마르고 누런 색이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노승은 얼굴이 오

히려 백지장과 같이 창백했다. 세 노승이 모두 얼굴이 말라 살이라고는 붙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누런 얼굴의 노승은 한쪽 눈이 먼 애꾸눈이었다. 다섯 개의 눈초리가 자기를 노려보자, 번개 빛에 눈매가 더욱 날카로왔다.

세 개의 검은 밧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느낀 장무기는, 순간 양팔로 휘어감아 세 노승의 경력을 밀어 세 개를 하나로 묶어 버렸다. 이 초식은 바로 장삼봉이 전수한 무당파의 태극심법이었다. 세 개의 밧줄에 담긴 경력을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한 소리를 내자 간담이 써늘했다. 장무기는 공중에서 제비넘기를 하여 왼발을 소나무 가지에 대고 몸을 나뭇 가지 위에 세우고 있었다.

그런 후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명교 교주인 장무기라는 후배가 세 노승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왼발만 가지를 밟고 오른발은 허공을 딛은 채로 꾸벅 절을 하자, 그의 동작에 따라 나뭇 가지도 휘청거렸다.

세 고승은 자기들의 밧줄이 장무기에 의해 한데 엉키자 밧줄을 털어 즉시 각각 떨어뜨렸다. 세 노승이 조금 전에 보인 삼초구식(三招九式)은 매식마다 수십 초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십 초식 살수에도 상대는 모두 그것을 피했고, 또 매번마다 아슬아슬하여 잠시라도 지체했다면 그것은 즉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무기는 그것을 피하고도 여전히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자약하니, 세 노승은 평생 이런 상대를 만난 적이 없었다.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무기가 젖먹던 힘을 다 들여 삼초구식을 피한 것인 줄은 몰랐다. 장무기는 휘청거리는 나뭇 거지의 힘을 이용해 흐트러진 단전의 진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장무기가 조금 전에 보인 무공엔 구양신공, 건곤이위신공, 태극권 등 삼대 신공이 내포해 있었고, 맨 나중의 제비넘기는 바로

성화령에 새겨 있던 심법이었다.
세 노승의 무공이 아무리 절기에 도달했다 해도 그들은 이미 여기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세상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 장무기의 이 네 가지 무공을 어느 한 가지도 본 적이 없었다. 다만 어딘가 은연중에 구양신공이 자기네와 같은 줄기라는 것을 느꼈으나, 그 깊고 정묘한 것은 소림파 신공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느꼈다.
장무기가 자신이 명교 교주라고 신분을 밝히자, 세 노승은 내심 탄복했던 마음이 금새 사라지고 노기로 바뀌었다. 얼굴이 창백한 노승의 음산한 음성이 들려왔다.
"어느 곳의 고인이 왕림했는가 했더니 바로 마교의 대마두였군. 우리 세 사형제가 수십 년이나 은둔하여 속무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본사의 대사마저도 한 번도 간여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 명교 교주를 만나게 되다니 정말 일생의 행운이 아닐 수 없군."
장무기는 상대가 말끝마다 마두라고 하자, 명교와 무슨 깊은 원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 망설이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자 애꾸눈 노승이 다시 말했다.
"아니, 마교 교주는 양정천(陽頂天)이 아닌가? 어째서 각하께서 명교 교주이시요?"
"양교주께선 돌아가신 지 이미 삼십 년이 됩니다."
애꾸눈 노승은 놀라며 그의 표정엔 무한한 상심과 실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양교주가 죽었다는 말에 저렇게 상심하는 것을 보아, 아마 왕년에 양교주와 매우 깊은 우정을 나눈 모양이다. 의부께서 양교주의 부하였으니 우정을 이용해서 원진이 어떻게 양교주를 죽였는지 그 진상을 밝히고 나면 좀 달라지겠구나.'
"대사님께서 양교주님을 잘 아십니까?"

"물론, 양교주를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애꾸눈이 됐겠소? 또한 우리 세 사형제가 뭣하러 여기서 삼십 년이나 좌선하며 세월을 보냈겠소?"

그의 이 몇 마디 말투는 조용했으나 거기에는 무척 깊은 상심과 실망이 서려 있었다.

'큰일났구나.'

장무기는 내심 실망을 했다. 그리고 노승의 말투로 보아 양정천이 그를 애꾸눈으로 만든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세 사형제가 여기서 삼십 년이나 공부를 들인것은, 그 원한을 갚으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정천이 죽었다는 말에 크게 실망을 한것이었다.

다시 애꾸눈 노승이 자신들의 신분을 소개했다.

"장교주, 이 늙은이의 법명은 도액(渡厄)이고, 이 얼굴이 하얀 사제는 법명이 도겁(渡劫)이고, 검은 얼굴을 한 소제의 법명은 도난(渡難)이라고 하오. 양정천이 이미 죽었다니 우리 셋의 원한은 별수없이 지금의 교주가 감당해야겠소. 우리의 사질 공견, 공성이 모두 명교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으니, 여기에 온 이상 물론 피하지는 못할 것이니, 수십 년의 원한을 오늘 무공으로 결단을 내 버려야겠소!"

"후배는 귀파와 아무런 원한이 없고, 또한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나의 의부 금모사왕 사대협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공견 신승은 나의 의부님께서 잘못하여 죽였지만, 거기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성 신승의 죽음은 폐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 분께서는 한쪽 말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시비를 가리셔야 합니다."

흰 얼굴인 도겁 노승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공성은 누가 죽였다는 거냐?"

"후배가 알기로는 조정의 여양왕부 무사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걸로 압니다."

"여양왕부의 무사들은 인솔자가 누구냐?"

"여양왕부의 딸 이름은 조민이라고 합니다."

"원진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이미 자기의 군주와 아버지를 배반하고 명교에 투신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장무기는 별도리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미 모든 것을 뉘우치고 명교에 입교했습니다."

도겁은 갑자기 큰소리로 외쳤다.

"공견을 죽인 자는 마교의 금모사왕 사손이고, 공성을 죽인 자는 마교의 조민이 아닌가! 그리고 조민은 소림사를 공격해서 우리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갔고, 제일 용서 못할 것은 감히 소림사의 십육존 나한상의 등에다 모욕의 말을 새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형의 한쪽 눈이다! 우리 세 사람이 합쳐서 백 년이나 여기서 좌선을 했는데 이 빚은 너한테 따지지 않고 누구한테 따진다는 것이냐?"

장무기는 긴 탄식을 토했다. 자신이 이미 조민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했으니 그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순간 아버님이 사랑하는 자기 부인의 과거 죄값 때문에 끝내 자살을 한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양교주와 의부님이 맺은 원한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장무기가 꼿꼿이 서서 모든 경력을 발 끝에 주입하자, 휘청거리던 나뭇 가지는 돌연 흔들림을 멈추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세분 노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후배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군요. 모든 죄값은 후배 혼자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부님께서 공견 신승을 죽인 것에 대해선 그 속에 많은 고충과 우여곡절이 있으니 세 분께서 그 점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액이 입을 열었다.
 "네가 뭘 믿고 사손을 위해 대신 사정을 하는 거냐? 우리 사형제 셋이서 너를 못 죽일 것 같으냐?"
 장무기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맞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후배 혼자서 세 분을 상대한다면 절대로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분이 저한테 몇 수의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도겁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일 대 일로 하면 너를 이길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런 원한을 갚는 일에 강호 규칙을 지킬 수도 없다! 자, 마두야! 어서 내려와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나서 그는 나무아미타불하고 염불을 외자 도액과 도겁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있기를!"
 세 개의 검은 밧줄이 위로 치솟으며 장무기를 향해 휘감아 왔다.
 장무기는 몸을 낮춰 밧줄 사이를 피해 밑으로 뛰어내리면서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자세를 바꾸어 도난을 향해 덮쳤다. 도난은 즉시 손을 뻗어 맹렬하게 장풍을 뻗자 강한 경풍이 장무기의 아랫배를 향해 공격해 갔다. 장무기는 몸을 돌려 경력을 모아 건곤이위심법으로 장력을 무산시키자, 비로 이때 도액과 도겁의 검은 밧줄이 동시에 장무기를 휘어감는 것이었다. 장무기가 몸을 조금 돌려 피하자 도겁이 소리도 없이 왼손으로 장무기를 공격했다. 장무기는 세 그루의 나무 사이에서 공격해 오는 초식을 모두 풀어 버리고, 순간 갑자기 일장을 뻗자 수백 줄기의 빗줄기와 경풍이 더불어 도액을 향해 날아갔다. 도액 노승이 재빨리 머리를 피했지만 이미 수십 줄기의 빗줄기가 그의 얼

굴에 부딪쳤다. 매우 심한 통증을 느꼈다.

"대단한 놈이군!"

도액 노승이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의 검은 밧줄은 갑자기 둥근 원을 그리며 공중에서 밑으로 장무기의 머리를 향해 씌워 오는 것이었다. 장무기의 몸은 쏜살과 같이 그것을 피하며 도겁을 향해 공격했다. 장무기는 싸울수록 내심 놀라며 의아해 했다. 자신의 전신 기류가 세 개의 밧줄과 세 줄기의 장풍의 일렁거림 속에 갇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점점 자기를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이런 고수를 상대한 적은 없었다. 세 노승의 초식이 정묘할 뿐 아니라 내력도 심후 무쌍하였다. 장무기는 처음의 칠성은 방어 자세를 취하고 삼성은 공세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백여 초가 넘자 점점 체내의 진기가 불순해지는 것을 느끼며 별수없이 공세를 거두고 완전 방어에만 몰두했다.

장무기의 구양신공은 원래 끝이 없어서 쓰면 쓸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것인데, 지금은 매 초식마다 모든 힘을 다 쏟아 점점 힘이 달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또한 신공을 연마한 후로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

수십 초를 다시 넘기자 그는 생각을 굴렸다.

'이대로 끌다간 나중에는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다. 오늘은 잠시 여기서 빠져나가 외할아버지와 양좌사, 범우사, 위복왕 네 사람을 만나 만나, 다섯이 힘을 합치면 세 노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다시 의부님을 구출해 낼 수밖에 없겠다.'

그는 즉시 도액을 향해 삼 초를 공격하고 속에서 빠져 나오려고 했지만, 뜻밖에도 세 개의 밧줄이 그린 원은 철벽과 같았다. 몇 번이나 뚫고 나가려고 해도 다시 막혀, 뒤로 후퇴하려 해도 이미 빠져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정말 크게 당황했다. 세 사람의 연결이 한 몸이나 다름없

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듯 서로 마음을 통하는 무공이 세상에 정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 세 노승이 여기서 삼십 년이나 앉아 좌선한 최대의 정성은, 바로 이 셋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나머지 두 사람은 즉시 그 뜻을 깨닫는 것이구나. 이런 심령 감응은 매우 오묘한 것이지만, 세 사람이 이 좁은 데에 같이 앉아 삼십 년이나 수련한 것이니 신기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같이 공격해도 이 세 사람이 이룬 심령 감응의 철벽은 뚫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끝내 의부님을 구출해 내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란 말인가?'

그는 마음을 조급하게 쓰자 정신이 분산되어 그 틈에 그만 도겹의 다섯 손가락에 어깨를 맞아 골수까지 고통이 스며들었다.

'내가 죽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 없지만 의부님의 억울함은 꼭 밝혀야 한다. 의부님은 평생 고집스럽고 오만하여 아무리 목숨의 위험이 닥쳐도 자기를 위해 절대 변명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세분 선사께 한 가지 밝힐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검은 밧줄이 좌우로 그를 공격했다.

장무기는 좌충우돌하며 덮쳐오는 경력을 풀고 계속 떠들었다.

"원진의 속세 이름은 성곤이라 합니다. 별명은 혼원벽력수이고 바로 나의 의부이신 사손의 사부입니다....."

세 명의 쇰 고승은 장무기가 경력을 무산시키면서 동시에 말을 할 수 있자, 이런 내공은 자신들이 절대로 해 낼 수 없기에 내심 점점 두려움에 싸였다. 그러나 한편, 세 노승은 명교가 모든 나쁜 짓만 하는 마교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교주의 무공이 높을수록 세상에 해를 더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그가 위험에 처해 빠져 나가지 못하니, 이 기회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 큰 공

덕을 쌓는 것이라 여기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다.
장무기는 더욱 떠들어댔다.
"세 분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성곤의 사매가 바로 명교 교주 양정천의 부인입니다! 성곤이 끝까지 자기의 사매에게 정을 두고 그 정으로 인해서 질투가 생겨 끝내 명교와 깊은 원한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덮쳐오는 세 노승의 초식을 무산시키며 입으로는 성곤이 어떻게 명교를 멸망시키려 하였고, 어떻게 양부인과 밀회를 하여 양정천을 죽게끔 만든 것, 어떻게 취한 척하고 사손의 처를 농락하고, 그의 온 집안을 살해하고, 그로 인해서 사손이 어떻게 무림지사들을 무고하게 죽이고, 어떻게 해서 공견 신승을 사부님으로 모시고, 그로 인해 공견이 사손의 십삼 장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신의를 못 지켜 공견이 한을 머금고 마지막을 맞이했는지에 대하여 털어놓았다.
도액 등 삼승은 들을수록 기가 막혔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얘기는 틀림없었다. 도액의 손에 쥔 검은 밧줄이 제일 먼저 점점 힘이 빠져갔다.
장무기는 다시 입을 열었다.
"후배는 양교주께서 어떻게 도액 대사와 원한을 맺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중간에 어떤 간악한 놈의 모략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자는 바로 원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액 대사께서 자세히 옛날 일을 생각하여 이 후배가 한 말이 틀림없는지 짐작해 보십시오."
으음! 소리를 낸 도액은 아무 말 없이 한참 생각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것도 일리가 있군. 내가 양정천과 원한이 생기게 된 것은 원진이 많은 작용을 했지. 그리고 그 후 나를 자기의 사부로 삼으

려고 했지만, 난 언제든지 항상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래서 그를 공견 사질의 문하에 들어가게 했던 것이지. 그렇게 보면 그 때 그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가 소림 방장의 이름을 빌어 많은 도당들을 끌어모아 음모를 꾸며 공문 신승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르릉 하고 소리를 내며 왼쪽끝 비탈 위에서 큰 바위덩어리가 세 그루의 소나무를 향해 굴러 오고 있었다.

"누구냐?"

하고 도액 노승이 크게 외쳤다.

그러면서 굴러오는 바위를 향해 밧줄을 흔들자 팍!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덩어리가 깨지며 깨진 돌 부스러기가 날렸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덩어리 뒤에서 한 그림자가 튀어 나오며, 흰 빛이 번쩍이는 단도를 들고 장무기의 목을 향해 찔러 오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전력을 다해 도겁과 도난의 밧줄과 권장을 막아 내는데 정신이 없어 누가 기습해 오는지 꿈에도 몰랐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찬바람이 그의 목에 다가오고 있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장무기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렸다. 그러자 찍! 하고 단도는 그의 앞가슴의 옷을 찢고 지나간 것이다. 간발의 차이로 위급을 모면한 것이다.

일격에 명중을 못시키자 그 자는 바위덩어리로 몸을 막고 재빨리 세 노승의 검은 밧줄의 범위에서 벗어나 빠져나가 버렸다.

장무기는 진땀을 흘리며 크게 외쳤다.

"악적 성곤아! 나를 죽이고 내 입을 막으려고 하느냐?!"

조금 전에 단도로 찌를 때 사람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재빠른 신법과 잔인한 출수, 그리고 강력한 내경, 또한 그 자의 무공이 완전히 사손과 똑같았으므로, 그 자는 성곤임에 틀림없었다.

소림 삼승의 검은 밧줄은 세 개의 큰 손과도 같았다. 그 천 근이나 넘는 바위덩어리를 휘어감아 들어올리며 날렸다. 그러나 성곤은 이미 산 밑으로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도액이 말했다.

"정녕 원진이 틀림없느냐?"

도난이 먼저 대답을 했다.

"틀림없이 원진이야."

"도둑이 제발 저려서 도망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순간 사면 팔방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며 칠, 팔 명의 그림자가 앞으로 덮쳐 오며 맨 앞에 선 자가 크게 외쳤다.

"소림 화상이 불도로서 어찌 이렇게 많은 인명을 죽이는 거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자, 모두 공격해라!"

여덟 명은 각기 병기를 들고 소나무 사이의 세 노승을 향해 공격했다.

장무기는 세 노승 중간에 서 있으면서 공격해 오는 여덟 명의 무기를 보니 세 명만 검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다섯명은 칼이나 채찍을 들고 있었다. 모두 무공이 뛰어나 삽시간에 세 노승의 밧줄과 엉켜 싸움이 벌어졌다.

잠시 쳐다보니 검을 사용하는 세 명의 검초는 모두 며칠전 소림승에게 목숨을 잃은 청해 삼검과 같은 검법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묘한 변화와 깊은 경력은 모두 청해 삼검 보다는 한 수 위가 틀림없었다. 아마 청해파 중에 쟁쟁한 인물들임이 틀림없었다.

이 세 사람은 도액 노승을 협공하였고, 나머지 다섯 중에 셋은 도난을, 그리고 남은 두 명은 도겁을 상대하고 있었다. 도겁을

상대하는 사람은 겨우 두 명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른 여섯 명에 비해 무공이 한 수 위였다.
한참 동안이 지나자 도겁 노승은 점점 약세로 몰렸고, 도액 노승은 세 명이 공격하고 있지만 선수를 잡고 오히려 여유가 있어 보였다.
다시 십여 초식을 겨루고 나자 도액 노승은 도겁 노승이 점점 지탱하기 어려운 것을 보고 밧줄을 흔들어 도겁 노승과 싸우는 두 명을 향해 공격했다.
두 사람의 몸집은 모두 매우 건장했고 검은 수염을 펄럭이며 몸놀림이 매우 날렵했다. 한 명은 손에 한쌍의 판관필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작은 몽둥이 같은 나무막대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도액과 도겁은 이 두 사람의 무기에서 뻗어나오는 경력이 만약 자기 몸에 부딪치면 오히려 칼날보다 더 무서운 상처를 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청해파 삼인은 점점 열세에 몰렸고 이렇게 되니, 도난 노승이 혼자 셋을 상대하고 도액과 도겁 둘이서 다섯을 상대하는 형세가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
장무기는 내심 혀를 내둘렀다.
'이 여덟 명의 무공은 정말 놀랍구나! 절대 하태충 부부에 뒤지지 않는군. 청해파 세 명을 빼고 다섯 명의 내력은 전혀 알아낼 수가 없는데. 정말 세상은 넓구나! 도처에 이름없는 영웅호걸이 없는 곳이 없구나!'
열 한 명이 모두 백여 초식을 겨루고 나자 소림 삼승의 밧줄은 점점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용할 때 조금이라도 내력의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히 위력도 줄어들었다. 다시 수십 초식이 지나자 세 노승의 검은 밧줄은 또 일곱, 여섯 자나 줄어들었다. 검은 수염의 두 노인도 점점 접근하여 온 힘을 다해 세 노승에게 접근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세 노승의 밧줄은 아주 짧아졌으나 빈틈없는 방어 자세였고, 세 밧줄이 형성한 원에는 무한한 탄력이 있어 보였다. 두 검은 수염의 노인은 수시로 초식을 변화하며 맹공을 했지만 밧줄의 탄력에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이미 세 노승이 한데 뭉쳐 삼 대 팔의 형세가 되어 버렸다.

소림 삼승은 온 힘을 다해 방어하며 속으로는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이 여덟 명과 더 지체해도 그들이 수세에 몰릴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자 검은 밧줄은 다시 여덟 자나 거둬들여 하나의 금강복마권(金剛伏魔圈)을 형성하니, 여덟 명이 아니라 열 여섯 명일지라도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심복지환의 약점이 있었다. 만약 장무기가 손을 뻗어 안팎에서 공격한다면 즉시 세 노승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세 노승은 장무기가 조용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필시 기회를 노려 그들이 서로 싸워 기진맥진할 때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세 노승의 내력은 이미 말라 버릴 정도였다. 그들은 산 밑의 소림사에 구원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절대로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말 한 마디만 해도 심한 내상을 입고 폐인이 될지 몰랐다. 세 노승은 마음 속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너무 과신한 것을 질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강적이 처음 왔을 그 때에 본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통지만 했었다면 달마당과 나한당에서 몇 명의 고수들이 후원하면 적을 물리치기는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장무기도 지금은 자기가 세 노승을 죽이려면 조금도 힘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아 대장부가 어찌 위급에 처해 있는 사람의 틈을 노려 그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또한 이 세 노승은 원진에게 속은 것이지 달리 죽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이 세 노승을 죽이고 나면 이 여덟 명을 물리치

는 일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쌍방의 승부가 지금 당장 결정날 것 같지도 않았다.

장무기가 고개를 숙여 밑을 보니, 큰 바위덩어리 하나가 지하 감방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틈을 내서 사손이 숨을 쉬게 하고 그 틈으로 음식을 넣어 주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쌍방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의부님을 구출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바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을 뻗어 건곤이위심법을 전개하자, 큰 바위덩어리는 조금씩 움직였다.

한 자도 채 움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강한 경풍이 밀어닥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도난 노승이 그의 등을 향해 일장을 뻗은 것이었다. 장무기는 상대의 경력을 이용하는 차력술로서 일장을 막자 팍! 하는 소리와 동시에 등 뒤의 옷이 터져나가, 광풍폭우 속에 찢겨진 옷자락들이 휘날렸다. 그러나 도난의 장력은 오히려 장무기의 차력술로 인해 바위덩어리에 부딪쳐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또 몇 자를 움직여 놓았다. 장무기는 내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처음 경력이 와 닿았을 때는 장무기가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고 있던 때이므로 등줄기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스며들었다.

도난이 일장을 헛소비하는 순간 잠시 방어하고 있던 밧줄에 약점이 노출되자, 그 검은 수염의 한 노인이 그 틈을 노려 안으로 덮쳐 오른손으로 도난의 왼쪽 가슴을 후려쳤다.

소림 삼승의 검은 밧줄은 먼 곳을 공격하는데 유리하지, 접근한 적을 격퇴하는 데엔 불리했다. 도난은 재빨리 왼손으로 상대의 타혈궐(打穴獗)을 막자 검은 수염의 노인은 갑자기 왼쪽 손가락으로 도난의 담중혈을 찔렀다.

'앗! 위험하구나!'

도난이 속으로 외쳤다. 상대의 일지탄(一指彈) 점혈무공이 타혈궐의 무공보다 더 위력이 있는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밧줄을 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자기의 가슴을 방어하며 뒤따라 세 손가락으로 즉시 역공을 했다.

그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밧줄을 놓아 버리자 판관필을 쓰는 노인이 재빨리 앞으로 접근했다. 소림 삼승의 세 밧줄에서 하나가 빠지자 그들의 금강복마권은 이미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땅에 떨어진 밧줄이 죽은 척하고 있던 뱀이 갑자기 일어나 사람을 깨무는 것같이 밧줄 끝이 판관필의 노인 얼굴을 향해 찌르는 것이 아닌가! 밧줄 끝이 얼굴에 닿기도 전에 그에 딸린 경풍은 이미 상대로 하여금 잠시 숨을 쉬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그 노인이 재빨리 판관필로 가로막으니, 두 무기가 서로 부딪치자 어깨가 마비되는 느낌에 하마터면 판관필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나 오른쪽 손에 들은 판관필은 그만 떨어뜨려, 한곳으로 날아가더니 돌에 부딪쳐 돌이 깨지며 사방으로 날렸다.

세 노승이 다시 밧줄로 초식을 전개하자 청해파 세 검수는 다시 일장여 뒤로 밀려났다. 금강복마권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보다 더 위력이 강해진 것이다. 소림 삼승은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교차했다. 땅에 떨어졌던 밧줄을 바로 장무기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금강복마권의 무공을 연마하지 않아 그들과 마음을 상통하지 못해 그들과 빈틈없이 완전무결하게 배합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강맹한 내력은 당해낼 사람이 없지 않는가? 그가 들고 있는 밧줄에서 나오는 내력은 거대한 파도와 같이 사면팔방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도액과 도겁이 옆에서 도와, 그들과 싸우고

있는 일곱 명을 순식간에 거듭 뒤로 물러나게 했다.
 도난 노승은 혼자서 전적으로 검은 수염의 노인을 상대했다. 원래 무공이나 내력으로도 상대보다 한 수 위이므로 소나무 안에 앉아서 몸을 일으키지 않고도 열 손가락으로 찍고 튕기고 낚아채며 몇 초식만에 검은 수염의 노인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었다. 나머지 일곱 명도 전세가 불리해지자 소리를 지르며 밧줄 범위 밖으로 뛰쳐나갔다.
 장무기는 밧줄을 다시 도난의 손에 쥐어주고 몸을 숙여 다시 건곤이위심법으로 입구를 막은 바위를 또 몇 자 밀어냈다. 그리고 바위가 밀려난 틈으로 크게 외쳤다.
 "의부님! 무기가 왔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난 나가지 않는다! 무기야, 어서 빨리 여기를 떠나거라!"
 그 말에 장무기는 몹시 의아해 했다.
 "의부님, 왜 그러십니까? 누가 봉혈을 했습니까? 아니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장무기는 사손이 대답하기도 전에 밑으로 뛰어내렸다. 철썩! 하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몇시간이나 내린 비로 땅 속에 물이 차 사손의 하반신이 물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장무기는 사손을 끌어안고 그의 손과 발을 만져 보니 쇠사슬에 묶이지는 않았다. 또다시 그의 급소 몇 군데를 만져봐도 누가 무슨 손을 쓰지는 않은 것 같아, 사손을 끌어 안고 땅 속에서 뛰어올라와 큰 바위 위에 앉혔다.
 "지금이 도망 갈 제일 좋은 기회니, 의부님 어서 여기서 떠나시지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사손은 바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양손을 무릎에 짚고 입을 열었다.
 "애야, 내가 일생에 제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바로 공견 대

사를 죽인 일이다. 네 의부가 만약 오늘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다면 끝까지 분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난 지금 소림사에 잡혀 있는 거다. 그래서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견 대사를 죽인 죄값을 내 목숨으로 갚을까 한다."

"의부님께서 실수로 공견 대사를 죽이게 된 것은 순전히 성곤의 간계에 걸려 들었던 것입니다. 더욱 의부님께서는 집안의 원수를 갚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곤의 손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손은 장탄식을 뿜었다.

"난 한 달 동안 이 지하에 감금당하여 매일 세 노승이 염불외는 소리를 듣고 산 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옛날일을 회상해 보았다. 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고 생각했지. 정말 내가 백 번 죽는다 해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을 거다. 난 성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어. 자, 무기야 이제 나를 상관말고 어서 내려가거라."

장무기는 마음이 조급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의부님께서 안 가시겠다면 무기가 강제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장무기는 사손의 두 팔을 잡고 자기의 등에다 업혔다.

산길에 갑자기 사람들이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놈들이 감히 소림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냐?"

물 위로 뛰는 소리가 들리며 십여 명이 산 위로 달려오고 있었다.

장무기는 사손의 두 다리를 잡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등 뒤의 대추혈이 마비되었다. 사손이 혈도를 찍어 두 팔에 힘이 빠져 사손을 내려 놓을 수 밖에 없었다.

장무기는 어찌 할 바를 몰라 조급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의부님, 어째서 꼭 이러십니까?"

"얘야, 나의 억울함은 네가 이미 세 노승에게 설명했고, 나의

죄값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네가 빨리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나의 원한을 누가 갚아 주겠느냐?"

장무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십여 명의 소림승들이 각기 선장(禪杖)과 계도(戒刀)를 들고 여덟 명을 공격하고 있었다.

몇 회합이 지나자 판관필을 들은 노인은, 이대로 시간을 끌고 싸우다가는 오늘을 제대로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오늘 성공할 것을 한 무명 소년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크게 외쳤다.

"소나무 중간에 서 있던 소년의 이름을 알고 싶소! 하간(河間) 혁밀과 복태(卜泰)가 어느 곳의 고인이 우리 일을 간섭하는지 알고 싶소!"

도액 노승이 검은 밧줄을 흔들며 대답했다.

"천하 제일 고수인 명교의 장교주를 하간쌍살(河間雙薩)이 어찌 못 알아보느냐?"

판관필의 혁밀은 쌍필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뚫자, 나머지 일곱 명도 그의 뒤를 따라 달아났다. 소림승들이 그들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여덟 명의 무공은 실로 대단하여 어깨를 나란히하고 그들을 뚫고 산 밑으로 달아나 버렸다.

세 명의 노승은 사손과 장무기의 대화를 모두 자세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기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가 그 틈을 노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을 돕지를 않았다면, 복태가 금강복마권을 무너뜨렸을 때 하간쌍살의 잔인성으로 보아 세 노승은 지금쯤 이미 세상에 살아 있지를 못했을 것이다.

세 노승은 밧줄을 놓고 일어나 합장을 하고 말했다.

"장교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무기는 얼른 답례를 하며 말했다.

"의당히 해야할 일인데 은혜라고 말씀하실 것까지 있습니까?"

도액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의 일로 보아 이 늙은이가 의당히 사손을 장교주와 함께 여기를 떠나게 해야 하며, 또한 조금 전에 장교주께서 정작 구출하려고 하면 우리도 막을 힘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 늙은이 사형제 삼인은 본사의 방장 법지에 따라 사손을 지키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것이라 우리 세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사손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본파의 천년 백년의 영욕게 관한 사건이니, 장교주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무기는 흥! 하고 소리를 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늙은이의 한쪽 눈을 잃은 원한은 오늘 그냥 넘겨 버린다고 해도, 장교주께서 사손을 구출하시겠다면 언제든 우리 세 사람의 금강복마권을 무너뜨리고 금모사왕을 데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주께서 누구든 몇 명이든 불러와, 차례 차례로 공격하든 한꺼번에 공격하든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셋이 상대할 겁니다. 그리고 장교주께서 다시 여기에 찾아올 때까지 절대로 사손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를 모욕하거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무기는 어둠 속에서 사손을 쳐다보니, 고개를 숙이고 오로지 왕년의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왕년의 그 기세 당당한 위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장무기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오늘은 이 노승들을 이겨 낼 수 없다. 그리고 의부님이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 별 수 없이 외할아버지와 양좌사, 범우사 등과 다시 싸우러 와야겠구나. 이 세 개의 밧줄이 서로 단합하면 철벽과 같아, 조금 전에 도난 대사가 나의 등에 일장을 뻗지만 않았다면 그 복태라는 노인이 절대로 세 노승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다음에 외할아버지와 좌우광명사가 나를 돕는다 해도 격파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갈 데까지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굴리던 장무기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시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고 세 분 대사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장무기는 사손의 허리를 끌어안고 낮은 소리로 작별을 고했다.

"의부님, 무기는 이만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사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넌 착한 녀석이라 나쁜 일도 모두 좋게 해결할 수 있을거다. 절대 너의 부모님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라. 네 아버지를 배우되 이 의부는 배우지 말아라!"

"아버님과 의부님은 모두 영웅 호걸입니다. 두 분 다 모든 점이 무기의 모범입니다."

말을 끝낸 장무기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난 후, 몸을 번쩍하고 움직이자 어느새 세 그루의 소나무 사이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소림 세 노승에게 손을 흔들며 경공을 전개하자, 어느새 그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벌써 몇 리 밖에 떨어져 있었다.

산 위의 한쪽에 있던 소림 승려들은 모두 서로 쳐다보며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명교 장교주의 무공이 탁월하다는 소문은 이미 들어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신기한 경지에 도달해 있을 줄은 정말 예상밖이었다.

장무기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자 일부러 한 수 보인 것이었다. 그러면 소림 승려들이 겁을 먹고 사손을 잘 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장무기가 내기를 끌어모아 휘파람을 불자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에서 울리는 휘파람소리는 용이 승

천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리자 점점 속도가 빨라졌고, 휘파람소리도 점점 크게 퍼졌다.

소림사의 천여 승려들은 모두 그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휘파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자 그제서야 자기들끼리 수근대며 의론이 분분했다. 공문, 공지 두 노승도 장무기가 온 것을 알고 한 가지 걱정이 더 늘어 수심에 잠겼다.

장무기는 쏜살같이 몇 리길을 달려왔는데 갑자기 길 옆 버드나무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며 나무 뒤에서 튀어나왔다.

"여보세요?"

그것은 바로 조민이었다. 장무기는 휘파람과 발걸음을 동시에 멈추고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온몸이 비에 젖어 머리와 얼굴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림사의 중들과 싸웠어요?"

"음!"

"사대협은 어떻게 됐어요? 만나 봤어요?"

장무기는 그녀의 팔을 잡고 빗 속을 걸으며 조금 전의 일들을 모두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 무슨 실수를 저질렀기에 그들에게 잡히게 되었대요?"

"오로지 구출해 낼 생각뿐이어서 그런 것은 물어 보지 못했소."

조민은 탄식을 하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왜 기분이 좋지 않소?"

"당신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나한테는 중요하지만, 됐어요. 사대협을 구출한 후 물어도 늦지 않아요. 난 단지....."

"뭘 걱정하는 거요? 의부님을 구출하지 못할까봐 그렇소?"

"명교의 세력이 소림파보다는 훨씬 강하니 사대협을 구출해내지 못하지는 않지만, 난 다만 사대협께서 잘못 생각하고 자살로서 공견 신승의 죄값을 치를까봐 걱정이 되어요."

장무기도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실까?"

"그렇지 않기를 원해야지요."

두 사람은 어느새 두씨 부부 집 앞에 당도하였다.

조민이 웃으며 장무기에게 말했다.

"당신의 신분이 노출됐으니 이젠 더 이상 이 두 분을 속일 수 없어요."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본 장무기는 문을 밀어 열고, 옷에 묻은 빗물을 털고 난 후에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피비린내가 풍기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깜짝 놀라 조민을 문 밖으로 밀어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어 자기를 잡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민첩한 동작이라 조금도 기척을 내지 않았다. 장무기가 그것을 눈치챘을 땐 이미 그 손이 자기의 얼굴에 와 닿았을 때였다.

장무기는 이미 피할 여유가 없어 왼쪽 발로 상대의 가슴을 걷어차자, 상대는 재빨리 손을 내려 장무기 다리의 환도혈(環跳穴)을 찍는 것이었다. 정말 잔인한 초식이었다.

만약 장무기가 다리를 거둔다면 상대의 왼손은 자기의 눈알을 뽑을 것이 틀림없었다. 장무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손으로 대강 짐작하고 상대의 손을 막자 다행히도 짐작대로 상대의 왼손이 그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바로 이때 환도혈이 마비되어 서 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장무기는 상대의 손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순간, 부드러운 감촉을 인지하고는 상대가 여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잔인하게 손목을 부러뜨리지 못하고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깨에 통증이 스며들며 이미 칼에 맞고 말았다.

상대는 밖으로 몸을 날리며 조민의 얼굴을 향해 장풍을 뻗었다. 장무기는 조민이 절대로 이 일장을 받아낼 실력이 못되므로, 장풍을 맞고 즉사할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고통을 참고 일어나 그

도 상대를 향해 장풍을 뻗었다. 쌍장이 서로 부딪치자 그녀의 몸집이 휘청거리며 쌍장이 부딪치는 힘을 빌어 수 장 밖으로 몸을 날려 어느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조민은 깜짝 놀랐다.

"누구냐?"

그러자 장무기가 윽! 하며 대답했다.

어깨에 꽂혀 있는 단도가 혹시 독이 있을까봐 금방 뽑지 않았다.

"우선 불을 켜시오."

조민은 부엌으로 내려가서 화도화석(火刀火石)을 찾아와 등잔불을 밝혔다. 그의 어깨에 꽂혀 있는 단도를 보자 몹시 놀랐다. 그러나 장무기는 칼날에 독이 없는 것을 보자 웃으며 말했다.

"외상에 불과하니 걱정할 것 없소."

그러더니 바로 칼을 뽑아냈다. 고개를 돌려보니, 두백당과 역삼랑은 한쪽 구석에 움추리고 있었다. 순간 상처에 지혈하는 것도 잊은 채 급히 다가갔으나 두 사람은 이미 죽은 지 오래 되었다.

조민은 놀라며 말했다.

"내가 나갈 때 그들 두 사람은 무사했는데....."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조민이 상처를 감싸주자 그는 단도를 집어 보았다. 바로 두씨 부부가 사영하던 병기였다. 순간 방 안에 온통 단도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필시 적과 두씨 부부는 한 차례 격렬한 격투를 벌이면서 그들 부부의 단도를 하나하나 날려보낸 다음에 살해한 것 같았다.

조민이 말했다.

"그 자의 무공은 정말 무섭군요."

방금 암흑 속에서 서로 격투할 때 만약 장무기가 재빨리 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장님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조민은 이미 벌써 죽었을 것이다. 다시 두백당 부부의 시신을 보니, 갈비뼈가

전부 부러져 있었다. 등 뒤의 늑골마저도 똑같이 부러져 있었다. 몹시 악랄하고 무서운 장력에 상한 것 같았다. 장무기는 수많은 강적을 만났었고, 또 수많은 위험을 당했었지만 방금 암실에서 그 세 차례의 접전을 회상해보니 생각할수록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조민이 다시 물었다.

"그게 누구예요?"

장무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조민은 갑자기 알아차린 듯 겁에 질린 눈 빛을 나타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장무기의 품 안으로 안기더니 놀래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장무기는 그녀의 등을 살며시 토닥거리며 부드럽게 타이르며 위로해 주었다.

조민이 말했다.

"그 자가 노린 건 나예요. 먼저 두씨 부부를 죽이고 나서 여기에 숨어 있다가 날 암습하려 했어요. 당신을 상하게 할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은 절대로 내 곁을 떨어져선 안 되오!"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일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내력과 무공이 그처럼 발리 진전될 수 있을까? 어쩌면 당세에 나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소!"

다음날 아침 장무기는 두백당이 쓰던 곡괭이로 깊은 구덩이를 하나 팠다. 두씨 부부를 매장하고 나서 조민과 함께 꿇어앉아 절을 몇 번 했다. 막상 역삼랑이 자기들한테 따뜻하게 대해 준 것을 생각하니 모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순간 갑자기 소림사의 종소리가 댕댕..... 하며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몹시 다급한 소리였다. 그러자 바로 동쪽에서 청색 연기 한 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남쪽에선 홍

색, 서쪽에선 백색, 북쪽에선 검정색이고, 몇 리 밖에는 황색 연기가 솟아올랐다. 그러자 장무기가 소리쳤다.

"명교의 오행기가 전부 당도해서 소림파와 정면으로 싸우고 있군. 우리도 빨리 갑시다."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세수한 다음에 빠른 걸음으로 소림사를 향해서 달려갔다. 몇 리쯤 달려가니 흰 옷을 입은 명교의 교도들이 손에 작은 황색 깃발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장무기는 소리쳤다.

"안기사(顔棋使), 거기 있소?"

후토기 장기사 안원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니 바로 교주가 보였다. 너무나 반가워서 얼른 앞으로 다가가서 인사하며 참견(參見)했다. 그러자 휘하의 교도들은 환호성을 외치며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교도들은 호각을 울려서 교주가 온 것을 알렸다. 잠시 후 양소, 범요, 은천정, 위일소, 은야왕, 주전, 팽영옥, 설불득, 철관도인 등이 차례로 각처에서 달려왔다. 예금, 거목, 홍수, 열화 사기의 교도들은 사방으로 나뉘어 소림사를 포위했다. 각자 서로 만나게 되자 모두 대단히 기뻐했다. 양소와 범요는 제멋대로 일을 결단한 죄를 사과했다.

장무기가 말했다.

"여러분께서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일제히 합력하여 사법왕을 구하러 온 것은 본교의 형제분들의 의기(義氣)가 아닙니까? 본인은 고마움을 느낄 뿐인데 어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이윽고 자기가 소림사에 잠입했던 일과 어젯밤에 도액 등 삼승과 싸웠던 일들을 간략하데 말해주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성곤의 간계란 말을 듣더니, 한결같이 분노했다. 주전과 철관도인은 더욱 욕설을 퍼부었다.

장무기가 말했다.

"오늘 본교는 정정당당하게 소림 방장한테 의부를 달랠 것이니 될 수 있으면 서로의 화기(和氣)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히 할 수 없이 싸우게 되더라도 우리는 첫째는 사법왕을 구하고, 둘째는 성곤을 잡아야 합니다. 그 외에 무고한 인명피해는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응답했다.

장무기는 조민에게 말했다.

"민매, 당신은 아무래도 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래야만 소림사의 승려들이 당신 신분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고 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소."

지난번 그녀는 소림의 승려들을 잡아서 대도에 감금하였기에 소림파와 깊은 원한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민은 웃으며 말했다.

"안대형, 전 당신 휘하에 있는 형제로 변장하겠어요."

안원은 즉시 명령을 하달하여 한 형제의 외투를 벗겨서 조민에게 걸쳐 주었다. 조민은 뒷산으로 달려가서 급히 화장을 고쳤다. 잠시 후 숲 속에서 나올 때는 이미 얼굴은 검고 사나운 남자로 변했다.

호각이 다시 울리자 명교의 군웅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산으로 올라갔다. 소림사에는 벌써 명교의 배산첩자(拜山帖子)를 받았기에 공지대사는 승려들을 대동하여 산정(山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공지는 원진의 말을 깊이 믿고있는 터라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합장하며 인사만 할 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포권하며 말했다.

"폐교는 귀파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방장신승님을 뵈오러 왔습니다."

그러자 공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듭시지요."

이윽고 명교의 군호를 안내하며 산문(山門)쪽으로 갔다. 공문방장은 달마당, 나한당, 반약당, 계율원 각처의 수좌 고승을 대동하여 산문 밖에서 영접했다. 군호를 대웅전으로 모시자, 빈주(賓主)로 나눠서 자리에 앉았다.

공문은 장무기, 양소, 은천정 등 사람들과 인사말만 몇 마디 나누고 나서 곧 침묵을 지켰다. 장무기가 말했다.

"방장신승님,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방장께서도 같은 무림의 일맥(一脈)으로서 폐교의 사법왕을 놓아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 대은대덕은 훗날 기필코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 출가인은 자비가 근본이라 계진계살(戒嗔戒殺)하기 때문에 사시주에게 대한 것은 부당한 줄 알고 있지만, 노납(老衲)의 사형인 공견께서 사시주의 손에 목숨을 잃었소. 장교주께서는 일교의 주인이시니 무림의 규칙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중간에는 다른 까닭이 있었기에 사법왕만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공견이 자의로 주먹을 맞으며 무림의 일대 원업을 무마시키려했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공문 등은 미처 아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일제히 염불을 외우며 공손하게 일어섰다.

공문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공견사형께서 그런 크나큰 선행을 대원력행(大願力行)하셨으니 그 공덕은 실로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승려들은 작은 소리로 염불을 외우며 공견의 인협고의(仁俠高義)에 모두 고개를 조아렸다. 그러자 명교의 군호도 일제히 일어나며 존경의 뜻을 치하했다.

장무기는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해 주고 나서 다시 말했다.

"사법왕께서는 실수하여 공견신승을 상한 걸 매우 후회하고 있

습니다. 한데 사건이 있은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일의 괴수는 바로 원진대사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대전 안에 원진이 안 보이자 다시 말했다.

"원진대사님을 불러내서 대질하면 즉시 시비를 가리게 될 겁니다."

주전이 가로채서 말했다.

"맞습니다. 광명정에서 그 독려(禿驢)는 죽은 걸로 가장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어찌 좋은 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빨리 그놈한테 굴러 나오라고 하시오!"

그날 주전은 광명정에서 원진에게 몹시 당해서 줄곧 한을 품고 있었다. 그러자 장무기가 얼른 말했다.

"주 선생님, 방장대사님 앞에서 무례하면 안 됩니다."

"난 원진 그 독려를 욕한 겁니다. 절대로 방장, 그 독....."

그는 실언했다는 것을 알고 얼른 자기 입을 손으로 막았다.

공지는 주전의 말이 무례하자 더욱 울화가 치밀었다.

"그렇다면 우리 공성사제의 죽음은 장교주께선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공성대사님께서 뜻밖에 당하신 사고는 본인도 몹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은 간인(奸人)의 암습이지 폐교와는 실로 무관합니다."

공지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교주께서 아주 깨끗이 부인하는구료. 그렇다면 여양왕의 군주와 명교가 연수(聯手)한 일도 거짓이란 말이오?"

"여양왕부 군주와 그녀의 부형(父兄)간에 사이가 윤택하지 못해서 폐교에 투신한 겁니다. 지난 날 군주가 귀사에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본인은 꼭 그녀에게 명하여 정중히 사과 올릴 겁니다."

공지가 소리쳤다.

"장교주께서 그처럼 사탕발림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교의 주인인 당신이 그처럼 망발을 하면 천하의 영웅들이 얼마나 당신을 비웃을지 모르십니까?"

공성을 상해하고 승려들을 감금했던 일을 생각하니, 그건 확실히 조민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었다. 비록 명교와 무관하다지만 그녀는 목하 자기에게 투신돼 있기 때문에 깨끗이 밀어버리지는 못하는 일이다. 마침 난처해 있을 때 철관도인이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공지대사, 우리 명교가 당신을 선배 고승으로 존경하여 체면을 충분히 고려해 주었으니 당신도 자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주님께서는 신의를 중요시 여기시는데 어찌 거짓말을 하시겠소? 당신이 우리 교주님을 모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명교의 백만 교도를 모욕하는 것이오! 설령 우리 교주님이 도량이 커서 따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같은 부하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공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백만의 교도가 어찌하겠단 말인가? 소림사를 평지처럼 짓밟아 버리겠단 말인가? 마교가 우리 소림을 모욕하는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만안사에 감금되었던 것은 단지 자신이 소홀한 걸 나무라고 있다. 옛부터 정사(正邪)는 양립하지 않아서 그것도 별거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 소림사에 와서 십육존 나한상의 등에 열 여섯 자의 큰 글씨를 새겨 놓았다. <선주소림(先誅小林) 재멸무당(再滅武當) 유아명교(維我明教) 무림칭왕(武林稱王)> 실로 위풍당당하고 살기등등하다!"

이 열 여섯 자의 글씨는 바로 조민의 수하 무사들이 소림상을 잡아간 뒤에 예리한 칼로 십육존 나한의 등에 새긴 것이다. 범요는 그들이 소림사를 나가자마자 바로 몸을 날려서 나한상으로 돌아가서 십육존 나한상의 등을 벽으로 향하게 돌려 놓았었다. 그

래야만 조민이 저지른 화를 명교가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나중에 양소 등도 발견했지만 보고 나서 나한상들을 여전히 똑바로 옮겨 놓았다. 그런데도 소림승들이 알아낸 것이다. 장무기는 말재주가 없었고, 또 그것은 조민이 저지른 것을 생각하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답변할 말이 없었다.

양소가 말했다.

"공지대사님의 말씀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겠구료. 폐교의 장교주께서는 무당제자 장오협의 공자란 걸 강호에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아무리 만 배 더 광망해도 감히 교주님의 선인들을 모욕하지 못합니다. 장교주 자신이 어찌 재멸무당(再滅武當)이란 글을 새기겠습니까? 본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공문이 말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논쟁해봐야 아무 이익도 없으니 노납을 따라 나한당에 가서 나한법상을 직접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장무기는 일단 나한당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진상이 밝혀지게 될까봐 몹시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 양소가 말했다.

"그것 아주 좋습니다!"

장무기는 어리둥했다. 그러나 조민은 후토기에 섞여 있어서 소림사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소림승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자 그다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이윽고 지객승의 안내로 사람들은 나한당으로 갔다. 공문은 나한상에 무릎꿇고 말했다.

"제자가 나한존자법상을 놀라게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절을 하고 나서 여섯 명의 제자에게 명해서 법신을 공손하게 이전하라 했다. 그러자 여섯 명의 제자는 분부대로 다가가서 합장하며 몇 마디 묵축(默祝)했다. 그러한 뒤에 세 사람이 한쪽을 맡

아 양쪽 옆으로 서서 첫 번째 나한상을 돌렸다. 그러나 그 나한상의 등은 이미 판판하게 깎이고 금칠이 칠해져 있었다. 원래 있었던 그 큰 선(先)자는 전혀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공문, 공지 등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장무기도 너무나 뜻밖이었다.

소림의 제자들은 일제히 다른 나한상도 일일이 돌려 보았으나, 등에는 전혀 글을 새겼던 흔적이 없었다. 순간 승려들은 얼굴만 서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한상의 등에 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었다. 그걸 합치면 바로 <선주소림 재멸무당 유아명교 무림칭왕> 등 열 여섯 글자였는데 어찌 갑자기 사라졌단 말인가! 나한상의 등에 칠한 금칠은 아주 새 것인 점으로 보아서 칠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림사는 근 수 개월 동안에 수비를 얼마나 엄밀하게 했는가. 그 열 여섯 글자를 깎아내고 다시 금칠을 입히려면 실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찌 사내의 승려들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인가?

장무기가 고개를 돌리자 위일소와 범요가 마침 서로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본교의 형제들이 처리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양소는 승려들이 경악하는 것을 보더니 바로 말했다.

"귀사는 복택심후(福澤深厚) 공덕무량(功德無量)해서 열 여섯 분 존자의 금신은 완전 무결합니다. 어쩌면 공지대사님의 말씀대로 좀전에는 간인에게 훼손당했는데 십육존 나한께서 현령하여 즉시 자신들이 보완했을 겁니다. 실로 기쁘고 축하해야 할일입니다."

말을 하면서 나한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러자 장무기 등도 따라서 일제히 절을 했다.

공문, 공지 등은 물론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또 명교가 몰래 한 짓이라고 단정했지만, 어찌 되었던간에 본사에게 사과하는 뜻

으로 보완시켰으니, 그들의 분노도 많이 풀렸다. 하지만 마두들의 신출귀몰한 수단에 몹시 탄복하면서도 놀래서 겁을 먹고 있었다.
공문이 말했다.
"나한상은 원상태로 되었으니 이 일은 다시 거론하지 맙시다."
이윽고 손을 휘둘러서 나한상을 돌려 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했다.
"어젯밤 장교주께서 왕림하셔서 이미 노납의 세 분 사숙님을 뵈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도액 사숙님과 장교주님이 약정을 하셨다지요? 만약 장교주께서 우리 세 분 사숙님의 금강복마권을 돌파하면 사시주를 데려가라고 했다고요?"
장무기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도액 대사님께서 분명히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분 고승의 무공은 너무나 고심(高深)하셔서 적수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세 분 고승의 손에 패했습니다. 패군지장이 어찌 용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미타불, 장교주께서 과분한 말씀을 하시는구료. 어젯밤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게다가 교주께서 출수하여 도와준 것에 대해서 세 분 사숙님은 깊은 사의를 표하십니다."
양소, 범요 등은 장무기에게 도액 등 삼승의 정묘한 무공에 대해서 들었기에 모두 한번 만나고 싶었다.
은천정이 말했다.
"소림의 고승들께서 무학의 고저(高低)를 갈기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교주님, 우리의 미천한 힘이나마 소림파의 절학을 가르침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형제를 구출하러 왔으니 실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림을 이끌고 있는 소림사에 와서 무례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무기는 외조부의 말을 항상 존중하였다. 또 별다른 좋은 방법

도 없는 것 같았다.
"비록 형제 여러분께서 제가 세 분 고승의 개세신공을 찬양하는 걸 들었지만, 그 세 분 고승께서는 수십 년 동안 좌관(坐關)하셔서 무림에는 그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운이 있어서 뵙게 된 것을 평생의 행운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러자 공지는 손을 들며 말했다.
"가시지요."
이윽고 군호를 데리고 뒤에 있는 산봉우리로 갔다.
명교의 홍수기 교도들은 장기사 당양의 분부대로 산봉우리 밑에 진을 치고 있었다. 매우 장엄한 성세였다. 공문 등은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치면서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공문, 공지는 합장하여 소나무 옆으로 다가가서 몸을 굽히며 보고했다.
도액이 말했다.
"양정천의 원한은 이미 어젯밤에 마무리지었고, 나한상의 일도 오늘 해결했다니 정말 잘 했다. 장교주, 당신들은 몇분이 나와서 싸울 거요?"
양소 등은 세 스님의 왜소한 몸이 소나무 줄기에 끼워 있는 것을 보더니, 마치 비쩍마른 시체 세 구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말소리가 계곡을 울리게 하는 것을 보면 내력이 엄청나게 심후한 것으로 여겼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했다.
'어젯밤은 나 혼자라서 그들 셋을 이기지 못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이 있다. 만약에 한꺼번에 덮쳐가면 장소가 너무 좁을 뿐더러 의다위승(倚多爲勝)하기 때문에 본교의 위풍을 꺾는 일이다. 많아도 나쁘고 적어도 안 되니 우리쪽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그들 셋을 상대하면 제일 공평하겠다.'
"어젯밤 제가 세 분 고승의 신공을 견식하고 나서 진심으로 탄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왕께서는 저와 부자의 은혜가 있고, 여

러 형제들과는 친구의 신의가 있기에 설령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를 꼭 구해야 합니다. 저는 교중의 두 분 형제에게 도움을 청해서 삼 대 삼으로 싸울까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도액이 담담하게 말했다.

"장교주께서 지나치게 겸손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귀교에서 또 한 분의 무공이 교주와 같은 분이 있다면 단지 두 분만 연수하게 되면 우리 세 늙은 대머리를 죽일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노납의 생각으로는 교주와 같은 무공을 지닌 사람은 이 세상에 또다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철관도인 등은 서로 쳐다보며, 이 중놈이 너무나 광망하여 천하의 영웅들이 안중에 없다는 듯이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말투에는 그래도 자신이 장교주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그런대로 겸손하다고 할 수 있었다. 주전이 입을 벌려 말을 하려는데 설불득이 재빨리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비록 폐교가 방문좌도(旁門左道)라서 귀파같은 명문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수백 년의 본바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소인은 기회가 있어서 잠시 교주의 직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식과 무공을 논한다면 폐교 중에도 소인을 능가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위복왕님, 수고스럽지만 이 명첩(明帖)을 세 분 고승에게 돌리십시오."

말을 하면서 명첩 한 장을 꺼냈다. 위에는 장무기, 양소, 범요, 은천정, 위일소 등등 이번 배산하러 온 군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위일소는 교주가 자기의 당세 무쌍한 경공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알았다. 즉시 몸을 굽히며 대답하고 나서 명첩을 받아 들었다. 몸이 채 똑바로 서기 전에 몸을 돌리지 않고 즉시 거꾸로 튕겨 나갔다. 마치 한 줄기 가벼운 연기처럼 수십 장 떨어진 세 그루

소나무 사이에 표연히 날아갔다. 이윽고 쌍장을 한 바퀴 둘려서 명첩을 도액에게 넘겨 주었다.

도액 등 세 승려는 눈깜짝할 사이에 바로 자기들 앞에 다가온 경공을 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더구나 그는 거꾸로 튕겨 왔으니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그만 자신도 모르게 칭찬을 했다.

"정말 대단한 경공이오!"

소림승들은 모두 무공을 볼 줄 알았기에 즉시 우뢰같은 갈채를 보냈다. 명교의 군호들은 비록 위일소의 경공이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이처럼 뒤로 거꾸로 튕기는 신법은 그들도 처음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각자는 자기편 사람을 칭찬하기 뭣해서 내심 탄복하여도 모두 소리를 내지 않았다. 유독 주전 한 사람만 박수치며 칭찬했다.

도액이 살짝 몸을 굽혀서 명첩을 받았다. 그이 다섯 손가락이 명첩에 닿는 순간 위일소의 전신은 한 차례 마비되었다. 마치 천둥에 놀란 것처럼 흉구가 뜨거워지며 하마터면 몸이 쓰러질 뻔했다. 그는 몹시 놀랬다. 얼른 운공하여 몸을 지탱하였다. 도액이 명첩을 받아가자 명첩에서 전해오던 한줄기 내경도 바로 사라졌다. 위일소는 안색이 변하며 이 노승의 내력이 정말 너무 깊어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되었다. 감히 더 머물지 못하고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해서 긴 풀 위로 미끄러지면서 장무기의 곁으로 돌아왔다. 이 초상비(草上飛)의 경공은 비록 특이한 것은 없지만 이처럼 마치 허공에서 날아다닐 정도로 연마하는 것도 신기에 가까운 것이다.

공문, 공지 등은 모두 생각했다.

'이 자의 경공 조예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인의 전수를 받았겠지만 그래도 천부적으로 타고 나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연마해도 절대로 이러한 경지에 도

달하지 못할 것이다!'

도액이 말했다.

"장교주께서는 귀교에서 세 분이 출전하신다더니 교주와 이분 위복왕 외 어느 분께서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위복왕께서는 이미 대사님의 내경신공을 가르침 받았으니 소인은 명교의 좌우 광명사자가 돕게 할 것입니다."

도액은 내심 놀랐다.

'저 소년의 안력은 대단히 예리하구나. 방금 내가 슬며시 떨친 내공은 단지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인데 그가 간파하였구나. 좌우 광명사자라니, 그렇다면 이 위가란 자보다 무공이 더 높단 말인가?'

그는 오랫 동안 좌관하였기에 양소의 명성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 더구나 범요는 나이가 많아지고부터 이름을 숨겨 왔으니 다른 사람은 당연히 그를 몰랐다.

양, 범 두 사람은 교주가 자기들 이름을 들먹이자 즉시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서 몸을 굽히며 말했다.

"교주님의 호령을 삼가 받들겠습니다."

"세 분 고승께서는 부드러운 병기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무슨 병기를 사용할까요?"

장, 양, 범 셋은 평소에 적을 맞이할 때 모두 빈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강적을 대하게 되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은 일법통(一法通) 만법통(萬法通)해서 무슨 병기든지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장무기의 그 말은 두 사람에게 편리한 것을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양소가 말했다.

"교주님의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했다.

'어젯밤에 하간쌍살에 짧은 것으로 긴 것을 공격하는데도 그런대로 덕을 보는 것 같았다.'

즉시 품안에서 성화령 여섯개를 꺼내더니 네개는 양, 범 두 사람에게 나눠주며 말했다.
"우리가 소림사에 배산하러 왔기에 병기를 소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본교의 진교보물이니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양, 범 두 사람은 몸을 굽혀서 받아들고 간략하게 사용법을 물어 보았다.
공지가 갑자기 큰소리로 외쳤다.
"고두타, 우리가 만안사에서 있었던 일을 어찌 이대로 지나칠 수 있겠소. 오늘 십향연근산을 복용하지 않았으니 각자 제 실력을 발휘해 봅시다!"
그는 만안사에 감금되었던 원기(怨氣)를 발산하지 못했다. 오늘 범요를 보는 순간부터 줄곧 울화를 참아왔는데, 이 때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이다.
범요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인은 교주님의 호령을 받들어 세 분 노승께 가르침을 받으려 합니다. 대사님께서 지난 날의 원수를 갚으려 하거든 이 일이 끝나는 대로 다시 상대해 주겠소."
공지는 곁에 있는 제자의 수중에서 장검을 받아들고 소리쳤다.
"네 실력으로 우리 세 분 사숙님과 싸우면 설령 죽지 않더라도 중상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원수는 갚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범요는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당신 사숙님 손에 죽더라도 마찬가지다!"
공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명교에는 각하 말고 또 다른 분의 고수가 안 계십니까?"
그의 이 말이 격장법이라는 것을 명교의 군호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만약에 이 말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도리어 소림파가

본교를 얕잡아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열로 따지자면 범요의 밑에는 바로 백미응왕 은천정이 있다. 장무기는 외조부의 나이가 많아서 외사촌인 은야왕을 출마하려 했는데 은천정이 한 걸음 내딛으면서 말했다.

"교주, 속하(屬下) 은천정이 나가겠소."

"외조부님께서는 연로하시기에 외삼촌을....."

"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세 분 고승보다는 적습니다. 소림파에 석덕기숙(碩德耆淑)이 있는데 우리 명교에는 노장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장무기는 외조부의 무공이 심담(深湛)하여 양소, 범요에 버금가고 외삼촌보다 훨씬 고강한 줄 알고 있었다. 만약에 그가 출전하면 몇 푼의 자신이 더 많았다.

"좋습니다. 범우사께서는 힘을 아끼셔서 나중에 공지신승에게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외조부님께 구원을 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천정은 대답하고 나서 범요에게 성화령을 받아들었다.

공문 법장이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세 분 사숙님. 이분 은 노영웅께서는 사람들이 백미응왕으로 칭합니다. 왕년에 자신이 천응교를 창설하여 혼자 힘으로 육대문파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영웅호한입니다. 이분 양 선생님께서는 내공과 외공이 겸비한 명교의 일류급 인물입니다. 곤륜, 아미 양파의 고수들도 그의 손에 많이 패했습니다."

도겁이 몇 번 웃으며 말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잠시 후 소림문파 제자의 무공이 어떠한지 구경하시죠."

세 스님이 흑색(黑索)을 한 번 휘둘자 마치 세 마리 묵룡(墨龍)처럼 세 겹의 원을 형성하였다.

장무기가 어젯밤에 세 스님과 결투할 때는 몹시 어두웠기 때문에 흑색의 경기(勁氣)로 상대방의 병기가 날아오는 것을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은 햇빛이 찬란하게 비춰서 세 스님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마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성화령을 거꾸로 돌려서 포권하며 몸을 굽히고 말했다.

"실례를 범하겠소."

이윽고 몸을 옆으로 하더니 바로 공격했다. 양소는 몸을 날려서 왼쪽으로 갔다. 은천정은 대갈일성하더니 오른손으로 성화령을 쳐들고 도난의 흑색 위로 후려쳤다. 그러자 당궁! 하며 소리가 나면서 색과 령이 맞부딪쳤다. 이 두 가지 괴상한 병기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도 매우 괴이했다. 두 사람의 팔목이 모두 심하게 한 번 울렸다.

'정말 대단하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을 굴렸다.

'세 스님의 흑색이 원을 형성하니 초수가 매우 엄밀하군. 비록 우리 세 사람이 연수하게 되더라도 사, 오백 초 안에는 절대로 격파할 수 없겠다. 그러니 우선 세 스님의 내력을 소비시킨 다음에 천천히 빈틈을 노려야 되겠구나.'

순간 흑색이 감겨오자 즉시 성화령으로 맞부딪치면서 상대를 공격하였다. 격투가 한끼 식사 시간 정도 지나자 장무기등 세 사람은 이미 색권(索圈)을 직경 일장 정도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세 스님의 색권이 작아질수록 저항력은 더욱 강해졌다. 세 사람은 한 발 앞으로 공격할 때마다 전보다 몇 배의 힘이 더 들었다. 양소와 은천정은 싸울수록 더욱 경악했다. 처음엔 삼 대 삼으로 격투를 벌였는데, 반 시간이 지나자 양, 은 두 사람은 점점 지탱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한께 도난에게 공격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러니 장무기는 혼자서 도액, 도겁 두 스님을 상대하며 격투했다.

은천정의 공격은 모두 강맹하였고, 양소는 갑자기 부드러웠다가

도 갑자기 강맹하면서 변화무쌍하였다. 이 여섯 사람중에 양소의 무공이 제일 보기 좋았다. 성화령 두 개는 그의 손 안에서 돌면서 춤추었다. 갑자기 검이 되었다가 갑자기 칼로 사용하고, 갑자기 짧은 창으로 변해서 자(刺), 타(打), 전(輾), 박(拍) 하더니 갑자기 판관필로 사용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왼손에 비수로, 오른손에는 강편으로 변하고, 왼손에는 철척(鐵尺)으로 변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서로 부딪쳐서 당궁당궁! 하는 소리를 내가며 적의 심신을 교란시켰다. 서로 격투한 지 사백초도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스물 두가지 병기로 변했다. 병기마다 두 가지 초식을 사용했기에 모두 마흔 네가지 초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공지는 소림파의 칠십 이 절예 중에서 열 한가지를 터득하였고, 범요는 천하의 무학을 훔쳐보지 못한 게 없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양소의 신기를 막상 보게 되자 속으로 탄복하였다. 주전과 양소는 평소에 갈등이 있어서 여러번 그와 쟁투한 적이 있었다. 지금 그는 쳐다볼수록 더욱 부끄러워했다.

'양소 저 자라새끼는 줄곧 나에게 양보했었구나. 전에는 난 그의 무공이 나보다 약간 높은 줄만 알아서 싸움할 때마다 운이 좋아서 나에게 일초 반식을 이겼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 나 주전은 그 자라새끼의 적수가 아니었구나.'

양소가 어떠한 초식으로 변하더라도 도난의 흑색은 두 사람을 상대해도 여전히 위세가 꺾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은천정의 머리에 흰 안개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자 그의 내력이 극치에 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흰 천으로 된 긴 도포가 천천히 부풀어오르며 옷 안에는 기류가 충만되었다. 그가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땅에는 죽인 하나씩 남겼다. 한 시간쯤 격투를 벌이자 세 그루의 소나무 둘레에는 그의 족인이 한바퀴 만들어졌다.

순간 은천정은 느닷없이 오른손의 성화령을 왼손으로 옮기더니 도난의 흑색을 한번 누르고 나서 오른손으로 일초의 벽공장(碧空

掌)을 후려쳐서 그에게 공격했다. 그러자 도난은 왼손을 쳐들고 다섯 손가락을 허조(虛爪)하더니 다시 주먹으로 쥐어 같이 일장을 후려쳤다.

공지, 공문 등은 일제히 으응 하며 소리를 질렀다. 소리에는 경악과 탄복이 동시에 충만되어 있었다. 원래 도난이 그에게 되돌려 친 일장이 바로 소림 칠십 이 절예 중의 하나인 수미산장(須彌山掌)이었다. 이 장력은 연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설령 연성했더라도 출장할 때마다 필히 좌마운기(坐馬運氣)하여 오랫 동안 정신을 집중시켜야만 내경을 단전에 모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도난은 자유자재로 출장하였고, 바로 따라서 흑색을 한번 휘둘더니 다시 양소에게 덮쳐가며 공격했다.

그러나 도난이 수미산장으로 은천정과 대장(對掌)하더니 흑색의 경력이 절반 이상 감소되었다. 그는 즉시 교묘한 수법으로 감소된 경력을 보충했다. 그러자 흑색의 놀림은 마치 예민한 뱀이 요란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양소의 성화령 두 개도 덩달아 변화무쌍하였다. 방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들 두 사람의 격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은천정은 정신 통일하여 기를 끌어올려서 일장씩 후려치며 갑자기 앞으로 두 걸음을 전진하더니, 또 갑자기 두 걸음 후퇴했다. 저쪽에서는 장무기가 일 대 이로 싸우고 있었다. 세 사람의 초식은 모두 괴이한 것이 없었고, 무도 내력으로 전개하여 결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처럼 결투한 것은 은천정의 투력과 양소의 투교보다 사실은 더욱 위험한 것이다. 만일 내력이 상대방에게 눌려서 잘못 들게 되면 즉시 죽지 않더라도 주화입마(走火入魔)하게 되어 미쳐버리는 일은 보통이다. 다만 이처럼 결투를 벌이면 오직 당사자만이 고통을 알지 방관자들은 아무리 무공이 높다해도 그들 세 사람의 초식에서 식별할 수 없는 것이다.

태양이 차츰 서쪽으로 기울어지자 공문, 공지, 범요, 위일소 등

고수들은 이때 승부의 실마리를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은천정의 머리 위의 하얀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도액이 앉아있던 그 소나무의 솔잎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액과 도겁 이승의 공력도 전보다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 이쯤 되자 도액은 소나무에 등을 기대어 나무의 힘을 빌어서야 장무기의 구양신공을 상대할 수 있었다. 만약 은천정이 지탱하지 못하면 그는 바로 명교가 진 것이다. 만약 도액이 먼저 막아내지 못한다면 바로 소림파의 패배다.

출수하며 서로 결투를 하는 여섯 사람은 이런 사실을 더욱 명백히 알고 있었다. 은천정은 도난과 서로 장력을 겨룬 지 삼십 여 장이 지나자, 이미 자기가 그의 적수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오늘의 목적은 사형제를 구하는 일이다. 나 개인의 승부영욕에 무슨 상관있단 말인가. 더구나 소림파의 선배고수의 손에 패하는 것이므로 내가 패하더라도 백미응왕의 위명이 손상된다고 할 수 없다.'

이윽고 일장을 겨루고 나서 바로 뒤로 반 발자국 후퇴했다. 십여 장을 겨루게 되자 이미 일장 밖으로 후퇴하여 있었다.

수미산장은 소림파의 칠십 이 절예 중의 하나이며, 도난은 이 장법을 수십 년 동안 연마하였기에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났다. 은천정이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도난의 장력은 바로 한 걸음 진격했다. 경력은 거리를 멀리 끌어내도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양소가 잠시 생각했다.

'이 소림승은 과연 대단하구나. 내 성화령의 초수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끝내 그를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다. 백미응왕께서 혼자 내경을 감수하고 있으니 시간이 길어지면 아마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이윽고 성화령 두 개를 합치면서 흑색을 휘어잡아 그와 똑같이 힘으로 맞서서 은천정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려 했다. 그러나 뜻

밖에 흑색을 휘어잡는 순간, 도난이 손목을 한 번 휘두르자 흑색은 곧장 위로 올라오며 양소의 면문으로 공격해왔다. 그러자 양소는 재빨리 성화령을 도난의 흉구로 던지며 쌍장을 한번 돌려서 색두(索斗)를 휘어잡았다. 일초의 도예구우미(倒曳九牛尾)를 전개해서 힘껏 밖으로 끌어당겼다.

도난은 그의 병기가 출수하여 암기처럼 날아오는 것을 보자, 즉시 왼쪽 팔꿈치를 살짝 내려서 왼쪽 가슴으로 날아오는 성화령을 눌러갔다. 그러자 다른 한 개는 중간에서 갑자기 방향을 돌리더니 휫 하는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도겁에게 날아갔다. 그 두 개의 성화령 중 도난에게 공격한 것은 허(虛)였고 도겁에게 공격한 것은 온몸의 내력으로 발사한 것이다.

도겁은 마침 장무기와 전력으로 대항하고 있었다. 게다가 도난이 이미 양, 은 두 사람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보았지만, 양소가 갑자기 괴상한 초수로 도습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깜짝 놀라는 사이에 성화령은 이미 면문에 다가왔다. 도겁은 심신이 약간 혼란되면서 살며시 손가락 두 개를 뻗어 그 성화령을 집어 버렸다. 그러나 그 때 그는 장무기와 전력으로 내경을 겨루고 있던 터라 어찌 이처럼 삼신이 나눠지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순간 지금까지 몸 담고 있던 큰 소나무는 끊임없이 휘청거리며 솔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마치 한차례 쏟아지는 소낙비 같았다. 장무기는 상대방의 빈틈을 포착하자 즉시 건곤이위심법으로 그에게 맹렬히 공격했다. 잠시 후 팍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도겁의 그 소나무 위에 있는 작은 가지들이 하나하나 울려서 떨어졌다.

도액은 위급한 형세를 보게 되자 벌떡 일어나서, 몸을 한 번 흔들더니 이미 도겁의 곁에 다가가서 왼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도겁은 사형 도액의 도움을 받고서야 몸을 다시 진정시킬 수 있었다.

저쪽에서는 도난과 은천정, 양소가 이미 각자의 진력으로 겨루는 상태가 되어서 생사가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상태에 돌입했다. 양소는 흑색의 한쪽 끝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으며, 은천정은 파산쇄비(破山碎碑)의 웅혼한 장력으로 끊임없이 도난에게 공격했다. 양대 고수가 하나는 끌고 하나는 밀고 있었다. 두 줄기 경력은 정반대였다. 도난의 몸이 그 사이에 있어서 비록 힘은 몹시 들었으나 여전히 패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방관하는 명교의 군호와 소림승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모두 전전긍긍하며 자기편 사람을 걱정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세 그루 소나무 사이의 지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양좌사, 은대형, 무기야, 나 사손은 양손에 온통 피로 물들어 있어서 벌써 죽었어도 여한이 없소. 오늘 당신들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소림의 세 분 고승과 쟁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쌍방에서 누군가 다시 손상된다면 사손의 죄는 더욱 무거워질 뿐이오. 무기야, 넌 빨리 본교의 형제들을 이끌고 소림사에서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자절경맥하여 죄악의 증가를 막을 것이다!"

바로 사손이 사자후 신공으로 지하 감옥에서 말한 것이다. 왕년에 그는 왕반산도에서 사자후로 각방 각파의 수많은 호사(豪士)들을 진사(震死) 진혼(震昏)하였다. 비록 지금은 이 신공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고막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울렸다. 그만 서로 마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장무기는 의부의 말을 듣자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자 사손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무기야! 아직도 안 갔느냐!"

"알겠습니다. 삼가의부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낭랑한 소리로 말했다.

"세 분 고승의 무공은 과연 신묘합니다. 오늘 명교가 격파하지 못해서 훗날 다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외공, 양좌사 그만 손을 거두시오."

말을 하면서 경기를 거두며 도액, 도겁 이승의 흑색에서 발출한 내경을 튕겨서 되돌려 보냈다.

양소와 은천정은 그의 호령을 들었지만, 마침 전력으로 도난과 겨루고 있기 때문에 손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은천정의 앞으로 다가가더니 쌍장을 휘둘러서 도난과 은천정이 좌우에서 기습하는 장력을 막아냈다. 바로 따라서 성화령을 내밀어 도난의 흑색 중단에 올려 놓았다. 마침 흑색은 도난과 양소가 서로 당기고 있어서 마치 힘껏 당긴 활시위 같았다. 장무기의 성화령이 위에 올려지자 건곤이위심법의 신공이 즉시 양단에서 전해지는 맹경을 분산시켰다. 흑색이 힘없이 땅으로 떨어지자 양소가 재빨리 줏어들었다.

도난의 안색이 변하며 말을 하려는 찰나 양소는 두 손으로 흑색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대사님의 병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도겁은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곁에 있는 두 개의 성화령을 주워 그에게 돌려주었다.

조금 전에 치른 일전으로 인해 소림 고승들은 더 이상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도액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폐관한 지 수십 년만에 당세 영걸을 만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오. 장교주, 앞으로 무림을 위해 큰 별이 되어주길 바라오."

장무기는 공손하게 몸을 숙였다.

"대사님의 분부를 항시 명심하겠습니다."

도액이 다시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이곳에서 장교주의 세 번째 왕림을 기다리겠

소."

장무기는 정색을 했다.

"물론 다시 찾아뵈올 겁니다. 사법왕은 바로 저의 의부님이며 태산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신 은인이기도 합니다."

도액은 장탄식을 하며 눈을 지긋이 감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